연구보고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최인재 강경균 송민경 조윤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저 자 최인재, 강경균, 송민경, 조윤정

연 구 진 **연구책임자_**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강경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_ 송민경(경기대학교 교수)
_ 조윤정(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_ 김가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_ 이유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bstract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자원과 정책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검토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사업들 중 그간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예컨대, 청소년안전망,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다함께돌봄 등의 변화된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들 사업 간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와 체계 마련을 위해 현행 법령과 조례를 탐색하였고, 기존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방안과 내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사례 선정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규모별, 운영주체별 구분을 하였고, 해당 섹터 내 우수 사례 추천을 받아 최종 선정하였다. 먼저 국내 사례로는 청소년 기관(시설) 중심의 네트워크 사례인 동작구, 창원시(진해구) 사례, 지자체(재단) 중심의 네트워크 사업인 고양시와 완주군 사례와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네트워크 협력 사례인 세종시 및 의정부시 사례를 살펴보았다. 외국 사례는 프랑스, 영국,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이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2차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시범사업은 곡성군, 유성구 및 부천시 등 3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1차년도에는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의체 구성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체계 구축 등이 과업이었다. 2차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지역사회 이슈를 반영하여 협의체 내 분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협의체의 질적 성장은 물론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운영의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3개 지역 모두 과업을 완수하였고, 지역별 성과를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협의체의 1차년도와 2차년도 변화 양상을 비교 검토하였고, 시범사업 참여의 효과성에 대해 양적 ·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성 분석 결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본 사업에 참여한 성인들에게도 사업 참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범사업 담당자, 협의체 위원, 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 · 제도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과 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먼저 서면조사를 통해 조사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고, 보다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FGI를 통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일련의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4개의 정책과제 (①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체계 마련, ②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활성화, ③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④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지원체계 마련)와 12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지역사회 네트워크, 청소년 성장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자원과 정책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사업들 중 그간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예컨대, 청소년안전망,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다함께돌봄의 변화된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들 사업 간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였음. 한편,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현행 법령과 관련 조례를 탐색하였고, 기존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방안과 내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시범사업)** 1차년도에 이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2차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음. 시범사업은 곡성군, 유성구 및 부천시 등 3개 지역에서 시행되었음. 1차년도에는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의체 구성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체계 구축 등이 과업이었음. 2차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지역사회 이슈를 반영하여 협의체 내 분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협의체의 질적 성장은 물론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 **GIS(지리정보체계) 분석:** 시범사업 운영지역별 참여기관의 분포를 지리정보체계를 기반으로 전년도와의 차이를 중심을 분석하였음.
- **네트워크 분석:** 시범사업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소속된 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 변화에 대해 시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음.
- **양적 · 질적 효과성 분석:** 시범사업 운영과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였음. 분석은 사전-사후 설문지를 통한 양적 분석과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음.

● **(현장면접조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의 우수사례에 관해 현장 6곳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사전에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였고, 연구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기관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과 본 연구의 시사점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 **(전문가의견조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과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 대상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원, 학계, 공무원, 법·제도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였음. 조사 방식은 1차 서면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FGI를 통해 중점사안에 대해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워크숍 및 콜로키움)** 시범사업 지역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음. 워크숍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방안 등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그리고 네트워크 우수사례에 대한 특강과 시범사업 지역 간 논의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였음.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사업에 관한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분석의 역량 제고와 효율적 사업운영 방안을 논의하였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여성가족부, 교육, 지자체 공무원 등과 4차에 걸쳐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음.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사업 간 연계 가능성과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음.

3. 주요결과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네트워크 사업의 변화 및 법·제도 현황 분석

- 최근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들은 보편적이며, 통합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교육부에서는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재단이나 시설 내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모형을 만들어 가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도 지역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음. 향후 지역에서 이들 자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들을 새롭게 개편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협력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명시될 필요가 있고,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자치법규(조례)들의 검토를 통해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력관계 구축 등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구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2) 국내·외 사례 수집 및 분석

- 청소년 기관(시설) 중심 사례인 서울시 동작구 사례(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사례(진해청소년수련관)는 모두 청소년수련관(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곳으로 두 시설 모두 수련관 인근에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통합지원(one-stop)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고, 개별 시설장의 역량이 크게 발휘되는 지역임.

- 재단 중심의 네트워크 사례인 고양시는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를 허브 기관으로 청소년 진로지원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 있고, 특히 유스프리존이라는 플랫폼이 지역 자원들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 한편, 완주의 경우는 지자체 주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활성화된 지역으로 관 주도형 아동·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가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잘 확립되어 있음. 최근 들어 완주군은 그간 공적 전달체계 중심의 네트워크 사업 중심에서 지역사회 민간 자원의 발굴과 연계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네트워크 협력 사례인 세종시의 경우 시청과 교육청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마을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특히 생활권마다 갖추어져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를 통해 마을방과 후 사업을 활발하게 이끌어가고 있음. 의정부의 몽실학교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협력 사례를 대표하는 곳으로 청소년 주도의 프로젝트와 학교 연계 체험형 교육과정이 잘 구축되어 있음. 청소년들은 정책마켓 등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삶의 주체로서 주도성을 배우게 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음.
- 외국 사례 중 프랑스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기관들과 어떻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잘 나타내는 사례임. 학교가 교육의 일차적 공공기관으로 학업성공(1차 교육연계망)과 교육성공(2차 교육연계망)을 목표로 삼고 있음. 교사가 네트워커가 되고 지역사회개발 담당 공무원이 협조하는 구조임. 영국은 교육부에서 학교교육뿐 아니라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관련 정책을 총괄하면서, 지역사회 내 여러 자원에 대한 이해와 사업을 파악하고, 네트워킹을 담당하고 전담하는 기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덴마크도 프랑스나 영국과 유사하게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이루어지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모든 활동을 교육의 차원으로 접근함. 지자체에서의 지원도 적극적이며, 관련 업무를 직접 전담하고 있음.

3) 시범사업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곡성군, 유성구 및 부천시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음. 1차년도 주요과업은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의체 구성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체계 구축 등이었음. 2차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지역사회 이슈를 반영하여 협의체 내 분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협의체의 질적 성장과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운영의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3개 지역 모두 과업을 완수하였고 지역별 성과가 도출되었음. 곡성군의 경우 곡성미래교육센터가 올해 곡성미래교육재단으로 개편되면서,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였음. 한편, 학교밖청소년 협동조합 운영과 학습메이트 활동을 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환경 변화에 맞추어 청소년성장박람회를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방식의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음.
- 유성구의 경우 특히 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분과네트워크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유성구청과 유성구 의회 및 교육청과의 협력관계도 1차년도에 비해 긴밀하게 이어나갔음.
- 부천은 기존 공공영역 중심의 네트워크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시도를 하였고,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또한 100인의 부천에꿈을 통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였음. 한편, 네트워크 파티 2.0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 간 소통과 만남의 장을 개최하였음. 이 밖에 부천형 혁신교육네트워크,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음.

● 이상의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분석과 협의체 참여 기관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협의체의 1차년도와 2차년도 변화 양상을 비교 검토하였음. 향후 지역사회 민·관·학 참여 기관들의 확장과 지역의 공동 아젠다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시범사업 참여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양적·질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사전-사후 설문지를 통한 사업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전반적으로 사업 참여집단이 사전에 비해 사후검사의 점수가 조금씩 더 높아진 결과들을 확인하였음.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분석 결과에서도 본 시범사업 참여로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 리더십 역량, 시민성 역량 등 전반적인 역량이 향상되었음. 특히 사업에 참여한 성인들에게도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4) 법·제도의 개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방안 도출

●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기존의 청소년육성의 관점에서 '성장'의 관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에 청소년 성장지원 및 협의체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최근 지자체 및 교육청 간의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협력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민·관·학 거버넌스가 사업 운영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함. 향후 자유학년제 및 고교학점제 확산과 관련하여 청소년시설의 역할 확대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4. 정책제언

● 이상의 일련의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비전, 정책목표 및 4개의 정책과제와 12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음.

비 전 : 지역과 청소년이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미래사회 구현

정책목표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환경 조성
2.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 기반 마련
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참여 주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체계 마련	1-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을 위한 이념 정립 1-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3.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활성화	2-1.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 2-2. 지역별 이슈 및 청소년 욕구를 반영한 분과 네트워크 운영 2-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주관기관의 유형에 따른 운영 체계 마련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3-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신뢰성 제고 3-2.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네트워크와의 연계협력 강화 3-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지원체계 마련	4-1.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4-2. 지자체 내 청소년 전담공무원 배치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4-3.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지원체계 마련

차 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II

연구보고 20-R11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연구 추진체계 ····· 6
   1) 2019년도(1차년도)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 6
   2) 2020년도 주요 연구 내용 ····· 9
   3) 연구 추진체계 ····· 11
3. 연구방법 ····· 12
   1) 문헌연구 ····· 12
   2) 전문가 자문회의 ····· 12
   3) 현장 면접조사 ····· 13
   4) 시범사업 운영 ····· 13
   5) 전문가 의견조사 ····· 14
   6) 기타 연구방법 ····· 15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네트워크 사업의 변화 ·· 19
1)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망 ····· 19
2) 교육부-지자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 23
3)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다함께돌봄사업 ····· 26
2.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 · 제도 현황 ····· 29
1) 법체계 및 제 · 개정 절차 ····· 29
2)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령 ····· 36
3)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조례) ····· 39
3. 소결 ····· 46

Ⅲ.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국내·외 사례

1. 국내 사례 ····· 52
1) 서울시 동작구(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52
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진해청소년수련관) ····· 70
3) 경기도 고양시(고양시청소년재단) ····· 86
4) 전라북도 완주군 ····· 106
5) 세종특별자치시 ····· 127
6) 경기도 의정부시 ····· 147
2. 국외 사례 ····· 163
1) 프랑스 사례 ····· 163
2) 영국 사례 ····· 189
3) 덴마크 사례 ····· 219

Ⅳ.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1. 시범사업 운영 개요 ····· 243
2. 시범사업 추진 현황 ····· 244
1) 시범사업 지역 현황 및 1차년도 사업 추진 결과 요약 ·· 244
2) 시범사업 지역별 2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 250
3)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기대효과 ····· 256

3. 시범사업 지역 2차년도 사업 운영 결과 ····· 257
1) 곡성군 ····· 257
2) 유성구 ····· 279
3) 부천시 ····· 313
4. 사업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331
1) 곡성 ····· 331
2) 유성 ····· 334
3) 부천 ····· 337
5. 시범사업 운영 지역 대상 네트워크 분석 ····· 341
1) 시범사업 운영지역의 기관 참여 네트워크 분석 방법 ···· 341
2) 지리정보 기반 시범사업 운영지역의 참여기관 분석 ···· 344
3) 시범사업 운영 지역 대상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분석 ····· 360
4) 소결 ····· 377

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효과검증

1. 양적분석 ····· 381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381
2) 조사대상 및 조사절차 ····· 381
3) 조사도구 및 조사 내용 ····· 382
4) 실험 설계 및 분석 방법 ····· 383
5) 분석 결과 ····· 384
6) 소결 및 시사점 ····· 399
2. 질적분석 ····· 402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402
2) 면담 참여자 및 조사절차 ····· 402
3) 조사 도구 ····· 403
4) 자료수집 및 분석 ····· 404
5) 분석 결과 ····· 405
6) 소결 및 시사점 ····· 419

Ⅵ. 법 · 제도 개선 및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 425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425
   2) 조사방법 및 절차 ····· 426
   3) 조사 대상 ····· 427
   4) 조사 내용 ····· 428
2. 전문가 서면조사 분석 결과 ····· 430
   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 ····· 430
   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 446
3. 전문가 면접조사 분석 결과 ····· 458
   1) 청소년의 '성장' 관점에서의 법·제도의 검토 ····· 458
   2)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개정의 방향 및 내용 ··· 461
   3) 지역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전반적인 사업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 466
   4)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 469

Ⅶ.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475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 475
   2)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2차년도) ····· 481
2. 정책제언 ····· 484

참고문헌 ····· 513

부 록 ····· 529

Abstract ····· 531

표 목차

표 Ⅰ-1 자문내용 및 일정 ····· 12
표 Ⅱ-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연도별 설치현황 ····· 20
표 Ⅱ-2 다함께돌봄 추진체계 ····· 26
표 Ⅱ-3 법 개정 절차 ····· 31
표 Ⅱ-4 지방자치법 제 3장 ····· 32
표 Ⅱ-5 조례의 제 · 개정 절차 ····· 34
표 Ⅱ-6 청소년기본법 제2조 2항 ····· 36
표 Ⅱ-7 청소년기본법 제8조 ····· 37
표 Ⅱ-8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장 제5조 ····· 38
표 Ⅱ-9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39
표 Ⅱ-10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1
표 Ⅱ-11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43
표 Ⅱ-12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44
표 Ⅲ-1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의 역할(동작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 ····· 61
표 Ⅲ-2 창원시 진해구 진로 · 직업체험 네트워크 발전과정 ····· 74
표 Ⅲ-3 창원시 마을학교 자문위원 ····· 76
표 Ⅲ-4 고양시 인구 현황 및 청소년 인구 비율 2016년~2018년 (8월 기준) ····· 87
표 Ⅲ-5 기관/시설의 연혁 및 주요 사업 내용(2019년 기준) ····· 89
표 Ⅲ-6 'Goyang Youth Free Zone' 참여 기관 및 단체 현황(2019년) ·· 91
표 Ⅲ-7 2019년 진로체험박람회의 체험주제 목록(진로지원활동 사례) ·· 96
표 Ⅲ-8 완주군 인구통계 2016년~2019년 ····· 108
표 Ⅲ-9 완주군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주요 청소년관계 기관/시설 및 공적 인프라 현황 ····· 109
표 Ⅲ-10 2019년 완주군 지자체 주도의 아동 ·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영역 및 주요 사업 개요 ····· 112

표 Ⅲ-11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을교육프로그램 ····· 129
표 Ⅲ-12 복컴 마을방과 후 시범사업(한솔동과 대평동) ····· 130
표 Ⅲ-13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 135
표 Ⅲ-14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교육전문가 자문단 ····· 137
표 Ⅲ-15 정책마켓의 정책제안 내용 ····· 152
표 Ⅲ-16 심층면접 참여자 ····· 172
표 Ⅲ-17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가치 ····· 196
표 Ⅲ-18 네트워크 전략 ····· 197
표 Ⅲ-19 네트워크 세부 사업 ····· 199
표 Ⅲ-20 네트워크 기관의 종류와 역할 ····· 203
표 Ⅲ-21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가치 ····· 206
표 Ⅲ-22 네트워크 세부 프로그램 ····· 214
표 Ⅲ-23 오르후스 지방자치정부 어린이-청소년과의 업무 ····· 222
표 Ⅲ-24 오르후스 지방자치체의 교육업무 ····· 225
표 Ⅲ-25 오르후스 지역의 청소년학교 목록 ····· 231
표 Ⅳ-1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현황 ····· 261
표 Ⅳ-2 분과네트워크 구성현황 ····· 268
표 Ⅳ-3 분과 실무자 네트워크 회의일정 및 논의사항 ····· 270
표 Ⅳ-4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284
표 Ⅳ-5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구성 현황 ····· 286
표 Ⅳ-6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실무진 회의 현황 ····· 287
표 Ⅳ-7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위원회 회의 현황 ····· 288
표 Ⅳ-8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구축 회의 현황 ····· 289
표 Ⅳ-9 2020 분과 네트워크 요구 내용 ····· 292
표 Ⅳ-10 유성구 학교밖 청소년의 요구 ····· 294
표 Ⅳ-11 유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요구(정책 제안 내용) ····· 295
표 Ⅳ-12 유성구어린이청소년의회의 요구(정책 제안 내용) ····· 296
표 Ⅳ-13 분과 네트워크-청소년, 어디가지? 네트워크 구성 ····· 300
표 Ⅳ-14 분과 네트워크 - EBS(Education Boongua Shuttle)
네트워크 구성 ····· 302
표 Ⅳ-15 분과 네트워크 - 고운누리 네트워크 구성 ····· 304
표 Ⅳ-16 분과 네트워크 - 낭만진로 네트워크 구성 ····· 306
표 Ⅳ-17 분과 네트워크 - 플레이 네트워크 구성 ····· 308
표 Ⅳ-18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현황 ····· 316
표 Ⅳ-19 부천시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현황 ····· 317

표 Ⅳ-20 부천시 청소년 성장지원 분과네트워크 명단 ····· 319
표 Ⅳ-21 네트워크 파티 소그룹별 이야기 주제 및 운영자 소속 ····· 323
표 Ⅳ-22 오정지역 아동 · 청소년시설 현황 ····· 327
표 Ⅳ-23 지역 내 청소년기관 및 시설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코딩 예시 ·· 342
표 Ⅳ-24 지역 내 청소년기관 및 시설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코딩 예시 ····· 343
표 Ⅳ-25 곡성군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참여현황 ····· 344
표 Ⅳ-26 유성구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참여현황 ····· 349
표 Ⅳ-27 부천시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참여현황 ····· 356
표 Ⅳ-28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네트워크 밀집도 (15개 기관 기준) ····· 361
표 Ⅳ-29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참여 네트워크 밀집도 (91개 기관 기준) ····· 366
표 Ⅳ-30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네트워크 밀집도 (27개 기관 기준) ····· 373
표 Ⅴ-1 조사영역별 내용 및 세부항목 ····· 383
표 Ⅴ-2 연구 실험 설계 ····· 384
표 Ⅴ-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85
표 Ⅴ-4 삶의 만족도 사전-사후검사 검증 결과 ····· 386
표 Ⅴ-5 문제해결 역량 사전-사후검사 검증 결과 ····· 388
표 Ⅴ-6 자아 역량 사전-사후검사 검증 결과 ····· 390
표 Ⅴ-7 성취동기 역량 사전-사후검사 검증 결과 ····· 392
표 Ⅴ-8 리더십 역량 사전-사후검사 검증 결과 ····· 394
표 Ⅴ-9 시민성 역량 사전-사후검사 검증 결과 ····· 396
표 Ⅴ-10 참여 및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점수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 398
표 Ⅴ-11 FGI 질문지 구성 ····· 403
표 Ⅴ-12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효과성 검증을 위한 FGI 면담 일정 및 내용 ····· 404
표 Ⅵ-1 조사방법 및 절차 ····· 426
표 Ⅵ-2 조사참여자 구성 ····· 427
표 Ⅵ-3 조사 문항내용 및 상세질문 ····· 428
표 Ⅵ-4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 431
표 Ⅵ-5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 사례 및 개선 사항 ····· 433
표 Ⅵ-6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성 요소 및 내용 ····· 435

표 Ⅵ-7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및 절차 ····· 437
표 Ⅵ-8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자치법규 사례 및 개선 사항 ·· 439
표 Ⅵ-9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구성 요소 및 내용 ·· 441
표 Ⅵ-1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및 절차 ····· 443
표 Ⅵ-11 기타 ····· 445
표 Ⅵ-1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 ····· 447
표 Ⅵ-1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방식, 역할,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 449
표 Ⅵ-14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나 관련 유사 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사항 ····· 451
표 Ⅵ-15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 453
표 Ⅵ-16 지역사회 각 주체의 역할 및 개선 사항(행정영역) ····· 455
표 Ⅵ-17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타사항 ····· 457
표 Ⅶ-1 청소년 '성장' 관점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 488
표 Ⅶ-2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예시) ····· 490
표 Ⅶ-3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조례의 구성 요소 및 내용(안) ····· 492
표 Ⅶ-4 OO년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지구 사업 공모 계획(예시) ···· 494
표 Ⅶ-5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전문 인력 역량강화 연수(예시) ·· 495
표 Ⅶ-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제9조 ····· 509

그림 목차

그림 Ⅰ-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1차년도 개념도) ····· 8
그림 Ⅰ-2 3개년도(2019~2021)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 10
그림 Ⅰ-3 2020년도 연구추진 체계도 ····· 11
그림 Ⅱ-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전달과정 · 20
그림 Ⅱ-2 청소년안전망팀 운영(안) ····· 21
그림 Ⅱ-3 미래형 혁신교육 생태계 구축내용 ····· 23
그림 Ⅱ-4 공동협력센터 및 마을교육자치회 구축(안) ····· 25
그림 Ⅱ-5 다함께돌봄사업 수행체계 및 온종일돌봄체계 ····· 27
그림 Ⅱ-6 법체계 및 효력의 우열관계 ····· 30
그림 Ⅲ-1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의 종합지원센터 운영체계도 ····· 55
그림 Ⅲ-2 동작구 청소년지원협력망 네트워크 및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추진체계 ····· 56
그림 Ⅲ-3 동작구 청소년지원시설 지도 ····· 57
그림 Ⅲ-4 동작구 청소년지원협력망 영역별 구성 및 관련 기관/시설/지역협의회 ····· 58
그림 Ⅲ-5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체계 ····· 60
그림 Ⅲ-6 창원시 진해구 진로 · 직업체험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 주체 ····· 75
그림 Ⅲ-7 마을교사협의회 조직 ····· 78
그림 Ⅲ-8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의 '꿈길' 운영체계도 ····· 94
그림 Ⅲ-9 진로교육지원단 운영체계도 ····· 95
그림 Ⅲ-10 완주군 행정구역 현황도 ····· 107
그림 Ⅲ-11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완주군의 민 · 관 · 학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 모형 ····· 115
그림 Ⅲ-12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의 교육자원발굴육성네트워크사업 운영모형도 ····· 116

그림 Ⅲ-13 '꿈길' 진로체험 운영 컨설팅 체계도 ····· 117
그림 Ⅲ-14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모형도 ····· 117
그림 Ⅲ-15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연계 · 협력관계 ····· 133
그림 Ⅲ-16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비전과 목표 ····· 134
그림 Ⅲ-17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참여학습모임 실무분과협의회 운영 프로세스 ····· 136
그림 Ⅲ-18 의정부 몽실학교 조직도 ····· 150
그림 Ⅲ-19 2017년에 실시한 정책마켓 포스터 ····· 151
그림 Ⅲ-20 의정부 지역사회 네트워크 ····· 154
그림 Ⅲ-21 프랑스 1차 교육연계망 사례: 크레테일 교육청 우선교육 네트워크 ····· 167
그림 Ⅲ-22 프랑스 2차 교육연계망 ····· 168
그림 Ⅲ-23 파리시 자치구 지도와 18구 ····· 169
그림 Ⅲ-24 아미로 쎙프롱 지역의 위치 ····· 171
그림 Ⅲ-25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네트워크 조정자와 연계해 회의를 하는 모습 ····· 178
그림 Ⅲ-26 초등학교 프랑스어 수업시간에 중학교 프랑스어 교사가 수업을 하는 장면 ····· 180
그림 Ⅲ-27 우트릴로 우선교육 네트워크 조정자 크리스티나 ····· 183
그림 Ⅲ-28 파리시청 지역사회개발정책부 팀장 엘렌 ····· 183
그림 Ⅲ-29 Partnership for London이 추구하는 변화이론 ····· 193
그림 Ⅲ-30 Healthy London 파트너십 키워드 ····· 205
그림 Ⅲ-31 2017-2018 서비스 영역별 증가율 ····· 208
그림 Ⅲ-32 2017-2018 서비스에 대한 지인 추천 정도 ····· 209
그림 Ⅲ-33 2017-2018 개인 안전 체감도 ····· 209
그림 Ⅲ-34 2017-2018 서비스 연계에 대한 만족도 ····· 210
그림 Ⅲ-35 2017-2018 네트워크가 기관 고유 사업 수혜자에게 미친 영향 정도 ····· 210
그림 Ⅲ-36 2017-2018 네트워크가 기관 고유 운영 목적 달성에 미친 정도 ····· 211
그림 Ⅲ-37 2017-2018 Young Westminster Foundation ····· 213
그림 Ⅲ-38 DreamArts 변화 이론 ····· 215
그림 Ⅲ-39 15개 지역(덴마크어: Region레기온) ····· 220
그림 Ⅲ-40 98개 지방자치체(덴마크어: kommune코무네) ····· 220
그림 Ⅲ-41 오르후스 어린이-청소년과 ····· 223

그림 Ⅲ-42 오르후스 지방자치체의 지역구조와 담당업무 ····· 226
그림 Ⅲ-43 Coop Crew 프로젝트 참여 지방자치체 분포도 ····· 235
그림 Ⅳ-1 곡성군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 251
그림 Ⅳ-2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지구 모형(안) ····· 252
그림 Ⅳ-3 유성구 시범사업 추진 내용 및 절차 ····· 253
그림 Ⅳ-4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 262
그림 Ⅳ-5 청소년성장지원체 실무자 회의 ····· 263
그림 Ⅳ-6 곡성군청소년성장박람회 리플렛 ····· 267
그림 Ⅳ-7 분과 네트워크 회의 장면 ····· 272
그림 Ⅳ-8 석곡중학교 방과후아카데미 모델 ····· 274
그림 Ⅳ-9 다얼협동조합 프로그램 진행 ····· 275
그림 Ⅳ-10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모형(2차년도) ····· 278
그림 Ⅳ-11 사업 추진 전략 ····· 280
그림 Ⅳ-12 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 ····· 281
그림 Ⅳ-13 2020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요구조사 과정 ····· 291
그림 Ⅳ-14 2020 청소년연합회 회의 장면 ····· 293
그림 Ⅳ-15 2020 분과 네트워크 구성현황 ····· 298
그림 Ⅳ-16 분과 네트워크 회의 장면 ····· 299
그림 Ⅳ-17 분과 네트워크 - 청소년, 어디가? 성과 ····· 301
그림 Ⅳ-18 분과 네트워크 - EBS(Education Boongua Shuttle) 성과 303
그림 Ⅳ-19 분과 네트워크 - 고운누리 성과 ····· 305
그림 Ⅳ-20 분과 네트워크 - 낭만진로 성과 ····· 307
그림 Ⅳ-21 분과 네트워크 - 플레이 성과 ····· 310
그림 Ⅳ-22 유성구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MOU 체결 ····· 311
그림 Ⅳ-23 2020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포럼 “성장톡톡” ····· 311
그림 Ⅳ-24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2차년도 모형(안) ·· 312
그림 Ⅳ-25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실무협의체 회의 장면 ····· 320
그림 Ⅳ-26 부천혁신교육네트워크 활동 장면 ····· 321
그림 Ⅳ-27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포스터 및 활동 장면 ····· 321
그림 Ⅳ-28 2020년도 ‘100인의 부천에꿈’ 홍보활동 ····· 323
그림 Ⅳ-29 부천시 네트워크 파티 2.0 ····· 324
그림 Ⅳ-30 청소년 참여단 활동 ····· 325
그림 Ⅳ-31 오정지역 아동 · 청소년시설 전경 ····· 328
그림 Ⅳ-32 2020년도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모형 ····· 329

그림 Ⅳ-33 2020년도 부천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시범사업 운영 체계 ····· 330
그림 Ⅳ-34 곡성군 협의체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전체지역 ·· 345
그림 Ⅳ-35 곡성군 협의체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세부지역 ·· 346
그림 Ⅳ-36 곡성군 협의체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동북부지역 ·· 347
그림 Ⅳ-37 곡성군 협의체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서부지역 ·· 347
그림 Ⅳ-38 곡성군 협의체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남부지역 ·· 348
그림 Ⅳ-39 곡성군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좌:2019년, 우:2020년) ····· 348
그림 Ⅳ-40 유성구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전체지역 ·· 350
그림 Ⅳ-41 유성구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세부지역 ·· 351
그림 Ⅳ-42 유성구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관평동 일대 ····· 351
그림 Ⅳ-43 유성구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전민동 일대 ····· 352
그림 Ⅳ-44 유성구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장대동 일대 ····· 352
그림 Ⅳ-45 유성구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신성동 일대 ····· 353
그림 Ⅳ-46 유성구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원신흥동 일대 ····· 353
그림 Ⅳ-47 유성구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대정동 일대 ····· 354
그림 Ⅳ-48 유성구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좌:2019년, 우:2020년) ····· 355
그림 Ⅳ-49 부천시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전체지역 ·· 356
그림 Ⅳ-50 부천시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세부지역 ·· 357
그림 Ⅳ-51 부천시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오정구 일대 ····· 357
그림 Ⅳ-52 부천시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원미구 일대 ····· 358
그림 Ⅳ-53 부천시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소사구 일대 ····· 358
그림 Ⅳ-54 부천시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좌:2019년, 우:2020년) ····· 359

그림 Ⅳ-55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네트워크 ····· 361
그림 Ⅳ-56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변화 ····· 362
그림 Ⅳ-57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IN) 네트워크 ··· 363
그림 Ⅳ-58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OUT) 네트워크 364
그림 Ⅳ-59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네트워크 ····· 365
그림 Ⅳ-60-A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변화(2월~6월) ·· 366
그림 Ⅳ-60-B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변화(7월~10월) ·· 367
그림 Ⅳ-61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IN) 네트워크 ····· 368
그림 Ⅳ-62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OUT) 네트워크 ·· 369
그림 Ⅳ-63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네트워크 ····· 370
그림 Ⅳ-64-A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변화(1월~5월) ·· 371
그림 Ⅳ-64-B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변화(6월~10월) ·· 372
그림 Ⅳ-65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IN) 네트워크 ··· 375
그림 Ⅳ-66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OUT) 네트워크 ·· 376
그림 Ⅴ-1 지역별 참여집단의 삶의 만족도 사전-사후 점수 ····· 387
그림 Ⅴ-2 지역별 참여집단의 문제해결 역량 사전-사후 점수 ····· 389
그림 Ⅴ-3 지역별 참여집단의 자아 역량 사전-사후 점수 ····· 391
그림 Ⅴ-4 지역별 참여집단의 성취동기 역량 사전-사후 점수 ····· 393
그림 Ⅴ-5 지역별 참여집단의 리더십 역량 사전-사후 점수 ····· 395
그림 Ⅴ-6 지역별 참여집단의 시민성 역량 사전-사후 점수 ····· 397
그림 Ⅴ-7 시간에 따른 집단 간 변화 ····· 399
그림 Ⅷ-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1차년도 개념도) ····· 481
그림 Ⅷ-2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2차년도 개념도) ····· 483
그림 Ⅷ-3 정책과제 발굴 과정 및 절차 ····· 484
그림 Ⅷ-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485
그림 Ⅷ-5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분과네트워크 체계도(안) ····· 497
그림 Ⅷ-6 '20년 부천시 네트워크 파티 2.0과 100인의 부천에꿈 홍보물 ····· 500
그림 Ⅷ-7 지역사회 내 관련 네트워크와의 협력관계 ····· 502
그림 Ⅷ-8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조직도 및 일반직 정원표 ····· 507
그림 Ⅷ-9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정책 과제 추진 계획 ····· 510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 추진체계
3. 연구방법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생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근대 산업화 이후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사회계층 간 격차도 커지게 되었다.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 가정의 기능 약화로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사회적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의 책무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장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예컨대 2011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사업에서는 학교와 교육청, 마을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고, 지역 내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혁신교육지구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강민정, 안선영, 박동국 2018). 이 사업은 전통적인 학교 교육의 외연을 확장하여 학교와 마을(지역)이 함께 연계 협력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한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18). 보건복지부 내 유사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주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면, 다함께 돌봄 사업은 맞벌이 가정 중심의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1) 이 장은 최인재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연속과제의 특성상 1차년도 과제의 일부 내용을 재인용하였음.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으로는 '청소년안전망'사업[2]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공적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2006년 5개 시·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214개 시군구, 231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이 사업에서는 정신건강문제, 가출, 폭력피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안전망'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라는 기존의 명칭을 2019년 7월부터 청소년안전망으로 변경하였고, 지자체 내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각 부처별 사업이 서로 분절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사업의 중복성이나 유사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물론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책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민간영역에서도 지역의 특성과 이슈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행 기관의 네트워크 역량의 부족과 정책 지원 시스템, 법·제도적 근거의 미흡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수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지역기반의 청소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12개 중점과제에서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4-2)"를 설정하였고, 지역사회 관련 세부 추진과제들을 계획하였다. 또한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4-1)"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지역" 지정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한 지역 내에 청소년들에게 통합적이고 상호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누구나 소외됨 없이 청소년 활동, 교육, 복지 등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은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청소년들에게

2) 방과 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의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도 있다.

전달(지원)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 사업 간 칸막이가 있었던 기존의 구조를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구'에서 지역사회 내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로 연계협력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추진 체계이다(최인재 이윤주, 송민경, 조윤정, 2019).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와 협력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의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 방향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현을 위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자원과 정책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 마련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총 3개년 간 진행되는 연구이다. 2019년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수행되고 있는 중앙부처의 네트워크 정책들을 탐색하였고, 국내·외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거버넌스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 곳의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지역 내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구축된 협의체를 보다 활성화하고 본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도 및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변화된 정책과 사업들에 관해 검토하였다. 또한 2차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지역사회 내 자원의 지속적 발굴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지역 내 이슈의 발굴과,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분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자원 간 연계협력을 통한 사업 수행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보다 심화·발전된 형태의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연구내용 및 연구 추진체계

1) 2019년도(1차년도)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절에서는 먼저 이 연구의 1차년도 연구내용과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이어서 금년도 연구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차년도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의 개념을 검토하였고,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주요 개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중앙부처에서 시행중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사업 간 연계 가능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사례들을 수집·분석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방법은 문헌고찰과 국내 사례의 경우 현장 면접 방법을 병행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시범사업 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다. 지역 선정은 지역특성과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지역별로 1개씩 총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정책 실행 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모형개발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1차년도 연구내용 중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모형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 연구를 통해 다음 [그림 Ⅰ-1]과 같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은 지역에 따라 인프라 환경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시된 모형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과정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협의체 구성을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구성 요건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Ⅰ-1]에 제시된 모형의 핵심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구성주체, 운영주체 및 운영 방식 등과 관련된다.[3] 먼저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핵심 구성 영역은 크게 행정, 공공, 민간 세 영역의 축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4], 행정영역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해당된다. 지자체에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이 교육지원청은 "(가칭)지역사회협력전담장학사"가 배치되어 행정영역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담당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영역은 학교, 청소년유관기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공공 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영역에는 시민단체(NPO), 청소년, 마을활동가, 의료·상담기관, 마을(교육)공동체, 각종 지역협의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구성 주체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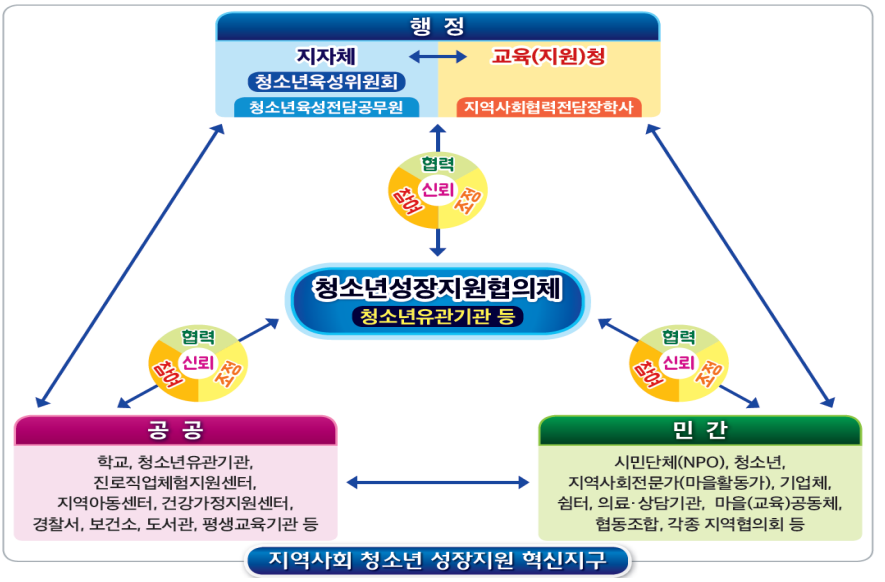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 주체는 지자체 직영, 재단, 청소년유관기관이나 민간기관 위탁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성장지원이라는 핵심 가치가 협의체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행정, 공공, 민간영역이 서로 유기적, 협력 관계가 구축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먼저 각 주체 간 주기적 만남과 소통을 통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협의체 내의 공통된 목적과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각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조정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 의사결정의 권한도 일정 정도 협의체에 위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의체 내 의사소통 구조가 관주도의 위계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

3) 1차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지역 내 행정, 공공, 민간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에 주요 목적이 있었다. 2차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역 내 과제 도출과 도출된 과제의 해결 및 지원을 위해 분과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보다 실질적인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4) 아래 기술되는 협의체 구성, 운영주체, 운영방식 등에 관한 내용은 1차년도 보고서(최인재 외, 2019)의 내용을 수정·요약하여 제시하였음.



* 출처: 최인재 외 (2019).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Ⅰ.

그림 Ⅰ-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1차년도 개념도)

1차년도 연구에서는 [그림 Ⅰ-1]에 제시된 추진체계 이 외에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사회 구현"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였고,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환경 조성,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 기반 마련,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참여 주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3개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정책과제로는 1. 법·제도 제·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조성, 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설립 및 운영체계 마련,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지원체계 강화 등 4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고, 1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2) 2020년도 주요 연구 내용

(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 현황 및 법·제도 분석

1차년도에 수행한 중앙부처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그간 변화된 정책과 사업들을 수집·분석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조례 등에 관한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관련 국내·외 사례 수집 및 분석

1차년도 연구의 경우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협력 거버넌스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지역사회 주체 간 네트워크 사업에 관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보다 발전된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을 개발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시범사업 운영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1차년도에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내 분과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청소년 성장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개발 및 정책방안 마련

문헌고찰,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 분석, 시범사업 운영 및 전문가의견조사 등의 연구과정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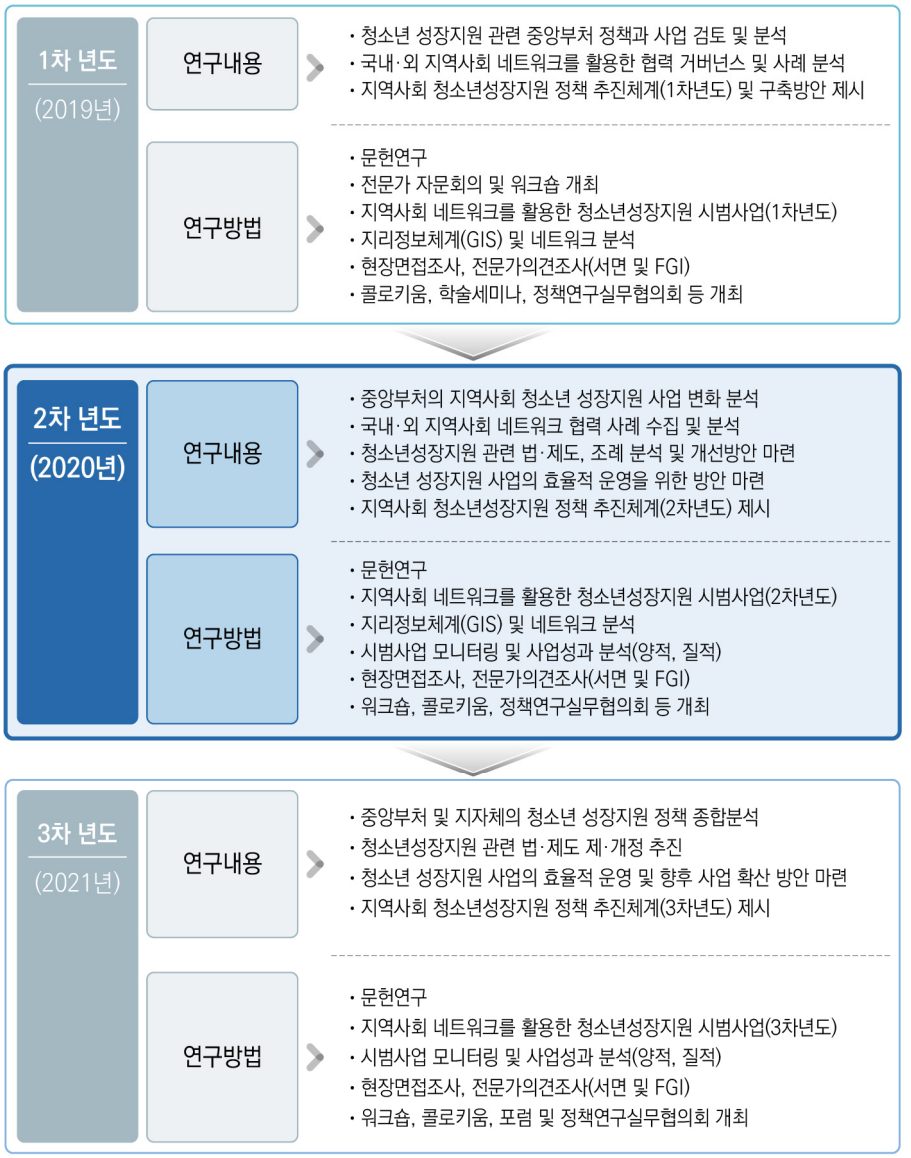


그림 Ⅰ-2 3개년도(2019~2021)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3) 연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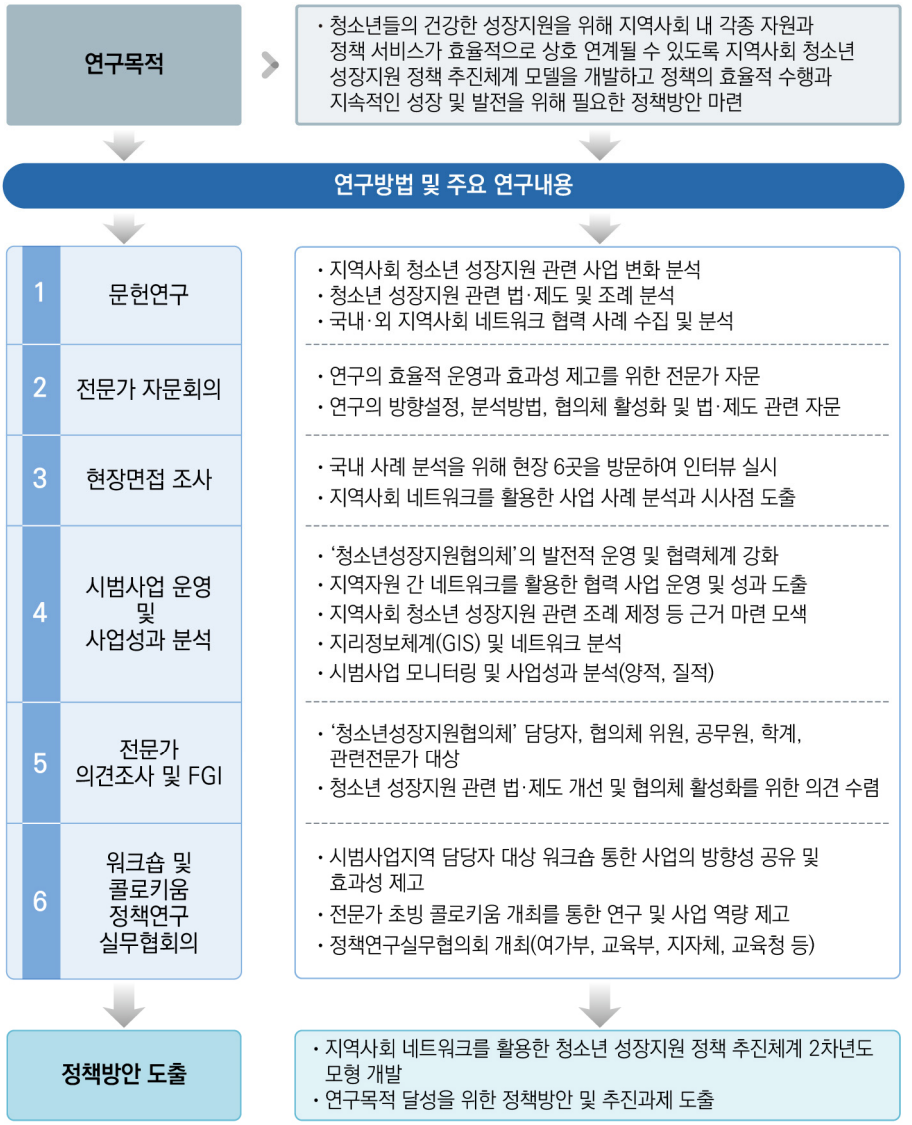


그림 I-3 2020년도 연구추진 체계도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부처 사업 중 변화된 정책 환경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본 사업의 방향 설정과 운영에 관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현행 법령을 탐색하였다.

한편,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성장지원 관점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 혁신교육지구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하여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수행되고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의 효율적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지역사회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학계, 현장 전문가 및 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구 방향과 진행과정 그리고 분석방법, 협의체 활성화 방안 및 법·제도의 개선, 정책과제 등에 관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Ⅰ-1 자문내용 및 일정

차수	자문내용	자문진	개최 시기
1~3	연구 추진방향,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등	현장전문가, 학계, 공무원	1~3월
4~5	네트워크 분석, 협의체 활성화방안 등	현장전문가, 학계	5~6월
6~8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 자문	관련전문가	7~9월

3) 현장 면접조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의 우수사례 현장 6곳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현장 방문 지역의 선정은 지역 분포와, 특성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선정하였다. 사전에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였고, 연구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기관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과 본 연구의 시사점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4) 시범사업 운영

○ 시범사업 및 Working Group 운영

1차년에 이어 곡성군, 유성구 및 부천시에서 2차년도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시범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진과 관련 전문가 및 시범사업 지역 대표단으로 구성된 Working Group을 운영하였다. Working Group 운영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의 방향과 진행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사항이나 논의 사항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논의하고 대응하는 회의를 진행하였다.

○ 지리정보체계(GIS) 및 네트워크 분석

1차년에 이어 시범사업 운영지역별 참여기관의 분포와, 협의체 참여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지리정보 분석을 위해 지역별 환경 분석을 토대로 시범사업 운영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의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특히 기관의 위치, 분포, 밀집도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1차년도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차년도의 지역별 특성과 사업 수행 진행 과정에 따른 상태를 기관과의 긴밀성과 확장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별 데이터에 기반하여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중심성을 측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밀집도, 평균경로길이 등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징과 시범사업 운영지역 내 기관의 밀집 정도를 측정하였다.

○ 시범사업 성과 분석(양적 · 질적 분석)

시범사업 담당자,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위원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성장지원 사업 참여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양적 분석에서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참여 구성들에 대해 사전, 사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참여에 따른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질적 분석에서는 사업 담당자, 협의체 위원 및 사업 참여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본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현장 인터뷰,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해 제공되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보고서와 현장 자료 수집을 통해 본 사업의 질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5) 전문가 의견조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과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원, 학계, 공무원, 법·제도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내용은 법·제도 제·개정 및 개선방안 마련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 방식은 1차 서면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FGI를 통해 중점사안에 대해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6) 기타 연구방법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MOU 체결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고, 시범사업지역 지자체와의 MOU 체결을 하였다.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부처 사업 간 연계 가능성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자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의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횟수	주요내용	부처	개최시기
2회	연구의 방향 논의 및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 구축관련 논의	여성가족부	2, 10월
2회	마을교육공동체 및 방과후돌봄, 학교 연계 방안 논의	교육부	2, 11월
2회	MOU 체결 : 시범지역 지자체와의 MOU체결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 방안 논의	지자체 (부천시, 유성구)	6월

○ 워크숍 및 콜로키움

시범사업 지역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방안 등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네트워크 우수 사례에 대한 특강과 시범사업 지역 간 논의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사업에 관한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분석의 역량 제고와 효율적 사업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횟수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2회	워크숍: 시범지역 대상 사전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네트워크 사례 등	현장, 학계, 공무원 등 15명 내외	2, 6월
1회	콜로키움: 네트워크 분석 관련	학계, 연구진 등 20명 내외	8월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네트워크 사업의 변화
2.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 · 제도 현황
3. 소결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5)]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네트워크 사업의 변화

이 절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검토한 중앙부처별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6)]관련 사업 중 변화된 사항을 살펴보고, 관련 사업들의 최근 동향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정책)과 관련하여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정책 수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망

청소년 정책 중 청소년 보호체계는 1964년 내무부의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로부터 시작되어 주로 문제청소년에 대한 선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이후 1998년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육성과 아울러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대상으로써 구체적인 보호대책들이 수립되었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청소년보호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정재우, 2020).

정부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공적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 Net: CYS-Net)를

5) 이 장의 1절은 최인재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고, 2절은 강경균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고, 3절은 공동집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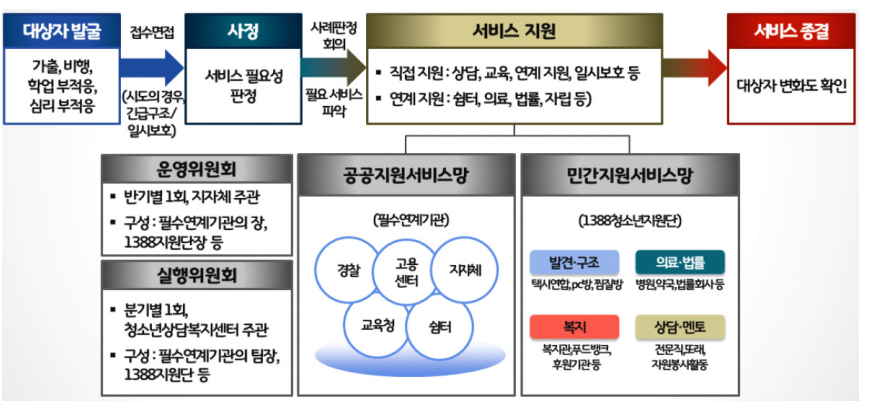
6)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필요와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협력체계”(최인재 외, 2019)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CYS-Net은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위기청소년[7]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18). 현재 전국 231개 지자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표 II-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연도별 설치현황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시 · 도	5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7
시 · 군 · 구	-	52	65	81	150	170	174	180	184	206	208	210	214
합 계	5	68	81	97	166	186	190	196	200	222	224	226	231

* 출처: 정재우(2020). 포용국가 실현의 첫걸음, 청소년안전망, 새로운 시작과 지역사회의 책무. 경사연리포트, 17.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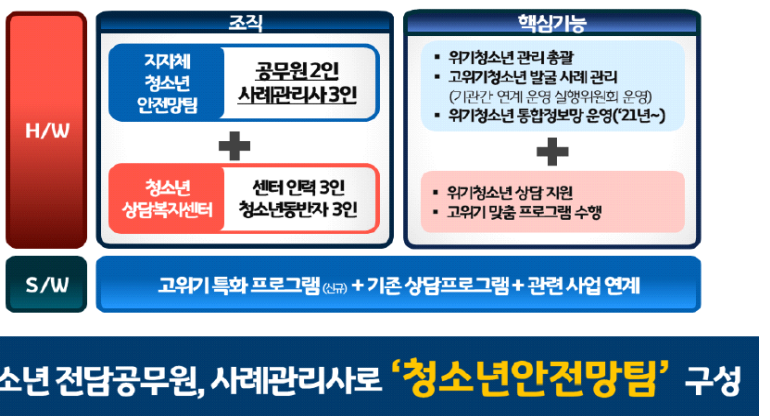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 청소년안전망의 새로운 변화 모색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 p.24.

그림 II-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전달과정

7)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4항).

하지만, 최근 청소년 집단폭력 및 자살·자해 등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CYS-Net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① CYS-Net에 대한 용어의 어려움과 이해 부족, ②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의 한계, ③ 필수연계기관의 위기청소년 연계의 한계 등이다(정재우, 2020).

여성가족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CYS-Net의 명칭을 2019년 7월부터 '청소년안전망'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운영되던 이 사업을 지자체 내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여, 청소년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사례연계와 지속적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청소년안전망 시범사업(서울 노원구, 부산 사하구, 광주 광산구, 경기 수원시, 전북 부안군, 이상 5개소)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서울 노원구, 송파구/ 부산 사하구/ 울산 남구/ 경기 군포시, 수원시, 파주시/ 전북 부안군, 이상 9개소)이 실시되고 있다.



* 출처: 정재우(2020). 포용국가 실현의 첫걸음, 청소년안전망, 새로운 시작과 지역사회의 책무. 경사연리포트, 17.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림 II-2 청소년안전망팀 운영(안)

여성가족부에서는 2020년 선도 사업에 이어 2021년에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선도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개요(여성가족부, 2020)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 목적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 모형 개발과 법·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청소년 중심의 욕구·위기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고위기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신규 서비스 개발에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시·군·구 내에 전담 조직을 갖추고,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공무원 2인+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2~3인으로 '청소년안전망팀'을 구성(단, 청소년 인구 5만 이하의 지자체는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공무원 1인+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2인 이내 구성 가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안전망팀은 시·군·구 지역 내에 설치하며, 전담공무원과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가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매년 지역 내의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며, 지역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분석 및 지역 위기청소년정책개발이다.

한편, 청소년안전망 지원기구(협의체 및 회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 기구의 세부사항으로는 기관장, 전문가 중심으로 위기청소년 사업 전반 관련 자문, 논의 및 결정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반기별 1회 이상)가 있고, 실무자 중심으로 위기청소년 발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 방안 논의 및 결정을 담당하는 실행위원회(분기별 1회 이상)가 있다. 또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과 관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담당자, 고위기 전담 동반자 등을 중심으로 고위기청소년 통합사례관리 방안에 관해 논의와 결정을 담당하는 통합사례위원회(월 2회 이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발굴되거나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혹은 타기관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된 (고)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과 연계 서비스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솔루션회의로 구성된다.

2) 교육부-지자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그간의 사업운영으로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 혁신을 이루어 내고 있고, 공교육혁신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또한 학교와 마을(지역)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과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이루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2019, 1,714개교→2020 1,942개교)에도 불구하고 혁신동력의 미약, 제도적 문제 및 혁신학교 학력저하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여전하다.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협력 부족과 통합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새로운 "혁신교육 생태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2020). "혁신교육 생태계" 구축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우수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미래형 혁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공동체 복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출처: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2020). 2020년 혁신학교(지구) 지원 기본계획(안). 내부자료.

그림 II-3 미래형 혁신교육 생태계 구축내용

교육부에서는 또한 혁신교육지구의 우수심화모델 개발을 통한 자생적 변화를 추구하고, 협력적 행·재정적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혁신교육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총 11개 지구(서울-성북, 도봉, 부산-사하, 울산-중구, 경기-시흥, 충북-충주, 옥천, 충남-공주, 전남-순천, 곡성, 구례)를 선정하였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2020). 먼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설치·조직하는 것이다. 협력센터는 학교·교육(지원)청과 마을·지자체를 연계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다음으로는 읍면동단위 마을 마을교육자치회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연계하여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내 교육특위(분과) 형태의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혁신학교 선도 사업으로 자율학교 확대를 통해 역량 있는 교장 초빙, 교원 장기 근무, 지역사회 학습장을 활용한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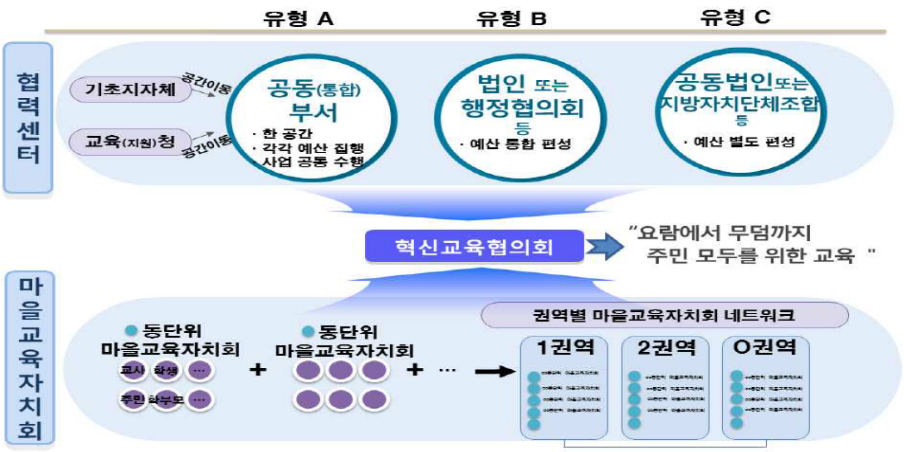
이 밖에 교육부 내 사업과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 우수모델 개발을 위한 중앙-시도단위 맞춤형 지원단 구성을 통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성과관리체제의 일환으로 공동 목표설정, 프로그램별 스토리텔링 발굴 등 성장 중심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미래교육지구 우수모델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가칭)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은 그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교육협력센터와 같은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우수 협력적 모델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사업이다. 이처럼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은 지역의 교육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 공동협력센터 역할(안) >



< 공동 협력센터 및 마을교육자치회 구축(안) >



* 출처: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2020). 2020년 혁신학교(지구) 지원 기본계획(안). 내부자료.

그림 II-4 공동협력센터 및 마을교육자치회 구축(안)

3)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다함께돌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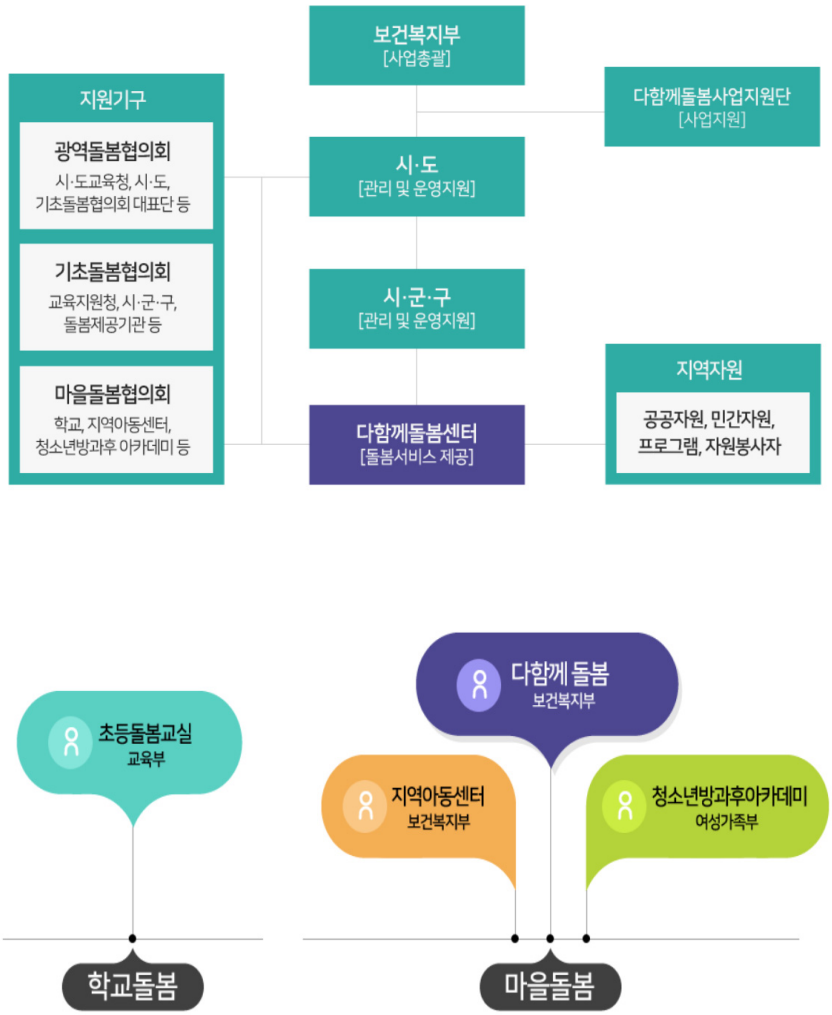
다함께돌봄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17년 7월, 공모사업으로 10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었다. 다함께돌봄 사업 내용은 1차년도에 조사한 내용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변화·발전되어 가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로 이 사업은 당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 시작되었으나, 2019년 4월 16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항이 시행되면서, 돌봄사업의 중추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8]의 역할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 밖에 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이용료, 이용아동 수, 운영시간, 종사자 자격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지원 등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서 사업 관련 내용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다(보건복지부, 2020).

표 II-2 다함께돌봄 추진체계

추진 주체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 수립,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제도개선 - 평가 및 컨설팅, 현장지도·점검 등 사업관리 총괄 -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 자원 연계를 위한 부처 간 연계 및 조정 등
다함께돌봄 사업지원단	- 평가 및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 시설운영 지원 - 다함께돌봄사업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 다함께돌봄사업 홍보 및 연구·조사 등
시·도	-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시·군·구 사업 지도·점검 및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 광역 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연계·조정 등
시·군·구	-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센터 설치·운영 - 예산집행 및 지도·점검 등 센터 운영관리 - 기초 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연계·조정 등

8)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 출처: 다함께돌봄 홈페이지. https://dadol.or.kr/biz/biz_system에서 2020년 10월 30일 인출.

그림 II-5 다함께돌봄 수행체계 및 온종일돌봄체계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 2020, 이하 센터)는 2018년 17개소가 설치·운영되다가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 12월 기준 17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1,800개소까지 센터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 센터의 운영은 지역 내 방과 후 초등돌봄(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까지의 초등학생) 아동의 거점 기능 수행을 위해 공공과 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돌보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체계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면, 아동의 안전한 보호, 등·하원지원,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간식지원,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제공, 자녀돌봄 관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유형은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인 상시돌봄과 학교 휴업, 이용자의 긴급사유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인 일시돌봄으로 나누어진다.

센터의 설치·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으로 운영하거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도 가능하다. 수탁자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해당된다(보건복지부 2020). 돌봄서비스 신청은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나 온라인[9] 등으로 돌봄서비스 신청한 후,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서비스를 받는 순서로 되어 있다.

다함께돌봄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방과 후 돌봄의 공백을 해결하고 맞벌이 가정, 취약계층의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9) 다함께돌봄사업 홈페이지(www.dadol.or.kr) 또는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2.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 · 제도 현황

이 절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추진에 있어 근간이 되는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자 한다.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령을 검토하기에 앞서, 법의 체제 및 제·개정 절차를 살펴볼 것이며, 이후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령을 검토할 것이다.

법령 검토의 대상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의 검토를 통하여 현재 정부 및 지역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향후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성장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법체계 및 제 · 개정 절차

(1) 법체계[10)]

법령은 그 국가 또는 사회와 그 구성원에 대해 해당 법령의 준수를 강제하고, 스스로도 그러한 규범을 지킬 것을 전제로 일정한 목적 하에 구성한 성문(成文)의 규범체계라고 정의한다(법제처, 2017:3) 대한민국 법체계는 헌법을 최상위로 하여 법 효력의 우열이 있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위 법규범은 하위의 법규범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위 법규범은 효력의 우열로 인하여 상위 법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 국민의 기본권 등에 관한 최상위 규범이다.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그리고 총리령(부령)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위임한

10) 법체계의 내용은 법제처(2017). 법령입안 · 심사기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서술함.

세부사항을 정한다. 이러한 법의 체제는 규정 간 효력의 우열 관계가 있으며 법규 간 효력은 헌법이 가장 상위이며, 다음으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순으로 우열 관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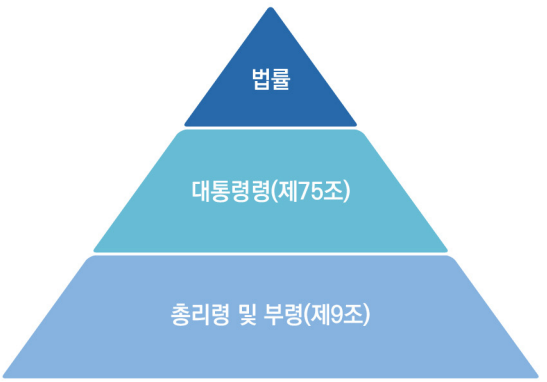


그림 Ⅱ-6 법체계 및 효력의 우열관계

(2) 법의 제정 및 개정 절차[11)]

법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해서는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선 헌법의 경우는 국민투표를 통해 제·개정하며, 법률의 경우는 국회(입법부)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한다. 대통령령은 대통령(행정부)이 제·개정하며, 총리령(부령)은 국무총리 혹은 장관이 제·개정한다.

법률 안을 발의하는 경우 주체에 따라 제정 및 개정절차가 다르며, 법령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에서 법률 안을 발의하는 경우 법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 법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법제처의 입법과정안내(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에서 7월 14일에 인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함.

표 II-3 법 개정 절차

구분		업무	소요시간
법령안 입안		국회의원 발의(의원 10명 이상의 찬성)또는 정부에서 발의함	약 30 ~ 60일
부패영향평가 등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성평등에 미칠 영향,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책과 제도의 집행 · 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자치분권 원칙에 대한 적합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 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	약 15 ~ 3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약 10일 이상
입법 예고		국민에 대한 법률안 예고 및 의견 수렴하여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	약 40 ~ 60일
규제 심사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의 타당성 및 영향 심사(규제개혁위원회)	약 15 ~ 20일
법제처 심사		법률안의 자구와 체계 등을 심사하여 원안을 수정 및 보완	약 20 ~ 30일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구(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으로 구성)	약 5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제출		법령안(법률안 · 대통령령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며, 이후 법률안 국회 제출	약 7 ~ 10일
국회 심의 ·의결	국회 소위원회 심사	법률안 내용 심사(해당 법률의 소관 상임위원회)	약 30 ~ 60일
	자구와 체계 심사	법률안의 지구와 체계 심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부의·의결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정부 이송		법률안 정부 이송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는 국무회의 상정 안건의 작성요령에 따라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	약 5일
대통령 서명·공포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공포	약 3 ~ 4일

국회에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는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생략되며, 법률안 입안 후 국회 본 회의 보고를 거쳐 입법 예고 후, 국회 소위원회 심사, 체계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 정부 이송, 대통령의 서명 공포로 진행된다. 그리고 대통령령을 재·개정하는 경우는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생략되며, 법률안 입안, 관계부처 협의,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의 서명 공포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총리령 및 부령을 제·개정하는 경우는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 및 국무회의 심의가 생략되어, 법률안 입안 후 관계부처 회의,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총리 또는 장관의 서명 공포로 진행된다.

(3) 조례의 제·개정 절차[12)]

조례는 지방차지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3장에는 조례와 규칙에 대한 법률이 명시되어 있으며, 조례와 규칙, 제정 절차, 보고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4 지방자치법 제 3장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12)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에 입법 및 제정절차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으며, 본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에서 2020년 7월 13일 인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출처: 지방자치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12738,20140603)에서 2020년 7월 13일 인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치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 분야를 대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며,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조례에 대한 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II-5 조례의 제·개정 절차

조례 개정 절차	업무 및 내용	근거 조항
조례안 발의	지방자치의 장, 지방의회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 제출	지방자치법 66조
조례안 심사 및 의결	-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며 본회의에서 의결 -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지방자치법 64조
조례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 공포 -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	지방자치법 26조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에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조례안을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지방의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그 조례안을 확정시킬 수 있음.	지방자치법 107조
조례 보고 및 통보	- 조례의 제정 · 개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 ·군구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시 · 도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보고 - 보고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지방자치법 28조

조례에 대한 제정 절차를 살펴보면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지방자치법 66조에 명시된 바, 지방자치의 장, 지방의회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 제출하며, 안건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후 의결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며, 지방자치법 26조에 의거 방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조례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 10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에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조례안을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그 조례안을 확정시킬 수 있다. 조례를 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치법규를 제·개정함에 있어 법령상 자문을 구하는 의견제시제도[13]가 있다.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및 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견제시제도는 전문적인 법제 및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가 자치법규 입법 및 해석에 관한 의견제시를 통해 자치법류를 제·개정함에 있어 입법기술사항이나 입안 단계의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것이다.

13)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내용은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7010000)에서 2020년 7월 13일에 인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2)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령

(1) 「청소년기본법」[14]

「청소년기본법」은 목적에 제시되어 있듯이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법령의 방향 제시에 중요한 자료이다. 아울러 이 연구의 1차년도에 제시하였듯이,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15]은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제1항을 토대로 개념화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된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내용은 청소년의 성장과 관련하여 여건과 환경지원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표 II-6 청소년기본법 제2조 2항

청소년기본법 제2조 2항(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 · 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 · 복지 · 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 출처: 청소년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liBgcolor0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14) 청소년기본법은 2019년 6월 19일에 시행된 법률 제15986호임.

15) 청소년 기본법(제2조)을 토대로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것"(최인재, 외, 2019).

청소년기본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조의 기본이념에 제2항에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성장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기본이념인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II-7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출처: 청소년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liBgcolor0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는 청소년이 청소년의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책임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요구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책임으로써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협력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책 마련이 요구된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16)]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청소년활동의 지원'의 당위성 측면에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준다.

표 II-8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장 제5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장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출처: 청소년활동진흥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undefined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장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제1항에서는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 성장지원 개념인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16) 청소년활동진흥법은 2018년 9월 14일에 시행된 법률 제15453호이다.

3)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조례)

청소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제도적 안정성이 요구되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한 법·제도 마련을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 혁신교육사업, 마을교육공동체 등의 지자체별 자치법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은 각 지역의 조례로 정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자치법규명은 주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명시되어 있으며, 2020년 5월 기준으로 120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관련 조례 중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9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청소년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은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의 권리증진 및 보호 등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청소년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청소년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청소년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출처: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B2%AD%EC%86%8C%EB%85%84%EC%9C%A1%EC%84%B1%EC%9C%84%EC%9B%90%ED%9A%8C#liBgcolor0dptj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조례를 살펴보면, 기능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청소년정책 및 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구성에 있어서는 지자체 의원, 공무원, 청소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의회의 의원, 교육청 공무원, 청소년지도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지자체, 청소년단체, 민간단체, 교육청 등 지역의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2) 혁신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는 마을과 학교, 교육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최인재 외, 2019). 혁신교육지구 관련 조례는 2020년 2월 기준으로 총 16건으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랑구), 인천광역시(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라남도 전남교육청,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구리시, 여주시, 파주시, 포천시)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치법규명은 주로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혁신교육지구의 선정 및 지정, 혁신교육지구 지원센터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 관련 조례 중 경기도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0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와 경기도 교육청, 파주시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파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협약에 의해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파주시 전 지역을 말한다.
2.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파주시와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파주시 관내의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5. “민·관·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행정기관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중략)

제4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색 교육 사업
2.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3.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년제 사업
4.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활용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사업
5.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비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의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제6조(전담기구의 기능)
제7조(협력관계 구축)
제8조(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생략)...

* 출처: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B2%AD%EC%86%8C%EB%85%84%EC%9C%A1%EC%84%B1%EC%9C%84%EC%9B%90%ED%9A%8C#liBgcolor0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3)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마을 내 청소년, 학부모 등을 포함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로 주로 혁신교육지구사업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조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내용에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이 포함되어 제시되어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는 2020년 2월 현재 14개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로 11개 시·도(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는 2개(부산광역시 북구·연제구) 지역이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는 법규명이 주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주요 내용은 기본원칙,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 사업 지원 및 선정,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학교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지자체 중에 대전광역시의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1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협력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전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 마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중략)
제3조(기본원칙)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마을교육공동체의 책무)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대전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대전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이하생략)...

* 출처: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A%B3%A1%EC%84%B1%EA%B5%B0%20%EB%AF%B8%EB%9E%98%EA%B5%90%EC%9C%A1%ED%98%91%EB%A0%A5%EC%84%BC%ED%84%B0%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20%EC%A1%B0%EB%A1%80#liBgcolor0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4) 기타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자치법규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혁신교육지구 및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 이외에도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여건 및 환경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곡성군의 경우,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의 경우 특히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센터의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 협력체계 구축, 공무원 파견, 운영비의 지원 등이다.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2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곡성군미래교육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필요한 창의교육으로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한 곡성군미래교육협력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곡성군 소유의 시설 또는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및 관내 학교 시설 중 하나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한다.

② 사업비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의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기능 등) 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교육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3. 지역사회 인적·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4.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학부모 등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6. 학교혁신 지원 사업
7. 청소년 지원 사업

8. 학생 진로체험 및 자유학년제 지원 사업
9. 곡성교육 포털 홈페이지 개발 운영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지원청 담당과장과 군 해당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곡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과 관내 학교 교직원
3. 곡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과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인 학생
4.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 및 전문가 등
⑤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교육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2. 교육센터의 기능 및 사업 수행
3. 교육센터의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 지역사회 의견 수렴
4. 교육센터의 사업방향에 대한 의제 발굴 (중략)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라남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교육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을 교육센터에 파견 받을 수 있다...(이하생략)...

* 출처: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A%B3%A1%EC%84%B1%EA%B5%B0%20%EB%AF%B8%EB%9E%98%EA%B5%90%EC%9C%A1%ED%98%91%EB%A0%A5%EC%84%BC%ED%84%B0%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20%EC%A1%B0%EB%A1%80#liBgcolor0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3. 소결

본 장에서는 먼저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처별 사업(정책)들 중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를 검토하였다.

먼저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각 부처 관련 기관(시설) 중심으로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다. 예컨대,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이나 보호,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 교육부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제고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의 한계에 따라 최근 전개되는 다양한 사업들은 보편적이며, 통합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지원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재단이나 시설 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모형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사업도 지역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지역에서 이들 자원들의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들을 새롭게 개편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령 및 지방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환경지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경우, 청소년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여, 청소년 성장지원의 법적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의 책임으로써 지역사회 기관 및 구성원들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법적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조례)들의 검토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이 제기된다. 예컨대, 혁신교육지구 관련 조례를 통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구축에 필요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 사항들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사회와 해당 지역에서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력관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조례의 구성 내용에도 일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자체 조례에서는 지자체의 의원을 포함하여 교육청, 민간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자치법규(조례) 가운데 청소년 성장지원 조례(안) 개발과 관련하여 곡성군의 미래교육협력센터 관련 조례의 경우, 교육센터의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 협력체계 구축, 공무원 파견, 운영비의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성장지원 조례 제정의 틀(Framework)과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제3장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국내·외 사례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III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국내 · 외 사례[17)]

이 장에서는 지역사회 자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사례들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선정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먼저 지역규모별, 운영 주체별 구분을 하였고, 해당 섹터 내 우수 사례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먼저 국내 사례로는 청소년기관(시설) 중심의 네트워크 사례인 서울시 동작구,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자체(재단) 중심으로 네트워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와 전라북도 완주군 사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중심의 네트워크 사례인 세종시와 경기도 의정부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은 네트워크의 단위나 운영 주체가 다양하나 크게는 이상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특히 세 번째로 제시한 형태는 향후 교육부의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청소년 개별 기관(시설)이나 재단의 네트워크 사업의 향후 방향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지구 사업이 향후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2차년도 연구에서 살펴본 국외 사례는 프랑스, 영국, 덴마크 사례이다. 이들 국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7) 동작구, 고양시, 완주군 사례는 송민경 교수(경기대학교), 진해구, 세종시, 의정부 사례는 조윤정 연구위원(경기도교육연구원). 프랑스 사례는 김민 교수(순천향대학교), 영국 사례는 박선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 덴마크 사례는 정해진 박사 (고려대학교)가 각각 집필하였음. 이 장의 일부 내용을 최인재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 · 보완하였음.

1. 국내 사례

1) 서울시 동작구(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1) 발전 연혁 및 기관 특성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는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하며, 보라매공원과 함께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설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1987년에 보람문화교실 및 상담실을 개설한 이래, 1990년에는 사회교육시설 개설, 2000년에 문화관광부 지정 시범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정되면서 동작구의 대표적인 청소년수련시설로 자리잡았다. 이후 꾸준히 기관의 사명과 역할을 청소년 활동뿐만 아니라 상담·복지·교육 등으로 확장하여, 2010년에 동작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명칭 변경, 2012년)를 개소하고, 2015년에는 동작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개소하였다. 이를 계기로,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는 청소년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상담·복지·교육 지원·보호 분야를 아우르는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종합시설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2019년 현재,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는 산하 기관으로 서울시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작구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이 모두 보라매공원 경계 내에 위치하여 통합지원(one-stop service)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자 문화체험 활동장으로 '공공성', 청소년 활동·교육·복지·보건·상담 등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여러 다양한 섹터(sector) 및 자원과의 연계·협력·조정을 강조하는 '총체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각 센터별로 살펴보면,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청소년 활동, 생명사랑 활동, 청소년 상담, 교육지원 활동의 총 4가지 분야로 운영하고 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활동의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활동, 활동프로그램, 어울림·동아리지원, 학교(지역)연계사업으로 나뉘어 실행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매월 2회 토요일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프로그램 및 시설 모니터링과 건의, 정책 참여 및 직접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여 프로그램 기획 및 제안, 타 지역 청소년운영위원회 간 교류활동 등이 이루어진다. 동아리활동, 활동프로그램, 주말프로그램, 어울림·동아리 지원사업은 모두 초등학교 5학년 이상부터 24세 이하(후기청소년)를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 활동, 문화·예술·봉사 및 재능·교류 활동 등을 청소년 스스로가 기획하거나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지원을 돕는다.

생명사랑 활동은 생명사랑프로그램과 생명사랑동아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사랑 활동의 목적은 자살 예방뿐 아니라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가족 참여 프로그램, 집담상담, 캠페인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은 매체상담, 개인상담, 심리상담, 생명사랑팔레트, 사회성프로그램으로 만 6세~24세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한 다양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진로체험 지원, 위기청소년 발굴,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심리 지원, 학교밖청소년 지원, 학교연계 집단상담 지원이 있다. 상담 형식으로는 매체상담, 개인상담, 심리검사, 사회성프로그램, 집단미술상담, 집단심리검사, 놀이상담, 미술상담, 모래놀이상담 등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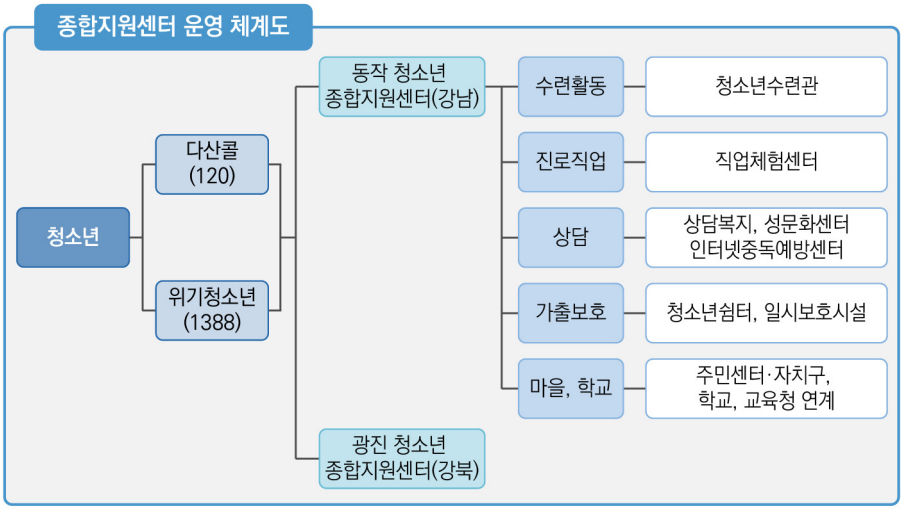
교육지원 활동으로는 생활교육프로그램, 보라매꿈꾸는나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 하고 있다. 생활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탁구, 당구(포켓) 강습이 열린다. '보라매꿈꾸는나무' 프로그램은 유아를 대상으로 인성, 영어, 자연친화, 잠재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평일 오후, 토요일, 방학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교과학습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을 비롯하여 NIE, 동아리활동, 생활체육, 북아트, 켈리그라피, 우쿨렐레 등과 같은 체험활동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보라매 IWill센터)는 전문적인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을 위한 기관으로 2009년 4월에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담(개인, 집단, 가족, 전문의연계, 심리검사)을 비롯하여 예방교육, 특화프로그램(캠프, 동아리, 부모교육, 전문종사자를 위한 교육), 교육청 연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동작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를 목표로 심리 및 정서지원, 상담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의 일원으로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에 참여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상담 · 보호 · 자립 등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 연혁에 맞추어 2018년에는 '동작구청소년지원협력망'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모델을 수행하는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편 동작구청소년지원협력망은 동작구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시설들뿐만 아니라 교육 · 복지 · 상담 · 보호와 관련한 비영리 사회서비스를 하나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연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면서 운영체계 및 역할 실행을 위해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와 광진청소년수련관에서 담당하고 있다(참고: [그림 Ⅲ-1], [그림 Ⅲ-2]).

동작구청소년지원협력망을 활용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모델은 청소년 활동 · 상담 · 보호 · 복지 및 진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 연계지원 조정 등 종합적이며, one-stop으로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출처: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2019). 성과보고회 사례발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그림 Ⅲ-1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의 종합지원센터 운영체계도

(2) 동작청소년종합지원센터(동작구청소년지원협력망)의 추진체계 및 운영모델

동작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모델은 각 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권역 중심의 '동작구 청소년지원협력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담당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모델'을 실행하고자 한다(참고: [그림 Ⅲ-2]).

동작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총 5개 영역(수련활동, 진로직업, 상담, 가출보호, 마을·학교)을 설정하고, 영역별 지역자원 지도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권역별로 각 영역에서 연계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적인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한 정보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사례관리, 영역별 협의체 운영, 청소년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동작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 및 의뢰, 동작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직접 서비스 제공 등이 모두 가능하다.

	의뢰	초기개입	서비스 제공, 연계
청소년 활동 정보 제공	120 / 대표전화의뢰 (유선) 개별(단체)의뢰(방문)	초기 면담을 통한 필요서비스 파악 (단순정보제공or방문독려)	영역별 협의체 논의 종합지원센터 직접 서비스 제공 안내 종합지원센터 연계기관 서비스 제공 안내
청소년 one stop 서비스	120 / 대표전화의뢰 (유선) 개별(단체)의뢰(방문)	욕구파악 (초기면담, 활동역량검사) 필요서비스 파악	영역별 협의체 논의 종합지원센터 직접 서비스 제공 종합지원센터 연계기관 서비스 제공



* 출처: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2019). 성과보고회 사례발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그림 Ⅲ-2 동작구 청소년지원협력망 네트워크 및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추진체계



* 출처: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2019). 성과보고회 사례발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그림 Ⅲ-3 동작구 청소년지원시설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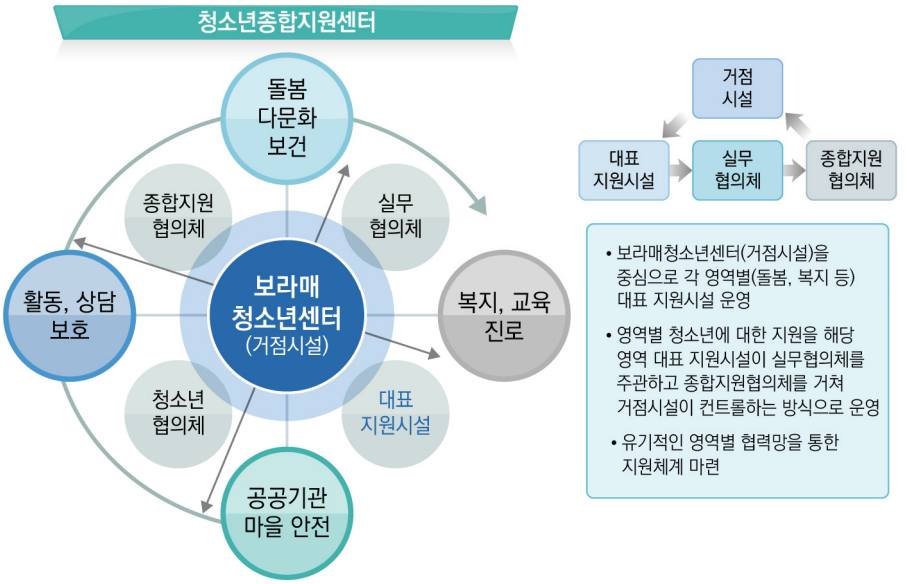
* 출처: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2019). 성과보고회 사례발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그림 Ⅲ-4 동작구 청소년지원협력망 영역별 구성 및 관련 기관/시설/지역협의회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외곽 지원조직으로서 '청소년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작구 청소년지원협의회는 영역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동작구 내 교육지원네트워크를 모두 포괄하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동작구공부방협의회, 서울동작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와 같은 마을공동체 영역도 청소년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어느 여타 지역이나 사례보다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를 갖춘 지역사회네트워크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참고: [그림 Ⅲ-3], [그림 Ⅲ-4]).

동작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모델에서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는 거점시설로 주요한 역할은 네트워크의 중개역할(coordinator)을 담당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기관과의 청소년 활동정보를 공유하고,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연계지원을 조정하며, 전문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연계 하거나 직접 개발 ·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9년에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센터 · 시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동작구청소년지원협력망 실무협의회와 청소년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그림 Ⅲ-5]에서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보라매청소년센터를 거점으로 종합지원협의체, 청소년협의체, 실무협의체가 각각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영역별로 실무협의체를 대표 지원시설이 주관하고, 이후 종합지원협의체를 거쳐 다시 거점시설이 중재 및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종합하면, 청소년 활동 · 교육 · 복지 · 보호 · 상담 등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각 사업 및 서비스를 청소년센터를 거점으로 상호 연계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종합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운영모델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발족하여 운영 중이다.



* 출처: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2019). 성과보고회 사례발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그림 Ⅲ-5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체계

동작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로서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은 정보 공유 및 연계 강화,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통합적 사례관리, 청소년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연계, 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으로 구분된다. 정보 공유 및 연계 강화는 지역사회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시설뿐만 아니라 동작구 내에 위치한 다양한 공공 인프라 및 민간자원을 연계·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알리거나 공유하고 상호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중심으로 활동을 지원하고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걸맞은 운영매뉴얼 등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운영모델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위기청소년들에게는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연계, 협력망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참고: 〈표 Ⅲ-1〉).

표 Ⅲ-1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의 역할(동작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

역할	주요 내용
정보 공유 및 홍보	• 지역사회 내 청소년 및 기타 시설의 프로그램 정보 구축 및 공유 • 지역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과 행사에 대한 정기적 안내, 홍보 및 정보 제공 • 홍보물 제작,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내 홍보물 게시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 지역 내 주민센터 등 협력으로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사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운영
통합적 사례관리	• 정신보건, 학교 · 가정 폭력, 현장취업, 교내 교사-친구들과의 갈등 상담 등의 사례별로 심도 있는 상담 지원 • 지역 및 사회단체 등과의 정보교환 등을 통한 지원 확대 • 청소년 one-stop 서비스 제공
청소년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연계	• 연계 기관 업무협약을 통한 청소년 지원네트워크 강화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공동사업 진행 및 참여
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	• 지역 내 다양한 전문가 인력풀을 모집하고 가동하여 종합지원센터 활동 및 성과 모니터링 • 청소년연계협력망을 기반으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서비스 제공 • 통합운영모델을 개발 및 개선

* 출처: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2019). '성과보고회 사례발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3) 동작구 청소년지역사회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특징 및 성과

동작구 청소년지역사회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은 Provan과 Kenis(2007)가 제시한 서비스전달(체계)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가 지자체와 같이 관료로 이루어진 공공 서비스기관은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 재정의 50% 이상을 지원받고 있으며, 시 위탁운영 형태로 지역사회 내 준(准)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니면서 통합적으로 청소년 활동 · 교육 · 복지 · 보호 · 상담 등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계된 정부주도형 지역사회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도 일부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 주도로 설계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네트워크 관리모형과 유사하지만 지역사회의 민간 및 비영리부문의 자원만으로 형성된 자생적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거버넌스와도 유사한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는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의 연혁을 통해 설립 자체부터 운영 원칙에 이르기까지 종교 기반으로 비영리 민간 부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통과 설립취지로 인하여 지역사회 내 비영리 민간 부문과의 상생적인 교류협력이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동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걸친 자생적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연계도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가 동작구 청소년지역사회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1990년대 이후 등장한 공공 부문의 사회서비스통합시스템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이나 기관 간의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내 서비스 통합 기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다수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기관이 이러한 통합적인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되어 지역사회네트워크를 주도하거나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그간 청소년시설은 지자체가 법인이나 시립 형태로 위탁 운영하면서 첨단화되거나 규모가 갖추어진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소년만을 위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나 청소년사업 구상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러한 청소년정책 기조나 여건으로 인해 지역사회네트워크에서는 오히려 고립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맥락적 분위기에서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도 역시 Provan과 Kenis(2007)가 제시한 네트워크 관리자로서 지역사회네트워크의 효율성과 참여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외부 정당성 확보가 사실상 거의 부재한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2018년 이래, 정부의 청소년정책 기조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역사회서비스 전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 분위기가 서울시 내에서 매우 강하게 형성되면서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는 물론 여타 청소년 유관 기관들이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하는 내·외부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소년지원운영협의체 구성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형성된 사회복지기관협의회, 공부방협의회,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등과 같은 지역 협의체와도 연계협력망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일상과 관련한 주요 영역을 포괄하는 총체적 성격을 지닌 지역사회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동작구 청소년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조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금 청소년 분야, 4차 산업 이야기하고, 상생해야 하고, 청소년 숫자 감소하고 이러니까 지역이 마을이 나온 게 얼마 안됐잖아요. 마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청소년센터들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아, 우리가 마을 속에 들어가야 상생할 수 있구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패턴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OOO)

"시민단체 쪽에서...우리가 오픈을 안했으니까,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협치를 안했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 타겟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적은 거죠. 안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협소적으로 사업들이 구축되었다고 그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오픈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마을에 모일 때 청소년 분야만 빠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교육혁신지구가 생기고, 학교도 하지, 학교밖도 하지, 다 하다보니까....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데 고립이 되잖아요. 환경적 변화 요인에 진단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마침 보라매라는 울타리는 그 동안에 지역사회와 활동 · 보호 · 복지를 우리는 같이 가지고 왔으니...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베이스에요. 종합센터의 기본적 베이스."(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한편,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가 청소년 활동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설립 이래 거의 10년을 단위로 청소년 복지 · 보건 · 상담 · 교육 등의 청소년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영역으로 제 활동 범위를 확대해오면서 센터 분위기 및 역량 자체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영역별 칸막이가 거의 없어진 업무 형태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센터의 3배 정도, 저희가 외부 공모도 많이 하거든요...저희는 사회문화교육 강좌는 아예 안 해요. 돈 버는 사업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공모 펀드(fund)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세팅(setting)시키고 구조화 시키다 보니, 외부 펀드(fund)가 많이 들어와요."(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예를 들어서 위기청소년 쪽은 학교밖 쪽으로 의뢰가 들어오면 이쪽에서 공간 사용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것을 활용하는 거죠. 시설, 공간, 프로그램을 같이 협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에 오는 아이들이 상담을 하러왔다가 내가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센터에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이러한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내 분위기와 함께, 확장된 청소년 복지 · 보건 · 상담 영역 중 특히 인터넷 중독, 약물중독, 자살 예방 활동 등은 상당 수준의 전문성과 희소성이 있는 분야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복지 · 보건 · 상담 · 교육 여러 관련 기관/시설들로부터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가 인정(trustworthiness)과 명성(reputation), 영향력(influence)을 갖게 되었고,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전달체계 구상 단계부터 자발적인 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희는 기본법이 생기기 전에 청소년회관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 때 당시는 활동, 보호, 복지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나뉘어져 있지 않고, 저희는 기본적 베이스로 다 했었어요. 상담부터 시작해서 다 하다가,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활동진흥법이 생기고 복지지원법이 생기면서 정부에서 역할을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보라매기관의 특징이죠. 같은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 건물 안에 묶여져 있으니까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연결 체계망이 되는데 다른 센터들은 그게 안 되면 어렵죠." (서초유스센터 ○○○)

"여기는 활동, 보호, 복지가 다 같이 되어 있는데, 보라매청소년센터 안에 조직망은 사업자 등록증이 각자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따로 되어 있어요. 보호 · 복지 쪽은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2개가 있고, 인테넷중독상담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가 있죠. 모두 하나로 연계가 되어 있죠."(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그래서 기관을 저희가 같이 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현재 2단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그러면 기관은 협치가 되었으니까, 외부와 협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부분들... 물론 그 동안 저희가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했지만, 쉽게 말하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가서 참석하는 정도의 선에 그쳤다면, 재작년과 작년은 묶는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150여개 기관과 맺었어요, 동작구 관내에."(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자체에서 총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청소년 활동 · 교육 · 복지 · 보건 · 상담과 관련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동작구 청소년지역사회네트워크의 주요 영역과 거의 일치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의 주요 사업과 프로그램 영역을 지역 단위로 확장한 형태로 지역사회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는 거점시설로서 네트워크 관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 영역별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자원 공유 및 프로그램 공동 주관,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한 이관 및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동작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거점시설로 역할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자체가 동작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상 동작구 지역사회네트워크의 중개 역할만을 수행하기 위한 동작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별도 조직이나 기관으로는 실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작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중개 역할만을 위하여 별도 조직이나 기관을 설립되었다면 청소년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네트워크 내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홍보, 기관 연계 및 모니터링만을 수행하겠지만, 현재 동작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모델에 따르면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일부도 동작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으로 동일하게 여겨질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동작구 청소년지원협력네트워크는 2018년에 추진되어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가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체계와 운영모델이 윤곽을 잡았다. 2년의 기간 동안은 사실상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네트워크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상담 영역에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계 · 지원 ·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과 관련된 유관기관입니다.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지역아동센터,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관공서, 건강가정지원센터, WEE센터 할 것 없이 다...그것을 종합적으로 묶는다든지 1년에 서너번 정도 만나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축제, 예를 들어서 동작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과 큰 축제가 이루어져요. 그것을 누가 하냐면 이것은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해요....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저희들도 그쪽에서 하게 되면 기획부터 시작해서 같이 가거든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대신에 우리가 청소년 분야 축제할 때는 지역사회 안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는 부스 비용만 주게 되면 그분들이 준비해서 와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는 공원에 다 깔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지역사회로 이걸 넓히려고 한 게 2018년부터 한 종합지원센터 모델로 이 작업을 한 것이고요.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작업들이 되려면 사실은 저희도 방과후아카데미나 돌봄이 있지만, 사실 돌봄 이런 기능은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더 돌봄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저희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하기 보다는 돌봄에 대한 사례가 온다면 돌봄 쪽에 저희 협의체 안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끼리, 돌봄과 관련된 기관들끼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케이스(case)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건지에 대한 부분을 연계한다든지, 그렇게 영역별로 지역과 풀 수 있게 구성들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거든요."(서초유스센터 ○○○)

같은 맥락에서, 동작구 청소년지원협력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지역협의체에서도 개별 기관/시설과의 자원 및 프로그램 공유, 공동 사업이나 프로그램 진행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러 지역협의체 간의 공동 사업이나 프로그램 모색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연히 개별 기관이나 시설 간의 협력이나 연계지원 사업도 가능하게 되었다.

"동작구 관내 22개가 있는데, 그들은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으니까...저희는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쪽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메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서초유스센터 ○○○)

"예를 들어서 22개 아동센터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를 빌려줘서 애들이 여기서 밥차라도 같이 행사하고 저희는 비용을 받지는 않죠. 근데 그들이 필요한 것이잖아요...그쪽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그쪽에서 100프로 수용이 되니까...마음만 먹으면 자동으로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토요일 날 놀토체험이 있잖아요. 딱 띄우면 바로 마감이 됩니다."(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4) 시사점

동작구 청소년지역사회네트워크의 특징은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청소년기관(시설) 내에서 만의 사업 운영이나 지역사회 내 학교와의 연계협력 수준을 넘어서 공공기관과 마을공동체, 복지와 보호 영역까지 확장하여 청소년에게 one-stop service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의 청소년 상담 영역에서 CYS-Net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모델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지만, 청소년 활동 영역은 사실상 청소년기관(시설) 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운영에 한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보라매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구 청소년지원협력네트워크는 청소년 활동 영역에서도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확장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사실상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청소년 활동 영역을 청소년지도사의 고유한 실천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작구라는 지역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와 같이 20년 이상을 지속하면서 각 영역별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을 망라하고 서비스전달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운영모델로 여겨진다.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확장이 지난 10여 년간 괄목할만하게 성장한 가운데 다수의 지역사회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민간 부문의 비영리섹터나 서비스전달체계가 오히려 축소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 활동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 · 복지 · 상담 등 관련 기관(시설)들이 대체로 위탁운영으로 3년 내지 4년을 주기로 기관장/센터장이 바뀌거나 위탁법인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지속적인 기관(시설) 간 교류나 연계를

강화하기는 힘든 여건에 놓인 지역사회도 많다. 지역사회네트워크 역시 서로 간의 관계 형성과 신뢰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혀 있고, 더불어 기관(시설) 간 유대관계 형성이 어느 정도 성숙한 지역사회에서 적용이 가능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 지역적인 문화가 분명히 있어요. 저희는 20년 이상씩 다 이 지역에서 이 사업만 하니까 지역들과 연계가 충분히 가능하지, 사실 센터들 기관장 2, 3년마다 바뀌고 그러면 쉽지 않죠."(서초유스센터 ○○○)

동작구 청소년지역사회네트워크는 2019년 현재 출범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부터 운영모델을 설계하고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업무협약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마을축제를 열고 정보공유 페스티벌을 개최한 성과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동작구 청소년지역사회네트워크 및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성패는 얼마나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는가와 대 ·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얼마만큼 잘 대응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동작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특징으로도 언급했듯이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가 곧 동작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실상 청소년센터의 역량만큼 종합지원센터의 역량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이는 청소년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성장 수준 역시도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의 역량에 따라 지대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시범운영 단계를 넘어서는 4~5년 후에 지역사회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 역할만을 집중해서 담당하는 실체적인 조직으로서 동작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구상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진해청소년수련관)

(1) 진해구 지역사회의 생태환경적 조건 및 맥락

창원시는 2010년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 등 3개의 시가 통합하여 '통합창원시'가 되었다. 현재 창원시는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등 5개의 행정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상남도청 및 경상남도교육청이 위치하고 있다.

진해구의 인구수는 2020년 기준 196,410명으로 창원시 5개 구 중 3번째로 인구규모가 크다(창원시 통계정보시스템, 2020). 지역적 특징으로 진해만을 인접하고 해군사관학교, 해군기지사령부 등 해군기지가 있는 군항도시이다. 군사도시의 특성상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나 신항만 건설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창원시 내 5개구 중 유일하게 진해구는 인구수가 증가 추세이다.

진해구의 9~24세 이하 청소년 수는 33,516명으로 전체인구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KOSIS 국가통계포털, 2020), 청소년관련 기관으로는 진해청소년수련관, 진해청소년전당, 진해청소년문화의집, 진해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수련시설 4곳이 있으며 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해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진해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해 있다.

창원시는 2011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청소년 정책도시를 추진하고 있다(뉴시스, 2011. 12. 22). 2019년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창원시 보도자료, 2019. 05. 02),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2019년 6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APCFC)'에 가입하였다. 또한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창원시보도자료, 2020. 05. 27).

이상과 같은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을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 등에서 수상을 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진해청소년수련관은 2016년부터 지역연계 청소년 현장직업체험 프로그램인 창원시 마을학교 사업을 운영하여,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창원시보도자료, 2019. 11. 03.). 또한 창원진해청소년참여위원회 '꽃비'는 '2019년 경상남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서 최우수 참여기구로 선정되어, 경남도지사상을 수상하였다(BBS 뉴스, 2019. 11. 18).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는 경남 지역의 청소년참여기구가 모여 경남 내 청소년정책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회로, 꽃비는 청소년 교통안전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원시는 청소년정책도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진해구는 청소년사업과 관련한 성과를 거두면서 청소년 친화적인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2) 진해청소년수련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진해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마주하고 있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고자 한 것에서부터 그 계기를 찾을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시설 운영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마을학교를 추진한 것이 진로·직업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의 출발점이었다.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돈 좀 벌자'고 했어요. 수익사업으로 괜찮을 것 같다. 학교나 이런데서 돈 들여서 잡월드(job world) 이런데 가잖아요. 그래서 이 집월드(job world)를 우리 마을에서 구현하고 돈 좀 벌어보자. 이게 시작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하다 보니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좀 더 많은 여기에 가치와 의미. 저희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일단 시작은 그렇게 했죠."(진해청소년수련관 ○○○)

그러나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확충을 위한 수익성 제고만을 위해서 마을학교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진로 · 직업 관련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청소년과 지역주민 간의 만남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창원시 진해구 마을학교는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자유학기제라는 정책적 환경 변화 속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현장직업체험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이끌어내었다. 마을학교는 지역사회 주민이 청소년의 멘토가 되어 실질적인 직업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상호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 운영되고 있다.

진해구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진해구 진로 · 직업 체험 네트워크에는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의 지역 내 공공기관과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지역 기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서 진로 · 직업체험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관내 중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진로 · 직업 체험의 기회를 갖고 있다.

진해구 진로·직업 체험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진해구 마을학교의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마을학교의 사업과 진로·직업 네트워크의 형성과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해구 진로·직업 체험 네트워크의 형성과정은 태동기-발전기-확장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태동기는 2016년 자유학기제라는 교육정책이 등장하면서 수익성 사업의 일환으로 자유학기제 학생현장직업체험을 진해남중학교에 제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과 사업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후, 지역주민이 직업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남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덕산마을에 분포되어 있는 직업에 대해 조사한 것이 네트워크 형성의 시작이었다.

"저희가 전략적으로 한 것은 처음에 다시 조금 돌아가서 마을을 덕산동을 선정하고 조사를 했어요.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직원들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여기에 미용실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분포도를 다 조사를 해서 이중에 어떤 곳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한 거죠. 몇 군데는 생협에서 추천해 주신 분, 몇 군데는 부녀회장님 추천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소개하고 구체적인 걸 또 그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하는 분,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도 조금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덕산 파출소도 들어오고, 이 다음에는 구청도 들어오고, 창원시 주민센터도 들어오고. 이런 곳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요즘 다들 공무원하고 싶어 하잖아요. 애들 중에서 사회복지공무원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직업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한 거죠. 복지기관도 들어오고."(진해청소년수련관 ○○○)

다음으로 48명의 마을교사(멘토)를 모집, 교육한 후 남중학교 1학년 학생 232명을 대상으로 마을학교 체험을 실시하였다.

둘째, 발전기는 태동기에서 시작한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조직하면서 청소년 진로직업 네트워크를 보다 공고히 하는 시기이다. 2017년에 마을교사들이 보다 조직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여 진로직업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마을교사(멘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교사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아울러 마을학교 운영 및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셋째, 확장기는 진해구에서 시작한 청소년성장지원 진로·직업 네트워크를 창원, 마산 등 지역적으로 영역을 확장한 시기이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장하되 지역만의 차별화된 특징이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지역적인 확장과 더불어 참여하는 마을교사의 수나 예산 등에서도 확장되는 시기이다. 예산 면에서도 2016년 자부담 예산 300만원으로부터 시작하여 2019년 6,500만원(창원시지원 6,000만원, 도시재생센터 500만원)으로 재정이 증가하였다.

창원시 진해구의 진로 · 직업 체험 네트워크의 발전과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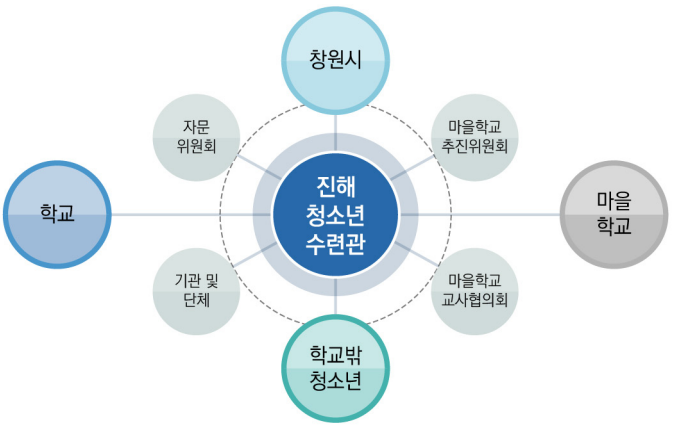
표 Ⅲ-2 창원시 진해구 진로 · 직업체험 네트워크 발전과정

연도 / 구분	태동기	발전기		확장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형태	시범사업	고정사업	신규대상 확대	협동조합추진
과제	• 지역조사 • 기획 • 홍보 • 자문위원 구성 • 멘토확보 • MOU체결 • 봉사단 구성 • 시범사업 운영	• 사업설명회 • 교육청 연계 • 마을학교 봉사단 구성 • 학교 수요처 발굴 • 멘토 추가모집 • 멘토 교육 • 기관, 학교, 마을 협의체	• 마을학교 확대 수요조사 • 마을학교 수요처 확대 • 마을 협의체 구성 • 자문위원단 추가 구성 • 협의체 대표모임 • 마을학교 상시 운영 방안 • 홈페이지 구축	• 멘토 협동조합 준비 • 창원시 사업설명회 • 창원시 학교 수요조사 • 창원시 대표 특성화 사업화
규모	• 1개 마을 • 1개 학교 (남중학교) • 40곳 멘토	• 2개 마을 • 3곳 연계 • 50~60곳 멘토	• 2개 마을 • 4곳 연계 • 86곳 마을교사 위촉	• 4개 마을 • 9개 학교 • 140곳 마을교사 위촉
재원	• 수련관 100%	• 여성가족부 지원 • 창원시도시재생센터	• 교육청 지원(사업비) • 지자체 지원(사업/인건비) • 창원시도시재생센터(사업비)	• 교육청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인건비) • 창원시도시재생센터
연계	• 청소년수련관 • 덕산동 새마을부녀회 • 진해남중학교	• 청소년수련관 • 덕산동 새마을부녀회 • 덕산동/여좌동 주민센터	• 청소년수련관 • 덕산동 새마을부녀회 • 덕산동/여좌동 주민센터 • 진해남중학교	• 청소년수련관 • 새마을부녀회 • 덕산동/여좌동 주민센터 • 팔용동/산호동/양덕2동 행정복지센터

* 출처: 진해청소년수련관 (2019). 마을에서 행복한 삶을 잇다. 미간행자료.

(3) 진해구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주체 및 역할

진해구 진로 · 직업 네트워크는 진해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탄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형식적으로 운영, 유지되는 타 네트워크와 달리 참여주체들이 네트워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면서 내실화 있게 운영되고 있다. 네트워크 참여주체는 아래와 같이 자문위원회, 마을학교 교사협의회, 진로직업 체험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마을학교 추진위원회 등이 있다.



* 출처: 진해청소년수련관 (2019). 마을에서 행복한 삶을 잇다. 미간행자료.

그림 Ⅲ-6 창원시 진해구 진로 · 직업체험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주체

첫 번째 참여주체는 자문위원회이다. 이 조직은 마을학교 운영 및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조직으로서 대학교수, 시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을교사협의회 대표, 학교 대표 등 9명의 위원(아래 표 Ⅲ-3참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4회 운영되고 있다.

표 Ⅲ-3 창원시 마을학교 자문위원

소속	직위
대구한의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전)경상남도교육청 예술환경담당	주무관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장
행복중심진해생협	부이사장
진해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진해남중학교	교감
창원시 여성청소년보육과	과장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새진해교회	목사

* 출처: 진해청소년수련관 (2018). 창원시 진해 마을학교 리플렛.

자문위원회에서는 '단순 진로 체험이 아닌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대상층의 확대, 청소년 주도적 사업 추진 등'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청소년 주도성이 갖추어져야 하고 공동체성의 복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직업 네트워크가 단순히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구조에 머물지 않고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이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나고 보면, 사실 자문위원회에도 자문비를 안 드렸어요. 교통비도 안 드리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해 주십사.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비를 못 드리고 했는데도 오셔서 정말 진심 어리게 말씀해주셨고. 자문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천천히 해라.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멀리 보면서 밑에 땅만 보지 말고...선 긋는 것. 그 운동장에 옛날에 회분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쓱 가면서 하는 것 땅만 보고 가면 삐뚤어지게 된다. 그래서 항상 멀리 보고 그걸 보고 가면 선이 바르게 된다.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라는 그런 이야기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청소년 주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진해청소년수련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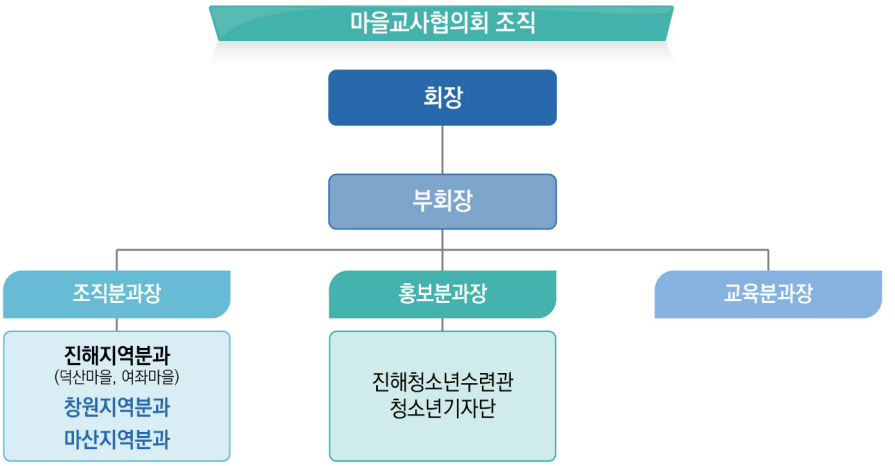
또한 지역사회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자문위원 중에 진해행복중심생협 부이사장님이 계시고, 이 분이 덕산동에 계세요. 그 분이 부녀회장님을 소개시켜주시고 그래서 부녀회도 같이 공동주최자로 넣어서 함께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녀회에서도 조금 추천해주신 분도 계시고."(진해청소년수련관 ○○○)

둘째, 학생들에게 진로 · 직업체험처를 제공하는 지역 내 다양한 직업인들로 구성된 마을학교 교사와 이들 대표자로 구성된 마을교사협의회가 있다. 마을교사협의회는 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창원시 마을학교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 운영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마을교사협의회에서는 마을학교 사업에 대한 논의 및 비전설정, 마을교사 교육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잇다'라는 마을 매거진 제작, 마을공동체 사업인 '골목식당, 진로캠프, 진로동아리 운영, 마을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며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 조직은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기획, 운영, 평가 등에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따른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수평적인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평적인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로 인하여 마을교사는 보다 더 적극적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진로 · 직업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진로 · 직업 체험 네트워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교사협의회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회장과 부회장 아래 조직분과(진해지역, 창원지역, 마산지역), 홍보분과, 교육분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출처: 진해청소년수련관 (2019). 마을에서 행복한 삶을 잇다. 미간행자료.

그림 Ⅲ-7 마을교사협의회 조직

셋째,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직접적으로 제공,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학교가 존재한다. 자유학기제 학생들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현장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는 진해, 마산,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14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체험처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의 관공서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지역 기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부녀회, 청소년지도자협회, 청년단체들이 활동의 보조 인력으로 함께 하며, 관과 민의 다양한 조직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맺고 중요한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직업 체험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제시되고 있는 마을학교 추진위원회는 현재 조직되어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향후 진로·직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참여주체로 포함되어 있다. 네트워크 참여주체들은 마을학교가 지속적으로

유지 ·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2019년에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 홍보, 참여를 이끌어낼 행정, 관공서, 시의원, 마을학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마을학교 추진위원회를 조직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수련관의 예산 및 인력 부족과 각 참여주체의 이해도 부족으로 조직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진해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20년부터 행정기관-교육기관-청소년기관-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청소년 대표 20명 내외가 참여하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마을네트워크 'e음'을 구축하여 마을 내에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주요 이슈를 찾고 해결점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마을학교 추진위원회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명실상부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성과 및 한계

창원시 마을학교 진로 · 직업 체험 네트워크의 성과는 무엇보다 네트워크의 수혜자 중의 하나인 자유학기제 현장직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2016년 1개 학교로 시작한 프로그램의 대상학교가 6개교로 증가하고, 2019년에는 2,056명의 청소년들이 마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체험을 통해 막연한 진로에 대한 꿈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여부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조사에서도 프로그램 만족도(96.4%), 체험처 만족도(98.4%)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진해구에서 시작한 청소년성장지원 진로 · 직업 네트워크가 마산구와 창원구까지 지역적으로 확장된 것 또한 또 다른 성과로 들 수 있다.

"시에다가 시 제안 사업으로 담당공무원 행정에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계장님이 창원시 진해구의 이 사업 너무 좋은데 해서 계장님이 한 3500만원정도 확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해지역만 했는데 한해를 하니까 너무 좋아서 계장님이 마산하고 창원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걸 6천만원으로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면서 저한테 미션을, 다른 데 줄 데가 없다. 예를 들면 마산이나 창원에서 이거를 할 만한 데가...해 보실래요? 네 하겠습니다. (중략) 학교는 저희가 뚫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산 창원에서는 겁이 나서 못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성공사례가 중요하니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한 개 학교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응들이 너무 좋으신 거죠."(진해청소년수련관 ○○○)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장하되 지역만의 차별화된 특징이나 인적 ·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특색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저희는 target 대상을 코디선생님과 차를 타고 돌면서 계속 조사를 해서, 코디선생님들도 조사를 하고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할 것인지. 그렇게 했더니 거기는 NC. 우리 진해에는 없는 것, 삼일아트센터, 문신미술관, 큰 곳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큰 곳 위주로 가자."(진해청소년수련관 ○○○)

진해구 진로 · 직업체험 네트워크의 가장 큰 성과로는 청소년수련관이 네트워크의 핵심주체로서 자리매김 하였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효율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학교와의 유기적인 상호 연계가 필수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상호 협력과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학교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이끌어내면서 학교와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창출하였다는 점이다.

진로 · 직업 체험 네트워크의 핵심적 주체로서 청소년수련관이 공고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유학기제 학생현장직업체험을 원하는 학교에게 청소년수련관과의 MOU체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게 마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두려워하는 게 뭐냐하면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요. 두려워서 안 해요. (중략) 그런데 남중에서 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하니까 다른 학교에서 살짝살짝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우리도 좀 해주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데 저희가 인프라가 아직 덜 구성이 되었다. 그러면 몇 개를 할 것인가.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 더 많이 접수가 된 거예요. 저희가 진해지역에 11개 중학교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5개 중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3차년도쯤 되니까. 그런데 5개가 다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선정위원회를 또 꾸렸어요. 이런 분들 모시고 선정위원회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프라가 그만큼 안 된다 그리고 올해 더 개발한다는 보장도 없다. 조금 안정적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개 학교는 뒀죠. 그래서 선정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 우리 진해 청소년수련관과 협약이 된 MOU 기관인가 학교인가 그리고 다른 활동으로 얼마만큼 연대를 하고 있는가? 이런 선정기준을 가지고 안내들 드리죠. "저희랑 먼저 MOU 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하게 된 거죠."(진해청소년수련관 ○○○)

이처럼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정주의식을 제고하고 지역 공동체성이 확고하게 형성되었다.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마을이 자신의 삶터이자 자신이 마을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청소년의 주도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청소년의 정주의식, 지역공동체성 형성 및 주도성 발휘 등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나타난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실질적으로는 (과거에는) 거의 일회성의 진로체험위주로 갔다면 올해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역할이라든지 그 친구들이 수시로 일회성이 아닌 다양한 마을에서 선생들과 활동하고.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학교와 주로 활동하는 것도 일회성 거의 체험에 한다하면, 마을을 실제로 청소년들이 직접 많이 알 수 있고 우리 마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들로 간다거나 저희 대상에 대한 확대적인 측면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들을.. 마을교사선생님들과 만나는 주체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나, 실제로 이렇게 확정적인 측면들을 위해서 사생대회, 보물찾기, 작년에는 골목 식당 이라든지 다양한 도전들을 계속하고 있어요."(진해청소년수련관 ○○○)

이처럼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지역사회 공동체성 형성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진해구청소년수련관에서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청소년이 주도성을 더 발휘하고 청소년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소통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형태는 마을교사 및 학교, 자문위원회의 의견들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지 못해, 청소년들의 욕구 및 제안 사항들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마을교사협의회와 자문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청소년 주도성 및 의견에 대한 부분이 제기되고 있다. 수련관에서도 이를 반영하고자 2020년 청소년 홍보동아리, 진로 동아리와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모임을 통해 나온 청소년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네트워크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수평적인 소통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진해청소년수련관의 대표사업인 마을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자생적인 단체가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협의체에 참여하여 크고 작은 시너지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생적 단체 중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소멸되는 단체도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원시 마을학교가 자생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을교사, 자문위원단, 마을교사협의회, 자생단체와의 연대가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자원 간 네트워킹이 부족하여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해구는 행정기관-교육기관-청소년기관-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청소년 대표 20명 내외가 참여하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마을네트워크 'e음'을 구축하여 마을 내에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주요 이슈를 찾고 해결점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질적인 전환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5)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진해구의 청소년사업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아래로부터의 자생성이다. 진해구의 진로 · 직업 네트워크는 국가 또는 지자체 단위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간 정책을 실천하는 사업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사업으로 발전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라는 교육정책이 실시되면서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이를 사업화하면서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진로직업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생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진로 · 직업 체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를 대상화하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을교사협의회를 조직하고 이들이 기획, 운영, 평가 등에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참여주체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참여의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이들이 더욱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진해구의 진로 · 직업 네트워크는 청소년수련관 등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다만 진해청소년수련관처럼 주도적으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이끌어내면서 학교와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시설의 통상적인

한계로 지적되는 학교와의 유기적 연계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진해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속적인 인간관계 유지와 함께 청소년수련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하였다.

"벽이 높은 학교도 많았어요. 어울림 마당이라고 각 수련시설마다 다 해요. 전국적인.. 여가부 지원을 받아서 국도시비가 매칭으로 되어서 하는 프로그램이구요. 지역 축제죠. 옛날에는 문화존이라고 어떤 특별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기들 동아리 발표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체험 부스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전부터 남중학교 선생님은 소개받아서 알게 되었어요. 운영위원으로 누가 추천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참여 가능하신지 여러 번 컨택을 했는데 그때 부장선생님이 본인이 너무 바빠서 안 되겠다, 대신 다르게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을 언제든지 해라.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관계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죠."(진해청소년수련관 ○○○)

"2차년도부터, 저희 시범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저희가 학교 측에 공문도 보내고 성과보고회도 하고 사업설명회 자리도 가지고 많이 문을 두드린 거죠. 실제적으로 방문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죠.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사실 가려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학교 사례와 더불어서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소개를 하고 저희와 협업해서 하실 곳을 찾아서 한 거죠."(진해청소년수련관 ○○○)

넷째, 확장성이다. 창원시 진해구 진로 · 직업 네트워크의 활동결과가 양적으로 확장되고 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 네트워크가 단순히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체험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진해구 네트워크가 진로 · 직업 체험에만 몰두하였다면 이는 단발성 진로체험에 머무는 한계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해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오히려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장과 정주의식 제고, 청소년과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성 형성을 네트워크의 존재 이유로 삼았다. 마을에서 청소년의 '삶'과 지역사회 주민의 '삶'이 만나는 곳이 마을이며, 그 마을에서 행복한 '삶'을 잇도록 하겠다는

것을 미션으로 제시하면서, 특히 진로 · 직업 체험처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왜 자신이 진로직업 체험처를 제공하는지, 왜 마을이 아이들의 진로와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진로 · 직업 체험 네트워크가 공고히 뿌리내릴 수 있었다.

"그러면 지역의 작은 공동체에서 같이 학교랑 연결해서 학교로 돈을 주고, 학교 협력형 마을학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는 곳에서 저희들한테 도전적인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너희가 하는 그게 마을 학교 맞나? 너희는 일회성으로 체험하고 끝나는 거잖아. 우리같이 동네 애들하고 학교랑 하는 게 마을 학교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린 거죠. 그래서 마을교사 협의회에 이런 걸 그대로 던지죠. 선생님, 우리 마을학교 맞습니까? 마을 학교 맞지. 그럼 우리 마을학교를 한번 정의해주십쇼. 그게 일종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미션과 비전을 찾을 수 있게끔 던진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토 마을학교를 정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짜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션이 정해졌어요. '마을에서 행복한 삶을 잇다' 이어져 나가는 것. 행복한 삶을 잇다. 그런 미션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누구나 행복하고 그게 쭉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연결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네트워킹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선생님들이 할 수 있었고."(진해청소년수련관 ○○○)

현재 진해구는 현재까지 형성된 진로 · 직업체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성이 뿌리내리는 생태적 마을공동체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비전과 목표, 추구하는 핵심가치 등에 관해 참여주체와의 폭넓은 논의와 참여를 통해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심화할 때 청소년 성장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주요한 시사점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 경기도 고양시(고양시청소년재단)

(1) 지역사회적 맥락과 고양시청소년재단의 기관 특성

고양시는 경기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으로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 서구로 나누인다. 덕양구가 가장 오래된 구도심에 속하며, 일산 서구·동구와 비교해 원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고양시는 전반적으로 구 중심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한편, 고양시는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문화·관광산업도 상당한 수준이며,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서오릉과 서삼릉이 등재되었다. 테마파크, 행주산성, 고양·평화누리길과 같이 고양시의 문화자원을 주제별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거나 북한과 인접한 지역으로 남북교류와 관련한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관광명소 개발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양시의 주요 산업은 2016년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 27.1%, 숙박 및 음식업 15.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7%, 운수업 9.27% 순으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이현정, 김명호, 조동익, 2018). 일산 서구를 중심으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는 방송 및 영상, CT(문화)콘텐츠 산업 중심 지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전시 및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킨텍스(KINTEX)를 조성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12개 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고양시에 거주하는 인구 수는 1,055,873명이며, 평균적으로 매년 10,000여명 이상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행정안전부, 2019). 반면, 2019년 현재 청소년 인구는 191,431명으로 청소년의 인구 비율은 18.1% 수준이다. 이는 경기도에서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3대 도시(수원, 성남, 고양) 중의 하나로 여타 경기도에 소재하는 도시 중에서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소하지만 전체 거주하는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2017년 이후부터 청소년 인구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참고: 〈표 Ⅲ-4〉).

표 Ⅲ-4 고양시 인구 현황 및 청소년 인구 비율 2016년~2018년 (8월 기준)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전체 인구(명)	1,055,873	1,043,406	1,041,507	1,034,249
청소년(9세~24세)(명)	191,431	198,079	205,596	211,284
청소년 비율(%)	18.1	18.9	19.7	20.4

* 출처: 행정안전부 (2019). 주민등록 인구통계.

고양시청소년재단은 2016년에 설립되었으며, 고양시장을 이사장으로 대표이사, 재단 사무국을 두고 있다. 2019년 현재,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직영 운영하는 시설은 마두청소년수련관(일산 동구), 일산서구수련관(일산 서구), 성사청소년문화의집(덕양구), 탄현청소년문화의집(일산 서구),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덕양구)가 있다. 2019년까지 위탁운영 형태로 토당청소년수련관(덕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덕양구), 청소년자유공간 4곳(주교동(덕양구), 화정 카페(덕양구), 백마 카페(일산동구), 능곡 카페(덕양구))가 운영되다가, 2020년 모두 재단 직영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고양시청소년재단은 2016년에 설립되었지만, 토당청소년수련관은 2003년에 개관하였으며, 성사청소년문화의집은 2005년에 개관하여 운영되다가 고양시청소년재단으로 들어오게 된다. 더욱이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4년부터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설립 연혁은 최근이지만, 재단 내 부속 기관 및 시설들은 사실상 15여년 이상 운영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고양시 지역사회와의 관계나 소통, 지명도가 높았던 상태였다. 이들 시설들이 고양시청소년재단 직영 시설로 편입되면서 민간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공적 청소년지원체계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9년까지는 재단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재단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들 간에는 사실상 긴밀한 정보 공유나 연계 협력이 이루어지지는 못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2020년에 모든 시설들이 재단의 직영운영

으로 완료된 이후에야 재단 사무국뿐만 아니라 11개 산하 기관/시설 모두가 공동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공유하며, 개별 기관/시설의 고유 목적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기관/시설들 간에 상호 연계한 공동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획하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2016년 11월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출범한 이래 2019년까지는 재단 직영과 위탁 운영이 공존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스템이나 행정체계가 통합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연계와 협력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기관/시설들은 대체로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접근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 마두청소년수련관과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은 일산에서 학원가가 밀집된 곳에 상당한 규모의 큰 건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학생들이 방과 후에나 주중에도 프로그램 신청이나 참여가 매우 용이한 편이다. 화정역이나 백마역 역시 큰 역사의 광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다.

탄현문화의집도 아파트단지에 들어 있어서 언제든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있다. 반면, 마두수련관과 같이 원래 청소년수련관으로 조성된 건물이 아니었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도 있다. 토당수련관 역시 고양시에서 처음 설립된 청소년수련관이자 면적이 가장 넓은 수련관이기도 하지만, 입주 시설(예, 재단 사무국, 상담복지센터, 진로복지센터 등)이 현재 많이 들어와 있어서 오히려 공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증축을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다.

표 Ⅲ-5 기관/시설의 연혁 및 주요 사업 내용(2019년 기준)

기관/시설	연혁/지역	주요 사업 내용
마두청소년수련관	2013년/ 일산 동구	• 청소년자치활동 • 청소년민주시민프로젝트 '평화로 가는 길' • '잇다' 프로젝트 • No! 불법촬영ZONE! • 대학생지원단 '아띠'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2018년/ 일산 서구	• 청소년 사회적 경제 프로젝트 • 청소년 페이지 기획단 • 청소년 창작연극 사업 • 포용적 세계시민양성사업 • 청소년 마을환경 개선 프로젝트 • 학교연계 프로젝트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2015년/ 덕양구	• 대학생멘토링 • 고양시 2020년 수시대학 입시박람회 • 기업가정신 기반 창업체험교육 거점센터 • 일반계 고등학교 위탁과정 박람회
성사청소년문화의집	2005년/ 덕양구	• 고양시 청소년문화의집 연합프로젝트 • 청소년 페이지 기획단 • 청소년동아리 • 청소년 노동권리 홍보 프로젝트 'Youth the View' • 스포츠 여가 프로그램 • 청소년 글로컬 캠프
탄현청소년문화의집	2014년/ 일산 서구	• 청소년 자치동아리 • 학교연계 대안학습사업 '별빛학당' • 청소년 문화/놀이 복합공간 '별카페' • 청소년 평화 교류 프로젝트 동아리 '팍스 유벤시아' • 후기청소년 자원활동 연계사업
토당청소년수련관	2003년/ 덕양구	• 청소년운영위원회 • 2019 자원봉사 프로그램 • 루키 퍼포먼스 대회 '해방 vol.1' • 청소년인성교육사업 • 평화를 잇는 발걸음 시즌2

기관/시설	연혁/지역	주요 사업 내용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994년/ 덕양구	• 개인상담(놀이/미술치료) • 집단상담/상담교육프로그램(솔리언또래상담 동아리, 찾아가는 성교육, 자살예방교육, 청소년 감성코칭 등)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 청소년 자유공간 '별하'
주교동청소년카페	2015년/ 덕양구	• 열린공간(자유이용) 운영 • 청소년 문화활동 • 뚝딱뚝딱 주교공작소 • 더불어 사는 마을 •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우리, 지구'
능곡역청소년카페 '놀러와'	2013/ 덕양구	• 청소년 무료 셀프바 운영 • 청소년자치동아리 • 청소년멘토활동 • 청소년운영위원회 • 체험프로그램
백마역청소년카페 '깔깔깔'(청소년 책문화 공간)	2012년/ 일산 동구	• 카페 운영 • 독서동아리 • 청소년연대회의 • 학교 동아리지원사업 • 공연 및 북 콘서트

* 출처: 고양시청소년재단 (2019a). 2019 고양시청소년재단 운영백서. 요약 발췌하여 정리함.

⑵ 청소년 성장지원 플랫폼으로서 고양시 청소년 지역사회네트워크 운영모델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하여 고양시청소년재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으로 '고양시 청소년 성장지원 플랫폼'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고양시 차원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청소년활동 및 인프라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민·관·공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역 체험처 발굴 및 협력체계 강화를 담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청소년활동 분야에서 프로젝트 사업 구상 및 분야별로 지역 전문가와의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양시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대표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Goyang Youth Free Zone'은 2018년부터 시작하여 고양시 청소년시설 및 단체, 기관, 동아리들의 실무모임을 발전시켜 각 단체/시설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각 기관 및 시설 역량을 강화하며, 상호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 현재, 6개 청소년동아리를 포함하여 총 60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각 기관 및 단체의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의 지역사회네트워크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참고: 〈표 Ⅲ-6〉).

표 Ⅲ-6 'Goyang Youth Free Zone' 참여 기관 및 단체 현황(2019년)

번호	기관 및 단체 명	번호	기관 및 단체 명
1	고양 글로벌 차세대 네트워크 GGG	31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2	고양사회창안센터	32	고양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3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33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34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5	고양시자원봉사센터	35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6	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	36	능곡역청소년락카페
7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37	고양여자중장기 청소년쉼터
8	고양우리학교	38	고양청소년사회협동조합'teencoop' & 화정청소년카페 '톡톡톡'
9	고양시남자단기 청소년쉼터 둥지	39	고양청소년인권연합회
10	고양파주공동육아 대안교육협의회	40	공유플러스-고양시청소년활동지원단
11	교사퍼실러테이션연구회	41	국제문화예능포럼
12	고양시청소년이동상담소 '꾸미루미'	42	문화교육공동체 '더불어 꿈'

번호	기관 및 단체 명	번호	기관 및 단체 명
13	두드림청소년지원네트워크	43	마두청소년수련관
14	불이학교	44	사람도서관 리드미
15	삼원청소년문화진흥원 & 한국청소년 건전문화육성협회	4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노을학교 & 성사청소년문화의집
16	세계문화교류센터	46	세잎클로버
17	수호천사청소년봉사단	47	신나는문학놀이연구모임
18	어린이도서연구회 일산지회	48	일산민주주의학교
19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49	일산서부경찰서
20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	50	조인핸드
21	지역커뮤니티센터 ‘휴’	51	지오아카데미
22	참다솜 교육	52	청소년문화공간 ‘깔깔깔’
23	청소년변화교육연구소	53	청소년희망플랫폼
24	초록우산 경기북부지역본부	54	타임드림
25	탄현청소년문화의집	55	토당청소년수련관
26	풍산동 청소년마을문화기획단	56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
27	한국미래청소년환경단	57	고양시청소년의회(청소년 동아리)
28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58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래상담동아리
29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기자단	59	고양시 고등학교 학생회 연합회 ‘해늘’
30	유포리아	60	스냅(SNABB)신문(청소년 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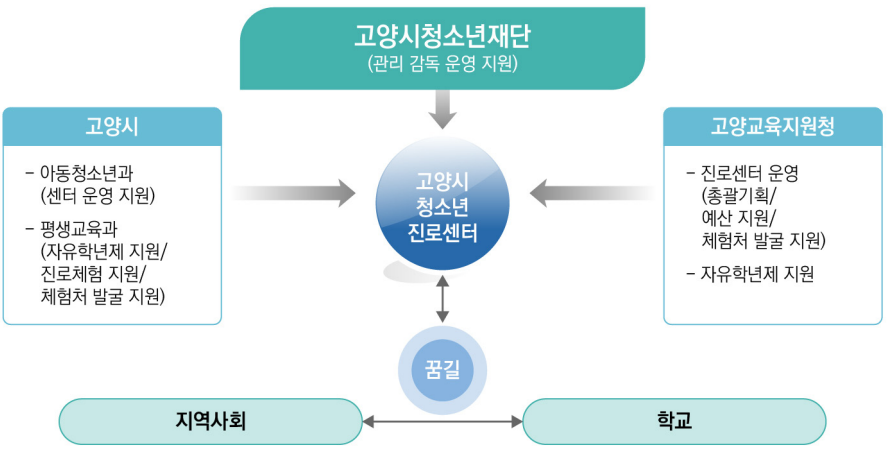
* 출처: 고양시, 고양시청소년재단 (2019). 2019 Goyang Youth Free Zone. 요약 정리함.

고양 유스프리존(Goyang Youth Free Zone)은 청소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기관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및 사업을 통해서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안에서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적인 협력체계를 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고양 유스프리존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들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협의회, 고양 글로벌 차세대 네트워크, 고양청소년인권

연합회, 고양 · 파주공동육아 대안교육협의회 등과 같은 고양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지역사회네트워크 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지역커뮤니티센터 '휴', '고양커피농장'과 같이 고양시 주민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 단체와도 연계함으로써 지역 내 단체 간의 연대와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주도하여 기존의 구 단위로 형성된 지역사회네트워크 내지 특화된 대상 중심의 지역사회네트워크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多)분야(multidiciplinary) 활동영역을 포괄하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기반 청소년활동 및 인프라 재구조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 참여 기관 및 단체 모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 유스프리존은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성장지원 플랫폼'의 대표사업인 '꿈길'사업 및 진로교육 프로젝트는'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를 매개기관으로 고양시, 고양교육지원청, 고양시청소년재단과 협력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참고: [그림 Ⅲ-8], [그림 Ⅲ-9]).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의 역할은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조직 간의 연계, 조정, 관리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가 직접 학부모지원단, 직업인멘토단, 청소년지원단(중고등학생 학과멘토링), 대학생멘토단, 초 · 중 · 고 진로길잡이팀(교사, 지자체, 교육청, 진로센터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고 인력풀을 갖추어서 이들을 진로교육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또한 이후 이들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업과 자원 공유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조화하고 있다. 즉,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는 사실상 진로지도 또는 진로교육과 같은 직접사업 수행을 지양하고,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주 역할로 보고 있다.

2019년 현재, '꿈길'에 등록한 체험처로 총 270개소를 발굴하여 관리하였다. 패키지 체험처는 53개소, 인증체험처는 46개소가 있으며, 진로교육지원 인적 인프라 331명(직업인멘토단 90명, 대학생멘토단 58명, 진로길잡이팀 21명, 진로진학지원단 71명, 학부모지원단 9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교육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내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대안학교 및 특수학교와 연계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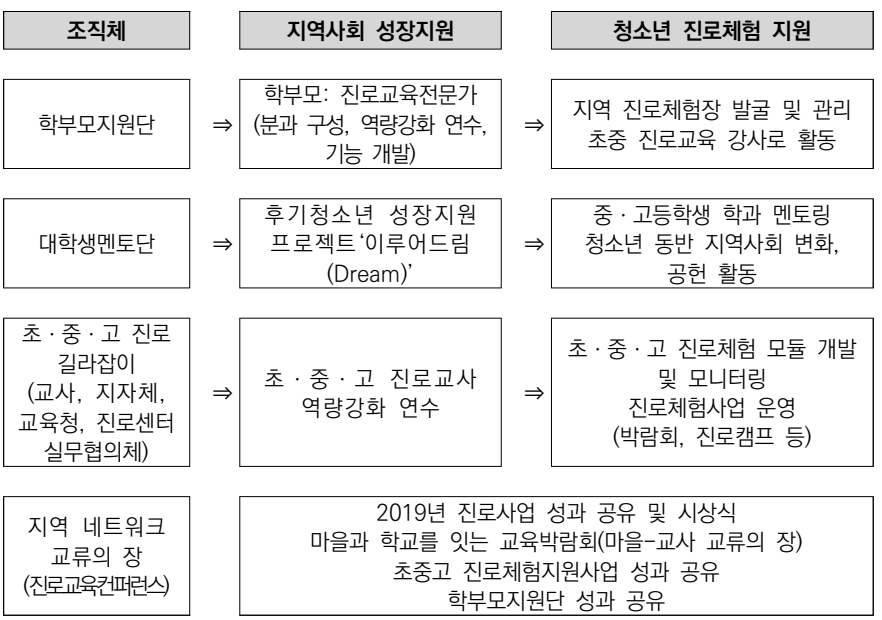


* 출처: 고양시청소년재단 (2019b).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사례. 내부자료.

그림 Ⅲ-8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의 '꿈길' 운영체계도

2019년 현재,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를 허브(hurb)로 해서 고양시 내 200여개의 시설을 체험처로 연계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민간시설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학부모지원단이 매년 1월에 이들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학부모지원단은 지역사회 즉,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가능한 지역사회 체험처에 대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하면, 공식적으로 센터가 이들 시설/단체들과 접촉한 후, 체험처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진로체험활동은 학교급별로 실행목표를 달리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체험 위주의 진로체험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각 초등학교에서 10개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2회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중학교는 직업 현장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한다. 중학생들이 직업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체험과 함께 직업인과 만나서 현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특성화되어 있다.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에 초점을 두고 대학생멘토단이 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학과를 소개하거나 입시 관련 정보를 나눈다. 또한, 수시입시와 관련한 입시컨설팅을 하거나 대학 정시 진학 위주의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진학팀이 있어서 학교별로 방과 후에 진학설명회나 주말에 센터에서 상담을 하거나 안내를 진행한다.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진학지원단은 현재 현직교사로 구성되어 있다(참고: [그림 Ⅲ-9]).



* 출처:고양시청소년재단 (2019b).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사례. 내부자료.

그림 Ⅲ-9 진로교육지원단 운영체계도

구체적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초등학교 38개교에 '찾아가는 미니박람회'를 개최하고, 중학교에는 '현장직업체험패키지' 38개교, '직업실무체험패키지' 21개교, '찾아가는 진로체험박람회' 26개교를 지원하였다.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위탁과정 박람회 22개교 지원, 고등학교진로캠프 53개교 참가, 학교 내외 진로상담 지원(진로진학지원단), 수시대비 입시박람회 46개 대학 참여를 진행한 바 있다. 대안학교는 진로콘서트에 3개교가 참가했으며,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3개교에 체험처 연계 지원, '찾아가는 미니박람회' 1개교를 지원하였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안학교 및 특수학교와 연계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수행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38개교에는 '찾아가는 미니박람회'를 개최하고, 중학교에는 '현장직업체험패키지' 38개교, '직업실무체험패키지' 21개교, '찾아가는 진로체험박람회' 26개교를 지원하였다.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위탁과정 박람회 22개교 지원, 고등학교진로캠프 53개교 참가, 학교 내외 진로상담 지원(진로진학지원단), 수시대비 입시박람회 46개 대학 참여를 진행한 바 있다. 대안학교는 진로콘서트에 3개교가 참가했으며,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3개교에 체험처 연계 지원, '찾아가는 미니박람회' 1개교를 지원하였다(참고: 〈표 Ⅲ-7〉).

표 Ⅲ-7 2019년 진로체험박람회의 체험주제 목록(진로지원활동 사례)

번	주제 명	번	주제 명
1	VR/AR 전문가	35	운동처방사
2	군인	36	부동산 전문가
3	핸드메이드(handmade) 작가	37	플로리스트(florist)
4	사진 작가	38	공예 작가
5	캘리그래퍼(Calligrapher)	39	캐리커처(Caricature)
6	환경공예 작가	40	경호원
7	마스터세프(Master Chef)	41	쇼콜라티에(Chocolatier)
8	아나운서/리포터	42	법률전문가
9	항공승무원	43	프로페셔널오거나이저 (professional organizer)
10	보드게임(board game) 전문가	44	음악감독
11	타이포 그래피스트(typographyst)	45	팝 아티스트(pop artist)

번	주제 명
12	파티쉐(Patissier)
13	페이퍼 아티스트(paper artist)
14	재활용 디자이너
15	미니어쳐(miniature) 작가
16	인형 옷 디자이너
17	특수분장
18	경찰관
19	네일 아트
20	펫(pet) 패션디자이너
21	점토 공예사
22	미디어(media) 크리에이터(creator)
23	교육강사(생명공학)
24	드론(drone) 전문가
25	클래식 연주가
26	실용지휘자
27	미술심리상담
28	캐릭터인형 디자이너
29	디오라마(diorama) 작가
30	업사이클(Upcycle) 작가
31	마크라메(macrame) 작가
32	IT 전문가
33	자산관리사
34	자동차정비사

번	주제 명
46	뮤지컬(musical) 배우
47	캐주얼 일러스트(Casual illustration)
48	에코 테라피스트(Eco therapist)
49	파티 플래너(party planner)
50	코팅(coding) 전문가
51	건축가
52	메이크업(make-up) 디자이너
53	동화 작가
54	가죽공예사
55	쥬얼리(jewelry) 디자이너
56	MC
57	3D 크리에이터(creator)
58	자기주도학습강사
59	창작전문가
60	심리치료사
61	전동차 쇼뮬리에(Shomulie)
62	천연 공예 디자이너
63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
64	디자인아트 작가
65	항공전문가
66	로봇 전문가
67	간호사

* 출처: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2019).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29.

종합하면,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가 코디네이터로서 학교 및 진로 체험처를 연결하고, 진로교육 및 체험 지원을 위한 각종 멘토단을 육성하여, 진로교육 관련 진로교육전문가로 양성할 뿐 아니라, 진로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 관리하고 있다. 진로교육활동에 있어서 청소년지원네트워크의 플랫폼으로서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양시 내 지속가능한 진로체험 협력네트워크로 성장하기 위한 유스프리존(Youth Free Zone) 사업과의 연계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

(3)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지역사회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특징 및 성과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스프리존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청소년 진로센터를 중심으로 개발된 청소년 진로지원 네트워크는 '목표 중심 기관/조직 네트워크(goal-directed organizational network)(Provan & Kenis, 2007)의 특징을 지닌다. 고양 유스프리존 및 청소년진로지원 네트워크 모두가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활동 및 진로 관련 정보 수집과 공유,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고양시재단의 경우 고양시장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지자체 장의 관심과 의지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비전으로 '고양시 청소년 성장지원 플랫폼'을 구축을 위한 지역 인프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양시 청소년 성장지원 플랫폼은 현재 고양시와 고양시청소년재단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네트워크 기관/단체 간의 협업을 통한 성과 공유를 기반으로 공동의 문제해결 중심의 집합적 노력을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두 지역사회네트워크는 목표 중심 네트워크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 차원에서 유스프리존은 참여자 관리 네트워크 거버넌스(participant-overned networks)의 성격을 지닌 반면, 청소년 진로지도 네트워크는 주도 조직 관리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Provan & Kenis, 2007). 우선, 유스프리존은 청소년재단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이지만 청소년재단 자체를 주도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재단은 유스프리존이라는 공동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주선할 뿐이며, 네트워크에 참여한 조직이나 단체의 규모나 유형 등과는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조직/단체 간의 정보 공유, 연계, 협력 수준 등을 결정하고 의사소통 방식 또한 매우 개방적이다. 따라서 유스프리존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네트워크 참여로 기대할 수 있는 목표 내지 편익이 각자 있으며,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취할 수 있는 목표 달성이나 편익이 작다면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청소년재단이 유스프리존의 사실상 주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을 지닌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기관 및 단체 간 관계와 협력, 조정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지속성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참여 기관 및 단체들 간의 직접적인 이익이나 집합적 목표 달성, 공동체성 증진 등의 내부정당성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마련되어야만 지속가능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 가시화된 유스프리존은 청소년재단이 추진한 동기 내지 목표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재단의 긍정적인 신뢰와 인지도를 강화하고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재단의 목표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별 단체 및 기관들도 역시 동의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 및 물적 자원 확보 내지 집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서장과 기관장의 공유리더십, 실무자 간의 파트너십에 기반 한 협력적 의사소통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상 이 모든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청소년재단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 역시 지역사회로부터의 신뢰 강화이므로 단순히 프로그램 관련 정보 교환이나 자원 교류, 대상자 의뢰 수준을 넘어선 협력 성과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추구했던 지역사회 네트워킹의 핵심은 지역 안에서 재단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을 중요시하는 네트워킹을 전제로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뭔가를, 협의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끌고 가기 보다는 일단은 그 안에서 녹아나면서 재단의 사업들의 인지도나 신뢰를 높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내공이 생기고 지역사회 안에서 재단에 대한 인지도도 좋아지고 이러면, 지역적인 협력체제를 선도해 나가는 형태, 이것이 저희의 초창기의 전략이었고요."(고양시청소년재단 ○○○)

"유스프리존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게 주요 목적이구요. 그 전에는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없었으니까, 일단은 2개년 동안은 플랫폼을 구축하고...고양 유스프리존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모일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면서 거기서 나온 안건들을 저희 지역 수련관들이 있는 문화의집에 화두를 던져줘서 그 지역 안에서 뭔가 사업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큰 틀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고양시청소년재단 ○○○)

"재단과 재단시설의 사업을 잘한다고 지역사회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 안에서 지역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네트워킹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가 재단의 가장 큰 숙제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하고, 청소년재단이 생겨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유스프리존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유스프리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확장되게 지역사업을 해 나가야 하느냐가 앞으로 저희의 일입니다."(고양시청소년재단 ○○○)

2019년에는 유스프리존 사업의 윤곽이 겨우 드러나는 수준에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산하 기관 및 시설 간의 연계·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사업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2018년까지도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직영과 위탁 운영으로 나뉘어서 사실상 재단 산하 기관/시설이면서도 기관이나 시설 간의 소통이나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였다. 유스프리존 사업 기획을 시발점으로 재단 내 시설 및 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실무자 간의 정보 제공 및 협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각 기관이나 시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네트워크 역량을 조율하고 다각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유스존을 처음 계획했을 때, 재단이 생기면서 하나의 큰 고양시의 성과라고 보는 것은 이전까지는 마두는 마두대로, 진로는 진로대로 각 기관들이 각자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당시에는 청소년 관련 기관들 간에도 서로 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오픈마켓처럼 상호가 판매자, 수요자가 되어 보는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다른 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게 되었어요."(고양시청소년재단 ○○○)

"청소년활동을 넘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내고 제안하는 것이 재단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제안대회도 타 부서에서 같이 하자는 제안까지 하고 있는 정도이니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고양시청소년재단 ○○○)

"시장님도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작년에만 시장님과의 토크콘서트를 네 번이나 했습니다...지금은 시설이 완전체화 되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왔다면, 지금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단계별로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고 협력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 초창기보다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좋아진 상태라서 지금부터 치고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고양시청소년재단 ○○○)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를 허브(hurb)기관으로 구축한 청소년 진로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고양시청소년재단의 대표 사업으로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지도와 신뢰를 높이고 직접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진로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고양시의 지역 인프라로 성공적인 구조화 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소수의 센터 직원으로 4만여 정도 이상의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업성과가 가능한 것은 지역 네트워크 거버넌스 운영방식에서 센터 역할을 철저하게 코디네이터로 집중하고, 프로젝트/프로그램의 주제별로 기관/시설 연계 중심, 다양한 인적 자원 발굴 및 전문가 배출을 통한 훈련/교육-모니터링- 평가-환류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 중심으로 네트워크 관리 위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진로센터가 지역사회 거버넌스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다른 시와는 다르게 진로센터에는 현재 직원이 3명밖에 없는데, 4만 정도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저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초등학생 진로체험교실을 한다하면 초등학교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조화하는 거에요. 중학교 현장직업체험을 한다면 현장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사업은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체,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사업별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진로센터가 허브 역할을 해서 고양시 200여개의 시설이 체험처라고 한다면 고양시 웬만한 시설들은 거의 진로체험처라고 보시면 됩니다."(고양시청소년재단 ○○○)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일반 주부들이에요. 어떤 역량을 가진 분들을 뽑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을 뽑아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진로체험도 지원하고 지역사회 체험처를 발굴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고양시청소년재단 ○○○)

"진로협의체가 여러 가지 있는 데...지자체도 참여하고, 학부모도 참여하는 전체적인 협의체가 따로 있고 그 협의체 내에서 교사협의체, 학부모협의체, 체험처협의체가 구분되어 따로 있습니다."(고양시청소년재단 ○○○)

또한,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진로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는 청소년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 생태계'로 인식할 만큼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이 수평적 관계를 기초로 형성한 다자간 협력관계를 마련하였다. 진로센터는 네트워크에서 방향잡기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 연계 기관 및 협의체 모두 안정적인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실상 청소년 진료교육 및 체험활동을 위한 공식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에 가까운 공적 인프라 역할까지 대행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센터는 유연한 네트워크 관리조직 거버넌스(network administration organization governance)(Provan & Kenis, 2007)를 취하면서 참여 조직 및 단체, 기관들 간의 조정 역할에 중점을 두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네트워크 관리자로서 고양시 진로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의 효율성과 참여성을 높이고, 유연성과 안정성까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에는 지역사회에 청소년과 관련해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에서 발송해주셨어요. 지금은 네트워킹이 되어 있으니까 지역사회, 학부모가 곳곳에서..."(고양시청소년재단 ○○○)

(4) 시사점

고양시청소년재단은 덕양구, 일산 서구, 일산 동구의 전 지역에 청소년시설 및 기관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공적인 지역사회 인프라이다.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공적인 서비스전달체계에 속하며, 청소년활동이 사회서비스로서 공공성과 참여성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에는 덕양구와 같이 원주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형성된 곳과 일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형성된 이질성을 지닌 지역적 특성을 지닌 도시이지만, 20여 년 전의 신도시개발의 역사로 인하여 지역별로 고유한 문화와 산업군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산하 시설별로 소재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으며, 201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들 시설들의 재단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협업과 소통, 관계지향적 리더십 등의 필요와 욕구가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를 촉발시킨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청소년 성장지원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존의 상호 배타적이던 관계 형성을 유기적으로 통합된 조직문화로 형성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상하고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스프리존이나 청소년진로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진로지원 네트워크 모두 목표 중심 기관/조직 네트워크의 성격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공공 및 민간 조직/기관들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수평적이며 상호의존적인 협업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진로지원 네트워크의 사례는 구체적인 실행구조를 파악하고 단계별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운영모델이 확립되어 있는 반면, 유스프리존 사업은 아직까지 운영모델이나 실행

체제를 구체적으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다자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상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민간시설이나 단체로 연계된 유스프리존은 명확한 공동의 목표 설계 및 협력 성과를 구체화하지 못할 경우에나 수평적 자율조직으로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각자의 편익이 상충할 경우에는 더욱 안정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더욱이, 고양시 지역사회 문화적 특성 역시 지역적으로 상호 유대감이 낮으며, 고양시 전역을 아우르기 보다는 마을 단위의 단체들이 대다수이고, 이들 단체와 재단과의 긍정적인 신뢰 구축이 필요한 만큼 개별 단체 및 조직들이 유스프리존과 같은 특정 네트워크에 참여하여야 할 유인/목적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적 차원의 구체적인 운영모델 개발이 재단을 주축으로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있어 현재에는 조직 및 단체, 기관 간의 관리를 자발적인 조정에 의하여 하고 있지만 재단이 네트워크의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유연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전략을 시급히 세울 필요가 있다.

"덕양구는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일산은 외지인들이 20여 년 간 모여서 도시를 형성했으므로 덕양구와 일산구의 간극이 엄청 큽니다. 덕양구 원주민들은 일산 신도시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덕양구는 도시개발이 안되었고 일산구만 도시개발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덕양구 쪽으로 도시개발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덕양구 사람들은 환영했지만 일산 구민들이 저항한 이유가 일산이 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

"이 과정이 위탁했던 시설들이 직영화가 되면서 오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야하고, 사무국이 시설관리사업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재단 관리만으로도 일정이나 모든 것이 벅찬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 데, 아직까지는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설계해서 작업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

"기존의 위탁시설들도 재단이 생기면서 그 시설들도 재단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것 자체에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다 재단 직영화가 되면서 일부 민간으로 운영되던 청소년 자유공간, 카페 등이 반감이 컸었고..오랫동안 고양시가 재단 등 관리 차원이 없으니까 각자 나름의 고유 영역이 생겨 버린 거죠..오히려 민간위탁이 민간의 영향력이 커져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 특색에 맞게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사유화되는 경향도 있었고..."(고양시청소년재단 ○○○)

고양시청소년재단 및 고양시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지역네트워크사업인 진로지원네트워크와 유스프리존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모두 청소년진로 및 청소년활동이라는 분야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협력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중심 네트워크 사업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도 밝히고 있듯이,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하는 목표가 기존의 청소년활동이나 CYS-Net의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청소년 활동, 복지, 교육, 보호 등 청소년이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서 성장과 관련된 지역사회 자원들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현재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사업의 추세이다. 더욱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산발적으로 서비스전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사업의 중복성의 문제가 커서 이를 총괄 조정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사회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진로지원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진로체험센터와 같은 경우에도 향후 이러한 통합지원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른 영역들과의 연계 및 협력 방향 등을 고민하면서 유스프리존이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성장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구체화할 수 있는 단계 모색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4) 전라북도 완주군

(1) 완주군의 지역사회 맥락과 특징

완주군은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3개읍(삼례, 봉동, 용진)과 10개면(상관, 이서, 소양, 구이, 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으로 구성된다.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잘사는 농업농촌', '농민존중'을 기반으로 한 '농토피아 완주'를 모토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 양성과 농업 농촌을 조성하고자 한다.

완주군에는 농업 이외에 일반산업단지 2개 지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9년 현재 총 310개 산업체가 성업 중이다. 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된 주요 산업은 자동차부품 관련 업체가 가장 많으며, 이 외에 소수이지만 의약품, 태양광 관련 업체 등이 있다.

2019년 6월 현재, 완주군에 거주하는 총 인구 수는 93,111명(행정안전부 2019)으로, 2016년 이래 총 인구 수는 감소세에 있다(참고: 〈표 Ⅲ-7〉).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9세 이하의 인구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세 이상 중·장년층 및 노인층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특히, 출산율 감소가 급격하여 2016년 대비 2019년 출생아 수가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2016년 832명, 2019명 470명; 행정안전부 2019, 주민등록인구통계 2019년 6월 기준). 완주군 역시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밀집과 관련하여, 봉동읍, 이서면, 삼례읍 지역이 완구군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9년 현재 만 17세 이하 영·유아부터 고등학생 연령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역시 봉동읍(6,413명, 24.2%), 이서면(3,142명, 21.1%), 삼례읍(1,855명, 13.4%), 용진읍(944명, 13.0%) 등의 순이다(행정안전부 2019).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귀농귀촌 인구는 총 2,411세대에 달한다. 2019년 현재 재정의 약 10%(72,772억원)를 아동·청소년 친화예산으로 지출하였다.



* 출처: 완주 행정지도. http://www.wanju.go.kr/index.wanju?menuCd=DOM_000000105004005000에서 2020년 8월 14일 인출.

그림 Ⅲ-10 완주군 행정구역 현황도

완주군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 분포를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는 모두 1개교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 밀집 여부에 따라 봉동읍, 이서면, 삼례읍,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등의 순으로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 중학교의 경우, 2개교(삼례, 봉동, 소양, 구이)와 1개교(용진, 상관, 이서, 고산, 운주, 화산)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봉면, 동상면, 경천면에서는 중학교를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다. 완주군에는 총 8개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삼례읍 2개교를 제외하고 봉동, 소양, 구이, 고산, 운주, 화산면에 각 1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용진, 상관, 이서, 비봉, 동상, 경천에는 고등학교가 부재하여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시기부터 가까운 행정구역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통학 또는 이주하여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표 Ⅲ-8 완주군 인구통계 2016년~2019년

연령/연도	2016	2017	2018	2019
합계(명)	**94,708**	**94,900**	**95,426**	**93,111**
0-9세	9,600	9,426	9,176	7,975
10-19세	9,470	9,087	9,093	8,586
20-29세	9,717	9,723	9,551	9,162
30-39세	13,043	12,646	12,245	10,695
40-49세	14,312	14,271	14,369	13,759
50-59세	14,484	14,780	15,033	15,545
60-69세	11,029	11,579	12,030	12,080
70-79세	8,500	8,572	8,814	8,855
80-89세	3,968	4,282	4,480	4,984
90-99세	494	524	619	706
100세-	11	10	16	36

* 출처: 완주군 (2019). 2020-2023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⑵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완주군 지역사회네트워크 추진체계 및 운영모델

완주군의 청소년기관/시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삼례읍),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봉동읍), 이서청소년문화의집(이서면), 완주군청소년수련관(삼례읍),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고산면), 한국스카우트 송광훈련장(소양면), 상관리조트(상관면), 청정테마힐링센터(구이면)가 있다. 아동복지기관/시설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13개소, 공립 완주놀자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다(참고: 〈표 Ⅲ-9〉). 청소년기관/시설이 완주군 이성, 삼례, 봉동, 고산 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하여 청소년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구이, 상관, 소양 지역 등은 상대적으로 청소년기관 및 시설이 부재하여 청소년 지원정책 및 서비스의 격차가 큰 실정이다. 특히, 지역적 편재 및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프로그램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프로그램의 중복성

문제와 체계성 부족 등의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완주군의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완주군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지역사회네트워크 핵심 축으로 지자체, 청소년기관/시설, 교육지원청, 시민단체/협동조합을 연계한 민·관·학(民官學)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미래세대 육성비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착수를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 시작하거나 관리하는 특성을 지닌다 (참고: 〈표 Ⅲ-9〉).

표 Ⅲ-9 완주군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주요 청소년관계 기관/시설 및 공적 인프라 현황

공적 인프라 및 청소년관계 기관/시설		주요 사업/프로그램
완주군 자치단체	• 교육복지아동과 - 아동청소년친화팀 - 인재양성팀 - 교육지원팀 - 여성가족팀	• 방과후학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드림스타트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실무협의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아동옴부즈퍼슨 • 아동친화도시 기자단(모니터링) • 아동권리교육사업 • 학교-마을 프로그램(창의적 교육특구) • 농촌유학지원사업 • 청소년동아리 지원 •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 문화관광과 - 문화예술팀 - 관광진흥팀	• 복합문화공간 • 놀토피아 • 교류협력사업(완주군-서울시 체험교류 및 문화마을, 관광지 방문, 역사유적지 답사) 등
	• 완주교육지원청	
	• 보건소 - 건강증진팀	• 저소득 아동청소년 건강과 일바구니사업
재단/법인/위탁	•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 매개자양성 및 방과후 활동 • 교육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학부모 동아리 발굴 및 지원

공적 인프라 및 청소년관계 기관/시설		주요 사업/프로그램
	• 인재육성재단/다중지능학습센터	•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 다중지능계발사업
	• 지역재생형 농촌유학센터	• 도시학생 유치 및 농촌공교육
	• 공공도서관 • 완주군립도서관	• 웹툰 창작체험관
	• 청소년전통문화체험관	• 전통문화교육
	•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	• 청소년환경동아리 지원
	• 완주군청소년수련관	• 아동청소년안전네트워크 휴센터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룰루랄라
	•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동아리 활동 • 청소년어울림마당
	• 이서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문화지구/청소년축제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동아리 활동
	•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 아동청소년 통합사례관리 • 아동 · 청소년 심리정서 위기개입
	•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 진로교육지원센터	• 진로직업체험 네트워크 140개 기관 연계
	•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	• 해외 문화체험 • 대학탐방활동
	• 글로벌 직업학교 특화학교	• 독일 취업시스템 연계를 고교 졸업 후 독일 취업 지원
	• 지역아동센터(13개소)/ • 공립 완주놀자 지역아동센터	• 방과후 교과지도 및 학습, 급식, 보호 등
	• 장애인인권정보 지원센터/ • 완주군장애인복지관/ • 완주웃음꽃놀이교육상담센터/이랑아동발달통합지원세터	• 인권상담 및 인권교육, 캠페인 등 • 장애아동/청소년/가족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서비스 - 돌봄 프로그램 - 집단상담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운영 •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 역량 강화

* 출처: 완주군 (2020). 2020년 새로운 도약, 아동친화도시 2.0 아동 청소년, 군민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완주. 주요한 활동 내용을 수정 정리함.

완주군은 2016년부터 '농촌형 유니세프 아동 · 청소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아동 ·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 5년간 상위인증단계로 '획득'을 받은 상태이다. '아동 · 청소년의 행복도 및 친화도 지수 증진'을 핵심 목표로 한다. '농촌형 아동 · 청소년친화도시 완주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민 · 관 거버넌스 구축, 아동 · 청소년 욕구기반 다양성 확보, 전문성 양성을 핵심 가치로 하여, 6개의 추진과제로서 돌봄분야, 역량분야, 건강분야, 안전분야, 보호분야, 기반분야별 추진과제를 개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역량분야, 보호분야, 실행기반 분야의 과제추진을 위해 지자체 내 교육아동복지과를 중심으로 아동 · 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9년 현재 아동 · 청소년참여예산사업으로, 화장실 낮은 옷걸이 설치사업(공공도서관 등), 학교주변 교통사고 안전식별장치 설치 사업, (트리하우스)청소년 공간(아지트) 조성사업, 청소년 체육공원 조성사업(청소년수련관)을 추진과제로 수행하였다. 2020년부터 아동청소년 지역사회네트워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분과회의 운영 및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실무협의회와 연계를 추진 중이다.

돌봄영역에서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3학년 맞벌이가정을 우선으로 공공보육 지원서비스, 공동육아 및 돌봄서비스, 지역맞춤형 출산장려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돌봄 분야의 추진체계로서 '다함께돌봄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4개 지역(삼례, 봉동, 소양, 비봉)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5개 정책 분야 중 역량 분야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통합역량 강화, 행복한 성장을 위한 놀이문화 및 환경 조성, 청소년 참여활동 및 진로개발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2019년 현재, 맞춤형 통합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 28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체육공원과, 농업축산과가 주축이 되어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시설(완주군청소년수련관, 완주군청소녀문화의집, 이서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추진하였다.

건강 분야는 공공기관으로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 기관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정신건강관리 인프라로서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통합사례회의 운영, 24시간 위기상담 및 심리정서 의료비 지원, 영양교육 실시 등이 이루어졌다.

안전 분야에서는 환경 개선, 재난안전 관리,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이 실행되었다. 이를 위해,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 내 청소년환경동아리 운영, 교육아동복지과와 함께 완주군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안전네트워크 휴센터 등을 운영하였다. 보호 및 실행기반 분야는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 영역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 등이 참여하여 수행하게 된다. 보호 분야는 아동 및 청소년복지 실행에 해당하며, 실행기반 분야에서는 아동권리 인식 확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 아동·청소년정책 수립·모니터링·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참고: 〈표 Ⅲ-10〉).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를 주축으로 실행하고 있는 관(官) 주도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완주군에 산재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자원 확보 및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네트워크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 환류가 가능한 민·관 협력 자원 네트워크로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표 Ⅲ-10 2019년 완주군 지자체 주도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영역 및 주요 사업 개요

영역	주요 사업	추진체계	참여 대상
돌봄	다함께돌봄 플랫폼 구축	교육아동복지과 다함께 돌봄센터 (삼례, 봉동, 소양, 비봉)	초등학생 1~3학년 맞벌이가정 우선
역량	다중지능계발사업 (중국어학교, 영화학교, 청소년음악밴드, 다중지능지능교육 공모사업)	교육아동복지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생

영역	주요 사업	추진체계	참여 대상
	인재스쿨운영	교육아동복지과	고등학생 130명
	창의꽃 발명교실	교육아동복지과 봉동초교, 이서초교, 상관중학교	초등/중학생
	고산향교 지원사업	문화관광과 고산초교, 고산향교	초등학생
	학생승마체험	농업축산과	총/중/고등학생 300명
	아동친화도시 국제교류	교육아동복지과 완주군청소년의회	청소년
	방과후학교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 혁신도시 방과후학교	교육아동복지과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중학생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이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따뜻한 학교, 즐거운학교, 마을과 함께 숨쉬는 학교	초/중/고등학교 완주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생
	완주군-서울시 청소년 문화교류	완주교육지원청 문화관광과	청소년 80명
	청소년어울림마당	교육아동복지과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놀토피아	문화관광과	초등학생~성인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룰루랄라	교육아동복지과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지역사회 자원활동가	아동/청소년
건강	정신건강관리 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저소득 아동청소년 건강과일바구니사업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안전	청소년환경동아리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	청소년
	아동청소년안전네트워크 휴센터 운영	교육아동복지과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아동/청소년
보호	장애아동가족지원/프로그램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

영역	주요 사업	추진체계	참여 대상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교육아동복지과	다문화아동 0~12세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교육아동복지과	다문화청소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교육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
	청소년특별지원사업	교육아동복지과	만9세~18세 이하
실행 기반	아동권리교육사업	교육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 군민
	아동청소년권리축제	교육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 군민
	어린이날 축제 마당	교육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 군민
	아동권리영화제	교육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
	아동친화도시 기자단(모니터링) 운영	교육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 20명

* 출처: 완주군 (2020). 2020년 새로운 도약, 아동친화도시 2.0 아동 청소년, 군민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완주. 내용을 발췌, 요약하여 정리함.

한편,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관(官) 주도의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사업과는 달리, 지자체를 지역사회네트워크의 플랫폼으로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네트워크를 섹터별로 구축하여 활성화하고자 한다. 예컨대, 방과후사업 및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 산하 교육통합지원센터가 네트워크플랫폼으로 교육청-학교를 주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인프라 및 민간 자원(청소년기관/시설, 협동조합, 시민단체)을 방계로 연계하여 민·관·학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관할하는 교육통합지원센터는 허브 기구로서 교육지원청과 청소년시설, 사회적 경제를 주관하는 130여개의 협동조합과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참고: [그림 Ⅲ-11]). 또한, 지자체가 지역사회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청소년기관/시설과 지역사회 협동조합 및 시민단

체와 연계한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및 청년 창업, 지역공동체 및 자활공동체 등을 성공적으로 구축, 확장, 연계 협력하는 지역사회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완주군이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적 특색에 따라 청소년기관이나 시설 등이 미흡한 상태여서 각급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지역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급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참고: [그림 Ⅲ-11]).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는 완주군과 완주군교육지원청 간의 연계협력구조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위탁기관으로, '교육주체의 발굴 육성과 역량 강화', '교육통합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적용 운영', '인적/물적 자원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교육자원발굴육성네트워크사업 유형으로 각 읍·면·동의 지역사회적 특성에 따라 '작은학교형', '농촌형', '도농복합형'으로 나누어 지역사회 민·관·학 연계사업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참고: [그림 Ⅲ-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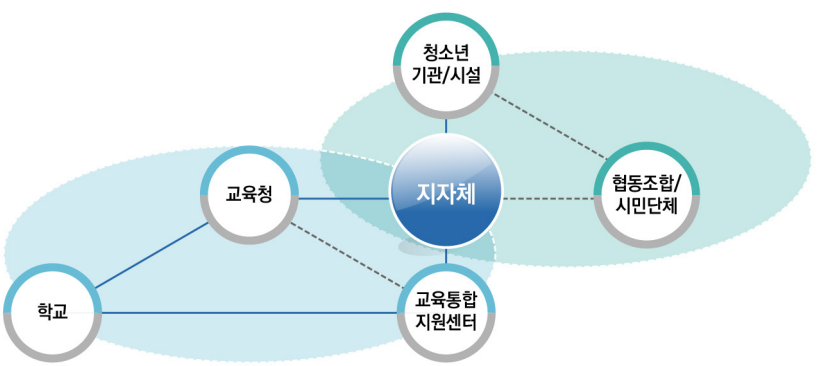


그림 Ⅲ-11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완주군의 민·관·학 지역사회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 모형



* 출처: 완주군 교육총합지원센터. http://wjedu.or.kr/sub02/sub02_01.php에서 2020년 8월 14일 인출.

그림 Ⅲ-12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의 교육자원발굴육성네트워크사업 운영모형도

이를 위하여, 교육통합지원센터 산하 기관인 사)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 완주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사)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는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통합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기 위해 교육통합지원센터가 현재까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연구소이다. 완주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15년 7월에 '완주진로교육지원센터'로 개소하여 자유학기제 일환으로 완주군 내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지원 및 체험을 감당하기 위해 진로직업체험 인프라 구축, 학교진로교육 지원, 학교밖 진로교육 지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민간위탁운영의 형태로 지금의 '완주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개명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완주군통합지원센터-지자체-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이 연계한 운영체계를 통해 '꿈길'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 출처: 꿈길(교육부) 소개. http://www.ggoomgil.go.kr/front/intro/intro02.do?rootMenuId=05&menuId=0502 2020년 8월 14일 인출.

그림 Ⅲ-13 '꿈길' 진로체험 운영 컨설팅 체계도



* 출처: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http://www.wanjucoop.com/?act=main에서 2020년 8월 14일 인출.

그림 Ⅲ-14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모형도

(3) 완주군 지역사회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특징 및 성과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완주군 지역사회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자체 중심 네트워크 구성 및 지자체 주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 2014년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완주군은 2015년부터 '농촌형 아동·청소년친화도시모델'을 창출하여 민·관·학 지역사회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농촌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모델을 추진하여 관(官) 주도의 사업 기획과 자원 개발,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협력·지원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이 매우 실효적으로 이루어진 특성을 지닌다.

또한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가 직영 내지 위탁 운영을 하는 형태로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진로교육지원센터,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이서 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진로지원(꿈마루 카페),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립 완주놀자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직접 설립하여, 공적 인프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완주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단기간에 마련한 특성을 지닌다. 결론적으로,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 아동·청소년친화도시모델'의 특성은 관 주도형 아동·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지역사회네트워크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민간 자원(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교육청, 학교 등과 같은 공공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완주군의 가장 큰 특징이 모든 사업들을 지방정부인 완주군이 주도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동친화도시도 사실 같이 한다고 하지만 가정 먼저 이것들을 주도했고 시도했던 것은 사실 우리 완주군청에서 아동친화도시 사업들을 한번 해보자 해서 발단이 됐던 거예요."(완주군청 ○○○)

한편, 관(官) 주도의 농촌형 아동·청소년친화도시모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주군의 공적 전달체계만으로는 각종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완주군 자체가 농업을 주축산업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등이 연계된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육성하여 지원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각 사업별로 실무협의회 또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통합지원망 등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별, 섹터별로 맞춤형 민·관·학 지역사회네트워크를 다양하고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참고: [그림 Ⅲ-14]).

또한 아동·청소년친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직접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마을 주민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매개자 양성 및 방과후활동 지원 사업 추진, 창의적 교육특구로서 학교-마을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같이 각 지역에 산재하는 민간자원을 활용한 초·중·고등학생들의 체험활동 및 돌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영역과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비록 '꿈길'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부 사업이지만 이 역시 청소년의 진로·진학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내 구성된 산업 섹터별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함께 실제적인 진로 설계 및 창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모델은 저희 관(官) 중심의 사업들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이제 지역사회도 보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민간단체 사람들 보면서 조금씩 지역사회, 관, 학교 같이 혼합해서 가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지자체 분들의 관심도에 따라 교육사업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육사업들이 사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전문적이지 못해서 교육청과의 협의 혹은 정책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생긴 것이거든요. 민간인 분들인데..." "예를 들면, 소양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청소년시설이. 다함께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있는데 중 · 고등학교 아이들을 케어(care)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에서 그걸 담아가고 있어요, 자체적으로."(완주군청 ○○○)

특히, 완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 아동 · 청소년친화도시모델뿐만 아니라 아동 ·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의 구성 및 활성화에 있어서 지자체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완주군의 비전 및 장 · 단기 목표 수립, 관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인적 자원 지원 및 지역사회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하여 완주군 차원에서도 지자체 내 부처 중심이 아닌 사업 영역별 과제 추진을 위하여 연계 협력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참여한 모든 부서 및 과에서 해당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더욱 고무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자체 장의 의지와 실질적인 보상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완주군 자체의 분위기와 업무 협조의 관행으로 지자체 각 과에서 개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유기적인 협력, 연계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 민(民)-관(官) 연계협력보다는 관(官)-관(官) 연계 협력이 더욱 어렵고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는 기존 지역사회네트워크 거버넌스와도 차이가 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지자체 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화된 과제 도출, 성과 공유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아동 · 청소년 정책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려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지자체 장의 관심이거든요...완주 군수님이 완주 군정의 가장 큰 다섯 가지 비전 중에 한 가지 큰 핵심 비전으로 삼은 것이 미래세대 육성이고, 교육정책들을 활성화 시키고

교육청과의 협력들을 강화하신 점이거든요. 그러면서 관련 부서로 교육지원과가 생겨난 것이고, 거기서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하면서 아동 · 청소년들이 성장을 하면서 교육만으로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완주군청 ○○○)

"단체장님의 마인드도 이런 칸막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 내 일 아니라고 미루지 말고..." "다른 곳을 보면 공무원 대 공무원으로 업무 협력을 하자 이런 것들은 내 업무가 아니면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필요한 자원을 그쪽에 이야기하면 연계해주고 이러다 보니 완주군이 서로서로 윈(win)-윈(win)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원도 연계해 주고 소개도 시켜 주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해주고."(완주군청 ○○○)

한편, 완주군이 아닌 다른 지역의 청소년 성장을 위한 도시형 지역사회네트워크 특징이 2차 또는 3차 산업지구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한 것인데, 완주군의 경우에는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형에서 볼 수 있는 산업체 혹은 기업 CSR 등과의 연계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면, 이러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오히려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 특산품과 같은 소규모 창업 혹은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다는 특성이 있다(참고: [그림 Ⅲ-13]). 비록 소규모 내지 창업 중심의 영세한 규모일지라도 이들과 함께 아동-청소년-청년에 이르는 '생애발달 단계형 사회적기업-창업-협동조합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나 마을공동체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아동 · 청소년의 진로 탐색 및 개발을 포함한 여가 · 문화 · 지역사회 개발 등의 다양한 차원의 성장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교육관련 협동조합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우리 완주군에 지금 130개 정도가 있어요. 협동조합이.....지원은 매개자 교육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기는 해도 지원 같은 것은 따로 사회경제과에 있는 소셜구축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협동조합을 양성해요.....협동조합 성격에 따라 다른 거죠. 돌봄, 놀이, 교육 등등 엄청

많죠. 체험도 있고 협동조합이....민간시민단체죠. 작년에 각계 분야 협동조합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영역별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완주군청 ○○○)

"그런데,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으면 스스로 자립을 하세요."(완주군청 ○○○)

"협동조합도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케어(care)할 때, 돌봄을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간사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나 이러이러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협동조합이 참여해요....청소년기관들과 시설들과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 협동조합과 교육통합지원센터와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연계해서 함께 해요..... 일단 네트워크들, 지역에 있는 기관은 구성되어 있는 데 서로 잘 섞인다고 할까요. 업무협조할 때." (완주군청 ○○○)

"저는 상호상생이라고 봐요. 사실은 처음에는 민간자원이 많으면, 서울 같은 곳은 전문가도 많고 민간 자원도 많으니까 그분들이 하시면 좋죠. 완주군은 복합지역이라서 물론 혁신도시나 이런 곳에는 교육 이수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역 인프라가 많이 없어요..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이유는 지역전문가를 같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지역 자원이 다르니까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저희는 큰 틀로 방향만 잡아주고 이끌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시스템을."(완주군청 ○○○)

"저희도 청소년센터를 직영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먼저 활성화 되어가지고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구례처럼 청소년들을 케어(care)하고 스스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참여해서 일자리도 연계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이 점점 전문화 과정 단계에 있어요. 지금은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취업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협동조합들이 청소년을 케어(care)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을 면의 지역주민들이 주도해서 해요. 여기 소양면에서요."(완주군청 ○○○)

결론적으로 2015년 이후 관(官) 주도의 아동 ·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계기로 2019년 이후 완주군 지역사회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가시화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완주군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가장 큰 변화는 무엇

보다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권리 인식 수준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권리 인식의 변화는 아동 ·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공동체 참여 형식과 내용을 모두 다양하게 확장시키고,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구축하여 민간 중심의 협동조합으로까지 이어지는 성과로 보인다. 또한 지역사회의 변화와 함께 아동 · 청소년의 권리 인식 수준 역시 향상되었다.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를 통해 아동 · 청소년들이 실제적인 완주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 보거나,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해 보기도 하고, 참여 예산의 실질적인 집을 실제로 참여해 보면서 아동 · 청소년들의 권익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해마다 정책 성과로 환류가 되어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 인식도 2015년도에 인식도보다 2019년에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자신과 관련된 권리들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아져있고, 아동 친화 영역 6가지를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지난 4년보다도 작년에 했던 인식도가 대부분 높아져 있어요."(완주군청 ○○○)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찌됐든 청소년들과 같이 활동을 하려면 시민의식이 좀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저희 청년정책, 소셜 구축하고 협동조합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교육 사업들, 아동친화도시 사업들, 이런 정책들이 같이 가니까 거기 참여하는 군민들 혹은 구성원의 의식 수준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완주군청 ○○○)

"청소년의회, 어린이의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참여 예산인 거 같아요. 참여 예산을 꾸준히 2억원씩 아이들이 제안한 의견을 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실현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게 있어서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내가 낸 의견이 진짜 어른들이 들어 줬어 라는 반응을 보고 정말 뿌듯해 하고....아이들은 성장을 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내가 낸 의견이 완주 군수님이 봐주시고 어른들이 답변을 해주고, 축제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기획을 해서 코너 구성을 하고 기획하고 진행도 하면서 뿌듯해하고 성장을 하거든요. 완주군은 참여 예산과 청소년축제 같은 것들이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영화도

만들고 그런 것들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고등학생 1, 2학년까지." (완주군청 ○○○)

완주군 지역사회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또 다른 성과로서 완주군의 지역사회 특성상 관(官) 주도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 부문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실무협의체 중심으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컨대 비전(vision) 설정은 지자체가 세우더라도 이를 실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 · 관 · 학이 모여 공동으로 비전을 비롯한 공동의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활동 계획을 세우면서 처음부터 공동으로 지역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무협의회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해 민간단체장을 중심으로 모여서 구성하기보다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정책 실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세부과제 구상 단계부터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실무협의회는 작년부터 조례를 만들었는데 구성하는 사람들로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 정말로 민간단체 장이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여기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오는 곳이니까. 실무협의체...저희가 어떤 사업들 예산을 세우고 어떤 사업들을 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 사업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다 필요한 곳을 해서 추진했을 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죠."(완주군청 ○○○)

"2018년도에 처음에 우리가 보통 협의체나 어떤 회의를 한다고 오셨을 때는 들어보시면서 자신들의 주장만 했다면, 2019년도에 모였을 때는 지역의 발전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서 담아내려고 하시는 것들이 성숙해져 있고, 그리고 한 번 참여하면 그 다음에도 뭔가가 또 있겠지 하면서 궁금해 하면서 문의전화가 자주 오곤 하세요."(완주군청 ○○○)

(4) 시사점

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으로 우선,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완주군 지역사회네트워크는 관 주도로 어떻게 지역사회네트워크 주체들 간에 상호작용을 해야 하고 어떤 관점에서 지자체와 민간, 공공이 상호 협력해야 협력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완주군과 같이 지역 자원이 부족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사회네트워크의 시작단계에서는 주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했지만, 실행은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추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완주군은 관 주도의 지역사회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파트너십(partnership)의 형식적 연계 지원체계를 지양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이 허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공공과 민간 모두 자율성을 갖고 행위자들 간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관리하는 체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완주의 사례를 볼 때,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프로그램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시작되더라도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는 시점부터는 민간 부문에 위탁하거나 공공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예컨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매개자 혹은 중개기관을 설립하는 등 민간 부문의 역량 강화를 통해 다양한 집합형식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 또한 관 주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라 할지라도 지자체의 의지와 태도에 따라 충분히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상호호혜적 입장에서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복합조직으로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현재 완주군의 특성인 농촌형 지역사회네트워크의 주요한 표적집단을 노인 연령층에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가능한 지역 산업 육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을 지역사회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장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을 초등학교나 중학교시기로 한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전 생애발달 단계별로 기획하고 있으며, 공적 자원과 민간 자원의 융합을 통한 생애지원책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확대해 가고 있다. 예컨대, 아동 · 청소년의 성장지원 사업을 위한 마을 협동조합의 경우, 아동 · 청소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며, 다양한 연령층 및 협동조합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이나 진로 · 취업 관련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주군 내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지원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과 같이 농업형 지역사회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 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전략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지자체 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의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도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시그널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자체 내 부서별로 성과를 평가하고 개별화하기 보다는 각 부서별로 축적하는 칸막이 효과를 불식시키고, 착수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혁신으로 협업을 통한 각 사업별 시너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원들의 성과내기에 치중하기 보다는 일정한 수준에서 정책이나 사업성과가 달성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지역사회 내 민간 부문의 참여를 강화하거나 확대시키고 자생력을 강화시킴으로써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과 같은 민간 자원의 성장과 확대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활용한 지역사회 개발의 근본적인 목적이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성장이자 지역공동체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5) 세종특별자치시

(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의 생태환경적 조건 및 맥락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2012년 7월 공식 출범한 성장형 계획도시로서,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이다. 세종시의 인구수는 2020년 5월말 350,925명(외국인 5,552명 포함)이며, 세대수는 137,893세대(외국인제외)이다(세종통계, 2020). 학생 수는 초등학생 27,892명, 중학생 11,202명, 고등학생 9,475명이며(한국교육개발원, 2019), 9~24세 이하 청소년 인구 수는 62,893명으로 청소년 인구비율은 18.21%를 차지한다(KOSIS 국가통계포털, 2020). 2018년 기준, 평균연령 36.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전국 평균 42.1세)이다(행정안전부, 2019). 청소년 관련기관으로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1개소 등이 건립되어 있다.

세종시는 2017년 9월, 국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전국에서는 14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2016년 아동친화도시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속적으로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시정 개선의견 및 정책을 제안하고, 시는 이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여 왔다(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2017. 10. 26. 2018. 04. 09, 2019. 01. 14). 2019년에는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예산제 제안 사업'을 도입하여, 아동·청소년을 실질적 정책 결정과 예산과정 주체로 보고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세종특별자치시보도자료, 2019. 06. 05, 2020. 06. 10). 2020년 6월에는 제1기 아동 · 청소년 의회를 출범하면서 아동 · 청소년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동 · 청소년 의회는 공직 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아동의 직접 투표로 어린이 · 청소년 의원을 선출하고, 정책 제안 ·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세종시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 절차에 참여하고, 아동 · 청소년 정책과 예산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등 아동 · 청소년의 삶과 권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보도자료, 2020. 06. 14).

⑵ 세종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을방과 후 운영사업을 중심으로

세종시청과 교육청은 2019년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세종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역사와 전통이 비교적 짧은 신생도시라는 점에서 자생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어려운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포함되는 조치원읍에는 지역사회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가 존재하지만 신도심과의 연계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행정기관, 학교를 이어주는 연계 · 허브형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바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이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아동 · 청소년에게 필요한 체험학습 및 방과후 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설립한 허브기관으로서 센터가 생기면서 세종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는 아동 · 청소년 교육사업 분석/평가/연구, 자유학기제나 진로수업 지원 등 학교와 지역 교육 인프라 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 교육자원 발굴 · 조사 · 매칭 및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아동 · 청소년 체험학습 및 방과후 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다각적으로 교육네트워킹을 구축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교육 네트워크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교육자원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전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하는 사업은 교육자원 연계 프로그램 확대 사업이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마을교육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마을교육프로그램에는 마을학교, 작은도서관 마을방과후, 복컴 마을방과후, 동네방네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표 Ⅲ-11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을교육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	운영기관
마을학교	• (개념) 마을의 시민들이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돌봄, 독서, 체험, 놀이, 생태, 환경, 문화 · 예술, 경제, 진로탐색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 • (대상) 유 · 초 · 중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목적) 학교와 지역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성장 • (장소) 학교 안, 밖	교육청
작은 도서관 마을방과후	• (개념)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학교 밖에서 초 · 중등학교 학생이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과후 활동 • (대상) 세종시 초 · 중등 학생 • (목적)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의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 경감 • (장소) 작은도서관	교육청
복컴 마을방과후	• (개념) 세종의 우수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안전한 마을학습 공간으로 활용해, 주민자치와 연계한 돌봄 ·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 (대상) 세종시 초 · 중등 학생 • (목적) 마을의 거점이자 중심 공간인 복컴 마을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대간 공동체 교류 및 유대감 형성을 통한 지역민주시민 육성 • (장소)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청
동네방네 프로젝트	• (개념) 마을을 기반으로 학생이 스스로 기획-운영-평가하는 무학년제 프로젝트 활동(청소년자치배움터) • (대상) 세종시 관내 중1~고3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목적)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 강화 및 학생 중심 교육 혁신의 본질 회복 • (장소) 학교 밖	교육청

* 출처: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마을교육프로그램이란 https://www.sejong.go.kr/happyedu/damoa/contents/happy/content/content.motion?mnucd=SJMENU0100009에서 2020년 8월 14일 인출.

이상에서 살펴본 세종시 마을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복컴 마을방과 후 사업이다. 세종시의 우수한 복합 커뮤티니센터를 안전한 마을학습공간으로 활용해 주민자치와 연계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한 거점형 방과후 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대평동과 한솔동 등 두 개의 복컴을 중심으로 마을방과후 교육활동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면서 복컴 마을방과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방과후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별 융합형 프로그램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자율동아리, 자유학기 수업이나 진로수업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 〈표 Ⅲ-12〉 참조).

표 Ⅲ-12 복컴 마을방과 후 시범사업(한솔동과 대평동)

구분	학교급	내용	학년	프로그램
한솔동	초등	마을방과후	3~6학년	9개 프로그램
	중등	자유학기 공간 활용	1학년 자유학기 동아리 5개 반	스트레칭 요가 외 3개
		진로수업 지원	1학년 10개 반	아나운서 직업특강 및 스피치 교육(4차시)
		자유학기 수업 지원	1학년 교과	자유학기 주제선택(6차시)
		한솔중 자율동아리 운영	1~3학년	청소년보드게임 봉사자
		학년말 교육활동 지원	1, 3학년	놀이, 경제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 연계·운영
대평동	초등	마을방과후	2~6학년	5개 프로그램
	중등	금호중 자율동아리 운영	1~3학년	청소년보드게임 봉사자

* 학교교육과정 포함
* 출처: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2020). 미발간 내부자료.

2019년에 실시한 센터의 마을방과후 사업이 다른 지역의 방과후 사업과 차별화되는 것은 마을공동체(마을교사, 마을학교, 사회적기업)가 기획한 융합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한솔동 복컴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을방과후 사업 중 '빛그림 동화'라는 프로그램은 빛그림이라는 흥미로운 독서방법을 매개로 하여 비경쟁식 책 토론과 더불어 공연을 위한 발성연습, 그리고 실제 빛그림 공연을 하는 활동인데 독서, 토론, 공연 등의 활동이 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이 인근 유치원으로 찾아가 유치원 원아 대상으로 빛그림 무료공연을 2회 실시하여 방과후 수업과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활동을 동시에 수행했다.

또 다른 차별화된 특징은 세종시만의 지역적 특성을 잘 활용하여 복컴이라는 시설을 잘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계획도시로 건설되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당 마을단위의 거점센터인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초중고 학교 인근에 복컴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청소년들은 아파트와 학교 근처에서 안전하게 체험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복컴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에 안정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이 세종시 방과후 사업의 특징이다.

"복컴 방과후를 먼저 시작할 수 있었던 좋은 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 주변으로 초중고가 모여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복컴이라는 주민센터가 있는 그 안에 강의실도 잘 되어있고 저도 마을학교나 방과후 수업을 많이 하다가 왔는데 거기서 힘들었던 것은 뭐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서 지역 내에서 수업을 할 수 있거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안정적인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종만이 전국 유일하게 대표적으로 공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큰 장점인거죠. 아이들이 아파트와 학교 근처에서 안전하게 체험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건 아마 세종만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가 한 복컴당 세 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해서 마을단위의 거점센터가 있어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OOO)

복컴을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의 또 다른 장점은 복컴이 유·초·중·성인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시민교육의 장(場)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 있는 지역사회 공간에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복컴이 주민센터 겸 세종시민들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복컴이 어떤 마을의 평생교육, 유·초·중·성인까지 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통해서 그 속에서 효과적인 시민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OOO)

마지막으로 마을방과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개인, 역량강화 교육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와 시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프로그램 질 제고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역량강화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된다. 기본과정의 교육내용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철학과 운영원리,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기본소양, 프로그램 기획력 향상,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된다. 심화과정에는 미래사회와 교육의 변화, 유·초·중등 교육과정, 마을교육과정 기획·운영 원리, 학생 참여수업을 만드는 교수법 등이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교육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를 익히고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강화하면서 체득한 가치와 역량이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초과정은 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팀과 시청 마을공동체와 평생교육 유관단체가 협업하여 운영함으로써 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세종시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주체 및 역할

앞서 살펴본 세종시의 대표적인 마을교육프로그램인 마을방과 후 사업은 센터 중심의 세종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는 세종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삶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학습 및 마을방과 후 활동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교육청과 시청 등 공공기관, 지역사회, 학교가 함께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들 주체가 참여하고 있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연계·협력 관계는 다음과 같으며 주체 간에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 출처: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리플릿.
https://www.sejong.go.kr/happyedu/damoa/contents/happy/nanum/01/nanum.01.001.motion#에서 2020년 11월 25일 인출.

그림 Ⅲ-15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연계·협력관계

이러한 연계·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며 교육이 문화가 되는 행복교육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전략목표, 센터역할 등은 다음과 같다.



* 출처: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비전과 목표.
https://www.sejong.go.kr/happyedu/damoa/contents/happy/content/content.motion?mnucd=SJMENU0100045에서 2020년 8월 7일 인출.

그림 Ⅲ-16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비전과 목표

이러한 비전과 전략목표를 통해 지역교육네트워크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교육자원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센터에서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이루고, 민·관·학 연계·협력 조정자,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촉진자, 교육자원 매칭·발굴 설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협의회를 두고 있다. 운영협의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거버넌스의 최고 기구로서, 시청과 교육청의 담당국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학교 교장,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회, 대학교수, 마을교사 대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등 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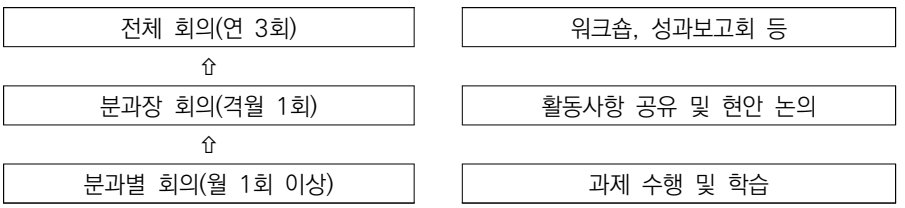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센터 운영협의회는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표 Ⅲ-13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전략목표	추진과제	주요내용
지역교육네트워크 구축	민 · 관 · 학 거버넌스 활성화	• 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시기 정례화(월1회) • 민 · 관 · 학 합동 워크숍 실시(연2회) • 실무 분과협의체 구성 · 운영 및 지원
	마을단위 교육자치조직 운영 지원	• 교육자치조직 교육공간 대여 및 홍보 지원 • 마을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교육자치조직 설립기반 지원(컨설팅, 교육 등)
	기관 간 상시 소통 · 협력체계 구축	• 시청 · 교육청 과장급 회의 운영(연 2회) • 시청-교육청 실무 T/F운영 활성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컨설팅 및 지원	• 교육전문가 자문단 구성 ·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공간 등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	•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마을교육공동체 저변 확대	• 마을교육공동체 홍보 지원 • 마을교육공동체 설립 및 육성 연계 지원
교육자원 연계 프로그램 확대	학교 및 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복컴 마을방과 후 생활권별 확대 운영(6개소) • 학교 교육과정(자유학기제 등) 마을 연계 지원
	교육자원 조사 및 발굴 · 연계 지원	• 체계적인 교육자원 조사 · 발굴 연계 지원 • 체험처 발굴 공모 및 연계(매칭) 지원 • 통합플랫폼(홈페이지) 운영 · 관리
	교육사업 모니터링 및 분석 · 평가	• 방과 후 관련 교육사업 평가(모니터링) 실시 • 우수 프로그램 사례집 제작

* 출처: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2020). 미발간 내부자료.

운영협의회 아래에 마을공동체 분과, 프로그램 분과, 모니터링 분과, 교육자원 분과 등 4개 분과가 있으며 44명이 참여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다. 이들 분과에서는 실무차원에서 마을의 현안을 도출하여 운영협의회에 정책 제안을 하고, 이를 운영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반영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 출처: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2020). 미발간 내부자료

그림 Ⅲ-17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참여학습모임 실무분과협의회 운영 프로세스

분과별 회의에서는 분과별로 월 1회 이상 모여 센터 사업과 관련한 과제를 수행하고 학습하며, 활동사항과 학습결과는 월 1회 개최되는 분과장 회의에서 공유하며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워크숍이나 성과보고회의 형식으로 전체 회의를 연 3회 개최한다. 이 실무분과협의회의 특징은 형식적인 안건 협의에만 그치지 않고 회원들의 능동적 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학습과 실천의 병행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다.

"세종시 마을교육 리더들로 구성된 분과원들이 공공성을 가지면서 학습과 실천을 병행하면서 같이 성장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워크숍이나 회의를 많이 했어요. 분과별로. 우리 분과의 정체성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했고, 분과장을 뽑아서 운영되고 있어요. 실제로 민·관·학교 교사로 구성된 모니터링분과의 경우,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 6개 복컴에서 운영중인 마을방과후 34개 전체프로그램에 대한 꼼꼼한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외에도 마을교육공동체분과는 세종시 전체 마을교육참여자의 욕구조사를 실시중이고, 프로그램 분과는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교육자원분과는 아파트 중심의 세종에서 아파트 공간기부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

운영협의회 및 실무분과 이외에도 센터 운영이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과 관련하여 방과후 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주기 위해 마을교육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Ⅲ-14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교육전문가 자문단

자문영역	소속	직위
마을교육자치	공주대학교	교수
초등교육과정, 마을방과 후 프로그램	연양초등학교	교장
교육 거버넌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자원조사, 마을교육 프로그램	공주대학교	교수
마을교육공동체 지속가능 방안	마을교육공동체센터	센터장
마을교육과정 운영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중등교육과정, 체험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플랫폼 활용	양도중학교	교사

* 출처: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2020). 미발간 내부자료

"예를 들어서 보드게임을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영상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홍보 방법이라든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저희 센터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7명의 전문가 자문단 중 해당 사안에 대해 효과적 자문을 해주실 분과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

이를 통해 방과 후 활동 관련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센터와 학교 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민 · 관 · 학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 성과 및 한계

세종시 복컴 마을방과후 사업의 성과는 무엇보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마을교사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참여교사의 94.4%가 대체로 만족하였으며 약 72%이상이 복컴 마을방과후 사업에 재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학생들도 체험과정이 즐거우며 수업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프로그램이 매우 즐겁고 유익했다는 의견이 94%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91%는 향후에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학부모의 경우에도 94.4%로 참여만족도가 높았으며 학교와 차별되는 프로그램 운영(52.8%)과 근거리 이동 편의(52.8%)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근거리 이동 편의가 만족도의 가장 높은 원인 중의 하나였다는 점은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계획도시의 장점을 살려 복컴을 활용한 마을방과 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러한 전략이 주효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방과 후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세종형 마을방과 후 모델을 구축하였다는 것을 성과로 제시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학교방과 후 프로그램이 주로 개인의 전문성과 콘텐츠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면, 복컴 마을방과 후 사업은 마을공동체(마을교사 · 마을학교 · 사회적기업)가 기획한 융합형 창의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에서 검증된 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제가 2017년에 교육청 근무시에, 복컴마을방과후 사업을 시작해야해서, 교육청에서 위촉한 마을교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죠. 마을 교사 중에 역량이 뛰어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학교 방과후는 단품 위주로 운영을 하는데, 복컴에서는 융합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면 어떻겠냐 하셔서, 그때 마을 교사 세 네 분이 한 팀이 되어서 수업을 2017년부터 2개 복컴에서 하고 2018년에는 5개로 옮기고, 이렇게 하다가 2019년에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시청의 인프라를 10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마을 방과후를 하게 된 거예요. 2020년에는 세종시 전체 복컴에서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

이처럼 마을공동체에서 기획한 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방과후 사업을 통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성과로 제시할 수 있다. 방과 후 사업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공동체의 가치와 활동경험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를 개인 단위가 아니라 공동체 단위로 모집하였고 공모 시 개인 단위보다는 공동체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가산점을 더 부여하였다. 이처럼 공동체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동체의 가치나 공동체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이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프로그램을 개인과 공동체 단위로 모집했어요. 협동조합, 마을기업, 주민 모임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학교에서는 쉽게 맛볼 수 있는 차별화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단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고, 프로그램 운영자 모집과 선정할 때, 공동체로 몇 명 이상 들어오면 더 가산점을 주고 있어요. 또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도 하고 있어요. 물론,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복컴 마을방과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기 과정이므로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만은 이러합니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실무 TF 운영을 통해 청소년기관과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성과로 제시할 수 있다.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였고, 아동·청소년 사업(프로그램) 연계기관으로서 관련 사업 간 매개체 역할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교육 및 아동·청소년 사업 담당자가 센터에 회의를 요청하면, 센터에서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안건별로 개최하였다. 예를 들어, 청소년센터와 인근학교 자유학기 담당교사들과의 연석회의를 주선하여 청소년센터의 프로

그램을 홍보하고 학교의 자유학기제 활동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식이다.

이처럼 협력적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청소년기관과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을 함께 하면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며, 둘째는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청소년기관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학교와 청소년기관과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복컴 안에 따로 별도로 나와 있는데 청소년기관에서 초반에 어려움을 겪는 게 학교 홍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소속된 청소년 지도사와 함께, (그 분이 요청하셔서) 그 분과 함께 학교 교감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복컴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했는데 아이들 모집을 위한 홍보가 안 되고 있으니 학생들에게 홍보 좀 부탁한다고 했고, 학교 입장에서도 학교 인근 복컴에서 안전하게 활동한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얼마 안가서 활성화 되었어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

"거기서 어려운 요청사항이 있으면 도와드릴게 뭐가 있을까 했었는데. 첫 번째는 홍보 때문인데 홍보 관련해서 요청이 있어서 센터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가정통신이나 공문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구요. 학교 입장에서는 청소년 센터라고 하면 외부기관이잖아요. 거기서 보면 홍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빙성은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센터에서 이런 것을 해주면 학교 입장에서는 신빙성 있게 다가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세종문화재단에서도 했던 것은 그것이 홍보인데 역시 저희가 가정통신문을 안내해서, 결국은 가정통신문이 종이로 가는 게 하니라 요즘은 학교에서 띄우면 부모님들께 핸드폰 알람으로 가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을 연계해드리고 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여기서 공문 오나 저기서 공문 오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르더라구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

학교나 교육청과 같은 교육기관과 청소년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는 타 시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세종시에는 교육기관과 청소년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체성 형성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초기라는 점에서 시청의 비전인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비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센터의 역할을 민·관·학 연계·협력 조정자,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촉진자, 교육자원 매칭·발굴 설계자로 설정하고 있지만 설립초기인 만큼 추진과제를 실행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추진과제, 센터의 역할과 기능, 전략목표와 비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면서 추진사업 과정에서 비전과 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청과 교육청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성되었으며,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 다른 성격과 목적을 가진 기관(주체)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교육청과 시청의 조직(행정)문화가 다르고 지향하는 목적이 다른 것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다름'에서 비롯되는 다양성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에 대한 자극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교육청이 가진 '교육'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 시청이 지닌 행정 효율성과 넓은 인프라의 장점을 융합하여,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지속가능할수 있도록 문화화, 제도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더 나아가, 세종시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을 지원한다는 공공성을 확고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민·관·학교 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세종시민의 성장과 공동체 문화의 확산 속에서 이러한 사업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와 참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복컴 마을방과 후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프로그램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소년의 참가비율을 정할 수도 있고, 차년도 프로그램 목록을 확정하기 전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 후 반영하도록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방과후 프로그램에서도 교육청 동네방네 프로젝트와 같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운영-평가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청소년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세종시의 마을방과 후 사업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세종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가치지향성이 명확하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식적으로 구축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센터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방과 후 삶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측면에서 복합 커뮤니티라는 거점공간을 통하여 마을방과 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마을교육공동체적인 가치가 구현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아동과 청소년들은 마을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적 가치를 체득하면서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복컴 마을 방과후는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복컴에서

유초중성인까지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복컴이라는 거점공간을 통해서 그 속에서 효과적인 시민교육이 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적어도 방과 후 활동에서만큼은 학교와 마을의 울타리가 자연스럽게 허물어지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

그러한 점에서 방과후 사업은 세종시에서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교육의 장(場)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네트워크 참여자를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역량강화가 프로그램의 질 제고로 연결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방과 후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교사, 마을학교, 사회적기업, 학부모 등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을 관(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로 대상화하지 않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주체로 인식하였다.

"그 핵심, 본질은 뭐냐 하면 시민이 함께 성장하지 않는 사업은 예산이 끊기거나 단체장이 바뀌면 소멸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의 공무원들이 조금 더디 가더라도 시민들이 지닌 장점을 인정하고 이것을 시민과 나누고 시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 협력적 파트너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

마을학교와 마을교사를 교육의 공동주체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센터에서는 마을방과후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을 이처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로 인식하게 되면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함께 교육하는 공동 주체로서의 책임감과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방과 후 사업의 질을 제고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아동·청소년 실무 TF의 경우, 네트워크 참여자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점이다. 필요를 바탕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될 경우 그 네트워크는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다. 세종시의 아동·청소년 실무 TF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사업 간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담당자들이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시청에 파견 나와 보니 시청이 청소년 관련 단체를 많이 운영 중에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장지원을 위해서 청소년단체와 연결하고 관계 맺기는 시청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새롬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에도 19년 하반기에 대평동 복컴에 마을방과후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학생모집이 안되어서, 거기로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대화하자마자 청소년 활동에 관한 노하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관계가 만들어져서 20년에는 저희 센터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데 학교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센터에서 학교와 청소년문화의집을 연결해주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는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서로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상호 소통하며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지역사회의 인프라나 체험처를 많이 연계해서 학교에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끼면 차츰 학교 밖으로 시선을 돌릴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비판하지 말고, 소소하게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경험이 쌓이다보면 학교와 마을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협력은 서로 좋았던 경험들과 신뢰가 쌓이면서 차츰 넓어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관에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속 만나고, 도움을 주고, 서로 경험들을 쌓을 수 있도록 관이 먼저 태도를 변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

청소년단체의 입장에서는 학교로 진입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아서 학교와의 연계가 용이하지 않지만, 학교 측에서는 마을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양자가 협력할 경우 각자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그 성과가 돌아갈 수 있다.

"시청에 와보니, 청소년 센터나, 문화재단이나 아동 · 청소년대상 교육기관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개별적으로 움직였을 때 서로 간에, 아까 학교에서도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쪽에서도 홍보나 이런 게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결국 아동 · 청소년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연계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결국은 신뢰를 저희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는 시청에 이런 재단에, 이런 센터에 좋은 프로그램이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용하십시오' 하고 저희가 안내해주고. 또 센터에 시청 기관에는 학교 이러한 현안이 있습니다."(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

"학교를 서로 신뢰를 시켜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저희가 시청교육지원센터의 직원이 되기도 하구요. 만약에 학교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교육청 장학사로서 다가가는 어떻게 보면 이중의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컴이나 시청기관을 사용할 때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연락 하는 것 보다 저희 센터 쪽으로 연락을 하면 그때는 교육청과 같은 과내이니까 협조가 잘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청소년단체와의 벽을 허물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시청이나 행복교육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에서 양자 간의 연계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및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청소년기관 간의 협력이 쉽지 않은 타 시도의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세종시에서 양자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중간자적 위치에 서게 되면서 학교와 청소년기관이 서로 협력할 경우 생성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교육기관과 청소년기관, 그리고 지자체 등의 협력과 연계를 매개할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 실무 TF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청소년센터와 인근 중학교가 연계하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고 상호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교육청과 시청이 연계하여 설립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청소년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이나 동아리를 운영하며 이러한 컨텐츠를 심화하여 고교학점제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사실 아직은 세종시가 신설학교도 많다보니까 학교의 동아리 활동에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당장 학교동아리 경험도 없는데 학교 밖으로까지 넓히는 것이 사실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희는 교육청 동네방네프로젝트처럼 시청에서도 유사한 청소년 활동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학교간에 무학년제로 아이들이 원하는 동아리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복교육지원센터가 플랫폼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연수나 운영을 통해 성장한 시민들이 체험처나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학습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

청소년기관에서도 교육청이나 학교와 연계하여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고교학점제에서 인정 가능한 교과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진로체험 활동과 같은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는 고유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관련 교과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6) 경기도 의정부시

(1) 의정부 지역사회의 생태환경적 조건 및 맥락

의정부시는 서울특별시 북부와 인접해 있는 경기 북부권의 도시다. 서쪽으로는 고양시, 동쪽으로는 남양주시가 있어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해 경기 북부지역의 중심지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가 소재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194,513세대에 455,248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의정부시청, 2020), 경기도의 31개 시·군 가운데 13번째로 인구 규모가 크다(통계청, 2020).

학생수는 초등학생 22,845명, 중학생 1,917명, 고등학생 12,943명(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2020)이며, 9~24세 이하 청소년 인구수는 78,194명으로 청소년 인구비율은 17.19%를 차지한다(통계청, 2020). 2015년 '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5년 11월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청소년 관련기관으로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청소년쉼터 3개소,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1개소 등이 건립되어 있으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스트레스, 왕따, 부모와의 단절 등 사회적 관계 악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청소년을 치유하고 보듬을 수 있는 도심숲속 힐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참여예산제안대회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 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한 청소년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12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19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을 수상하였다(의정부시보도자료, 2019. 04. 10, 2019. 12. 18., 의정부시청소년재단보도자료, 2020. 01. 03). 또한 의정부시는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어울림마당 문화축제기획단을 운영하였고,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고 세계시민의식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해외봉사단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사업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형성하여 위기 청소년을 긴급 지원하고 2019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131개 지역연계 기관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연계망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통합서비스를 1,200명의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등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의정부시 보도자료, 2019. 12. 18.).

(2) 의정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과 청소년 정책마켓을 중심으로

의정부 지역사회는 의정부 몽실학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의정부 몽실(夢實)학교는 지역사회 협력 미래형 학생자치배움터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슬로건 하에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학교교육과정 연계 체험형 교육과정, 마을 협력 학교 밖 배움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 미래의 꿈을 이루어가는 배움터를 의미한다. 몽실학교는 행정적으로는 의정부교육지원청 산하 기관이며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의 실천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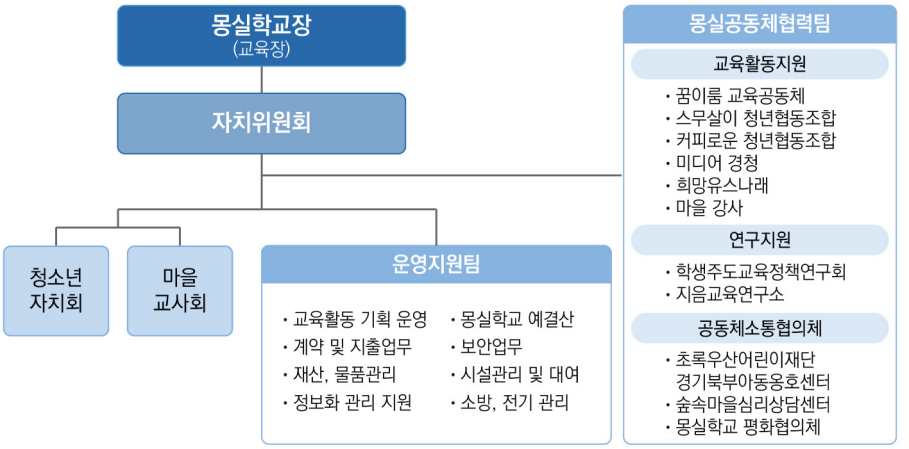
몽실학교에서 추진하였던 다양한 프로젝트나 우수 사례들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과 정책마켓을 중심으로 의정부 청소년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은 의정부 몽실학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나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청소년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기관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청소년 정책마켓은 사회복지법인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서 외연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①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 꿈이룸 과정

몽실학교의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꿈이룸 과정은 학습자가 교육과정을 만들고 실행하는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으로 실천되고 있다. 꿈이룸과정에는 마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마을 프로젝트, 메이커 프로젝트, 영상 · 미디어 프로젝트, 몽실 공동체 프로젝트, 청소년 자치회 운영 등이 포함되며, 교육과정 구성 및 실행 등의 전 과정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계획하며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은 주제기반 프로젝트 학습이 주를 이룬다. 학기 초 프로젝트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두 모여 함께 프로젝트 주제 선정과 팀 구성을 위한 워크샵을 진행한다.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학생들이 15~20여명 내외의 모둠으로 나뉘어 모둠별 토론을 진행한 후, 각 모둠에서 나온 주제들을 모아 함께 주제를 결정한다. 선정된 주제별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무학년제로 모여 팀을 구성하고 1년간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한 학생이 2개까지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통 연 72시간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프로젝트 과정을 종료하면 학생들의 활동내용은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기록된다.

꿈이룸 과정에는 청소년 자치회 운영도 포함되는데, 몽실학교가 다른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확연히 차별화되는 부분은 청소년이 주도하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점이다.



* 출처: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2019). 의정부 몽실학교 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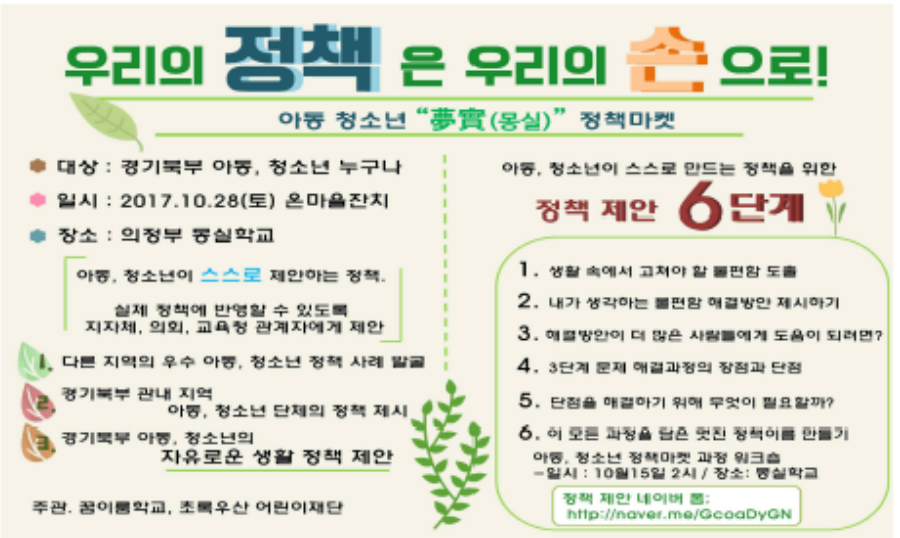
그림 Ⅲ-18 의정부 몽실학교 조직도

청소년이 주도하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것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 운영주체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몽실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와 학습방식을 스스로 정하고 주도적으로 학습과정을 이끌어 가는데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것은 마을교육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서만 청소년이 주도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주도성은 마을 프로젝트뿐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범위로까지 확대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은 청소년 자치회로서 청소년 자치회는 몽실학교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체이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소년자치회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점차 확대되면서 몽실학교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성격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조윤정, 2018).

② 정책마켓

정책마켓은 의정부 몽실학교에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사업으로서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책은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취지로 우수 정책 사례를 실질적 구매자(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교육청 관계자, 시의원 및 구의원, 시민단체, 관심 있는 시민 등)에게 판매하면서 정책 현실화를 촉진하는 정책박람회이다.



* 출처: 경기도교육청 (2017). 2017 몽실학교 정책마켓 포스터.

그림 Ⅲ-19 2017년에 실시한 정책마켓 포스터

청소년들은 프로젝트 팀별로 토론을 통하여 3차례에 걸친 정책마켓 워크샵을 통해 30개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정책마켓에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에는 학교운영 주체 또는 시민으로서의 학생(청소년) 참여 관련 안건, 청소년 복지 및 안전 관련 안건, 교육제도 관련 안건 등이 포함된다(참고: 〈표 Ⅲ-15〉).

표 Ⅲ-15 정책마켓의 정책제안 내용

영역	정책마켓 제안내용
학교운영 주체 또는 시민으로서의 학생 참여	지역별 몽실학교 구축,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제도화, 청소년의회 활동, 18세로 선거법 연령 인하 등
청소년 복지, 안전 및 노동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꿈e룸카드 청소년 전용할인 체크카드, 학교 앞 자전거 스쿨존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안전 대책,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개선 등
교육제도	관내 중고등학교 지필고사기간 통일, 생기부 간소화 정책, 필수교육과정 축소 및 자율선택 과목 확대, 블라인드 입시제도,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 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 확대, 문이과 통합자율동아리 프로그램 확대, 교장발령제 폐지 및 교장 선출제 등

* 출처: 조윤정 (2018).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연구: 몽실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9(4), 199-227.

정책마켓은 정책을 만든 판매자가 몽실정책 마켓에 지역의 시의원과 도의원, 교육청 관계자, 시민들을 초청하여 청소년들이 만든 정책을 제안하면 정책입안자와 정책실행의 주체들이 의정활동과 정책집행과정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반영 계약서를 체결한 후 정책을 구매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정책마켓에서 판매하는 30개의 정책을 모두 구매하였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부서에서는 정책마켓에서 구매한 정책 실행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향후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2017년 이후에도 정책마켓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2018년에는 '그린스트로우, 플라스틱 빨대 사용 축소', '학교 가는 길, 안전하게 다닐 권리'. '외국인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성중립 화장실' 등 청소년의 관심사나 사회현안을 반영한 정책들이 제안되었고, 경기도의원이 조례나 법률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제안한 28개 정책을 구매하였다.

2019년에는 '선 너머 평화'를 주제로 중학교 졸업 직후 갭 이어(gap year)과정, 1시간 미리 듣기 선택과목 체험 수강제, 낮잠시간 도입, 학생청원제도, 학기당 시험횟수 줄이기 등 청소년 눈높이에서 바라본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해 제안하였다. 청소년들이 생산한 교육정책들을 보면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의 영역, 특히 교육과 관련한 영역을 기반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자신의 눈높이에서 제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 차원에서 교사나 어른이 '우리 교육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미리 던져주고 그에 대한 지필고사에 대한 답안처럼 만들어내는 정책과는 질적으로 차별화된다. 생성된 결과는 동일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일상과 일상을 규정하는 통념과 권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변혁하려는 의지로부터 생성되는 정책 제안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이처럼 자신의 일상을 규정하는 통념을 깨뜨리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은 몽실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이 주도하는 마을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주도성을 키웠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도성을 가졌을 때 통념을 깨뜨리는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고, 배움을 삶의 터전인 마을과 연결하였을 때 현장과 유리되지 않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몽실학교는 교육기관이잖아요. 청소년의 돌봄과 교육, 청소년의 삶과 생활, 돌봄 교육과 복지가 함께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함께 되어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운영 자체를 자치적으로 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학교로서 못 갖추는 평생교육의 장점들, 그다음에 평생교육이 지자체가 못 가져가는 그 시기의 아이들이 배움이나 교육이나 학습권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포함 시키는, 걸쳐있는 포함되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가장 큰 장점은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 장점들이 갖는 게 지금 초중고 아이들이 계속 오면서 그게 청년과 지역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연결되는 고리와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의 배움과 학교바깥에서의 배움, 교과서의 배움과 삶의 배움들을

연결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 공간을 지원하고 이 성장을 지원하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자체와 교육청과 마을주민과 학교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거죠." (몽실학교 길잡이교사 ○○○)

이처럼 청소년 정책마켓은 청소년 주도성과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성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의정부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주체 및 역할

앞서 의정부 몽실학교의 다양한 활동 중 청소년 주도성이 잘 발현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를 살펴보았고, 몽실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간의 유의미한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책마켓에 대해 살펴보았다. 몽실학교의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은 의정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네트워크는 몽실학교를 중심으로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시청, 학교, 지역사회 단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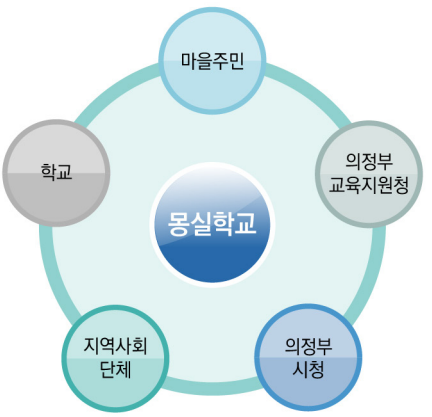


그림 Ⅲ-20 의정부 지역사회 네트워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 중 의정부시청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민과 관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몽실학교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몽실학교는 관내 학교와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마을-학교 연계 배움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배움과정에는 마을-학교 연계 진로체험, 대학생과 펼쳐가는 '몽실 꿈나래', 마을학습공동체, 마을-학교 공유 공간 운영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과정인 꿈이룸과정은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단체와 마을주민도 네트워크의 중요한 참여주체이다.

몽실학교 학생들이 프로젝트의 주체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지역과의 연계가 없다면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마을의 서포터즈들은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실무적 역량을 가진 경험자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 교사를 비롯하여 마을주민, 활동가, 청년들로 구성된 '길잡이교사'들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들은 자연스럽게 지역과 연계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책마켓은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단체 중 사회복지법인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북부 아동옹호센터와 연계와 협력을 통해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으며, 두 기관과의 협력은 2017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개발 사업 또는 지역주민 조직화 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교육과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이 재단에서는 마을도서관과 카페를 운영하여 아동복지활동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교육이나 인문학 교육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자기 권리의식 증진,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의정부 지역에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의정부여중에서 마을학교 열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교육복지사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단체를 섭외하여 연결시켜 주면서 학교와 연계를 하였던 경험이 있다. 기존의 학교와의 연계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청소년 정책마켓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정책마켓을 통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의 자기 권리의식 증진 등의 목표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몽실학교 간의 연계가 유의미한 것은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청소년기관이나 지역사회기관과의 협력에 대체로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청소년기관이나 지역사회 기관도 학교와 협력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양자의 결합은 청소년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관과 학교나 교육청과의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4) 성과와 한계

의정부 몽실학교의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과 정책마켓의 성과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주도성과 자발성을 회복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몽실학교 청소년들은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 배움의 장을 학교로부터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삶과 배움을 연계하면서 배움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치활동을 통한 배움터 운영 과정에서 갈등 해결의 경험을 하면서 시민으로서의 주체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몽실학교는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에서 탐구하였던 문제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나 정치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컨대 2017년도에 몽실학교에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자전거를 수리하는 몽실바이크 프로젝트를 했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에는 자전거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와 관련된 정책과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탐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를 바꾸면서 자신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변혁적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주도적 배움'과 몽실학교 운영을 통한 '자치'를 경험한 몽실학교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마켓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정책마켓은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이 주체화되고 배움뿐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몽실학교 마을교육공동체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몽실학교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협력, 소통, 배려를 통해 공동체성을 갖추게 되었다. 경쟁 가치가 지배적인 학교교육과 달리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서는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협력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마을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나눔과 배려를 익히게 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몽실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조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간의 연결로 그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부터가 청소년 단체들이 다 모여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각각이 자기 역할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청소년 성장지원이라는 고리를 가지고 묶였고 그 안에 그 지원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마을 기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정책이나 아니면 내려진 사업기반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동체 기반을 처음부터 내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네트워크는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사람이 연결된다는 거는 결국 삶을 기반으로 한 생활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정책을 살릴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몽실학교가." (의정부 몽실학교 길잡이교사 ○○○)

마지막으로 몽실학교에서 성장한 청소년들 중 학교 졸업 후 길잡이교사로 활동하는 청년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몽실학교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몽실학교의 가치와 정신을 몸에 익히고 배운 청소년들이 장성하여 길잡이교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스무살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의정부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배우고 익힌 가치를 다시 공동체에 환원하는 것이며 의정부 지역의 청년과 청소년이 자신들이 꿈꾸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정부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 및 발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의정부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와 협력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협력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기관과 공동으로 추구할 목표와 가치를 모색하지 못했다는 것을 한계로 들 수 있다. 의정부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같은 지역사회 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교육청과 학교 중심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및 교육청과 청소년기관 간의 협력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2019년 하반기에 의정부시청 교육 청소년과에서 주도하여 몽실학교, 의정부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팀,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원 등과 함께 참여주체들이 공동으로 추구할 목표를 수립하고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였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시에서는 크게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의정부는 다른 핵심교육지구와 달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대부분의 기획권을 교육청 쪽에 주었어요. 그런데 지원청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지원청 중심으로 가면서 다른, 오산이나 이런데 보니까 같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같이 모여서 이야기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제안을 한 거죠. 같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안을 한 거고, 그게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모여보자 했던 것인데, 그것을 몽실학교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공동의 사업, 공동의 프로젝트, 공동의 목표를 세워서 하자. 이것이 전환하기 위한 것을 포럼이나 이런 것부터 해보자 해서 제안했고, 그것을 저희 과 우리 팀의 정책 사업으로 잡아놨어요. 지역단위에서 마을 학교, 청소년수련관, 몽실학교, 동사무소 이런 것을 다 마을학교라고 생각하고, 지역주민 또는 청소년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의정부가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자 했었고. 올해 원래 계획 된 것은 몽실학교와 같은 청소년주도 학습공간을 곳곳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해보고. 강의방식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도 해봤어요. 그렇게 사업을 잡아보고 마지막으로 의정부를 미래학습도시라는 슬로건을 걸고 그거를 이런 학습이라는 개념. 그동안은 계속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봤다면. 학습이라는 개념 하에서 우리의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포럼을 해보자 이렇게까지 의논되어서 몇 달 간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교육청 ○○○)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공통의 목표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학습에 대해서 공통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공통점을 찾으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낸 게 학습이에요. 미래학습도시... 학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은 평생교육원이더라구요.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학습이라는 개념보다는 교육 쪽의 생각을 많이 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제가 볼 때는 사업 중심, 예산도 엄청 많고 사람도 엄청 많은데. 프로그램중심의 사업 중심. 오히려 관(官)스러운 우리 교육청처럼 상당히 경직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학습자 입장에서 학습권을 존중하는 것, 학습형태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것. 중요한 게 몽실학교에서는 학습자 중심으로 주체가 되는 교육방식을 학습방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경기도교육청 ○○○)

이는 개별 수련관의 특징이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서로 성격이나 지향하는 바가 다른 이해관계자가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에는 함께 추구할 공통의 가치를 잘 모색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였던 이러한 경험은 의정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장하고 협력의 질을 제고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몽실학교는 시청, 교육지원청,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원 등과 함께 지역별 마을학교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핵심활동가(keyman)의 존재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핵심활동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 마을교육공동체가 성장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의정부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열정적인 핵심활동가를 중심으로 형성,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키맨들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핵심인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지속가능성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몽실학교가 의정부교육지원청 산하기관이므로 행정기관의 속성상 촘촘한 규정과 지침은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한계로 제시할 수 있다. 청소년 자치회가 몽실학교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정부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의 중심 주체는 청소년이지만 예산이나 몽실학교 시설을 관리할 인력 등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이 주도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5)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의정부 청소년사업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몽실학교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주민과 활동가가 길잡이교사로 활동하며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삶의 맥락에서 배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는 배움과 삶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앎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향후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지역기반 학습방법을 실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학습자가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밖 자치배움터인 몽실학교를 통해 학습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역량의 인지적 요소뿐 아니라 정의적이고 사회적인 요소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공동체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다같이 함께' 가야한다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 역량은 학교에서는 배우기 힘든 부분이다. 이를 학교에서도 공식적인 학습결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 밖 학습결과를 공식적인 학습결과로 인정하게 된다면 청소년기관이나 단체의 활동이 더 활성화되고 학교와 청소년기관 간의 연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의 성과는 정책마켓을 통해 드러났다. 정책마켓은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학생과 청소년이 시혜의 대상으로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삶과 사회, 제도를 바꾸는 참여주체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들뢰즈가 말했던 사건의 통상적인 계열화 방식, 지배적 의미화의 방식인 통념에서 벗어나 권력이 통제하는 의미의 질서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정치적 활동이 필요한데(Deleuze, 1981/1999), 몽실학교의 청소년들은 정책마켓을 통해 통념을 뒤엎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정책마켓은 현재가 지배하는 질서가 만들어 놓은 부당한 통념에 순응하지 않고 실천과 참여를 통해 변혁을 이루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진적이며, 통념의 지배에 저항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주체로서의 시민적 책무성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협의체에서도 청소년을 자신의 일상을 바꾸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정치적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마켓을 추진하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원래 두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청소년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조윤정, 이병곤, 김경미, 목정연, 2016). 그러나 서로 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언제든지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기 때문에 정책마켓을 공동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때에도 모든 참여 주체들에게 높은 수준의 협력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미래의 계획에 대해 공유하는 등 낮은 수준의 협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때 협력의 준거는 청소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주도성을 이끌어내고 지역에 뿌리내리고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삶과 배움을 연계하며, 의미 있는 배움이 이루어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운영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주도의 프로젝트 활동인 꿈이룸과정에서 청소년의 주도성과 자발성이 발현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자치회 활동 경험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몽실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형성된 높은 주체성과 주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즉,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과 노력, 경험이 정책마켓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듯이, 배움터에서 주도성이 발휘되도록 운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법을 배웠을 때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청소년의 주도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청소년자치회를 만들고 배움터 운영에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2. 국외 사례

1) 프랑스 사례[18)]

(1) 프랑스의 교육네트워크와 우선교육정책

① 프랑스 사례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사회에서 프랑스의 사례 소개는 드문 편이다. 언어적인 장벽도 있지만 역사와 문화, 가치관과 의식, 행태와 관습의 차이가 적지 않아서이다. 그래서인지 프랑스 사례는 여러 부문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널리 소개되지 못했다. 있다 해도 프랑스가 선도적인 분야에 제한돼 소개와 이식(移植)에 머물렀고 기껏해야 한국과의 단순 비교연구에 그쳐,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그에 따른 시사점 제공은 충분하지 않았다.

교육과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교육정책과 복지정책 일반에 대한 소개는 있었지만 대부분 단편적인 소개에 머물렀다. 2000년대 들어와 교육출발점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성장세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과 실천이 우리사회에 퍼지면서 영국과 함께 프랑스 사례가 모델로 제시됐지만(한만길, 2000; 나정, 박은실, 2002; 이혜영, 류방란, 윤종혁, 천세영, 2002; 이부련, 2003; 한승준, 2003; 이태수, 2004), 구체적인 소개와 시사점 제공은 조발그니(2005)에 의해 이루어졌다. 1990년대 말 IMF 관리체제 이후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당시 우리나라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지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변경)을 추진하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영국의 EAZ(Education Action Zone, 이하 EAZ)과 프랑

---

* 이 글은 2018년도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 지원사업(NRF-과제번호 2018S1A5A2A03036126)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환인 '김민·이영란(2020).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이 한국교육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 미래청소년학회지 17(2). 115-140'와 '이영란·김민(2017). 프랑스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실태 연구: 파리 18구 아미로-쎙프롱 지역의 교육정책과 지역사회개발정책의 구조화된 네트워킹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8(1). 183-211'을 부분 인용하였으며 일부는 새롭게 기술하였음.

스의 ZEP(**Z**one d'**E**ducation **P**rioritaire; 이하 ZEP)을 선진적인 모델로 삼았지만 심층적인 소개는 2005년에 비로소 이루어진 셈이다. 이후 프랑스 ZEP에 대한 연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시도교육청 등 사업 운영 주체와 일부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어 왔다(이혜영, 박재윤, 황준성, 류방란, 장명림, 이봉주, 2006; 이영란, 2010; 2013; 김민, 김현수, 2014; 김민, 2015a; 2015b; 박용주, 2016). 구체적인 지역네트워크 관련 사례는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과 '도시개발정책(La Politique de la ville)'과의 협업장면이라 할 수 있는 학교 중심 지역 내 다자간 교육협력 네트워크 분석에 초점이 모아졌다(이영란, 2016a; 2016b; 2016c; 이영란, 김민, 2017).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그 기능을 분석함에 있어 '학교'가 중심이 되는 특징을 갖는 프랑스의 교육정책은, '원칙'과 '기본'을 강조하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양육특성과 사회 분위기(류선정, 나승빈, 김봉선, 정수정, 김성현, 김은혜 외, 2017), 그리고 프랑스의 공화주의 철학(이영란, 2013)과 밀접하다.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아동과 청소년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해 학교에서 본격화되며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은 가정과 학교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은 공공재로써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고, 학교와 지역 내 자원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협력의 당사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협력의 주체들을 지지하는 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프랑스 사례에 대한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강조되는 마을교육공동체 담론형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예컨대 정부가 교육복지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서(교육부, 2017),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화와 부처간 조정기구 등이 필요하다는 점,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들이 어떻게 협력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원칙 등을 프랑스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김민, 2017; 이영란, 2018).

②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과 교육네트워크

가. 프랑스의 교육정책과 공화주의 철학

프랑스의 교육정책은 국가의 이념과 맞닿아 있다. 국가이념과 맞닿아 있다는 말은 사실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정부의 부침과는 상관없이 교육의 기본 이념과 기능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국가 구성원, 곧 시민이 합의하고 있는 가치이자, 교육장면에서 이러한 이념의 실현은 국가가 응당 해야 할 책무임을 명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김민, 2017).

프랑스의 국가이념은 '공화주의 국가철학'이다. 공화주의 교육이념은 오늘까지 프랑스 교육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으로 '프랑스의 교육정책은 곧 공화주의 시민정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Meuret, 2000). 따라서 이영란(2011: 154)에 의하면, 공화주의 시민정책을 구현하는 학교는 공화주의 국가철학의 핵심인 자유와 평등을 실천하는 '인권현장'이자,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교육현장'이며,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일상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삶의 현장'이다.

프랑스의 교육은 이러한 국가철학과 이념으로부터 출발한다. 프랑스의 교육목표는 공화주의의 가치, 즉 모든 이의 인권과 평등권을 실현하는데 있기에 프랑스 교육정책에는 시민권과 기회평등의 가치를 우선하고, 교육정책과 사업의 핵심은 결국 모두의 '학업성공(Réussite scolaire)'을 기초로 한 '교육성공(Réussite éducative)'을 지향한다.[19] 따라서 프랑스 교육정책의 목표는 교육을 받는 모든 이들이 프랑스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또 합류할 수 있도록 교육출발점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데 있다(Dubreuil, 2001).

---

19) 학업성공과 교육성공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먼저 '학업성공'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여 국가가 수여하는 학위(졸업장)를 받는 것이라면, '교육성공'은 학업성공을 포함해 학생 개개인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 개입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중점을 둔 개념이다. 교육성공은 균등한 교육기회의 조건하에 모든 청소년에게 평등한 교육여건을 제공하여 학업성공에 이르게 하고, 프랑스 사회에 건강한 시민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Glasman, 1992; 2001).

나. 우선교육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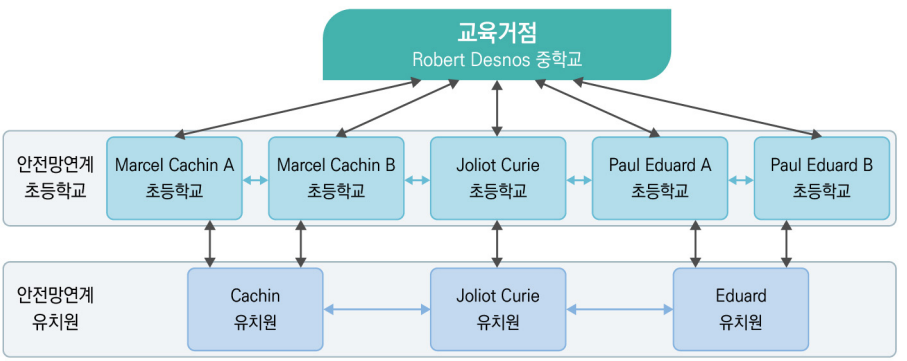
프랑스의 교육정책은 시민권과 기회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만이 아닌, 도시개발정책과 연계해 지역사회의 개발에도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지속가능한 교육성공'을 위한 것으로, 학교(학업)에서의 성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업을 통해 성장세대가 건강한 시민으로 프랑스 사회에 안착하도록 지원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즉, 학생 개인의 변화만이 아닌, 학생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변화까지 견인함으로써 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교육정책은 '교육부'는 물론 '보건 · 청소년 · 체육 · 일상연합부', '도시정책 · 주거부', '노동 · 사회관계 · 가족 · 사회연대부' 등 정부 부처 간 상호 협력하는 정책의 성격을 띤다.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대표적인 프랑스 교육정책은 크게 우선교육정책, 대도시취약지역정책, 교육지원 프로그램 정책 등이 있다(김민, 이영란, 2020: 120).

이 중 교육부가 주축이 되어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교와 다양한 지역사회기관들이 교육협업을 하는 정책이 우선교육정책(Politique des Réseaux d'Education Prioritaire, 이하 REP)이다. REP는 프랑스 교육정책 중 "네트워크(Réseaux, 레조)를 구축하여 '우선적이고 부가적인 지원'(accompagnements prioritaires et supplémentaires)을 통해 부족한 곳에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Donner plus à ce qui ont moins)"는 모토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자 교육네트워크 정책이다.

REP는 프랑스 정부가 선정한 특정지역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기관을 연계시켜 낙후된 환경으로 인해 교육기회가 배제된 학교단위의 집합체(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를 기본 우선교육네트워크로 구축하고(1차 교육연계망), 학교단위의 집합체와 지역 자원들을 2차로 구축하여(2차 교육연계망), 지역 내 청소년들이 학업성공과 궁극적으로는 교육성공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대상학교 간 네트워킹 체제인 1차 교육연계망은 [그림 Ⅲ-21]과 같이 거점 중학

교를 중심으로 4-5개의 초등학교가, 또 그 안에 다수의 유치원이 초등학교 연계망에 포함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학교집합체로 구축되어 기능하는 우선교육네트워크는 교육지원의 우선성에 따라 좀 더 심각한 지역을 REP+(Réseaux d'Education Prioritaire+), 심각성은 낮지만 우선적인 교육지원이 요구되는 지역인 REP로 구분된다. 2015년 우선교육정책 재설립 법안 시행 후 2019-2020년 학기 현재 363개의 REP+와 730개의 REP 등 총 1,093개의 우선교육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프랑스 전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18%, 중학생의 20.5%가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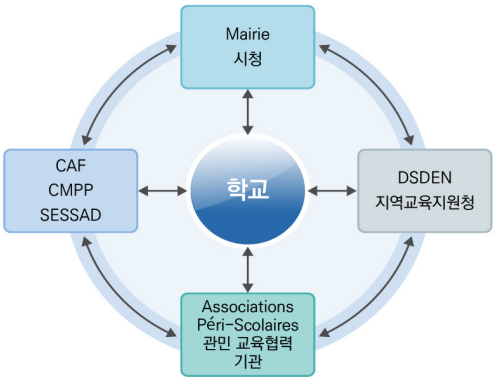


* 출처: 이영란 (2016a). 프랑스 우선교육네트워크 데스노스 REP+ 질적사례 연구. 청소년 복지연구, 18(3), 25-50.

그림 Ⅲ-21 프랑스 1차 교육연계망 사례: 크레테일 교육청 우선교육네트워크

1차 교육연계망은 학교급 간 네트워킹을 통해 상호 교육지원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로의 상급학교 진학을 도우며, 나아가 중학교 이후 기술 및 실업교육을 위한 특성화고 혹은 인문계고 진학을 지원하는 등 '학업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2차 교육연계망은 [그림 Ⅲ-22]와 같이 학교(1차 교육연계망)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공서비스기관, 민간기관 등과 2차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자적인 교육협업을 추진하여 '교육성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이영란,

2016c). 따라서 REP는 학교를 중심으로 1차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업성공을 목표로 삼되, 2차 교육네트워크 역시 구축함으로써 교육취약지역에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육성공의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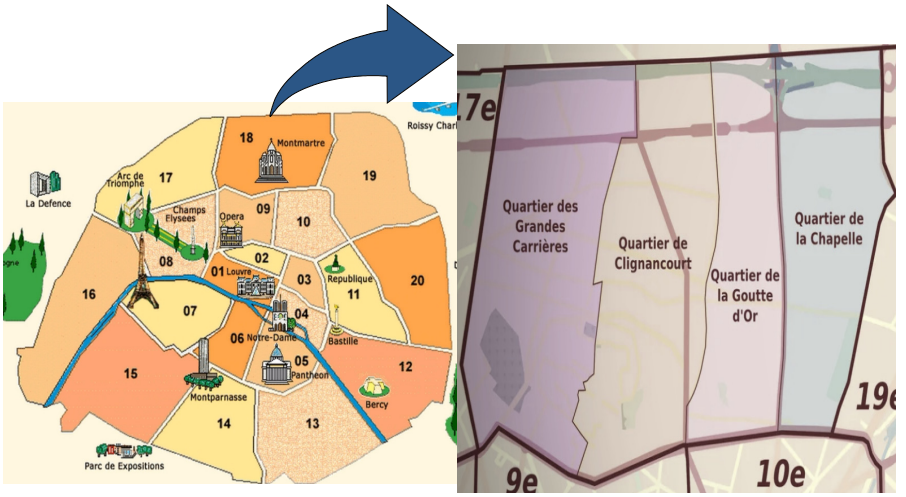
* 출처: 이영란 (2016a: 31). 프랑스 우선교육네트워크 데스노스 REP+ 질적사례 연구. 청소년 복지연구, 18(3), 25-50.

그림 Ⅲ-22 프랑스 2차 교육연계망

(2) 연구대상 지역과 연구방법

① 지역 특성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는 20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파리 중심을 가로지르는 센(seine)강을 중심으로, 가운데 북쪽에 위치한 1구를 기점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2구, 3구, 4구 등으로 회전하면서 자치구들이 자리 잡고 있다. 18구는 17구, 19구와 함께 파리 북단에 위치하고 있다(참고: [그림 Ⅲ-23]의 좌측). 인구는 2017년 기준 195,233명이고, 2,148,000명이 거주하는 파리 전체 인구(2020년 기준) 대비 9.08%에 해당한다. 인구는 149,834명에 지나지 않지만 인구밀도는 가장 높은 11구에 이어 파리에서 인구밀도가 2번째로 높다.



* 출처: 바비나니의 네이버 개인블로그. https://m.blog.naver.com/ahlam727/22046645226
Wikipedia. Fichier: Paris 18e arrondissement - Quartiers.svg.에서 8월 7일 인출(좌측그림) .
https://fr.m.wikipedia.org/wiki/Fichier:Paris_18e_arrondissement_-_Quartiers.svg에서 8월 7일 인출(우측그림)

그림 Ⅲ-23 파리시 자치구 지도와 18구

그랑 까리에(Quartier des Grandes-Carrieres), 끄리냥쿠(Quartier de Clignancourt), 구뜨도(Qartier de la Goutte-d'Or), 샤펠(Quartier de la Chapelle) 등 4개 지구로 이루어진 18구(참고: [그림 Ⅲ-23]의 우측)는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진 남쪽 몽마르뜨 언덕을 중심으로 고지대에 부촌이 형성되고, 중북부 저지대에는 노동자층이 집중 거주하는 등 파리 자치구 중 빈부 격차가 심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연령의 55%가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이 이민자 출신 노동계층이고, 이 중 40%는 마그레브(Maghreb, 과거 프랑스가 식민통치를 했던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북서아프리카지역)와 터키 출신이다. 실업률은 10.8%이고, 실업을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는 23.2%에 달한다. 직업을 갖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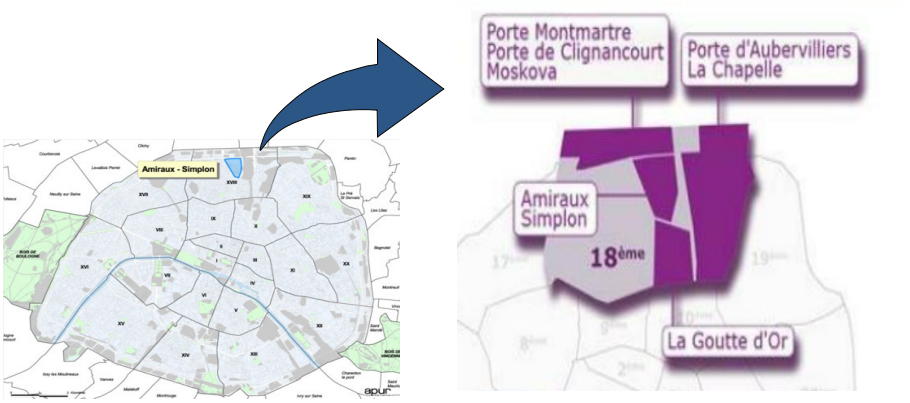
인구 중 비숙련공(15,1%)과 단순기능직(28,9%)의 비율이 44%이며,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까지 포함하면 67%에 달한다. 학력 역시 의무교육인 중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인구가 25%를 상회하며, 학생 5명 중 1명이 중학교를 마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란, 김민, 2017).[20]

파리에는 4개의 REP+가 있는데, 18구에 2개, 19구에 1개, 20구에 1개가 있다. 18구에 있는 우트릴로 우선교육 네트워크(Réseau Utrillo, Utrillo REP+)는 파리시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아미로-쎙프롱 지역(Quartier Amiraux-Simplon)에 위치하고 있다. 파리 18구의 중북부, 구뜨도 지역에 위치하는 아미로-쎙프롱(참고: [그림 Ⅲ-24])는 23헥타르 면적에 인구는 10,450여명이다. 이 중 난민포함 국제 이주민 인구 비율이 27%로 파리 평균 18%를 훨씬 상회한다. 그러다보니 이 지역 15세 이상 인구의 20%가 무학력자로 파리 평균 11%와 비교하면 두 배이고, 이들 중 21%는 실업자이다. 이 지역은 파리는 물론이고 18구에서도 사회문화적 환경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히는데, 주거환경도 매우 열악하다. 주택의 43%가 1915년 이전에 지어졌고, 주택의 69%는 1948년 이전의 건물이다(L'Atelier parisien d'urbanisme, 2020).

이 지역 전체인구의 67%가 세입자이며 임대주택 비율은 20%를 육박해 파리 평균 15%에 비해 높다. 지역주민 평균 연봉은 22,900유로로 파리 평균연봉 36,868유로와 비교해 현격히 낮다.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31%이며, 중학교 졸업률은 66%로 이 역시 파리 평균 중학교 졸업률 79.4%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Carte: Habitant-Revenue moyens, n.d.).

---

20) 프랑스에선 의무교육인 중학교과정을 마친 후 졸업시험(중학교 졸업 국가 학위시험)이자 고등학교 진급시험인 브레베 데 콜레지(Brevet des Collèges)를 치러야 하고, 이를 통과해야 국가에서 수여하는 졸업장(Diplôme Mational du Brevet)을 받고 학력을 인정받는다. 두 번의 기회가 있으며, 최소 성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중학교 졸업학위를 받지 못한다. 다만 최소한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학생이 직업교육으로 진로를 정했다면 일반교육수료증(Certificat de Formation Générale)을 취득할 수 있다.



* 출처: L'Atelier parisien d'urbanisme(Apur).
https://www.apur.org/cdrom/CD_CUCS_2010/secteur_menu1_4_s07.htm에서 8월 7일 인출(좌측 그림)
Yamin Glenn (2011). Sciences et Techniques Médico-Sociales, 27 janvier 2011 Salle Saint-Bruno.
https://www.slideserve.com/yamin/sciences-et-techniques-m-dico-sociales-27-janvier-2011-salle-saint-bruno에서 8월 7일 인출(우측 그림)

그림 Ⅲ-24 아미로 쌩프롱 지역의 위치

② 자료수집과 연구 참여자

연구는 1차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에 이르기까지 5개월 동안 이루어졌고, 2차는 2019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2개월 동안 이루어졌다.[21] 현지를 방문하기 전 연구자는 프랑스 우선교육정책 및 우선교육네트워크에 대한 정부공람과 자료, 국내 및 국외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프랑스 REP의 변천과정과 우선교육네트워크 개념을 정립하였다. 현지 도착 후에는 프랑스 우선교육정책 초기 설립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파리8대학(Université Paris 8 Saint-Denis) 교수 장-이브 로셰(Jean-Yves Rochex)와 프랑스 교육부 우선교육지원사업 담당 국장인 마리 로 르쁘띠(Marie Laure Lepetit)를 방문해 프랑스 REP의 구체적인 변천사와 현황, 18구의 실태와 특징 등을

21) 1차 방문의 결과는 이영란, 김민 (2017)의 글에서, 2차 방문의 결과는 김민, 이영란 (2020)의 글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되었고 논의되었다.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어 18구 우트릴로 우선교육네트워크 조정자인 크리스티나(Mme Christina)를 소개받았고, 이어 우트릴로 우선교육네트워크 교육기관장과 도시개발담당 장학관, 네트워크 실무자들을 다시 소개받았다. 참고로 우트릴로 우선교육네트워크는 모리셔스 우트릴로 중학교(Collège Maurice Utrillo)를 거점 학교로 삼아 구스타브 루아네 초등학교(École Élémentaire Gustave Rouanet) 등 초등학교 5개교, 유치원 3개원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총 12명으로 참여자의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Ⅲ-16 심층면접 참여자

이름	성별	연령	소속	직위
장*	남	60대	파리8대학	교수
마리	여	50대	프랑스 교육부	우선교육지원사업 국장
헤르브스	여	50대	파리시교육청	도시개발담당 장학관
패트릭	남	50대	파리시교육청	우선교육네트워크 담당장학관
크리스티나*	여	50대	우트릴로 우선교육네트워크	네트워크 조정자
프랑크*	남	40대	중학교	교장
가일	여	50대	초등학교	교장
필립	남	40대	초등학교	교장
말라페	여	50대	유치원	원장
엘렌	여	40대	파리시청 (아미로-쎙프롱지역)	지역사회개발정책부 팀장
프랑수아*	남	40대	파리18구	청소년센터(메종블루)관장
니나	여	50대	파리18구, 시청	지역 어쏘시에이션 담당

*표시는 1, 2차 면담자

⑶ 연구 결과

① 정부가 상호 협력하는 우선교육정책

프랑스에서 '교육'은, 시민이라면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자 국가가 시민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공적 서비스이다. 교육을 주무하는 부처는 교육부지만 교육이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정부' 곧 국가이다.

교육이란 국가기능에 대한 프랑스의 철학은 확고하다.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가정에서의 양육과 학교에서의 교육을 중심에 두는 프랑스의 교육적 관점도 여기에 기인한다. 전술한 '학업성공'은 학교와 교육부의 책무이지만, '교육성공'은 결국 지역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을 비롯해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에는 대도시취약지역 정책(Zones Urbaines Sensibles, 이하 ZUS)과 교육성공 프로그램(Programme de réussite éducative, 이하 PRE), 위기학생을 위한 특별지원 네트워크(Réseaux d'aides spécialisées aux élèves en difficulté, 이하 RASED) 등이 꼽힌다(이영란, 2008: 75-119). ZUS는 대도시 주변 위성도시 중 경제 · 사회 · 문화 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며 청년실업을 예방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아닌 도시정책부 · 주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PRE와 RASED는 모두 REP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진행하는 정책이자 사업들이다. PRE는 노동 · 사회관계 · 가족 · 사회연대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교육성공 정책(Nouveaux dispositifs de réussite éducative)으로, 모든 학생들이 학습인지와 학업능력의 기회를 균형 있게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프랑스 노동, 사회관계, 가족, 사회연대부, 2006). RASED는 1989년 교육오리엔테이션법에 근거해 시행된 프로그램으로(프랑스 의회, 1989), 신체장애를 비롯해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는 학생이 상담 및 특수교사 등에 의해 보편적인 돌봄과 지원을 받도록 하여 중도 탈락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학업과정을 마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프랑스 고용-사회연대, 주거부, 1990).

전체 교육복지사업 차원에서 보자면 REP와 ZUS, 교육지원 프로그램 정책 등의 사업 추진에서 학교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다른 부처 간에 긴밀한 상호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진다. 이들 부처들은 사업별로 실무수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특별히 법령에 근거한 기구가 없이 중앙부처는 국장급에서, 현장은 1, 2차 교육연계망 내 추진기구인 우선교육 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인적 자원들이 연결되어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우선교육정책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문제 혹은 학교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람과 사회의 문제란 점에서 관과 관간의 네트워크가 작동한다. 이는 우선교육정책을 바라보는 프랑스 정부의 관점과 밀접하다. 즉, 학생의 학업성공이 교육성공까지 견인해야 비로소 정책이 성공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 그리고 교육성공에 이르는 제반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공적 서비스들이 각 부처의 고유기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를 네트워킹 해 그 역할을 제대로 기능케 하고 또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청소년 시민(civic Youth)에 대한 부처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REP+나 ZUS의 경우, 학생들의 직업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 · 사회관계 · 가족 · 사회연대부가 주무하거나 연계하고 있고, 도시주거환경 정비 및 지원을 위해 도시정책 · 주거부와 데파트멍과 코뮌이 협력하며, 청소년의 건강과 문화적 결손예방을 위해 보건 · 청소년 · 체육 · 일상연합부와 문화 · 커뮤니케이션부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핵심 사업을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도 요구되는데, 이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우선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과는 달리 중앙정부는 사업에 따른 예산과 경비를 크게 지원하지 않는데, 이는 예산을 통해 사업을 강제하곤 했던 한국의 상황과는 비교가 되는 대목이다. 설사 지원한다 해도 학교가 아닌 지방정부와 지역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이들 기관과 학교의 자율적 협의를 거쳐 학교가 예산을 사용하도록 한다.[22]

② 우선교육 네트워크는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믿는 교육주체들

한국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교육복지'란 말을 프랑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면접과정에서 한국의 교육복지란 개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의 교육복지란 용어가 상징하는 개념과 의미,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시도로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킹 하는 행위와 전략들이 프랑스에선 교육이란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기본 행위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우선교육정책 자체가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정책'으로 보고 있고, 이 점에서 교사들은 물론이고 학교 밖 네트워크 관계자들도 이에 대해 합의하고 있었다. 즉 소외계층 및 사회적 배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 예를 들면 프랑스어를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주민 아이들, 학력이 매우 떨어지는 아이들, 가정형편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따라가기 어려운 아이들 - 에 대한 책임은 곧 학교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의 일차적 지원이 취약한 아이들과 문화적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적 책무는 학교 구성원들 모두에게 있다고 보았다.

"30여 년 전에는 빈곤 아이들이 주 대상이었다가 이후 마그레브 출신 가정의 아이들로, 지금은 아프리카 이주민 자녀들로 대상이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사회적응의 기제라 할 수 있는)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아프리칸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관여를 잘 하지 않기에 어려움이 있지요. 학교는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가일)

"학교만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이때 지역사회 기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진행을 메종블루와 협력하는 것은 그런 의의가 있지요. 학교가 하기 어려운

22) 실제로 우선교육정책 예산은 교육부의 직접 예산분배, 지자체와 기초단체의 예산, 민간기관 및 협업단체의 간접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예산은 하나의 정책(예컨대 교육복지정책)이란 이름으로 묶여 있지 않아 전체 예산규모를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

일을 지역사회와 협력해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교육이니까요."(필립)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교사와 학교가 함께 해결하는 행위 역시 교육의 기본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교육 네트워크의 핵심 인력은 교사 자신이다. 따라서 우선교육 네트워크 대상 학교의 프로그램 진행은 교사의 고유 직무에 근거한 행위이며 설사 부가적인 일이라 해도 그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운영(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특별한 예산 투여나 교사에 대한 보상은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사업을 통한 교사들에 대한 보상이요? 한 달에 한번 약간의 수당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100유로(한화 약 13만원)였죠. 요즘은 196유로 정도 받습니다."(크리스티나)

우선교육정책의 경우 프랑스 교육부가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하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도의 예산이 없다. 우선교육네트워크의 중심축, 허브라 할 수 있는 중학교에만 예산이 배정되지만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보상성 경비는 없고 약간의 수당만 있다. 우선교육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중학교 교장인 프랑크는 이곳 중학교에 투여되는 예산은 연 47,800유로인데 이 돈은 대부분 학생 오케스트라, 수영, 영화, 무용 등의 강좌비용으로 거의 다 들어가고 교사들에게는 특별히 지급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참고로 프랑스 신임교사의 급여는 월평균 2,200유로에 이런저런 수당을 더하면 200유로정도가 더 붙는다. 즉 평균 2,400유로(한화로 약 330만원) 정도다. 교사들은 4년마다 급여가 올라가는데 5년차가 평균 2,700유로이니 그 폭이 크지 않다. 우선교육지원사업 대상 학교 교사들에게 따로 200유로 남짓한 수당이 매월 더 지급되지만 액수는 그리 많다고 볼 수 없다. 교사들 외에 학교 식당의 요리사도 조리 프로그램 강좌를 열어 프랑스 요리 만드는 법이 취약한 가족들을 위해 개설하지만 따로 수당을 받고 진행하지는 않는다.

③ 효과적이고 유연한 학교급 간 교육협력

대상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교육과정 내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녹아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강조하지만, 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은 것이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일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REP 대상학교의 지원 프로그램 대부분은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다. "학교교육과정도 어려워 하는 아이에게 따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비효과적인 일"이기 때문이다(패트릭). 대신 이들에게는 특별한 수업전략과 방법을 택한다. 모국어인 프랑스어를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비로소 프랑스어를 배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특별한 교육과정이 요구되는데, 유치원에서는 놀이를 통해서,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 교과에 따라 합반과 분반의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우선교육정책 대상학교는 한 클래스 당 25명 이내가 기준이며 통합수업의 규모는 더 작아야 한다. 중학교의 경우 융합수업은 반정원의 절반 인원(11명-12명)으로 개별지도가 가능한 밀착수업으로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애써 가르쳐도 하교 후 집에 가면 프랑스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민 가정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프랑스어 교육을 실시한다. 패트릭과 엘렌에 따르면, 학교가 가능하면 학교에서 하지만, 학교에서 실시하기 어려우면 가능한 지역기관을 물색해 학교에 연계시켜 그곳에서 하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학교급별 교사들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대상지역 유치원의 원아들은 대부분 인근 초등학교로 진학하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공동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 학기 말 유치원 교사들과 초등학교 교사는 정례적인 모임을 갖는다. 여기서 유치원 교사들은 매학기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소개받고, 변화된 교육과정이 있거나 유치원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초등학교 교사들과 협력해 필요한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초등학교 교사들 역시 가족과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유치원 교육의 특성상 다음 학기에 진학하는 신입생 중 특이한 가족환경 등 소개받아야 할 원아들에 대해 유치원 교사들로부터 소개받고 지금까지 가정과의 소통과 협력을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유치원 교사들과 논의한다.



그림 Ⅲ-25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네트워크 조정자와 연계해 회의를 하는 모습

REP+의 경우, 프랑스어와 수학, 과학 세 과목의 경우에는 중학교 교사가 정기적으로 초등학교에 파견되어 직접 수업을 진행한다. 이때 초등학교 교사는 보조교사가 되어 함께 수업에 참여한다. 이와 같은 학교급간 교사 연계협력은 2006년부터 시작했고, 대부분의 REP+ 지역에서는 중학교 프랑스어 교사 2명과 수학 교사 1명이 한 초등학교에 와서 일주일에 1시간 반씩 수업하는 등 초등학교에는 일주일에 9시간, 중학교에서도 9시간, 평균 총 18시간 수업을 진행한다.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중등 교과담당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이들 취약집단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 같은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들과 학교급별 간의 팀워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교사들의 교수역량은 수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는 핵심 요인이 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교사들간의 협력은 지역 교육네트워크 조정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든 학교급 간 교사들간의 회의에는 네트워크 조정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학교 내는 물론이고 학교급 간 교사들의 공동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서로가 협력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효과적인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말라페)

"교사들의 안정된 팀웍과 교원인력의 질이 무척 중요하지요. 학교 내와 학교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잘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충분히 교육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트릭)

④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교육출발점 평등

우리나라의 교육은 초중등학교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대적으로 유치원에는 그만큼의 비중이 실리지 않는다. 정책과 사업, 예산과 프로그램이 모두 그렇다. 하지만 프랑스는 교육출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유치원도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우선교육네트워크 대상 유치원의 경우 만 3세아를 저녁 6시 반까지 돌보는 -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종일반 -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물론 이곳도 수업은 4시전에 종료한다. 종료시간은 요일마다 다른데, 예컨대 월요일은 4시 반, 화요일은 3시, 수요일은 3시, 목요일은 4시 반, 금요일은 3시이다. 하지만 만 3세아를 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수업종료 후에도 부모가 오는 6시 반까지는 유치원에서 돌보는 종일반을 두도록 되어 있다. 부모와의 접촉이 잦은 편이라 유치원의 경우 가족과의 협력이 초중등학교보다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그림 Ⅲ-26 초등학교 프랑스어 수업시간에 중학교 프랑스어 교사가 수업을 하는 장면

"유치원의 경우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사와 가족 간의 접촉이 많은 편이죠. 자연스럽게 가정 내에서 아이의 양육방식에 대한 대화도 있게 되고 또 아이의 변화도 말하게 되구요. 그래서 (유치원이) 초등학교보다 가정과의 관계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말라페)

"유치원부터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시키고 또 가족을 대신해 유치원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유치원 교육에 대한 비중이 더욱 커졌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협력해야 할 사안들도 많아졌지요."(크리스티나)

⑤ 다양한 교육지원인력의 배치

우선교육네트워크 대상 학교에는 교사 이외에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보조교사인력과 교육활동 자체에 참여하는 보조 인력들이 많다. 모리셔스 중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500명 남짓한 가운데 교사는 45명이었다. 그런데 이곳에는 모두 15명의 보조교사와 보조 인력이 상주한다. 여기에는 보조교사 3명을 포함해 학교사회복지사, 간호사, 상담자, 학교 내 학교지킴이(이들은 학교폭력예방활동을 하며 학교 내

우범지역 곳곳을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역할을 한다)[23] 등이 포함된다. 모리셔스 중학교에는 시(데파트멍)의 교육협력만 전담하는 시의 인력이 독립된 공간에서 상주하며, 시와 학교 간의 연계와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 이곳(중학교)은 처음 ZEP이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업에 참여했어요. 현재 500명이 넘는 학생에 45명의 교사가 있죠. 1년 예산은 12만 유로 정도예요. 데파트멍(시)이 가장 큰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보조인력의 급여와 교사들의 교수법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하죠. 학교는 각 기관의 관계위원회에 프로젝트 베이스로 예산을 달라고 하지요. 보조교사 3명이 학교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이외에도 학교사회복지사, 간호사, 상담자가 1명씩 있고, 학교지킴이가 9명 등이 상주하고 있어요."(프랑크)

⑥ 네트워크 핵심인력의 조정과 연계

REP+의 특징 중 하나는 1차 교육연계망이 활성화된 곳이 2차 교육연계망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선교육정책의 네트워킹에 있어 학교 간 연계가 우선하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교 간 연계는 물론이고 학교와 지역 간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각 기관의 이해가 상충하고 사각지대의 발생 및 중복지원의 우려를 조정하기 위해 REP는 네트워크 조정자(우선교육 코디네이터, networker)를 활용한다. 이 네트워크 조정자는 교사경력과 교원 신분을 갖춘 교직경험이 상당한 교사가 담당한다. 네트워크 조정자는 교사이지만 교과를 담당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대상학교 혹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네트워커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시청은 도시 및 지역개발관련 담당공무원을 네트워커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REP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지역사회 네트워킹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

23) 학교지킴이는 보조 인력이지만 교원의 지위를 갖는 교육전문가들도 있다. 프랑스 교육부는 2003년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독립교원(Conseillere Pedagogique et Educatif. 이하 학교생활지도교사, CPE)의 배치계획을 수립해 현재 실시하고 있다. 학교생활지도교사인 교육전문가 CPE는 2003년 4월 30일자 법령으로 통과되어 모든 초중등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상주해 근무하고 있다(프랑스 교육부, 2003). 이들은 교원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교과전담교원이 아닌 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교원이다. 모든 교과전담교사는 CPE로 전환할 수 있으며 CPE에서 다시 교과전담교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

흥미롭게도 네트워크 조정자들은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다. 평범한 현직 교사경력을 갖고 있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로 우리 식의 대안학교나 학교폭력 전문 대처학교 등에 교사로 임직했고, 다시 REP의 네트워크 조정자로 전직한 경우다. 우트릴로 네트워크의 크리스티나, 그리고 2015년 연구 수행 도중에 만난 파리 근교 크레테일 지역 REP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조정자인 니콜라 레이리 역시 비슷한 경력의 소유자다. 올해 교사경력 35년을 맞은 크리스티나는 네트워크 조정자로 계속 활동하다가 교직 은퇴까지 고려하고 있다. 비교적 젊은 나이(40대 중반)의 니콜라 역시 교직경력 20년 중 7년째 네트워크 조정자를 맡고 있지만 당장 그만둘 태세는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네트워크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직무가 흥미롭다고 하였다. 이들에게 네트워크 조정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비슷한 대답을 하였다. 이들 모두 아이들과 소통을 잘 해야 하고, 교사와 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역량이 네트워크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량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 조정자의 자격은 주로 교사경력을 갖춘 다년간 학생지도의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다보니 네트워크 조정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지역별로 다소 편차가 있지만 이들에게는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고 있고 그러다보니 지역 내 네트워크 역시 자율적으로 구축·운영되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특히 프랑스에는 주요 교육파트너로 시의 도시개발팀(지역에 따라 지역사회개발정책팀 혹은 부로 불린다)이 같이 협력하는 형태를 갖는다. 파리에는 12군데의 도시개발팀이 우선교육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네트워크 조정자와 연계해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자가 만난 엘렌 르노는 13년간의 공무원 경력을 갖고 있으며 우트릴로 네트워크에 참여한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작해 이제 5년을 맞이한 파리시 공무원이다. 이곳 지역사회개발정책부에는 총 4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 중 네트워크 조정자와 직접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이가 바로 엘렌이다.

"(연구자) 이 사업과 관련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우선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된) 도시개발이나 지역발전과 관계된 모든 일을 맡고 있어요. 이 지역 네트워크 조정자인 크리스티나와 많은 일을 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제휴기관과도 일을 합니다. 여기에는 지역경제와 위생, 문화 등의 영역 모두가 포함되는데 이 모든 것을 지역의 교육성공과 연결시켜 일을 하지요."
"(연구자) 교육성공이요?"
"교육성공이라 함은, 한 아이를 잘 성장시키는데 마을의 많은 자원이 협력하여 결국 성공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하는 게 그거죠."(엘렌 르노와의 대화)



그림 Ⅲ-27 우트릴로 우선교육 네트워크 조정자 크리스티나



그림 Ⅲ-28 파리시청 지역사회개발정책부 팀장 엘렌

엘렌이 지역 내 학교와 연결시키는 제휴기관들은 50개 기관이 넘는다. 교육부 지침에는 학교와 민간기관간 네트워크 구축과 조정을 네트워크 조정자가 맡도록 되어 있으나 때때로 도시개발팀이나 지역사회개발정책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핵심적인 기능을 발휘하여 일을 분담한다. 이들의 결합은 기대 이상으로 큰 역할을 발휘한다. 아무래도 공공조직(시)의 참여와 지원이 학교와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용이하고 활발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엘렌이 지원하는 민간조직에는 어쏘시에이션(협회)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지역 내 어쏘시에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니나의 경우, 시에서 이를 주무하는 엘렌이나 교육청에서 도시개발담당을 하는 헤르브스 장학관은 매우 큰 힘이 되는 사람이다. 민간기관들이 관과의 관계를 맺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진입단계에서부터 이를 조정하고 연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있다 해도 민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유능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관계와 협력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메종 블루란 청소년센터의 관장으로 있는 프랑수아 델룸도 우트릴로 네트워크의 민간기관 중 주요 협력자이다. 센터에 종사하는 사람은 프랑수아를 비롯해 4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파리 18구에는 이와 같은 청소년센터가 네 개가 있다. 인근 도서관이나 에니메이션 센터도 주요 협력기관 중 하나다. 이런 기관들이 모두 우선교육 네트워크 학교들과 프로그램이나 강사파견 등으로 연계되어 있다.

네트워크의 힘은 REP의 원동력이다. 공적 기관간의 연계는 물론이고 민간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유관기관들은 학생을 향해 힘을 모으고 또 각자의 역할을 배분하는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축·운용한다. 프랑스의 네트워크의 방향과 목표는 뚜렷하다. 그것은 지역사회개발을 담당한 엘렌이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교육성공이다. 교육성공을 위해 지역이 학교와 힘을 합치는 것이다.

(4) 프랑스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의 특징

아미로-쎙프롱 지역 우트릴로 우선교육 네트워크 사례를 통해 살펴본 프랑스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정부부처간의 연계와 협력이 유기적이고 긴밀하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해 민과 관간의 거버넌스(governance)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내 부처와 부처 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이른바, 관-관의 협력이 긴밀히 작동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도시정책부·주거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ZUS, 노동·사회관계·가족·사회연대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교육성공 정책(Nouveaux dispositifs de réussite éducative)인 PRE, 고용-사회연대, 주거부가 주도하는 RASED 등은 모두 교육부가 추진하는 REP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진행하는 교육복지 정책이자 사업들이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이들의 부모와 가정의 소득 증대, 지역사회의 교육 및 사회여건 개선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성장지원 환경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도모함에 있어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민과 관 간의 거버넌스의 기반이 곧 관과 관 사이의 협력이란 전제를 갖고서 말이다.

관과 관 사이의 이러한 긴밀한 협력체제는 지역사회 발전 및 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라는 정부차원의 핵심 비전과 목표와 긴밀하다. 즉, 사회정책 차원에서 서로가 공유 가능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나라도 위기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의 구축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 지원정책을 기본 노선으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인 협력수준은 다소 미흡한 편이란 점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결코 적지 않다. 예컨대 혁신교육지구 심화모델 개발을 통한 미래교육 지역 거버넌스 개편을 선도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도하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과,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등은 우선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가질만한 유관사업들로 보인다. 상호 공유 가능한 정책지점을 확보하고 계획 수립단계부터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의 관계를 잘 형성한다면 사업이 갖는 효과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한 프랑스 사례의 특징이다.

둘째, 프랑스의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의 구심점은 학교이다. 학교라는 교육의 일차적 공공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가 정상적으로 구축되고 상호간의 협력과 네트워킹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프랑스 성장지원 체계의 두 번째 특징이다. '마을이 학교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가 학교다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학교다운 마을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프랑스 교육기관 구성원들의 생각이었다. 우선 교육 네트워크를 일러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믿는 교육주체들, 즉 교사와 지역사회기관 구성원들 생각의 중심에는 학교가 우선적으로 존재해 있었다. 아이들의 교육성공도 기본적으로 학업성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그런 생각을 확연히 보여주는 방증이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지점을 학업성공과 교육성공을 나누어, 학교에서는 일차적으로 학업성공에 초점을 맞춰 학교급간의 연계에 주력하고(제1차 교육연계망), 학업성공에 더해 아이들의 교육성공을 목표로 삼는 다양한 지역사회 내 교육주체들 간의 네트워킹(제2차 교육연계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고는 매우 인상적이었고 심지어 전략적이라는 느낌마저 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가 주도하는 사업이기에 학교가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도 아니다. 네트워커가 교사이지만 이들은 지역사회개발 담당 공무원들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분담하고 가급적 지역사회 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셋째, 지역사회 내 중층적인 연계망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연계하는 실무인력의 역량은 네트워크의 성장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교 간 연계는 물론이고 학교와 지역 간 네트워크 관계에서 각 기관의 이해가 상충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 프랑스 우선교육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조정자, 이른바 우선교육 코디네이터라 불리는 네트워커(networker)를 활용한다. 이 네트워크 조정자는 앞서 논의한 크리스티나와 같이 학생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담당한다. 이들은 교과를 전담하지 않고 전적으로 대상학교 혹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네트워커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교육청과 시청은 도시개발담당 장학관과 지역사회개발정책 담당 공무원을 두고 네트워크 조정자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네트워크 조정자는 월요일이면 교육청에 출근하여 도시개발담당 장학관과 우선교육네트워크 담당 장학관과 함께 지역 내 네트워크를 진단·평가한다. 지역 우선교육 네트워크 대상 각 학교급 현황과 실태를 살피면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한 후, 학교급간 연계와 지역사회기관 간 연계 일을 시작한다. 시와 교육청의 협력이 필요하면 엘렌, 헤르브스, 패트릭 등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일을 처리하고,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네트워크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수년간, 그리고 십 수 년 간의 네트워커 조정자로서의 경력을 쌓아오면서 그들만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학교 현장이나 지역사회기관에서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한다. 이들과 같은 유능한 네트워크 조정자의 존재 여부는 어렵게 구축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네트워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효과를 배가하는데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는 이런 네트워크 조정자의 역할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 인력(프로젝트 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을 투입하여 대신해 왔다.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 조정사무도 이들에 맡겨왔지만 이들의 신분과 역할은 모호했고 확실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조정자를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장면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5) 나가며

프랑스의 REP는 성장세대를 위한 학교 안에서의 교육지원(학업성공)에 한정하지 않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여(교육성공), 결국은 교육이 사회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학교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의 학업성공, 즉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REP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며 동시에 1차 교육연계망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 목표는 REP의 핵심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목표이기도 하다. 특히 학업성공은 출발점 평등과 밀접하여 생애 초기부터 개입하여 성장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교사와 다양한 영역과 분야의 전문가들은 학생의

학업성공을 이끌기 위해 학생을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고 지원한다.

하지만 프랑스의 REP는 근원적인 문제에도 천착하고 있다. 지속적인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경험이 학업성공의 근원적 원인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REP는 성장세대의 학업성공만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고 성장여건의 불리함을 해결하고자 목표를 연장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교육성공이다. 따라서 REP는 열악한 교육여건과 학습여건의 개선은 물론이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협력을 꾀함으로써 불리한 여건에 처한 성장세대와 그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려는 교육복지정책이자 동시에 도시개발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이것이 2차 교육연계망의 핵심 목표이자 전략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교육과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정비하고 있는 추세이다(교육부, 2017). 특히 교육의 기회보장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교육복지정책의 확대를 강조하는 '한국형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의 대안으로 "학교 안 마을학교, 학교 밖 마을학교"와 같은 지역교육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실천적인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다양한 교육협력기관들과 함께 성장세대를 위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모색하는 것이 프랑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프랑스 사례와 비교해 살펴보면 지향점도, 운영방식도 다르다. 무엇보다 프랑스 공화주의에 입각해 교육의 실천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합의 하에 분명한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다자간 협력과 네트워킹을 실시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P이 극복하고자 하는 대상은 단순히 학생의 낮은 학업성취수준이나 열악한 학교환경개선이 아니다. 빈곤가정 학생들을 위한 시혜적 차원의 서비스나 사업도 아니다. 그것은 빈곤의 악순환, 마치 풀기가 쉽지 않은 고르디안 매듭(Gordian Knot)과 같은 그 고리를 끊임없이 풀고 해결하려는 교육정책이다.

2) 영국 사례

영국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영국의 교육부, 통계청, 관련 시민단체(Charity)등의 자료와 관련 학술자료 및 기사, 보도 자료 등을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영국의 잉글랜드 주에서도 런던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를 조사하게 되었다. 이는 런던이 영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연령대는 물론 문화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문화수도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국의 사례로 적합한 도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 개요

영국은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에서 학교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활동/지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관해오고 있다. 한국과 달리 교육부가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복지정책까지 모두 다루고 있어 총괄조정과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의 중복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입시에서도 학업성적을 포함해 다양한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활동 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박선영, 2016).

영국의 청소년 연령 및 개념에 대한 규정은 한국의 청소년 관련 법의 법적 연령이 법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각 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에 의해 청소년 연령과 대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4개의 주(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 일반적으로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18세 미만으로 본다. 다만 주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잉글랜드의 경우 18세 생일까지를 아동이라고 보지만 16세가 되는 아동은 가정으로부터 독립이 가능하고,

의무교육이 종료되며, 군대에 가거나 가구로서 독립이 가능하다(The NSPCC, n.d.). 청소년의 경우 학교교육과 관련해서는 주로 13세에서 19세의 학령기를 대상으로 정책과 사업이 적용되나 학습장애가 있는 경우 25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간주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5).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사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을 배경으로 하거나 전 연령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네트워크의 분석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2017년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16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의 환경과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발표하였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7). 이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삶의 질과 웰빙의 관점에서 특히 교육과 고용, 기술 등의 측면에서 과거보다 진보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였고 만족도에 대한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에 대한 차이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2000년대 이후 지속되는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청소년의 숫자가 가장 적게 조사되었지만, 청소년 우울감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기준으로는 전체 청소년의 21%가 우울 혹은 불안 증세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그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는데 청소년의 76%가 지역사회 내에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2010년에 80%로 조사된 것보다도 감소한 수치이다. 다행스럽게도 청소년들의 57%는 본인이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정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로 답하였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7). 이러한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의 구축과 실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물론 영국의 보수당 집권 이후 청소년 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다가 2014년에는 3분의 1로 줄기도 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재정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The Guardian, 2017. 3. 7).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한국의 관련 정책의 수립과 적용과정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영국의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본 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정책과 지원 사례를 통하여 영국이 어떻게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지를 모색하였다.

(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유럽연합은 유럽회원국 대상의 청소년 정책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Youth Work)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European Union, 2018). 특히 청소년지도의 질 관리와 질적 향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관점은 한국사회에서도 청소년지도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지원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지도의 목적은 청소년 문제의 예방은 물론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European Union, 2009). 따라서 청소년지도와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현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사회로 가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기에 청소년지도와 성장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사례

① Partnership for Young London[24)]

가. 기관소개

런던에서 2005년에 시작되어 'Connect(연계)', 'Develop(개발)', 'Influence(변화)'를 미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Connect(연계)' : 런던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과 조직을 연계: 기관과 기관의 연계, 지방정부와 주정부와의 연계, 청소년간의 연계를 모두 의미함.

- 'Develop(개발)' : 청소년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역량을 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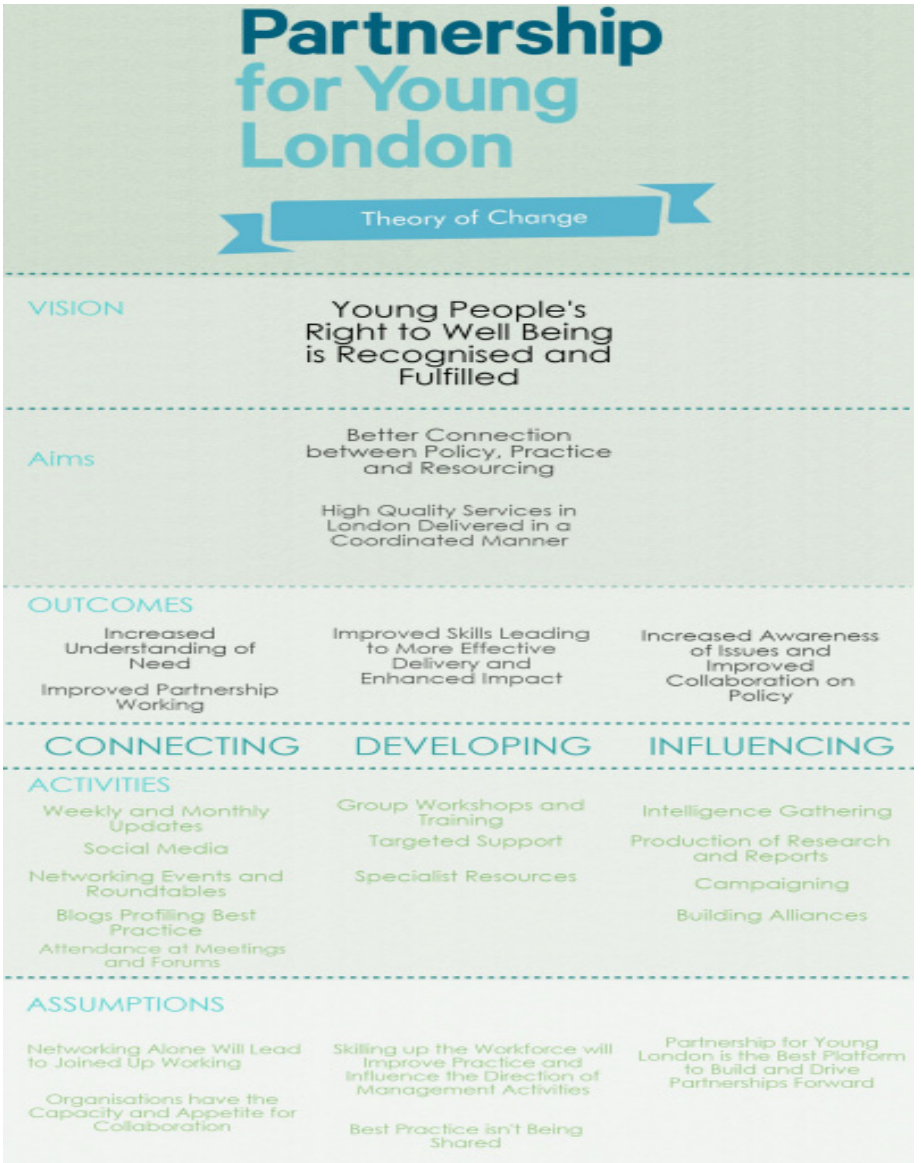
- 'Influence(변화)' :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책과 서비스의 변화를 추구함.

다음 [그림 Ⅲ-29]은 Partnership for Young London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운영하느냐에 대한 개요이고 3가지의 미션에 따라 관련한 사업이 구분되어 있다. Partnership for Young London의 비전은 모든 청소년의 웰빙에 대한 권리가 인식되고 보장되는 미래를 꿈꾸는 것이고, 청소년정책, 자원, 그리고 청소년 의지와 실천 사이에서 보다 나은 연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과 가치는 런던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존중하고 미래의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가치에서 시작되었다.

---

24) 출처: Partnership for young London 홈페이지. https://www.partnershipforyounglondon.org.uk 에서 인출한 내용을 재구성함.



*출처: Partnership for young London 홈페이지
https://d401c0eb-3fcb-4f8d-8ede-04ef556b9378.filesusr.com/ugd/3532bf_ae2d661260b54f66b4621e23f469b516.pdf에서 2020년 7월 20일 인출.

그림 Ⅲ-29 Partnership for London이 추구하는 변화이론

대표적인 네트워크 사례로는 ‘Vision for Young Londoners‘가 있으며 이를 위해 런던의 청소년관련 기관은 물론 공교육기관, 자원봉사 기관, 스포츠 기관, 지방정부, 기업 등과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구축하였다. 여기에는 2020년을 기준으로 100개가 넘는 런던의 청소년관련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런던의 청소년들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나누며 지원하고자 처음 조직되었다.

2015년 7월에는 40여개의 청소년 서비스 기관, 주택 공급 기관, 보건 교육기관, 스포츠와 문화예술 기관이 협력하여 'Vision for Young Londoners to 2025'라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계획서를 발표하였다. 현재 이 네트워크는 London Youth, Partnership for Young London, London Funders 의 3기관이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런던은 가장 바쁘게 돌아가며 다양한 문화 공존성이 존재하는 도시이자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유럽에서 한 도시를 기준으로 대학의 숫자가 43개로 가장 많으며 런던 안에서만 사용되는 언어가 300여개가 넘는다고 보고된다. 더욱이 런던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청년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기도 한다(Partnership for Young London, 2015:4). 그러나 이러한 런던의 외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청소년이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런던 자체로만 비교하면 잉글랜드(England) 주 중에서 아동 빈곤 수준이 3위로 높은 편이며 10세에서 11세 아동의 40%는 비만이며 10명중 1명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다(Partnership for Young London, 2015:5).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 중 절반가량이 중학교 졸업장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있으며 7분의 1의 아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기도 하다. 거의 같은 비율의 아동들은 2015년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자연에 나가본 적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Partnership for Young London, 2015:4). 또 각종 인턴십이나 수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도 낮으며 지역사회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Vision for Young Londoners

to 2025' 의 진단이다(Partnership for Young London, 2015:5). 이러한 아동기의 상황은 청소년이 되었을 때 불평등한 기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회의 부족은 물론 낮은 동기부여로 인해 성공적인 성인의 삶으로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된 런던 소재의 관련 기관들은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의 미래가치에 투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런던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기회를 창출해내기 위해 힘과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2025년까지 런던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이들의 미래역량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운영과 사업들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나. 네트워크 사업의 지향 가치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가치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청소년 주도, 협력과 연대,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지지 및 가능성이다. 또한 각각의 가치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주도는 청소년을 모든 사업의 중심 가치로 지향하며, 청소년 주도로 또한 청소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한다. 협력과 연대에는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연대를 구축하며, 청소년들이 공동의 목표를 행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가능성에 대한 지지 영역에는 청소년과 사업에 대한 긍정과 동기를 부여하며, 청소년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가능성 영역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함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 개발과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영역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Ⅲ-17〉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17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가치

가치	내용
청소년주도 (Youth-led)	• 청소년을 모든 사업의 중심 가치로 지향 • 청소년주도 청소년서비스와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적극적인 청소년 의견 수렴 • 청소년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 • 청소년의 경제사회적 배경, 인종, 성적 취향이나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청소년 서비스 구축
협력과 연대 (United)	•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연대 구축 • 청소년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용한 모든 자원을 모으고 혁신 •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의 환류로 런던 지역 청소년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지지	• 청소년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점이 청소년과 사업에 대한 긍정 & 동기부여 • 달성 가능한 목표를 수립 • 청소년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관련 옹호활동 적극 수행 • 청소년서비스 실행에 있어 청소년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긍정적 기회를 제공 •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넘어 해결하려는 노력 병행
가능성 (Enabling)	•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개발 • 청소년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독려 • 청소년이 이미 가진 기술과 관심, 내적 동기들을 활용하여 청소년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

* 출처: London funders 홈페이지
https://londonfunders.org.uk/what-we-do/london-funders-e-bulletins/project-groups에서 2020년 7월 30일 인출하여 재구성함.

다. 네트워크 전략

2025년까지 런던의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주인의식, 소속감, 개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 런던의 각종 기관들이 연합하여 혁신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Partnership for Young London, 2015). 이 네트워크의

시작과 실행을 위한 논의가 비롯된 것은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처음 이루어졌지만, 네트워크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업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전 과정에서 청소년이 참여하였고 결과적으로 런던에 거주하는 11세에서 25세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위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Partnership for Young London, 2015).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행전략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18 네트워크 전략

전략	내용
런던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활성화	•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 • 청소년의 의견은 1년에 1회씩 관련 부처와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 • 청소년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 독려는 필수
교육활성화와 웰빙	• 양질의 공교육과 학교 밖에서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추후 선택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 • 네트워크 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와 공교육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감과 에너지를 함양. 이를 통한 사회적 정서적 기술 함양을 지원 • 여러 교육기회를 경험하는 것은 청소녀의 경제적 사회적 웰빙으로의 첩경이 될 수 있음.
안전보장과 지원	• 지역사회 내 다양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 발달시기에 맞는 필요와 안전을 제공 •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거리정비 사업 추진 • 안전한 놀 공간 마련 • 위기청소년,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는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전략 수립 •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 전략 구축
불평등의 문제 해결	•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네트워클 통해 기회를 보장하여 장기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 • 청소년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문제에 조기개입하고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미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 • 미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청소년 개인의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일임과 동시에 사회 통합을 이루는 핵심 전략

전략	내용
모든 청소년에게 긍정적 진로선택의 기회 제공	•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에게도 청소년을 위한 진로 기회 창출 요구 • 기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런던의 물가를 고려한 생계비 지원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주요 전략 •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민주적 참여 활성화	•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 참여 활성화 • 청소년의 민주주의적 삶의 경험과 참여 확대 • 2016년부터 실시되는 시장선거에 16세 이상 청소년의 선거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후 다른 선거에서도 선거연령 하향화로 청소년 참여를 가능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정책적 협력 모색
주거 문제 개선	• 청소년과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임대 보장 • 민간 주택 공급에서도 청소년과 청년, 노숙청년이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 및 협력 • 지자체와 민간 임대업자들에게 주거문제 개선 사업에 참여와 지원을 독려
혁신과 학습	• 청소년서비스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전략은 증거기반 혁신과 실천이 전제될 때 가능 • 시범사업의 확대와 사업의 혁신, 효과적인 연구와 학습을 통해 청소년서비스 사업의 질을 향상 •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지속가능한 것이 되기 위하여 사업평가를 통해 혁신방법 지속적으로 모색
서비스 투자	•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예산 확보 • 청소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투자 유치 • 민간기업과 파트너십, 공동재단의 설립을 통해 청소년사업에 투자 활성화 •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청소년에게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런던 시와 투자 기업 차원에서도 궁극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음.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 다양한 종류와 수준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는 물론 담당 지자체, 청소년시설 및 기관, 단체, 기업, 서비스 주체들과의 협력이 지속적이고 강화될 때 네트워크가 실행될 수 있음 •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의 양적 확대는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성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 출처: London funders 홈페이지 https://londonfunders.org.uk/what-we-do/london-funders-e-bulletins/project-groups에서 2020년 7월 30일 인출하여 재구성함.

라. 네트워크의 특징과 회원가입

Partnership for Young London은 모든 청소년의 웰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고 성취되는 곳에 미래가 있다고 믿는 런던 지역 네트워크로써 청소년 정책을 개발하고 청소년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결성된 유일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으며 런던의 청소년 서비스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이 네트워크는 청소년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시장조사와 정보조사를 공유하며 분기별로 네트워크 미팅을 개최하고 사안에 따라서 런던과 주, 국가적 차원에서 모임을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네트워크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관과 자원기관 사회적 기업, 정부 기관등도 포함되어 있다. 회원단체로 운영되며 회원기관에는 정책 자료, 주제별 세미나와 이벤트 제공, 연수 개최, 런던 정책 네트워크 미팅 개최, 국가 및 지역정책과 연계한 청소년정책 개발이 주요 업무이다. 회원단체의 회비는 4월 1일에서 차기년도 3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기관회비는 별도로 공지한다.

마. 네트워크 세부 사업 소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사업이 연간 수행되는데 세부 사업의 내용은 아래의 〈표 Ⅲ-19〉과 같다.

표 Ⅲ-19 네트워크 세부 사업

사업	내용
런던 청소년 연구자	• 3년짜리 프로젝트로써 청소년기관의 연구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기관 스스로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획과 개발, 서비스의 실행의 향상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Trust for London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청소년기관들이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 개발 • 청소년들이 청소년주도의 캠페인이나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또래 연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도출, 청소년기관 지원 •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 청소년 캠페인 지원

사업	내용
디지털 건강 대사	• 6개월 프로젝트로써 'Healthy London Partnership'에 의해 재정이 충당 • 16세에서 24세의 런던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이들이 건강대사로서 영국의 건강보험 어플(App)을 소개하고 'Good Thinking' 자료를 소개하게 하는 것 •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상품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 • 미디어 사용에 대한 캠페인과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 런던 거주 청소년들이 디지털 상에서의 건강과 웰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또래 청소년에게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조직하도록 지원 • 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 관련 자료 구축
#Truth About Youth 캠페인	• 16세에서 20세의 런던 거주 청소년 중 20명을 선발하여 '#TruthAboutYouth" 캠페인을 진행 • 청소년주도 자산 기반 사회적 미디어 캠페인을 조성 •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제거할 수 있는 자료와 내용으로 짝을 이루어 연구를 수행 • 프레젠테이션 기술, 마케팅, 소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편집 및 제작 등을 포함한 아웃리치 활동과 캠페인 진행 • 성인과 함께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수행하거나 코디네이팅을 통해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해 증진 •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한 커뮤니케이션 주도와 청소년 프로젝트 개발 • 프로젝트를 통해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기술, 청소년주도 캠페인 기술, FGI 기법 등, 연구방법, 이벤트 기획과 운영 기술 개발
청소년 정치참여 기금	•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정치교육을 위한 사업 • 16세 선거를 위한 연대와, 런던시장 선거 시 청소년주도 정견발표 기회 모색, 정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 모색 • 16세 청소년 선거참여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합의함. – 학습과 자원의 공유 :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관간의 지원을 공유 – 네트워크 챔피언 선발 : 효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학교에서의 정치교육, 선거연령 하향화 등에 공이 있는 사람을 선발 – 정치 교육 : 형식교육(formal)과 비형식교육(informal) 모두에서의 정치교육을 활성화하되 'Cultural and Creative Capital'과 연계하여 운영, 특히 청소년 관련 기관이 정치교육을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영향력 지도 만들기 : 비단 정치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런던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 참여에 관하여 지도로 구성하기

사업	내용
VCS 런던 청소년 지원	• 런던 청소년 기금 프로젝트로 청소년기관이 아동과 청소년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기관을 선발 • 양질의 청소년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자아실현을 돕는 것이 목적 • 사업 참여를 통해 기관은 London Youth Bronze Quality Mark, Project Oracle Validation Standard One 같은 인증을 받으며, 현재 179개의 프로젝트 인증
토대 만들기 프로젝트	• 런던 거주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 조성 프로젝트 • City Bridge Trust에 의해 2년 동안 재정지원 • 올바른 정보와 연구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향상 • 데이터와 연구의 중복을 예방하고 기관 간 협력 증대 • 연구와 청소년 현장의 친밀한 협력 관계 형성과 실무자들의 연구 확대와 연구의 효과성 및 실효성 확대 • 청소년이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연계 연구 아젠다 발굴 • 연구의 실효성을 위해 정책 입안자들의 이해를 도우며, 청소년들과의 협력 강화 • 기관 간의 공동 연구를 장려하여 연구자체가 협력과 파트너십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실무자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목표 • 연구를 위한 지원으로 4일간의 연구를 위한 연수가 진행되며 워크숍 병행 • 청소년이 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조언하는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연구에 포함. • 또 연구 주제는 청소년들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연구 결과를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기관들과 함께 공유 • 연구를 위한 훈련과 연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연구를 위한 훈련과 연수에 참여하도록 권장
아동보호 위원회	• 런던 전역의 보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런던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통해 그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만들어진 프로젝트로서 Association for London Directors of Children's Services(런던 아동 서비스 협회)가 후원 • 프로젝트 활동 내용 : - 아웃리치 활동과 다양한 방법을 통한 요보호 아동 및 청소년 발굴 - 청소년위원회 등을 통하여 연중으로 이벤트를 기획하여 요보호 아동과 청소년의 고등교육기회 확대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주도의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 반영 - 청소년에게 필요한 훈련과 개발의 기회 제공

사업	내용
	- 지역사회 내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충 • 사업의 효과성으로는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증가한 것과 요보호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들의 기초 기술과 자신감이 증가하였으며 요보호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내 협력이 증가하였고,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음. • 연간 150명의 청소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으며 30명 내외의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연간 80여명의 청소년이 관련 연수에 참가 중
런던 청소년 비전	• 50여개의 네트워크기관이 만든 비전으로 런던의 청소년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가치를 모아놓은 것 • 비전의 내용: - 청소년을 모든 사업의 중심에 놓기 -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 청소년들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 네트워크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등

* 출처: Partnership for Young London의 기관 홈페이지 https://www.partnershipforyounglondon.org.uk/about에서 2020. 07.20. 인출.

② London Funders[25)]

가. 기관소개

런던의 시민사회의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재정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로는 런던에서 유일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런던 지역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하여 연계하고 기여하며 협력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런던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변화가 많고 다양성이 존재하여 사회적 양극화도 심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균형과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런던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25) 출처: London funders 홈페이지. https://londonfunders.org.uk에서 인출한 내용을 재구성함.

나. 네트워크 참여 방법

네트워크에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참여할 수 있는데 연회비는 기관의 재정규모에 따라 각기 다르며 10단계로 나뉘어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입비는 3,325파운드부터 가장 낮은 수준의 가입비는 540파운드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종류와 네트워크 참여를 위한 질문, 분야별 역할 및 네트워크의 역할 등은 다음과 같다. 표에서 보다시피 네트워크의 종류는 다양하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 서비스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앞서 네트워크에 참고할 만한 점검 리스트와 우선순위와 역할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 것은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다음은 네트워크의 종류와 역할을 나타낸 표이다.

표 Ⅲ-20 네트워크 기관의 종류와 역할

종 류	역할	
연구와 평가	점검 리스트	• 사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연구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 • 사업수혜자를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가? • 우리의 지식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우선순위 역할	• 네트워크 안팎에서 얻는 성과의 공유와 다른 기관에의 참여 독려 • 수집한 자료를 최상으로 활용 •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표준화(어떻게, 누구의) • 사업수혜자들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통한 네트워크의 유용성 입증
자산관리 (unlocking assets)	• 런던의 자원봉사 단체와 지역사회단체의 자산운용에 관한 논의를 통해 네트워크 영역으로 포함 • 자산이나 부동산 사용과 관련한 지자체의 정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융자 등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는 등에 대한 지원을 담당	
아동과 청소년	아동과 청소년서비스 분야의 예산 감소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하여 구성된 영역으로 역할을 다음과 같음 • 아동 · 청소년 서비스를 위한 재정 현황 분석	

종 류	역할
	• 재정확충을 위한 지역 구분 • 아동 · 청소년서비스를 위한 문제 분석 • 다른 투자기관과 중요한 정책결정담당자와의 연대와 파트너십 구축 • 아동 ·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재정 확충방안 논의
자금 어드바이스	• 사회서비스 영역에 필요한 자금 투자와 운용에 대한 어드바이스 제공
문화	• 런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룹들로 문화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이 목적
건강한 런던	• 건강의 문제가 점점 중요한 이슈로 대두함에 따라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 문제도 다룰 수 있는 기관들로 네트워크가 구성됨 •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건강과 웰빙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웰빙에는 대기 오염과 녹지 부족, 건강불평등에 관한 이슈들도 포함하고 있음 • 런던 전역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건강과 관련한 문제 분석
주거와 노숙	• 런던의 주거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 • 노숙자들에 대한 주거지원 및 회복 지원을 위해 네트워크 조직

* 출처: London funders 홈페이지.
https://londonfunders.org.uk/what-we-do/london-funders-e-bulletins/project-groups에서 2020년 7월 30일 인출하여 재구성함.

③ Healthy London Partnership : 건강한 런던 파트너십

가. 네트워크 소개

이 네트워크는 2015년 처음 구성되었으며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립보건서비스)의 Five Year Forward View(5개년 비전: FYEV)와 Better Health for London(런던 보건 증진) 사업의 일환이자 'Make London the Healthiest Global City(런던을 세계 제일의 건강도시로 만들기)' 라는 목적을 표방하였다.

런던 전역의 의료 및 보건 전문가와 기획전문가, 프로그램 분석 및 운영에 관한 전문가들을 모아서 아래의 10가지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Healthy London Partnership, 2019b).

- 런던의 모든 아동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시작을 만들어주기
- 보다 나은 먹거리와 운동, 건강한 삶을 위한 (정화/정비)사업 추진하기
-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하기
-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을 없앨 수 있도록 지원하기
-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성원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기
- 런던시민들이 스스로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하기
- 모든 런던시민들이 필요할 때 혹은 적당한 때에 주치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 런던의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언제나 최상의 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 런던 시민들이 건강한 런던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 런던을 전 세계에서 최고의 디지털 건강 개혁 중심지로 만들기

아래는 Healthy London Partnership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의 키워드 그림으로 이를 통하여 파트너심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 출처: Healthy London Partnership (2019b). *HLP: 2015-2020 Highlights and reflections.* https://www.healthylondon.org/wp-content/uploads/2020/06/HLP-2015-2020-Highlight-Report.pdf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그림 Ⅲ-30 Healthy London 파트너십 키워드

나.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가치

건강한 런던을 위한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가치에는 다음 표와 같이 5가지 가치가 있다.

표 Ⅲ- 21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가치

가치	의미
Make a difference (변화하라)	• 런던의 모든 시민들이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며 파트너십을 강력하게 구축
Be excellent (최선을 다하라)	• 런던이 건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자원을 공유하고 기술개발과 실행에 전력
Do thing differently (차별화하라)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회를 추구하고 새로운 건강지원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별화 전략 구축
Work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라)	•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일하고,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1,000여명의 런던 주민, 100여개의 조직과 더불어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
Have fun (즐겁게 일하라)	• 최선의 결과는 행복하고, 균형 잡히고, 건강한 작업환경과 다른 사람을 특별하다고 여기는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에 대해 인식

* 출처: Healthy London Partnership 홈페이지. https://www.healthylondon.org/about/our-values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하여 번역하고 재구성함.

다. 네트워크 사례 :Fire Safe and Well Project(화재로부터의 안전과 웰빙)

2015년 NHS England(National Health Service England국립보건서비스 잉글랜드), Public Health England(공공보건 위원회),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지방정부협회), Age UK, Chief Fire Officers Association(수석 소방관협회)은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한 조기개입으로 런던시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Healthy

London Partnership, 2019a: 7). 이 합의서에는 화재 위험과 열악한 건강상태를 초래하는 공통 위기 원인이 있음을 인지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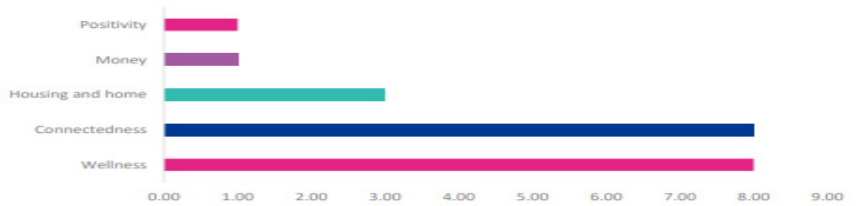
Fire and Rescue Service(FRS: 화재·구조 서비스)라는 이름으로(현재 영국에서는 Safe and Well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음) 잉글랜드지역에서 매년 약 670,000 정도의 가구를 방문하여 개인과 가구 맞춤형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방문을 통해 건강이나 웰빙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네트워크의 주요 내용이다. 즉, 화재예방교육을 위한 가정방문 시에 문제를 진단하여 전문적인 지원기관에 연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여러 기관을 찾고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노인 가구 방문을 통하여 낙상예방, 화재 예방, 난방기구 지원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는 범죄예방과 문제의 조기 발견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Healthy London Partnership, 2019a: 8).

이 프로젝트는 화재에 노출되어있는 것과 건강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서 2019년에 걸쳐 시범사업으로 기획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네트워크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프로젝트 시작 후에 1,250회 이상의 가구를 방문하여 낙상방지를 위한 교육 및 안전점검, 난방지원, 금연교육,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가구 등을 발견하였다(Healthy London Partnership, 2019a:7). 이들 중 90% 이상이 자신들의 안전이 향상되었다고 밝혔으며 관련 파트너십 기관들의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전국단위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기도 해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Healthy London Partnership, 2019a: 6).

라. 네트워크 사례의 효과성과 교훈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5개의 기관의 실질적 네트워크와 협력이다(Healthy London Partnership, 2019a: 16). 즉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기관운영과 수혜자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며 공동 작업을 통해 기관의 역량이 개발되고 구성원의 다양한 역량이 함양되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Healthy London Partnership, 2019a: 17).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만나게 된 수혜자들의 사후 방문과 격려를 통해서도 자부심과 일의 효과성과 지속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Healthy London Partnership, 2019a: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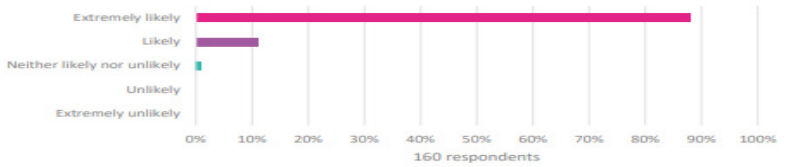
네트워크 서비스 수혜자의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에 있어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Greenwich 지역에서 행해진 화재예방 교육 중, 11%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로 연계되었고 62%의 수혜자들이 다른 개입과 지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네트워크 사업결과 웰빙 지수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아래의 그림은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와 지원이 종료된 이후 개인들이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하여 정리한 항목별 서비스 개선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출처 : Healthy London Partnership (2019a: 31). *Fire Safe & Well : project summary, leaning and out comes.* https://www.healthylondon.org/wp-content/uploads/2019/12/200214_-HLP-Fire-Safe-and-Well-final-report.pdf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그림 Ⅲ-31 2017-2018 서비스 영역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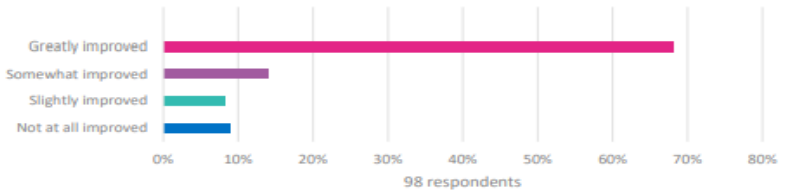
세 번째는 수혜자들에게 화재예방교육을 지인에게 어느 정도 소개하겠냐는 것에 대한 응답이다. 다음의 그림에 제시 되었듯이 90%에 가까운 수혜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교육에 대해 소개하겠다고 응답한 것은 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Healthy London Partnership (2019a: 33). *Fire Safe & Well : project summary, leaning and out comes.* https://www.healthylondon.org/wp-content/uploads/2019/12/200214_-HLP-Fire-Safe-and-Well-final-report.pdf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그림 Ⅲ-32 2017-2018 서비스에 대한 지인 추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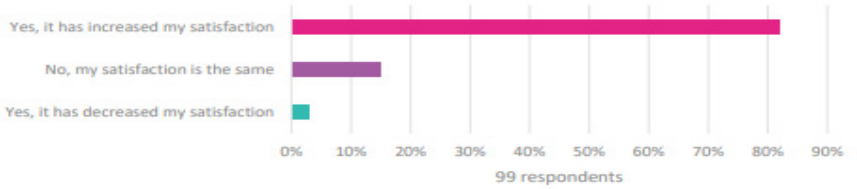
개인의 안전에서도 방문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에 개인의 화재, 건강, 웰빙에 있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도 높았다. 아래의 그림은 네트워크에서 시행한 방문 화재예방교육 이후 거의 70% 에 이르는 수혜자들이 개인의 안전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처 : Healthy London Partnership (2019a: 33). *Fire Safe & Well : project summary, leaning and out comes.* https://www.healthylondon.org/wp-content/uploads/2019/12/200214_-HLP-Fire-Safe-and-Well-final-report.pdf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그림 Ⅲ-33 2017-2018 개인 안전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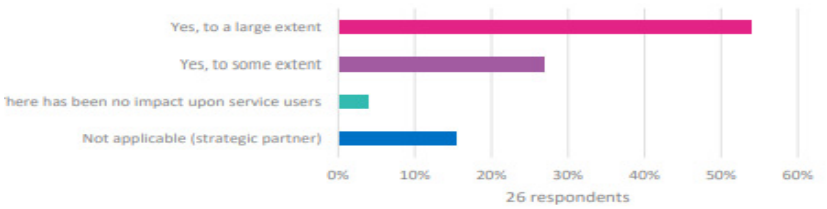
다음은 화재예방교육을 통해 연계된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것이다. 80% 이상의 수혜자들이 다른 기관의 연계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 출처 : Healthy London Partnership (2019a: 34). *Fire Safe & Well : project summary, leaning and out comes.* https://www.healthylondon.org/wp-content/uploads/2019/12/200214_-HLP-Fire-Safe-and-Well-final-report.pdf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그림 Ⅲ-34 2017-2018 서비스 연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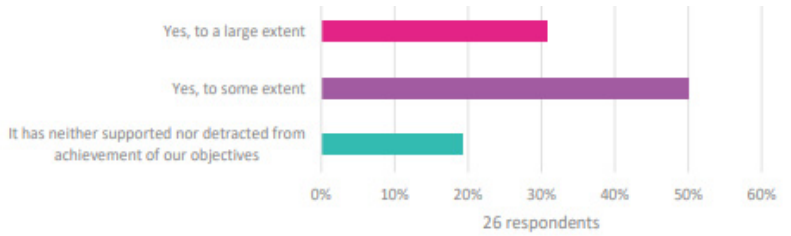
또 다른 긍정적인 네트워크 결과에 대한 네트워크 참가자의 만족도도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 사업인 화재예방교육에의 참여가 기관 고유의 사업을 통한 기관의 수혜자들에게 어느 정도 긍정적이었나에 대한 질문에서도 50% 이상이 매우 긍정적이었고 기관의 고유 서비스와는 관계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5% 내외인 것으로 드러났다.



* 출처 : Healthy London Partnership (2019a: 35). *Fire Safe & Well : project summary, leaning and out comes.* https://www.healthylondon.org/wp-content/uploads/2019/12/200214_-HLP-Fire-Safe-and-Well-final-report.pdf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그림 Ⅲ-35 2017-2018 네트워크가 기관 고유 사업 수혜자에게 미친 영향 정도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사업에의 참여를 통한 기관의 운영목적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관한 조사결과가 있다. 80% 이상의 응답이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에의 참여가 기관의 고유 운영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이다.



* 출처 : Healthy London Partnership (2019a: 35). *Fire Safe & Well : project summary, leaning and out comes.* https://www.healthylondon.org/wp-content/uploads/2019/12/200214_-HLP-Fire-Safe-and-Well-final-report.pdf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그림 Ⅲ-36 2017-2018 네트워크가 기관 고유 운영 목적 달성에 미친 정도

시범사업 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지적이 되었다. 첫째, 런던의 특성상 지역의 연계와 이동시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행정적인 처리의 문제점, 런던 안에서도 각기 다른 지역과 런던시민들의 다양한 특징과 요구에 모두 부응할 수는 없어서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서비스에 어쩔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고 이를 위한 예산도 여전히 부족해 예산확충과 인력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셋째, 정보공유와 사업결과에 대한 자료구축의 문제이다. 즉,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어디까지 개인의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 공유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문제, 정보 전산화의 문제 등도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Healthy London Partnership, 2019a: 18).

⑤ Young Westminster Foundation[26]

가. 네트워크 소개

이 네트워크는 Westminster구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아동과 청소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계와 공공기관, 개인 등으로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있으며 여기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다음의 3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첫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컨소시엄이나 크라우드 펀딩, 공적 기금 등을 활용하여 회원 기관의 재정 사업 지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네트워크가 가지는 중요한 장점이자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앞서 소개된 다른 네트워크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유사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아이디어와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모든 네트워크가 가지는 장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가 주는 장점은 필요한 정보 공유와 지역사회에 대한 통찰(insight)이라고 밝혔다.

기관 독립적으로 생산되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공유한다면 지역사회 맞춤형 청소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네트워크의 장점이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Young Westminster Foundation 홈페이지에는 기관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어 런던 웨스터민스터 지역의 아동·청소년 서비스 우수 사례와 프로그램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Covid-19(코로나19)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종 자료와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

26) 출처: Young Westminster foundation 홈페이지. https://www.youngwestminster.com/에서 인출한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및 재구성함.



YWF Covid-19 Response



YWF is working with Westminster City Council, One Westminster and the wider Westminster voluntary sector during the coronavirus outbreak. The coronaviru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vulnerable people, and not just those that are at highest risk of serious infection. In tough times, the way communities step up to work together is central to how far-reaching the outcomes can be.

If you are a YWF Member or young Westminster resident please visit our dedicated new webpages for information, resources & advice.

We, along with a wider group of funders, recognise that the covid-19 outbreak is an exceptional event that will have an impact on civil society groups, and want to offer reassurance that we stand with the sector during this time.

We wish to support our network as best we can. If you are concerned about your service users at risk or the functioning of your organisation, or if you are able to offer support, please contact us. Our phone number is **07426 217044.**

To receive our regular updates and newsletters please sign up here.

* 출처 :Young Westminster foundaion 홈페이지. http://www.ywfoundation.com/covid-19-update/에서 2020년 8월 15일 인출.

그림 Ⅲ-37 2017-2018 Young Westminster Foundation

나. 네트워크 사례명 : DreamArts

DreamArts는 웨스트민스터 지역에서 18년 동안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술 활동을 지원해 온 프로젝트이다. Young Westminster Foundation은 청소년의 삶을 변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들을 모았고 런던 시(City of London)와 햄릿구(Tower Hamlets)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어왔다.

웨스터민스터는 영국에서 아동빈곤이 3번째로 높은 지역으로서 37%의 빈곤아동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DreamArt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정 지역의 경우 빈곤아동율이 78%에 이르는 곳도 있어 이 네트쿼크 사업이 가지는 지역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크다(Bloois-Brooke & Busby, 201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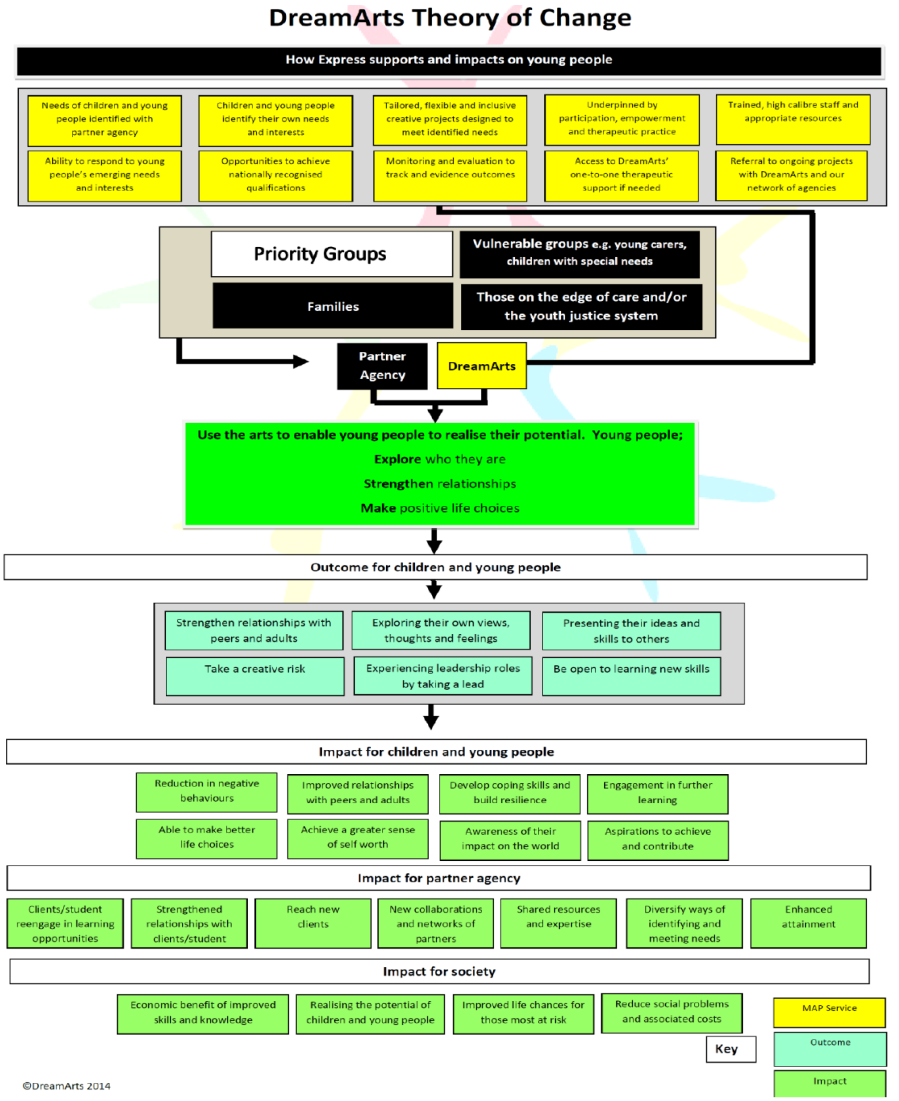
아동의 지역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DreamArts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이러한 네트워크가 기획되었다는 것은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이자 가치일 것이다. 참여대상은 7세에서 25세이며 매년 30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창의적인 예술기반(Arts-based) 방법을 사용하여 참여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격려하기 위함이 목적이다(Bloois-Brooke & Busby, 2017: 3). 3가지의 세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표 Ⅲ-22 네트워크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Express	• 위기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 창의적이고 치료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안되어 프로그램과 대상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며 특정 대상을 목적으로 디자인되었음.
Experiment	• 저소득층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말에만 운영되는 창의 워크숍
Expand	• 창의적 리더십과 창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개인 개발 프로그램

* 출처: Blois-Brooke, C., & Busby, S. (2017). *DreamArts Impact Study. Full report.* http://www.dreamarts.org.uk/wp-content/uploads/All-Together-Now-Full-Report.pdf에서 인출하여 번역하여 구성함.

DreamArts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목적이자 비전, 기대효과 등은 아래의 그림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즉, DreamArts가 지향하는 변화와 이를 설명한 변화를 위한 이론이자 가정이다.



* 출처: Blois-Brooke, C., & Busby, S. (2017). *DreamArts Impact Study. Full report.* http://www.dreamarts.org.uk/wp-content/uploads/All-Together-Now-Full-Report.pdf에서 2020년 8월 15일 인출.

그림 Ⅲ-38 DreamArts 변화 이론

DreamArts 프로그램의 사업효과성은 청소년의 예술과 관련한 역량이 함양되고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차치하고라도 크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네트워크에 참여한 회원기관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 참가자 모임에서 그들은 프로그램의 참여가 자신의 개인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였지만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런던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즉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런던에서 예술관련 직업을 얻고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런던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시간약속을 지키는 것, 팀워크, 자신감, 협동심, 타인에 대한 이해, 학습방법 등 개인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고용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발전, 고용율의 증가, 반사회적 행동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었다(Bloois-Brooke & Busby, 2017: 41-42).

둘째,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관의 변화와 발전에서도 그 효과를 찾을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예술 활동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각기 다른 기관의 협력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프로그램이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원인과 기회가 되었으며 개별기관의 고유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고 하였다(Bloois-Brooke & Busby, 2017: 44).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각의 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은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4) 시사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런던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 구축만을 전담하는 조직과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조직과 기관은 고유의 업무를 위해 설립되고 일을 수행하고 있어 네트워크 구축과 참여는 부가적인 일이 될 수 있으며, 자칫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기관의 특징과 사업의 고유성을 이해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원 혹은 총괄·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의 별도 네트워크 지원기관이 있어야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구축의 실효성이 있을 것을 생각한다. 영국 사례를 보면, Partnership for Young London이나 Healthy London Partnership같은 기구는 기관의 고유사업이외에도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네트워크만을 전담하는 기구가 운영될 때 네트워크 운영의 효과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기간의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네트워크를 통해 도출된 사업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물론 네트워크 자체가 수익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서비스의 경우 사회적 관심 자체가 부족하고 청소년의 참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만큼 이를 위한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영국 사례에서 보면, 네트워크에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는 사업 예산의 상당부분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Healthy London 프로젝트의 경우 비록 시범사업이기는 했지만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없었다면 네트워크 사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때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청소년서비스 기관과의 연대 협력이야 말로 국가가 지향하는 청소년 서비스를 전달하고 구축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네트워크를 위한 관련 예산과 지원을 촉구하고 네트워크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노력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와 이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담당 실무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전문적인 연구와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와 육성, 활동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라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효과성 입증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Partnership For Young London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네트워크 자체를 위한 연구 사업이 네트워크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즉, 형식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네트워크의 확산과 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실무자와 전문 연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이 연구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기초생활지원외에도 문화예술 사업 같은 문화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DreamArts 같은 사업은 위기청소년과 취약계층 대상의 청소년이 주요 대상이긴 했지만 이들을 위한 생계나 기초 학업지원이 아닌 이들의 문화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사업을 고안하고 구축할 때에 기초 복지의 증가나 학업 보충 같은 사업에서 확장하여 문화예술 사업, 그리고 한국형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지원 같은 다양한 주제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는 다양한 비대면 네트워크의 조직 및 활성화도 중요하다. 본 고에서 살펴본 모든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비대면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면 네트워크를 넘어 비대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도 필요하며 이를 위한 운영방법의 모색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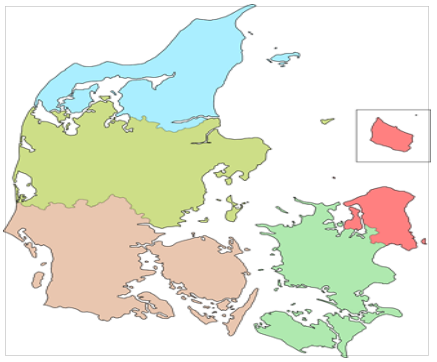
3) 덴마크 사례

(1) 개요

덴마크는 스웨덴, 노르웨이와 함께 스칸디나비아 3국에 속하는 북유럽 국가로 인구는 약 580만(2020년 7월 기준)명, 영토 넓이는(본토유틀란드 반도) 42,934㎢이다. 고대에는 북유럽 전체를 다스리는 거대한 왕국이었으나 현재는 한 개의 반도(유틀란드 반도), 한 개의 '큰' 섬(셸란섬-코펜하겐 위치), 여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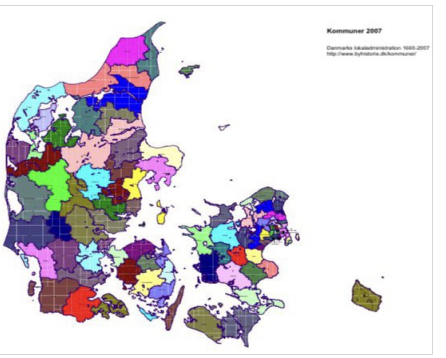
덴마크는 영토가 줄고 국력이 쇠락하는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국력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교육을 선택했다. 이를 기초로 덴마크 시민 모두를 위한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이어왔다. 다양한 교육방법과 다양한 학교제도의 인정,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 그리고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체 문화가 발달한 덴마크는 지방자치제도를 통한 권한의 이양 및 분권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교육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방자치 행정이 발달한 덴마크는 1660년 코펜하겐시가 국왕으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 이후 1950년 일반 주·시·지방자치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몇 번의 개정과 새로운 제도 확립의 과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덴마크의 지방자치체는 현재 5개의 주(region)와 98개의 시·군(Kommune)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2007년 이전에는 전국이 14개 주(Amt)와 27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7년 1월 이를 5개 주(Region)와 98개 시·군(Kommune)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체도 98개의 시·군(Kommune)을 하나의 자치단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Regions_of_Denmar에서 2020년 07월 08일 인출(좌측).

그림 Ⅲ-39 15개 지역
(덴마크어: Region레기온)



* 출처: https://web.archive.org/web/20071011050224/http://kommune.eniro.dk/danmarkskort/에서 2020년 07월 08일 인출.

그림 Ⅲ-40 98개 지방자치체
(덴마크어: kommune코무네)

덴마크의 지방자치체의 개편은 학교 및 교육복지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덴마크의 교육체제 운영은 각 지방자치체의 구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 지방자치체들은 지난 10여년 간 새롭게 구성된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학교교육뿐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기관을 육성하고, 이들이 교육적 측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무엇보다 각 지방자치체에 속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는 삶과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체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질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및 논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덴마크의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모형과 운영사례는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의 구축”을 위한 본 연구에 하나의 구체적인 모델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구축 모델뿐 아니라 덴마크 교육체제가 기저에 공유하고 있는 교육적 지향과 철학을 살펴봄으로써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덴마크 지방자치체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덴마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오르후스(**Aarhus**)가 자리 잡고 있는 오르후스 지방자치체의 조직을 살펴본다. 더불어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이 실천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방자치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기관들 중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청소년학교(**Ungdomsskolen**)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덴마크 지방자치체의 교육 거버넌스 구조

- 오르후스(Aarhus) 지방자치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덴마크 교육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은 각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따라서 9학년까지의 공립기초학교 교육도 지방자치체에서 관리한다. 학교교육은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체가 운영하는 공적 영역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교육복지의 영역과 동일 선상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에도 학교교육과 동일한 위상이 부여된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학교교육은 학교 밖의 아동 방과후학교(sfo, Fritidshjem), 청소년학교(Ungdomsskolen), 그리고 그 밖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행정 영역의 한 부분으로 작동하며 지방자치체에서 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즉,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정책은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모두에 동일한 무게를 두고 기획·운영된다.

덴마크의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덴마크 사람들에게 지역사회가 청소년 성장을 위한 교육을 마련하여 지원 및 제공하는

일은 학교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지지하고 도와야 하는 중요한 과업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10여년 간 이어져온 교육개혁의 과정을 거치며 덴마크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성장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르후스 지방자치체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오르후스 지방자치체의 교육거버넌스

오르후스는 덴마크에서 코펜하겐 다음으로 큰 지방자치체로 행정조직 중 하나인 "어린이-청소년(BØRN OG UNGE)과"에서 교육정책을 총괄한다. 오르후스시의 어린이-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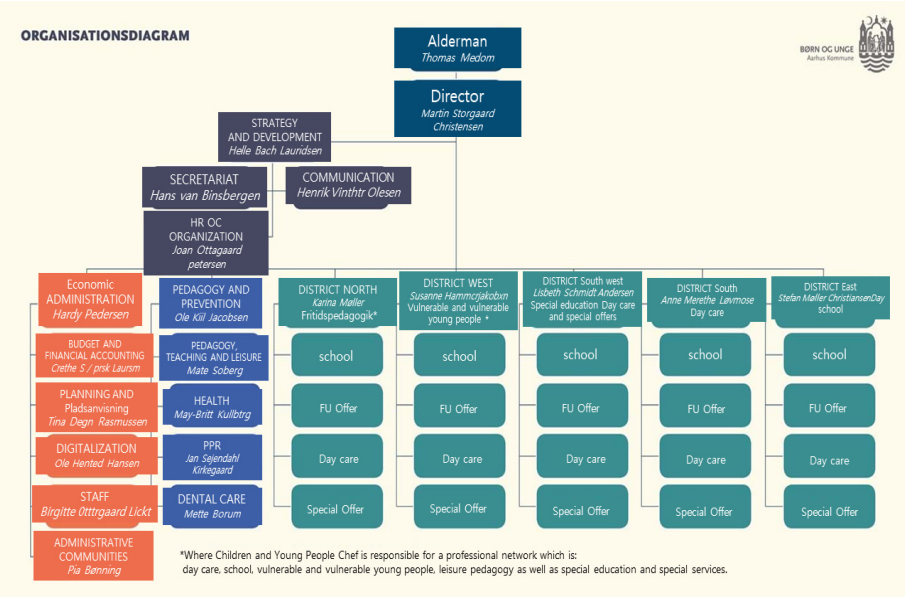
표 Ⅲ-23 오르후스 지방자치정부 어린이-청소년과의 업무

- 공립기초학교 업무(Folkeskole-primary + lower secondary school)
- 어린이와 보육업무(Childcare and day care)
- 특수한 교육기관 및 특수학생대상 학교 업무 (Special institutions and special schools)
- 건강 관리(health care)
- 어린이와 청소년 치아건강관리(Child and adolescent dental care)
- 교육심리학적 상담 (PPR - Pedagogical Psychological Counseling
- 청소년학교(Ungdomsskolen-Youth School)
- 방과후학교(Fritid - Lisuretime School)
- 그 밖의 다른 파생적 활동(Other derivative activities)

* 출처: 오르후스 지방자치정부 홈페이지. 어린이-청소년분과 안내 페이지.
https://www.aarhus.dk/om-kommunen/boern-og-unge/에서 2020년 6월 20일 인출하여 발췌 · 번역함.

제시된 표를 통해 어린이-청소년과는 교육뿐 아니라 지역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정서의 영역을 돌보는 일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덴마크의 모든 지방자치체는 기본골격 면에서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지방자치

단체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방자치체에 최적화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교육을 다루는 어린이-청소년과의 업무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업무가 분리되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언제든 협업이 용이한 형태로 조직되어 운영된다. 특히 최근에는 두 영역의 교육이 서로 협력하며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오르후스시는 큰 틀의 행정구조 안에 전반적인 발전 전략을 세우고 각 기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정영역과 다양한 교육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영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조직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오르후스 지방자치정부 홈페이지. 어린이-청소년과 페이지. https://www.aarhus.dk/media/37182/organisationsdiagram-2020.jpg에서 2020년 6월 20일 인출하여 발췌 · 번역함.

그림 Ⅲ-41 오르후스 어린이-청소년과

어린이-청소년과에는 전체를 총괄하는 교육시장(부시장)과 교육부시장이 있으며, 전체 업무를 총괄하여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전략과 발전(STRATEGI OG UDVIKLING)"부서가 있다. 더불어 교육기관을 효율적이고 교육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제와 경영(ØKONOMI OG ADMINISTRATION)" 부서와 모든 정책이 교육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그를 바탕으로 발전하도록 돕기 위한 "교육과 예방(PÆDAGOGIK OG FOREBYGGELSE)" 부서가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오르후스 지방자치체가 제공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육은 5명의 책임자가 나눠 맡고 있다.

앞에 제시된 오르후스 어린이-청소년과 조직의 예는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조직구조라고 할 수 있다. 덴마크의 모든 지방자치체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방자치체에 최적화된 형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르후스의 어린이-청소년과 조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교육을 다루는 어린이-청소년과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결합되어 운영된다는 큰 틀 안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눈여겨볼 점은 9학년까지의 공립기초학교 교육도 지방자치체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교육의 영역과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 모두 수평적 관계를 맺으며 협력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최근에는 두 영역의 교육이 서로 협업하며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오르후스 지방자치체는 어린이-청소년과를 큰 틀의 행정구조 안에서 전반적인 발전전략을 세우고 각 기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정영역과 다양한 교육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영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기관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관장하는 부서들은 오르후스시를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책임자를 두고 있다. 이들은 각 지역의 교육을 총괄하는 동시에 오르후스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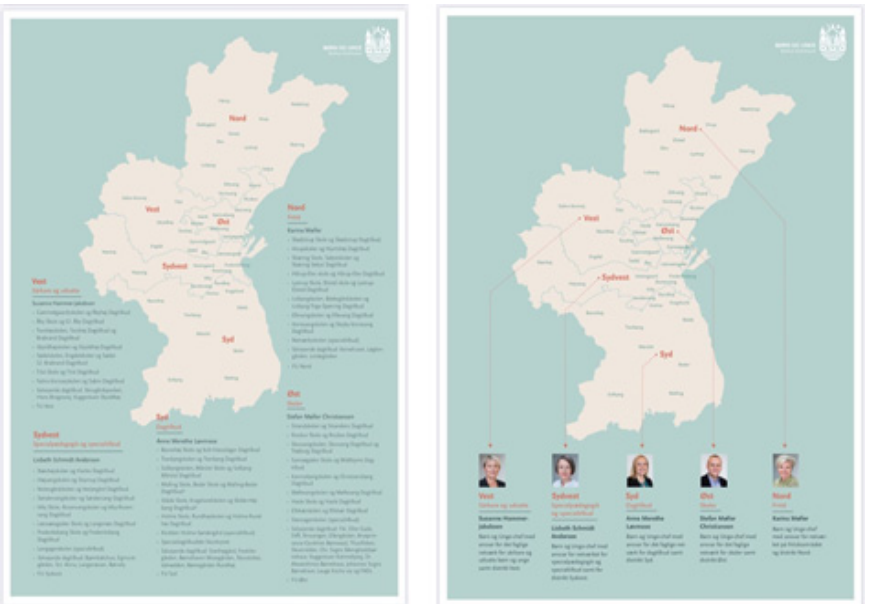
영역 또한 나누어 맡아 총괄한다. 즉, 각 지역의 총책임자는 오르후스 지역의 특수교육, 취약계층 지원, 어린이와 청소년 방과 후 교육 운영, 유아 돌봄, 그리고 학교교육이라는 다섯 가지 영역을 각각 담당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각 책임자는 오르후스 지역에 있는 해당 교육기관과 그곳에서 일하는 교육 인력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 및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의 표에서 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덴마크의 지방자치체 중 하나인 오르후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련된 돌봄, 신체적 건강, 정서적 건강, 학교교육, 방과후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운영의 핵심비전으로 삼아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표 Ⅲ-24 오르후스 지방자치체의 교육업무

서부지역 담당자	남서부지역 담당자	남부지역 담당자	동부지역 담당자	북부지역 담당자
·지역의 취약계층아동 교육을 위한 연결망 관리 ·서부지역 교육을 총괄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연결망 관리 ·남서부지역 교육을 총괄	·지역의 돌봄 기관과 돌봄 전문가들의 연결망 관리 ·남부지역 교육을 총괄	·지역의 학교교육 및 학업관련 연결망 관리 ·동부지역 교육을 총괄	·학교밖 교육 영역의 다양한 연결망 관리 ·북부지역 교육을 총괄

* 출처: 오르후스 지방자치정부 홈페이지. 어린이-청소년과 페이지. https://www.aarhus.dk/media/37182/organisationsdiagram-2020.jpg에서 2020년 6월 20일 인출하여 발췌, 요약 및 번역함.



* 출처: 오르후스 지방자치정부 홈페이지. 어린이-청소년과 페이지.
https://www.aarhus.dk/media/37182/organisationsdiagram-2020.jpg에서 2020년 6월 20일 인출

그림 Ⅲ-42 오르후스 지방자치체의 지역구조와 담당업무

② 오르후스 지방자치체의 교육비전

각 지방자치체는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별개로 지방자치체가 추구하는 교육비전과 그에 따른 교육정책을 마련한다. 덴마크 사회에서 내세우는 이러한 비전과 정책은 하나의 추상적인 구호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제적 움직임을 추동하고, 그 비전을 설정한 지방자치체 전체가 구체적으로 함께 추구하는 실천적 내용을 담는다. 앞에서 제시한 조직구성을 바탕으로 오르후스 지방자치체는 오르후스만의 교육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르후스시가 설정한 교육의 기본비전은 다음과 같다.

"아래 제시한 비전은 우리(오르후스 지역민)가 모두 함께 발을 딛고 서서 점차 펼쳐나가야 하는 공통의 가치이다. 오르후스 지방자치정부에서 우리는 지역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음과 같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일한다:

- **행복하고, 건강한 어린이, 자존감을 가진 청소년.**
- **미래의 도전적 과제에 맞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강인하고 생존력이 있으며 창의적인 어린이와 청소년.**
- **시민성(citizenship)을 경험하고 실제로 활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 **지역공동체에 참여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 **세계적 비전과 지역적 통찰력을 갖춘 어린이와 청소년.[27]**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오르후스 지방자치체의 어린이-청소년과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양한 지역 교육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일관된 교육철학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체의 담당기관 안에 협업을 위한 부서를 마련해 이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기관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지역 교육소식지다. 이 소식지는 격주로 발행된다. 소식지의 명칭은 "BU Nyt"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교육철학과 지향점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합하는 가운데 교육활동을 이어가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실행해온 교육실천 사례, 각 교육 전문가들의 새로운 교육적 시도와 그 결과, 더불어 학생들의 경험담 등을 생생하게 싣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영감을 얻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소통의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

27) 출처: 오르후스 지방자치정부 홈페이지. https://www.aarhus.dk/media/4157/boerne-og-ungepolitikken.pdf p.7.에서 2020년 7월 25일 인출.

③ 오르후스 지방자치정부의 학교밖 교사/보조교사 양성과 운영[28)]

오르후스 지방자치체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학교, 돌봄센터, 방과후학교, 청소년 학교 등에서 보조교사(pædagogisk assistent)로 일할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기존의 대학과는 다른, 우리의 전문대학과 유사한 교육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SOSU라는 이름의 이 기관은 중앙 유틀랜드 지역(Central Jutland Region)과 그 지역에 속하는 7개 지방자치정부(Skanderborg, Silkeborg, Favrskov, Aarhus, Syddjurs, Samsø, Odder)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일할 보조교사를 양성한다. 이 기관은 보조교사와 함께 사회적 돌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려는 청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오르후스 지방자치체는 오르후스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보조교사 양성기관인 SOSU에서의 교육을 지원한다. 따라서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기간은 총 2년 반이며, 학교에서의 이론수업, 교육 관련 현장에서의 인턴십 활동, 그리고 이후 취업할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체에서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과 잘 조직된 훈련과정, 매력적이고 질높은 교육, 그리고 팀으로 진행되는 공동 작업이 가능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더불어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는 전 과정 동안 급여가 지급된다. 이러한 교육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25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25세 이상의 성인이 보조교사가 되려면 성인을 대상으로 개설된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한다. 이러한 전문 보조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건강관리사,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력을 함께 양성한다. 이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SOSU는 학교 교육의 비전을 '공동체와 건강, 그리고 교육이 균형잡힌 의미있는 삶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

21) 출처: 오르후스 지방자치정부 홈페이지. https://www.aarhus.dk/om-kommunen/boern-og-unge/arbejde-i-boern-og-unge/paedagogisk-assistentelev/에서 2020년 7월 15일 인출하여 내용 정리 및 재구성함.

살펴본 바와 같이 덴마크에서는 학교교사 이외에도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다양한 교육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교육을 받는 기간동안 지방자치체가 교육비와 임금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큰 부담 없이 전문적 교육을 받고, 직접 현장에서 인터십 활동을 통한 실제적인 경험도 쌓을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단순히 아이가 기관에 와 있는 시간동안 안전하게 보호하기만 하는 돌봄 교사가 아니라 학교교사와 다른 방식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사회적 활동을 돕고 동기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양성된 청년 인력들은 지역의 교육기관으로 들어가 보다 질높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역의 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3) 덴마크의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 청소년학교(Ungdomsskolen)

① 청소년학교의 의미와 교육내용

덴마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성장지원 체제의 대표적 예로 각 지방자치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학교를 들 수 있다. 청소년학교는 각 지방자치체가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다양한 영역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교 밖 교육기관이다. 현재 약 40% 정도의 청소년이 이 학교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정해진, 2019: 250).

이러한 덴마크의 청소년학교는 단순한 방과후 돌봄과 보호, 또는 보충학습의 기능을 넘어선다. 덴마크의 청소년학교법은 청소년학교가 반드시 포함해야 할 교육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29]

29) 출처: 청소년학교법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17/438에서 2020년 6월 21일 인출.

3조. 청소년학교는 반드시 다음의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기초학과목 보완을 위한 교육(Almen undervisning).**
- **졸업시험 준비를 돕는 교육(Prøveforberedende undervisning).**
-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Specialundervisning).**
- **덴마크 언어와 사회에 대해 잘 모르는 이민자 청소년을 위해 설계된 교육 (Undervisning særligt tilrettelagt for unge indvandrere i dansk sprog og danske samfundsforhold)**

한국과 같은 사교육 문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덴마크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습 측면에서의 도움도 청소년학교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나 이민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도 청소년학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민자 청소년교육의 경우 이민자 청소년들이 가능한 빠르게 덴마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상호작용 및 활동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자녀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민자 청소년들은 덴마크의 낯선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필수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청소년학교에서는 기존 학교교육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또는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도 한다. 평가나 성취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시도하는 과정으로써의 교육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학교 교사와 운영주체들은 이러한 방식의 교육을 자신들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한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더 배우고 싶은 것 등에 도전할 수 있고, 원한다면 새로운 수업과정을 개설해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다. 다양한 체험과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도 얻는다. 9년간의 기초 교육과정을 마친 뒤에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졸업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도 청소년학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은 청소년학교에서 운영하는 전일제 10학년 과정에 등록하여 자신에게 더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과 관련된 도움을 받으며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다(정해진, 2019: 251).

이러한 청소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중 최근 몇 년간 중요한 역할로 언급되는 것은 기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조금은 다른 방식의 학습경험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경험한 많은 학생들은 공부하는 법을 새롭게 익히거나, 자신의 장점 등을 파악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기도 한다. 청소년학교는 이러한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년이 높아지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업에 뒤쳐지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후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연결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은 오르후스 지방자치체가 2020년 현재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학교 프로그램의 목록이다. 이러한 청소년학교 프로그램 목록은 모든 지방자치체에서 비슷한 형태와 영역으로 운영되지만, 개별 지방자치체마다, 그리고 매해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표 Ⅲ-25 오르후스 지역의 청소년학교 목록

영역별 구분	주제별 청소년학교
보드게임과 역할놀이	• 체스 • 보드게임 카페 • 게임의 캐릭터를 스스로 창조해서 스토리를 구성하기
춤	• K-pop 댄스 • 원하는대로 춤추기 • 거리춤공연 • 힙합 댄스
IT / 미디어 e-sports	• 컴퓨터 게임(E-sports) • 전자기기 다루기(Electronics) • 레고 만들기(Lego Mindstorm)

영역별 구분	주제별 청소년학교
	•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 • 컴퓨터 고치기 • 드론 아카데미 • 게임 디자인/게임 개발 • 모형경주용자동차(RC cars) • 영화와 사진 • 사진 • 컴퓨터 활용하여 그리고 편집하기
오토바이 운전	• 오토바이 주행 연습 • 면허시험 준비 • 응급처지 배우기
창의성, 요리, 만들기	• 요리 •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하기 • 건강과 음식 • 그리기 • 미술 감상하기 • 바느질 및 디자인 • 물건 만들기 • 팟캐스트 제작
자기성장과 성찰	• 요가 • 마음 다스리기 • 명상 •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다스리기 •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기 • 무엇이든 함께 원하는 일 함께하기
음악과 연극 등 공연분야	• 연극하기, 노래하기 • 음악 감상하기 • 랩 만들어부르기 • 다양한 악기 연주하기 • 밴드 활동하기
사회, 정치, 문화 영역	• 청소년 기자활동 • 지역 도보여행을 통한 역사배우기 • 기후활동가 활동 • 지역정치참여 활동
스포츠, 운동, 야외활동	• 산악자전거 타기 • 수상활동 하기 • 다이빙 배우기 • 승마 배우기 • 스케이트보드 타기 • 야외캠핑

영역별 구분	주제별 청소년학교
	• 호신술 배우기 • 복싱 배우기 • 자동차 레이싱 배우기
외국어, 학과목보충, 학습방법 배우기	•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덴마크어 등 각 수준별 언어배우기 • 수학 배우기 • 각 학과목 보충하여 배우기 • 과제 도우미 선생님과 과제하기 •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덴마크어 교실

* 출처: 오르후스 청소년학교 홈페이지. https://ungdomsskolen.ungiaarhus.dk/에서 2020년 7월 10일 인출하여 발췌 및 번역함.

② 청소년학교 협회(ungdomsskoleforeningen)의 의미와 역할

청소년학교 협회는 덴마크에서 운영되는 모든 청소년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더 좋은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을 촉진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연결하는 국가단위의 기구다. 이 기구는 협회에 가입하는 가입학교들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회비는 1년에 한번씩 부과된다. 이 협회의 운영위원은 회원학교 교사들 중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협회가 수행하는 과업은 첫째, 덴마크 전역의 청소년학교 교사들과 교육활동을 대표하여 이들의 교육적 생각과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학적, 학술적 논쟁 등이 생겼을 때 생각과 입장을 모으고 조율하여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한다. 둘째, 학생들에게 확장된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종류의 연결과 협업을 시도한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상황을 구상하고 그 맥락에 알맞은 기관이나 기업, 또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들과 연락을 취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학교에서 구상하는 다양한 교육프로젝트를 가시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이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교육경험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학교 협회는 실험과 개발, 컨설턴트 상담, 다양한 코스개발, 지식과 다양한 활동을 수집하고 시스템화하여 보급하는 역할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하는 청소년학교 교사들은 협업, 즉 다양한 분야의 지역 기관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교육경험을 창출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각각의 청소년들이 놓여있는 상황과 맥락이 다른 만큼 그들에게 알맞은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교육경험을 창출하여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한 청소년학교 교사의 말은 청소년학교협회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생각과 철학을 잘 드러내 준다. 다음 장에서는 청소년학교협회 교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의 사례를 통해 청소년학교가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③ 청소년학교 협회(ungdomsskoleforeningen)의 교육프로젝트 추진 사례

● Coop Crew 프로젝트[30]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학교협회 교사들이 덴마크의 대형 할인마트 체인인 Fakta와 손을 잡고 만들어낸 교육비즈니스 프로젝트다. Fakta는 단순 영리추구의 기업이 아닌, 덴마크 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할인매장이기도 하다. 2019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는 2020년 현재 덴마크 전역의 지방자치체에서 운영하는 25개의 청소년 학교가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Coop Crew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그로 인해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져 자신의 삶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또는 실제적으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14세-18세 사이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상되었다.

30) 출처: Coop crew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coopcrew.dk/
청소년학교협회회보. https://vafo.dk/artikel/zezilie-har-ikke-kun-f%C3%A5et-et-job-hun-har-ogs%C3%A5-f%C3%A5et-selvtillid?fbclid=IwAR0-sgkiBScv6G0QsBFy3B5cHlVdFd0wWPV7RMGybisHs _lpbSTxtBtWZzU에서 2020년 6월 21일 인출하여 내용 수정 및 재구성함.



* 출처: Coop crew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coopcrew.dk/에서 2020년 7월 10일 인출.

그림 Ⅲ-43 Coop Crew 프로젝트 참여 지방자치체 분포도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준다는 의미를 넘어 교육적으로 학생을 성장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기존 학교의 학업활동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감을 잃거나 자기 독립성을 잃고 자기 삶의 의미 또한 잃기 쉬운데 프로젝트에 참여해 새로운 방식의 활동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학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확인함으로써 이후 학교에 돌아갔을 때, 학습 영역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프로젝트를 기획할 당시, 기업 Fakta는 건전하고 능력을 갖춘 청년 파트타임 인력이 필요했고, 청소년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파트타임 일자리가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각자가 처한 문제는 달랐지만, 둘은 협업을 통해 하나의 해결방안을 구축할 수 있었다. 즉, 기업은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교육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소년학교는 안정된 파트타임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 프로젝트에는 AP Møller라는 덴마크 회사에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 청소년학교협회의 직원 중 Coop Crew 프로젝트 담당매니저와 코디네이터가 배정되었고, Fakta 측에서도 청소년노동자를 지원 할 담당자를 배정했다. 이후 담당자들은 여러 번의 모임과 회의, 협의회, 워크샵 등을 진행하며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2019년 비로소 첫 프로젝트 팀의 학생들이 이 과정에 참여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학습하였다. 즉,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그 일자리에 지원하는 방법부터, 노동과 관련된 조건이나 계약서 작성, 실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의 워크숍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웠다.

바일레(Vejle)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프로젝트 팀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13명이었는데 그 중 9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자신이 사는 지역의 Fakta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동을 통한 돈벌이의 의미를 넘어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시간 이외의 여가 시간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 건전하게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덴마크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의 특징

지금까지 살펴본 덴마크의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덴마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방과후학교나 청소년학교 등은 학교와는 다른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학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그들이 놓여있는 교육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교육받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체는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기관을 학교교육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단순히 일정시간 동안 학생들을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다. 학생들이 방과 후에 누리는 또 다른 삶이 이어지는 확장된 경험의 공간이다. 따라서 그 시간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는 다른 방식의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존의 교육방법이 아닌 학생을 중심에 두고 그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디자인된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은 주로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나 노동현장, 또는 공적기관 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내는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새로운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실험과 개발이 진행 중이다.

셋째, 25세까지의 청년들에게는 그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방자치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당연한 책임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덴마크의 학생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원하는 것을 경제적 가치가 아닌 삶의 가치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더불어 사회 곳곳에 마련된 교육기관의 지원과 소통의 창구들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그러한 시도를 지지받을 수 있는 행정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넷째,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과 비전을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질 높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에 두고 있다. 따라서 덴마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학교 밖 교육은 단순한 성장지원 정책이나 교육사업으로 환원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들은 기존의 학교교육만큼 중요한 하나의 교육기관이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은 사업이 아니라 "교육"이기 때문이다.

(5)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덴마크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덴마크는 교육을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활동으로 이해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이는 교육을 학과목 중심의 지적활동 이외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바라보는 인식이 덴마크

사회 전반에 녹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 학업과 더불어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통해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이해가 문화로 정착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확장된 이해와 인식을 사회의 보편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덴마크의 지방자치정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을 돕는 것을 지자체의 중요한 의무로 인식한다. 따라서 활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된 기반을 구축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민간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즉, 덴마크의 지방자치정부는 기계적으로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학교에서 이탈하거나 학업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 구체적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아를 찾고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업무가 실제로 지방자치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청소년들의 다양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업무는 지방자치정부의 정식 부서에서 다루는 안정된 업무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대신 외부의 민간단체에 공모사업 형태로 위탁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의 지속성과 발전가능성을 떨어뜨리며 안정적인 청소년 지원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덴마크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덴마크 지자체는 끊임없는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합의된 교육비전과 가치를 추구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역의 일관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받는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소통을 유지하도록 돕는 부서를 공식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오르후스 지자체에서는 격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매번 지역의 다양한 교사들의 생각과 교육실천을 소개하고, 지자체가 추구하는 교육비전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다양한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끌어 가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을 끊임없이 제시한다. 더불어 그러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현장의 모습을 다각도로 소개함으로써 지역의 교사 및 교육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도 무언가 시도해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는 지역의 교육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한다.

우리 사회의 경우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에 대한 비전과 가치가 공유되지 못하거나 전혀 다른 방향의 교육을 추구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쟁과 협력, 행복한 삶과 안정된 삶이 일치하기 어려운 우리사회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일관되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공통으로 지향하는 일관된 교육철학을 어떻게 구성하고 공유하며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1. 시범사업 운영 개요
2. 시범사업 추진 현황
3. 시범사업 지역 2차년도 사업 운영 결과
4. 사업 결과 요약 및 시사점
5. 시범사업 운영 지역 대상 네트워크 분석

Ⅳ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31)]

1. 시범사업 운영 개요

본 시범사업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지역사회 내 각종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과 각 자원들의 상호 연계를 통한 협력망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책의 현장 적용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범사업 수행의 목적 실현을 위해 1차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의 발굴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협의체 내 자원들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협의체 내 구성원으로 행정기관인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공공기관인 학교, 청소년유관기관, 복지기관 그리고 시민단체, 지역사회전문가, 마을(교육)공동체 등의 민간 기관도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자원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상호간 이해의 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20년 2차년도 시범사업에서는 1차년도에 구축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협의체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협의체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향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의체 내 하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1) 이 장의 1~4절은 시범사업 지역의 시범사업 결과보고서(2020)를 최인재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체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5절은 정유경 교수(한남대학교)가 집필하였음.

2. 시범사업 추진 현황

1) 시범사업 지역 현황 및 1차년도 사업 추진 결과 요약[32)]

(1) 곡성군

전라남도 곡성군은 1개 읍과 10개 면, 125개 법정리와 272개의 행정리, 49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29,830(2019년 4월 기준)명이며, 청소년 인구는 4,19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곡성군청과 교육지원청을 포함하여 주로 곡성읍을 중심으로 많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이 분포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띠고 있다. 한편, 곡성군의 생활권은 곡성읍권, 옥과면권, 석곡면권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권역별로 청소년성장을 위한 기관시설의 편차가 있으며 주요 인프라는 노인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일례로 대중교통인 버스는 오후 6시 전후로 운행이 종료되어 도시 청소년들과 달리 저녁시간을 활용한 청소년(성장)기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곡성군의 경우 지난 2018년 9월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교육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곡성군청과 교육지원청 간의 상시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8년 12월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2019년 3월에 개소한 미래교육협력센터[33)]에는 곡성군청과 곡성교육지원청, 청소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곡성지역의 교육 수요자 대상의 요구에 맞는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곡성군은 미래교육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발굴을 추진하였으며, 지자체, 교육지원청, 청소년 유관기관의 현황과 타 기관 교류협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청소년기관장 및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체 실무진을 구성하여

32) 1차년도 연구보고서(최인재 외, 2019)의 시범사업 운영지역 사업 추진경과 내용을 일부 요약하여 제시하였음.
33) 곡성군의 경우 올해 다시 미래교육재단으로 확대 재편을 계획하고 있음.

5~6회의 회의를 거쳐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한편 지자체 관계자,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대해 공론화 하였다.

또한 청소년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초현황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네트워킹하고 연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곡성군은 곡성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주체들이 대규모를 참여하는 "청소년 성장지원 박람회"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곡성군청, 곡성교육지원청,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등),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소년 성장지원 박람회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곡성군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단' 명칭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그 이후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단체와 관련 기관 실무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획회의와 매월 1회 정기협의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분과별 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청소년원탁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들이 성장박람회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성장박람회 때 청소년 자치부스를 포함하여 마을공동체 운영 부스 등을 포함하여 행복 나눔존 등 12개 부스를 운영하였다. 1차년도에는 이와 같이 청소년 성장박람회를 중심으로 곡성군 내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차년부터는 중장기적 차원의 로드맵을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력 있게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면서 범위를 확장해 간 것은 강점으로 작용하였으나, 짧은 시간동안에 추진이 이루어지다보니 참여 기관별 특성에 따라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점은 한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⑵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11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의 경우, 대전시 전체 인구 1,487,605명 가운데 청소년 인구가 349,802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청소년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유성구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기존의 네트워크나 위원회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 네트워크, 지도자 네트워크 및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 중심의 네트워크도 상당히 잘 이루어진 편에 속한다. 하지만 이는 청소년 관련 시설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로서 교육(지원)청과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등과의 협력은 다소 미흡하다. 유성구의 경우 청소년 관련기관 및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진로진학지원센터, 유스호스텔, 청소년쉼터가 각 1개소씩, 지역아동센터 22개소가 있다. 학교는 초등학교 39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17개가 분포되어 있다. 청소년(9~24세) 인구밀도가 대전광역시 내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높은 만큼 청소년기관 및 시설 유형도 다양하고 학교 수도 상당히 많이 분포한다.

유성구는 2019년 3월 자치혁신본부를 신설하여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과, 마을자치과, 문화관광과를 하나의 본부 소속으로 하여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였다. 이는 청소년 정책을 교육과 마을자치와 연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유성구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1차년도 과업으로 기존의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설명회를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유성구청, 유성구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청소년기관 및 시설, 마을교육공동체 담당자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은 청소년기관 및 단체 대표자와 실무자 협의체를 구분함으로써 중층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청소년기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진로·진학 관련 사업 수요가 높은 것을 바탕으로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더불어 청소년 네트워크를 주축으로 지역 청소년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학부모 맘카페와 아버지활동가 등과 연계 협력함으로써 학부모도 청소년 성장지원의 중요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운영되기까지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을 플랫폼으로 하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을 시작하였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인 만큼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준비하는 마을 네트워크인 마중물(마을교육공동체)을 비롯하여 다양한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와 유성구청소년기관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축해갔다. 또한 유성구청소년수련관은 기존의 CYS-Net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또 다른 한 축을 구성하였다.

유성구에서는 지역 내 학교를 포함한 기존에 연결이 어려웠던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는 설명회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공동의 목표 설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시작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1차년도 운영 모델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실시하고 청소년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유성구의 특색을 살린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활동을 기획·운영하였다. 매주 수요일 컨설팅단 회의를 실시하였다.

(3) 부천시

부천시는 지역발달 과정에 따라서 중·상동 중심의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옥길지구 등으로 지역 특성이 발생하여 생활 격차 또한 존재한다. 부천의 총인구는 외국인을 제외한 836,751명으로 유소년 인구 부양비도 23.1%로 전국 평균인 22.8%보다 높다.

한편, 부천시는 2019년 7월 조직개편을 공포하여 본청 1실 5국 42과 188팀으로 개편을 시행하였다. 청소년담당부서는 아동청소년과에 소속되어 있다. 기존 여성청소년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부서를 개편하면서 아동친화도시조성, 청소년정책 개발 및 지원, 청년정책 종합 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청소년전담관을 지정하여 전담관이 3년간 지속적으로 청소년 관련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광역동 단위에서는 마을자치과, 민원위생과, 희망복지과(지역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 사업 추진), 생활안전과, 친환경과 5개과로 운영된다. 부천시 청소년 관련 인적·물적 자원은 2015년 11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2017년 소사청소년수련관 개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설치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설립과 함께 청소년자원을 둘러싼 부천시 공공 및 민간 청소년 네트워크 협력을 위한 실제적인 기반과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다.

부천시에서는 1차년도에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을 플랫폼으로 삼아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천시청과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부천시는 새롭게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야하는 타 지역과 달리 기존의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 간의 체계 구축이 주요한 사업 방향이었다. 이를 위해 단순히 물리적인 모임을 통한 연계가 아니라 기존 활동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공통의 목적의식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설정되어 추진되었고, 부천지역 청소년활동가 단체의 네트워크를 재결성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운영하기까지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분기별 1회(연 4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사업공유 및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동시에 월 1회 청소년시설 기관장 및 중간관리자 회의 및 의제별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지역의 이슈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단을 주축으로 하는 차세대운영위원회, 청소년 참여예산제, 교육의회, 각 기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들의 의제를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 청소년, 청소년기관 및 시설 담당자, 마을교육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이슈와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에 인식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협업 사업으로 부천혁신교육포럼을 연 2회 진행하면서 부천교육의 현안을 제도권 안과 밖의 관점에서 토론하면서 부천시 교육정책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 돌봄을 위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부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도하여 청소년유관기관 연합 거리상담 '거리청소년지원사업'을 하반기에 2회를 진행하여 부천의 가출, 학교폭력,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 강화를 위해 협의체 구성기관의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1차년도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이들의 연계를 이어주는 작업을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 부천시 아동청소년과와 부천교육지원청의 초중등교육지원과는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협업함으로써 협의체가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청소년 주류화의 초석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 시범사업 지역별 2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곡성군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곡성군 특성에 맞는 청소년 정책의 수립 및 수행 확대를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 방안을 확대하고, 청소년인구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축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 청소년기관, 마을공동체의 기능과 역할이 통합된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모델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다.

곡성군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연한 분과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민·관·학의 거버넌스를 운영·지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실험을 중심으로 유연한 분과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와 청소년참여예산제를 기반으로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분과를 참여네트워크로 운영하며 제2회 청소년성장박람회를 기획 및 운영하는 등 수평적인 의사결정 참여 확산을 위한 청소년참여 플랫폼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분과네트워크의 경우 학생의회(교육부)와 청소년참여위원회(여성가족부)로 양분된 청소년자치활동을 청소년의회(참여예산제)로 통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진로직업 분과네트워크의 경우 청소년정책실험의 일환으로 제2회 청소년성장박람회를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석곡중학교(교육부)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사업 운영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정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실험을 계획하였다. 곡성군 3개권역(곡성읍 권역, 옥과면 권역, 석곡면 권역) 중 청소년성장시설이 가장 부족한 석곡권역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해 학교 안에 설치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모델을 실현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운영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간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곡성미래교육재단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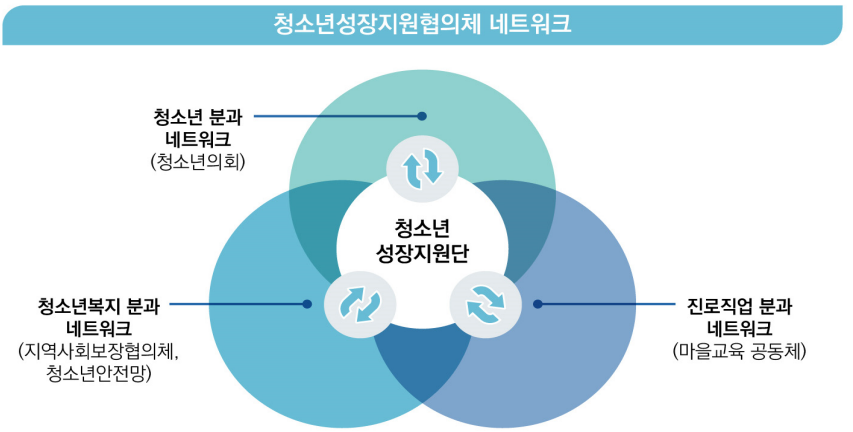


그림 Ⅳ-1 곡성군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특히 시범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진로직업분과네트워크와 청소년분과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되, 필요 및 요청에 따라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지원사업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정책모델 발굴 및 실험을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2차년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모델 구조화를 위한 현황분석 및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곡성군, 곡성교육지원청, 청소년기관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도출해낼 계획이다. 그리고 본 시범사업의 사업성과를 위하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사례 1건 이상, 청소년분과네트워크 사업 사례 3건 이상을 계획하였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곡성군에서는 협의체의 모든 내용을 공개, 기록, 평가하여 대의성, 유연성, 공공성(투명성) 확보하고, 청소년성장지원협의회를 통해 청소년분과네트워크에서 도출된 아젠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실행하고 지원할 것이다. 또한 내부 정기회의를 통해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분과네트워크를 유연하게 구성할 것이다.

⑵ 유성구

유성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 네트워크, 구청과 교육청이 함께하는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네트워크, 마을 · 학교 · 청소년현장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범 지역사회 네트워크인 유성구행복네트워크 등 다양한 지역사회 청소년 네트워크가 유성구청소년수련관과 함께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이 주도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연합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연합회, 중 · 고교 학생회 연합회, 청소년동아리연합회 등 다양한 청소년 주도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청소년유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민간영역 등) 자원 간 연계 협력을 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며, 이에 따른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2020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모형(안)은 [그림 Ⅳ-2]와 같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기본적인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본 협의체를 구성하며, 청소년들이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분과네트워크를 추진 ·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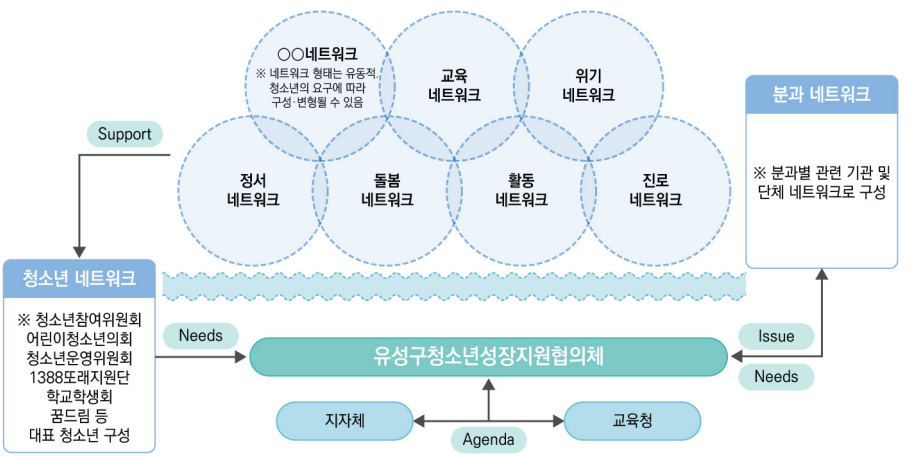


그림 Ⅳ-2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지구 모형(안)

청소년 네트워크는 지역 내 청소년 참여기구와 학교 학생회 연합회 등 대표 청소년으로 구성하여 진행할 것이며, 분과네트워크는 분과별 관련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로 청소년의 참여와 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아울러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청소년 네트워크의 요구에 따라서 지역 청소년의 요구분석 및 이슈화를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아젠다(agenda)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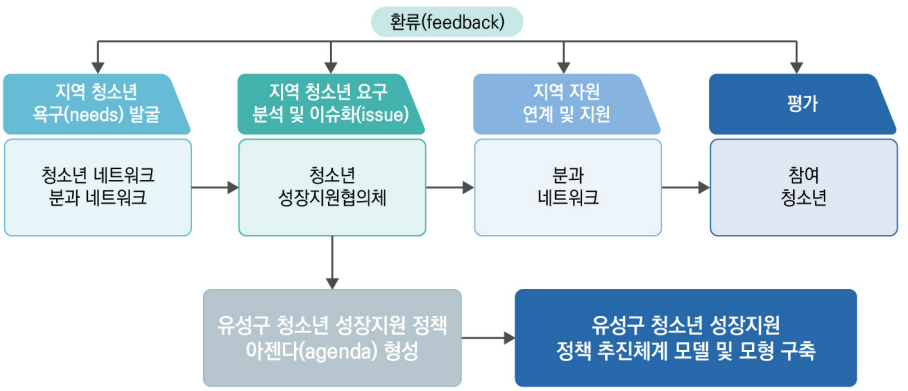


그림 Ⅳ-3 유성구 시범사업 추진 내용 및 절차

이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 내용으로는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청소년 연합회 회의를 통해 분과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성구 성장지원협의체 모델을 개발하며, 공청회를 통해 유성구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이슈를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분과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사례를 발굴하고 사례에 대한 성과관리로써 다양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에 대한 아젠다를 도출하고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⑶ 부천시

부천시는 시범사업 운영을 통하여 1차년도에 정한 정책과제들을 일상에서의 체감이 가능한 사업으로 구체화하여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천지역 네트워크를 '유스거버넌스'로 체계화하고, 지자체-교육청-기관-민간이 협업하는 지역사회 전 영역의 연계망을 확대하고자 하며, 청소년의 활동에 있어 체험, 실습, 단편적 경험축적 정도로의 비주류 세력에서 청소년의 적극 참여활동으로 제안, 운영, 제도화를 주도하는 주류화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은 청소년 관련 자원현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연계 협력망을 완성하고, '유스거버넌스'를 실행하여 2차년도 성장지원 추진체계 모델을 구축할 것이다.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 내용으로는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시민사회 전 영역의 인적, 물적 자원 조사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 및 추가 발굴하고 지역의 시범사업 운영 공유,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100인의 부천에꿈'을 추진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 기반을 확대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소통을 통한 의제발굴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혁신교사와 협업하는 교육시민연대를 통한 부천형 혁신교육을 실현하고, 부천시 청소년 보호·복지시설, 경기도청소년재단협의회 등 청소년 사업에 성인지 관점 적용으로 지역간 연대를 포함시켜 전반적인 청소년 성평등 의식을 제고할 것이다.

한편, 부천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부천시 청소년 근로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부천시 청소년 참여기구 공통 주제에 따른 기관, 지역별 연합 프로젝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청소년노동인권 '노랑',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등 지역의 청소년인권동아리가 일하는 청소년 실태, 노동인권, 근로권익 증진 등의 프로젝트 활동을 추진하고 부천시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의 연간 활동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네트워크 파티 2.0'의 추진과 또한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정례회의 운영 및 청소년 주류화 기반조성을 위한 성장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를 위해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대한 운영은 기관장 중심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 구분된 '유스거버넌스'의 활동가 중심 분과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1차년도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내 5개 영역 '유스거버넌스' 중 3개 분과 네트워크인 부천혁신교육 네트워크, 청소년 성인지 교육 네트워크,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집중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아울러 분과네트워크의 경우,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하여 영역별 공동의 목표를 논의하고, 연대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이 지역 시민으로 중심 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참여단을 운영하여 청소년 참여기구의 부천시 청소년 정책 제안 등 연합 프로젝트 활동 및 청소년 노동인권 동아리 등 청소년 근로권익 증진 프로젝트 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협력 추진 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청소년기관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연계·협력 방식의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시설 확충, 성장지원 체계의 구체화 실현하고자 한다.

(가칭)부천미래교육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부천시 혁신교육지구와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지구의 융합을 위한 교육청, 혁신교사, 시민단체와의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부천교육지원청과 '혁신교육'의 공동 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계·협력 방식의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천혁신교육포럼 추진으로 부천교육의 현안을 제도권 안과 밖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청-재단-민간 영역에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학부모, 혁신교사 등 교육의 주체들로 구성된 시민연대를 추진할 것이다.

3)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기대효과

본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각 지역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곡성군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소년박람회를 통해 교육과 청소년영역 내 상호교류와 더불어, 영역 간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 성장지원이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성장을 위한 물적 자원이 부족한 농산어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기관, 마을의 인적 자원이 청소년 성장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농산어촌형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모델이 개발될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정책실험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유관기관, 단체, 구성원 간 상호신뢰 증진을 통해 공동체적 청소년 성장지원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구의 경우, 시범사업운영을 통해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유성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각 네트워크의 수요를 파악하여 추후 성장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안전망 등 기존에 존재하는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간의 연결망을 형성하여 지속 가능한 청소년 성장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천시의 경우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주류사회를 구현할 수 있고,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욕구를 반영한 '유스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의 청소년 관련 현안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해 통합형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참여 확대 · 근로권익 증진 · 양성평등 의식제고 측면에서 성과를 구현할 수 있는 '유스거버넌스' 추진하여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상생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확산할 수 있다.

3. 시범사업 지역 2차년도 사업 운영 결과

1) 곡성군

곡성군의 2차년도 사업은 1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의제를 분과 네트워크를 통해 실험하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곡성군과 곡성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구성한 곡성미래교육재단이 교육이라는 패러다임뿐 아니라 지역의 청소년성장을 총괄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1) 사업내용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의제별(활동참여분과·진로직업분과·보호복지분과)로 분과로 나눠 청소년의회 구성, 학습전문기관이 함께하는 학습메이트(학습상담), 학교밖청소년 자립을 위한 협동조합 구축, 석곡중학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지역이 협력하는 사례를 구축, 발굴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차원에서 제 2회 청소년성장박람회(언택트 성장박람회)를 10월 30일~31일(2일간)를 진행하였다.

① 분과 네트워크 중심 연계 사업 추진

분과 네트워크는 활동 · 참여 분과, 진로 · 직업 분과, 보호 · 복지 분과 등 3개의 분과를 운영하였다. 활동 · 참여 분과는 학생의회(교육부), 청소년참여위원회(여성가족부)로 중앙부처별로 분절된 청소년자치활동을 청소년의회(참여예산제)로 통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진로 · 직업 분과에서는 제2회 청소년성장박람회 기획, 운영을 통해 성장 중심 정책실험을 하였고, 학습메이트사업을 통해 학교, 청소년기관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또한 청소년협동조합을 통한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호 · 복지 분과에서는 석곡중학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돌봄 네트워크를 운영하였다. 이는 국가 온종일돌봄체계의 다중이해자 협력방안의 모색(교육부-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다함께돌봄,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학교밖청소년 사회적 경제 플랫폼 조성 사업(청소년 협동조합, 자립지원)을 수행하였다.

② 정책실험을 기반으로 학교와의 협력사업 사례 제시

곡성군의 생활권역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있다(곡성권역, 옥과권역, 석곡권역), 이들 3개 권역 중 청소년성장자원(인력, 시설)이 가장 부족한 석곡권역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해 학교 안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을 시도하였다. 또한 곡성미래교육재단을 통해 아젠더를 발굴하고 실현하는 성장지원 체계를 지원하였다.

③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의체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등 협의 도출을 위한 회의방법을 다양화하여 다면적인 성장 아젠더를 설정하였고, 2차년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모델 구조화를 위해 지역 청소년 현황분석 및 욕구를 반영하였다.

④ 유연한 협의체 운영

협의체는 논의 내용을 공개, 기록, 평가하여 대의성, 유연성, 공공성(투명성)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층위적인 실행으로 분과네트워크에서 도출된 아젠더의 우선순위를 결정, 실행, 지원하도록 하였고, 아젠더(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분과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종결시 해체하였다. 그리고 분과네트워크 지원을 중심으로 필요 및 요청에 따라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지원사업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정책모델을 시도하였다.

(2)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

대부분의 농어촌이 그러하듯이 곡성군의 청소년 성장자원의 양과 질은 매우 부족하다. 성장 실험을 진행하는 청소년단체가 적어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성장 관련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관 중심으로 국가정책사업 실행이 주를 이룬다. 다행스럽게도 2018년도 하반기부터 곡성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시교육의 모방이 아닌 곡성지역이 가지고 있는 에메니티인 자연에서 배우는 창의교육을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조직으로 곡성미래교육재단(전, 미래교육협력센터)이 출범함으로 다양한 협력사례가 도출되고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 II는 성장지원의 중간조직(허브)기관인 곡성미래교육재단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협력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3) 2020년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사업 추진경과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네트워크 사업이 비대면 또는 로컬텍트로 정의된 소규모의 네트워크로 변경·운영되었고,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도 초기 운영안과 달리 청소년기관, 곡성군, 곡성교육청 중심으로 축소 운영 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예: 마을교육공동체)들의 참여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분과네트워크의 경우 분과라는 특성상 네트워크 사이즈가 작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영향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비해 비교적 적었다.

성장지원협의체와 하위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층위적 개념의 적용이 원활하지 않아 종적구성이 적합한지 횡적구성이 적합한지에 대한 차후 논의가 필요하다.

①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사업 추진경과 및 성과

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현황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은 1차년도 때 구성되었던 협의체 구성원과 비교해 볼 때, 큰 변화 없이 대체로 비슷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다만, 소속이 변경되거나 해당 소속 기관 임기만료 등으로 일부 인원이 협의체에 새로 참여하게 되었다(새로운 구성된 인원은 이탤릭체 표기). 특징적인 점은 올해의 경우 미래교육재단이 설립되면서 재단 내 구성원들이 협의체 위원으로 새롭게 구성 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원 현황을 보면, 군청, 교육지원청, 미래교육재단 소속 구성원, 각급학교 교사, 청소년 관련기관 및 시설, 청소년민간전문가, 청소년 등 지역사회 민·관·학 자원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표 Ⅳ-1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현황

연번	1차년도		2차년도	
	소 속	직 위	소 속	직 위
1	곡성군청	미래교육팀장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본부장
2	곡성군청	주 무 관	미래교육재단 성장지원팀	팀장
3	곡성군청	주 무 관	***미래교육재단 성장지원팀***	***주무관***
4	곡성군청	드림스타트 실무자	곡성군청	드림스타트 실무자
5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6	곡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팀장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7	곡성교육지원청	위센터 실장	곡성교육지원청	위센터 실장
8	곡 성 고	교 사	곡 성 고	교 사
9	옥 과 고	교 사	옥 과 고	교 사
10	곡 성 중	교 사	곡 성 중	교 사
11	석 곡 중	교 사	석 곡 중	교 사
12	옥 과 중	교 사	옥 과 중	교 사
13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관 장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관 장
14	진로체험지원센터	실 무 자	진로체험지원센터	팀 장
15	옥과청소년 문화의집	관 장	***옥과청소년문화의집***	***관 장***
1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 터 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 터 장
1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 담 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 원
1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 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선 임***
19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센 터 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센 터 장
20	청소년참여위원회	위 원 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위 원 장***
21	청소년의회(옥과중)	의장	청소년의회(옥과중)	의장
22	(사)한국B.B.S. 곡성군지부	지 부 장	***(사)한국B.B.S. 곡성군지부***	***지 부 장***
23	청소년민간전문가	사람책(건축가)	청소년민간전문가	사람책(건축가)
24	청소년민간전문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	청소년민간전문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
25	청소년민간전문가	마을학교 연합회	청소년민간전문가	마을학교 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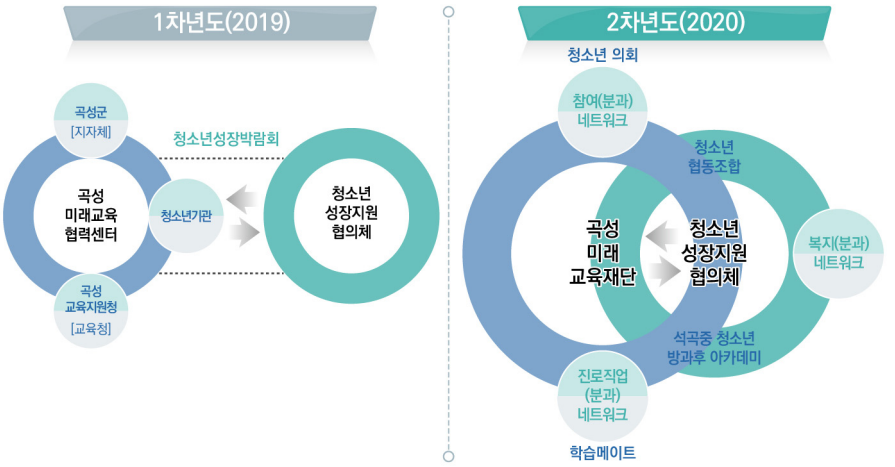


그림 Ⅳ-4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1차년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청소년기관이 매개가 되어 곡성미래교육협력센터와 연계한 측면이 강하였으나, 2차년도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은 (청소년)기관보다는 정책실험 중심으로 곡성미래교육재단과 연계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2차 사업의 과제가 분과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인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연계협력의 방식이(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느슨한 연계로 인해 활력(동력)이 떨어졌으며, 사업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 단체, 개인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측면이 영향을 준 것이기도 하다. 2차년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작년과 달리 전체가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과네트워크 중심으로 축소된 공공거버넌스 영역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특이할 만한 것은 다음 [그림 Ⅳ-5]와 같이 청소년기관실무자 모임(협의체)이 주요 과업인 분과네트워크를 운영을 위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 하위 분과를 잇는 매개(회의체)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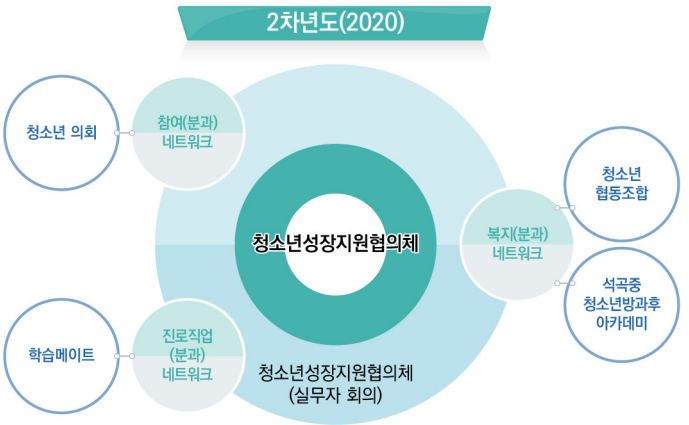


그림 Ⅳ-5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실무자 회의

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일시 및 회의내용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1차 회의

- 일 시 : 2020년 7월 15일(수) 10:30~12:00

- 장 소 : 곡성군 미래협력관 B동 회의실

- 참석자 : 곡성교육지원청(장학사), 곡성군청(주무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곡성청소년문화의집(관장), 옥과청소년문화의집(관장), 곡성진로체험지원센터(팀장, 실무자)

- 내 용 : 코로나19 상황에서 곡성청소년 성장 박람회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온라인 등으로 병행할지에 관해 논의하였고, 아이들의 성장과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컨텐츠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2차 회의

- 일 시 : 2020년 7월 30일(목) 10:30~12:00
- 장 소 : 곡성군 미래협력관 B동 회의실
- 참석자 : 곡성교육지원청(장학사), 미래교육재단(팀장, 주무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곡성청소년문화의집(관장), 옥과청소년문화의집(관장), 곡성진로체험지원센터(팀장, 실무자)
- 내 용 : 박람회 일정과 역할 배분에 관해 논의하였고, 행사 공간분리를 통해 마을, 청소년 참여부스, 4차산업 직업 체험 부스 등의 행사 구성과 추진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3차 회의

- 일 시 : 2020년 8월 11일(목) 10:30~13:00
- 장 소 :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 참석자 : 미래교육재단(주무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곡성청소년문화의집(관장), 옥과청소년문화의집(관장), 곡성진로체험지원센터(팀장, 실무자)
- 내 용 : 박람회의 주제와 목적에 관해 논의하였고, 행사 내용 중 각 부스 실무자들 및 분과 네트워크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전 직원회의를 통한 업무분장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4차 회의

- 일 시 : 2020년 8월 25일(목) 14:00~17:00
- 장 소 : 곡성군 미래교육과 나동 회의실
- 참석자 : 곡성교육지원청(장학사), 미래교육재단(팀장, 주무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곡성청소년문화의집(관장), 옥과청소년문화의집(관장), 곡성진로체험지원센터(팀장, 실무자)

- 내 용 : 온라인 안에서 발표와, 가요제를 통해서 아이들 모두 참여(가요제, 내그린 학교 발표회, 창업동아리 발표회 온라인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 교환과 어울림 마당 온라인 중계, 내그린 학교 발표회, 창업동아리 발표회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5차 회의

- 일 시 : 2020년 9월 22일(화) 17:00~20:00
- 장 소 : 곡성군 미래교육관 나동 회의실
- 참석자 : 곡성교육지원청(장학사 3인), 미래교육재단(팀장2인, 주무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곡성청소년문화의집(관장), 옥과청소년문화의집(관장), 곡성진로체험지원센터(팀장, 실무자)
- 내 용 : 창업동아리 발표 방안, 내그린 학교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고, 유튜브 영상 송출 플랫폼, 자기주도 활동 발표회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6차 회의

- 일 시 : 2020년 10월 14일(목) 11:00~13:00
- 장 소 : 곡성군 미래교육관 나동 회의실
- 참석자 : 곡성교육지원청(장학사), 미래교육재단(팀장2인, 주무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곡성청소년문화의집(관장), 옥과청소년문화의집(관장), 곡성진로체험지원센터(팀장, 실무자)
- 내 용 : 창업동아리 보상 방안, 내그린 학교 발표 방식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외에 팜플렛 제작 및 각 기관별 사업들 일정에 관해 논의하였고, 영상 일정 및 홍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2차 청소년성장박람회는 이상의 6차에 걸친 협의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제와 상황을 상정하여 논의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존중받고 성장하는 청소년성장박람회 구현을 위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방식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곡성군, 곡성교육지원청, 곡성미래교육재단, 청소년유관기관장, 곡성진로체험지원센터 구성원들의 의견과 더불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첫째 날(10.30)에는 초3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마을학교를 체험하도록 구성하고, 초4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온라인으로 청소년들이 구성한 창업동아리 발표대회를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직접 참여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내그린학교(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원하는 배움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진로탐색과 함께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꿈을 그리는(실현하는) 프로젝트)'의 결과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발표하는 것을 주요 꼭지로 진행하였다. 다음날(10.31)에는 청소년단체인 BBS곡성군지부가 주관하여 온라인 청소년어울마당으로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청소년축제(가요제)를 운영하였다.

언택트 상황에 맞춰 성장박람회를 운영하는 자체로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교실에서 마을학교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체험교구를 미리 청소년(학생)에게 전달하여 실시간으로 체험을 진행하는 과정이 동반되었다. 새로운 방식은 곡성군, 곡성교육지원청, 학교, 마을학교, 청소년기관 실무자 상호간에 다양한 이해 충돌의 원인이 되었으나, 1차년도 성장시범사업 과정을 통해 형성된 신뢰를 기반으로 비교적 문제없이 연계가 이뤄졌다.

제2차 청소년성장박람회는 지역에서 청소년의 성장을 어떻게 박람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지니고 있는 함의의 힘이, 대면·비대면이라는 환경적 이슈를 충분히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차원의 성과는 아니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협의체와 분과를 잇는 역할그룹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는 것 또한 성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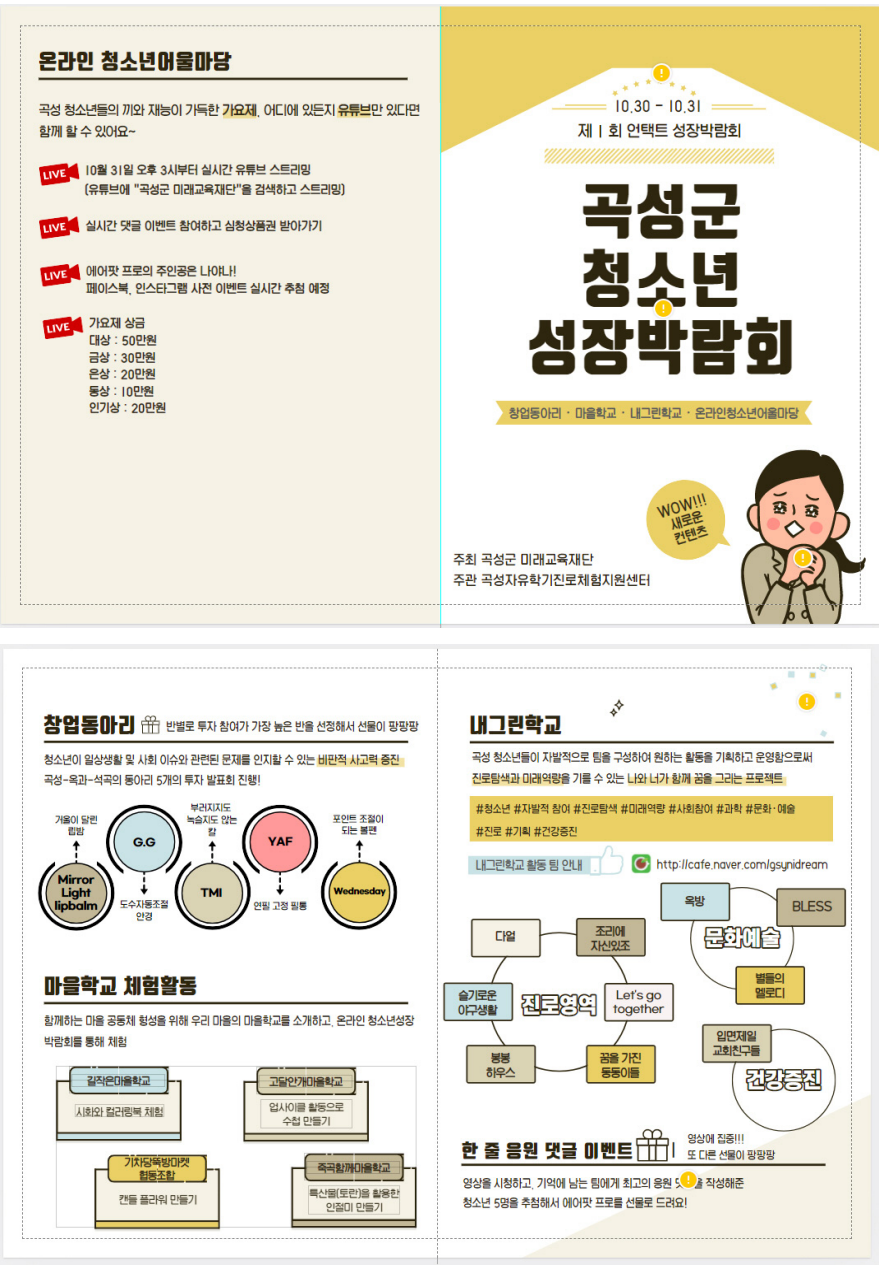


그림 Ⅳ-6 곡성군청소년성장박람회 리플렛

② 분과 네트워크 사업 추진경과 및 성과

가. 분과네트워크 구성현황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지역사회 지원 주체의 각 기관이나 관련 기관(시설)의 부서장 중심의 네트워크와 실제적인 사업을 운영할 분과별 실무자 네트워크로 구분하는 중층 구조의 네트워크로 구성하였다. 또한 협의체 분과를 활동참여, 진로직업, 보호복지 네트워크 구분하여 분과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과 사업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표 Ⅳ-2 분과네트워크 구성현황

구 분	정책실험(분과 네트워크 사업)
활동참여	청소년의회
보호복지	석곡중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청소년협동조합
진로직업	학습메이트

분과 /정책실험	소 속	직 위
분과실무자 네트워크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팀장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팀원
	옥과청소년문화의집	팀장
	옥과청소년문화의집	팀원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센터	팀장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센터	팀원
	청년 내일로	팀원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석곡방과후아카데미	팀장
	곡성군청소년학교밖지원센터	팀원
활동참여 네트워크 (청소년의회)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팀장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옥과청소년문화의집	팀장
	옥과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곡성군청	주무관
	곡성미래교육재단	성장지원팀장

분과 /정책실험		소 속	직 위
진로직업 네트워크 (학습메이트)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센터	팀장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센터	팀원
		청년 내일로	팀원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곡성WEE센터	상담교사
		곡성WEE센터	전문상담사
		곡성WEE센터	전문상담사
		곡성WEE센터	임상심리사
		곡성WEE센터	사회복지사
		곡성군청	주무관
		곡성군청	주무관
		마음과배움	소장
보호 복지 네트 워크	석곡중 청소년방과 후아카 데미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석곡방과후아카데미	팀장
		옥과방과후아카데미	팀장
		석곡중학교	교장
		석곡중학교	교무부장
		석곡중학교	방과후담당
		석곡중학교	운영위원장
		곡성군청	미래교육팀장
		곡성군청	주무관
		곡성군청	주무관
		석곡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곡성미래교육재단	혁신교육팀장
		곡성미래교육재단	성장지원팀장
	청소년협동 조합	곡성군청소년학교밖지원센터	팀장
		곡성군청소년학교밖지원센터	팀원
		다얼협동조합	이사장(청소년)
		다얼협동조합	조합원(청소년)
		다얼협동조합	조합원(청소년)
		다얼협동조합	조합원(청소년)
		전남과학대학	교수(커피칵테일과)
		(전남)청년일자리카페	직업상담사

나. 실무자네트워크 및 분과네트워크 회의 진행 현황

□ 실무자 네트워크 진행 현황

청소년기관 팀장 및 실무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곡성군 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실무논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는 총 6차례 진행하였고, 각 분과네트워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표 Ⅳ-3 분과 실무자 네트워크 회의일정 및 논의사항

회의일정 (차수)	참여자	논의사항
4월 16일 (1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옥과청소년문화의집, 자유학기 진로체험 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팀장 및 담당자	성장박람회, 청소년의회, 석곡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와 연계하여 새로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모델 구성 논의
4월 29일 (2차)		활동참여 네트워크 관련 사업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교의 개학 일정과 맞춰 진행.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한 내그린학교 등 안내. 학습메이트 관련하여 학습메이트 TF회의. 청소년 사회 경제 플랫폼 조성 사업 논의
5월 13일 (3차)		성장지원협의체 구성 논의(군과 협의). 학교의 개학 일정과 맞춰 청소년의회 등 진행 논의.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한 내그린학교 등 안내. 성장박람회 중/고등학교와 일정 공유. 청소년 사회 경제 플랫폼 조성 사업 진행 공유. 성장지원협의체 설문조사 운영방안 논의
6월 19일 (4차)		10월 예정이었던 청소년의회 코로나19로 인해 추후 논의. 청소년성장박람회 계획 및 진행방향, 방식 등 논의, 청소년성장박람회 지원단(25~30명) 구성 논의, 석곡방과후아카데미 논의(9월 1일 석곡방과후아카데미 시작).
7월 8일 (5차)		내그린학교 OT 진행. 청소년진로박람회 계획 수립 및 사업방향 추진(청소년 주도적인 부분과 지역연계 제공에 대한 주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부분으로 중점). 협동조합 사업 진행 관련 논의, 석곡방과후아카데미 진행 관련 논의
9월 23일 (6차)		사전/사후 설문조사 진행 협의, 청소년참여기구 회의는 비대면회의로 진행, 곡성청소년내그린학교 활동 중간 점검. 청소년성장박람회 4차 협의회 진행.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동한 내용을 영상 제작하여 학교에서 결과물 공유. 어울림마당 진행 논의. 석곡방과후아카데미 9월 1일 시작.

□ 분과별 네트워크 진행 현황

○ 활동참여네트워크

활동참여네트워크에서는 총 2차례(3월, 4월)의 회의를 통해 청소년의회 구성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는 곡성미래교육협력센터에서 진행하였고,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옥과청소년문화의집 및 곡성군청 관계자들이 모여 청소년의회 사업계획서 및 조례안을 검토하였고,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청소년의회 구성원에 대한 역량 강화 워크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호복지네트워크

보호복지네트워크의 핵심되는 사업은 석곡방과후아카데미 관련 협력 사업으로 석곡중학교 안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정책실험이다. 보호복지네트워크에서는 학교 복합시설 조례에 따라 방카운영을 위한 시설 투자와 2학기 운영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조사를 하여 결과를 반영하였고, 석곡방과후아카데미 운영(귀가지원, 식사 등)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청소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는 다얼협동조합을 운영하였다. 2020년 8월부터 관계자(옥과청소년문화의집,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 전남과학대 교수 및 일자리 카페 구성원, 다얼협동조합 청소년)들이 모여 여러 차례 협동조합의 사업방향과 내용을 논의하였다. 논의 내용으로는 협동조합의 비전 및 목표 설정, 조합원 역할 및 협동조합 관련 업무 분담, 협동조합 공간 조성을 위한 법적 절차 등에 관해 이해를 공유하였다. 다얼협동조합에서는 원두 로스팅, 핸드드립 등 연수를 진행하였고, CAFE. 다얼 CS 및 위생 관련 교육, 위생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고객응대법 숙지 및 시뮬레이션도 진행하였다. 또한 카페 음료 관련 수요조사결과 공유 및 피드백에 따른 레시피를 수정, 인테리어 관련회의, 홍보 등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였다.

○ 진로직업 네트워크

진로직업 네트워크는 학습메이트사업을 수행하였다. 5월 26일 첫 모임이 이후 여러 차례 관련자(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곡성WEE센터 관계자, 곡성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센터 관계자, 곡성군청 주무관)들이 모여 학습메이트사업 방향 및 역할 논의 회기설정, 대상 선정, 상담자 매칭 및 학습상담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사업의 효과 검증과정을 위해 시험성적, MLST학습전략검사 등도 실시하였고, 학습메이트 참여희망자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상담도 진행하였다.



그림 Ⅳ-7 분과 네트워크 회의 장면

다. 분과 네트워크 차원의 네트워크 사업 및 성과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분과는 3개 영역(활동참여, 보호복지, 진로직업)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첫째 활동참여네트워크 분과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해(청소년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의 첫 걸음으로) 청소년자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를 위탁사무하고 있는 곡성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옥과청소년문화의집이 연대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과의 분과 협의회의를 통해 학생의회(교육부)와 청소년참여기구(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곡성군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청소년 자치 인큐베이팅 과정을 설계하였고, 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20.7.10)를 제정하여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지면서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고 차년도(21년도)로 연기된 상태이다.

둘째, 보호복지네트워크 분과에서는 두 가지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곡성권역, 옥과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이 부족한 석곡권역에 청소년성장자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석곡중학교 안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정책실험이다. 이를 위해 관련자(석곡중학교 교장, 교무,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곡성군청 팀장, 주무관, 옥과청소년문화의집 팀장, 방과후담당 교사 등) 들이 모여 수차례의 논의와 조정 과정을 거쳤다. 석곡중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모델은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의 광풍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모델과 유사하다. 방과후에 청소년시설 및 기관의 활동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운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학교 내에 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점과, 2020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석곡중학교(공립)와 광풍중학교(사립)는 설립주체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학교장 또는 이사장의 권한으로 시설의

확대 등 많은 부분에서 유연하고, 교직원 또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이해가 높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 반면, 공립학교는 이와 같은 장점을 누리기 어려운 구조이다. 곡성군과 곡성교육청의 이해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석곡중학교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기까지 지역사회의 꾸준한 요구와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절차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철학이 공유되는 시간이 필요했고,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출된 학교장의 관심과 많은 협조가 있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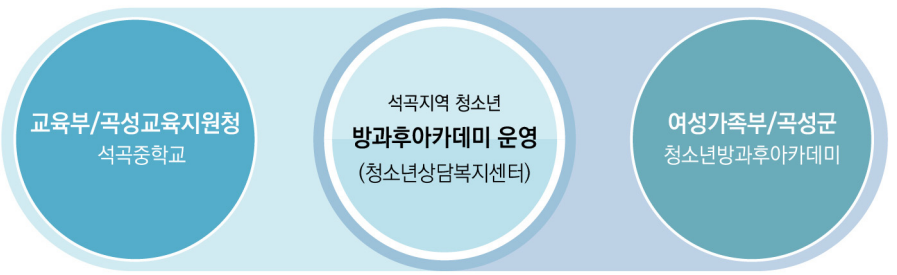


그림 Ⅳ-8 석곡중학교 방과후아카데미 모델

한편, 보호복지네트워크의 두 번째 정책실험은 학교밖청소년 협동조합이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곡성군수 공약사업으로 청소년 자립지원프로그램이 실현되도록 협의하였고, 이는 "경제활동 역량키우기 청소년협동조합 구성"이라는 사업으로 군정에 반영되었다. 학교밖청소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곡성군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옥과청소년문화의집, 사단법인 상생나무, 전남과학대 산학협력단 등 많은 지역사회 공동체가 협력하였다. 옥과청소년문화의집 1층 공간을 곡성군으로부터 전대하여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오픈마켓을 통해 원두판매 및 콜드브루 판매를 위해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원두가공(로스팅) 기술 습득을 위해서 전남과학대 호텔커피카테일과의 도움을 통해 커피지도사 2급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후 지역셀럽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자립역량 증진에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직업네트워크 분과의 정책실험은 학습메이트(학습상담)이다.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센터가 협력하여 개인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곡성군의 의제로 도출된 학습증진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곡성군, 곡성교육지원청의 협의를 통해 구축된 정책실험은 학습에 대한 전문가 양성 교육(MLST)을 시작으로 올해 15명의 상담자가 42명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12회기 상담을 진행하였다.



그림 Ⅳ-9 다얼협동조합 프로그램 진행

⑶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관련 조례 제·개정 혹은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사례 및 성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관련 조례와 관련하여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2018.12.17. 시행),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2019.12.27. 시행), 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2020.7.10. 시행) 등이 있다. 먼저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주요 목적은 지역교육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 인적·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혁신 지원 사업, 청소년 지원 사업, 학생 진로체험 및 자유학년제 지원 사업, 곡성교육 포털 홈페이지 개발 운영 등으로 곡성군청, 곡성교육지원청 및 청소년시설 간 협력 모델로 사업 운영 주체 간 칸막이를 없애고 대표적인 협력 모델이 되었다.

한편, 곡성군은 올해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를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주요 목적은 장학기금 운용, 장학생 선발 등의 장학사업, 교육협의회 및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청소년 진로체험, 자기주도활동 지원, 4차 산업 대응교육 및 창의교육 사업, 농촌유학 지원, 인생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육주체 성장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 그 밖의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다. 현재 재단 조직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사업 내용을 체계화 하고 있다. 2020년 12월 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다.

다음으로 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다. 주요 목적은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의견 제출, 그 밖의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곡성군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관련 조례는 다음과 같다. 1차시범사업의 근간이 된 곡성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2018.12.17)는 곡성미래교육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2019.12.27)로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인적·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의 기능이 교육주체 성장지원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 것이 큰 특징이다. 교육주체 성장지원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지역민 등으로 청소년 성장과 관련된 모든 대상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농어촌지역에서의 자치참여활동은 도시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청소년의회가 이미 활성화된 도시지역에서 볼 때는 그 시작도 매우 늦고 더딘 감이 있겠지만, 성장 관련 자원이 적은 농촌지역에서의 청소년의 목소리는 지역의 필요를 담아내는 통로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2020.7.10.)의 제정을 통해 이제 곡성군의 청소년자치참여는 어려운 첫걸음을 내딛었다.

한편, 곡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는 폐교된 오곡초등학교에(100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 거점공간인 '곡성스테이션 1928'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석곡중학교 안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설치로 인한) 곡성군의 시설 투자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2020년 3월 24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였기에 조례로서의 기능이 불필요하게 되어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상에서 본 것같이 곡성군의 성장관련 조례 제·개정 과정은 청소년기관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움직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곡성군 지역 청소년의 성장이 곡성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지역의 철학은 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해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관련 조례의 제정이 전제되고 있다.

(4) 곡성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2차년도 모형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체계 모형의 경우 1차년도 민·관·학 거버넌스인 곡성미래교육협력센터는 법리적 주체가 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곡성군에서는 미래교육협력센터를 곡성미래교육재단으로 전환 중에 있다.

2차년도 곡성미래교육재단설립 이후 재단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조직을 재단 내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도 재단 내 미래교육협의체로 대체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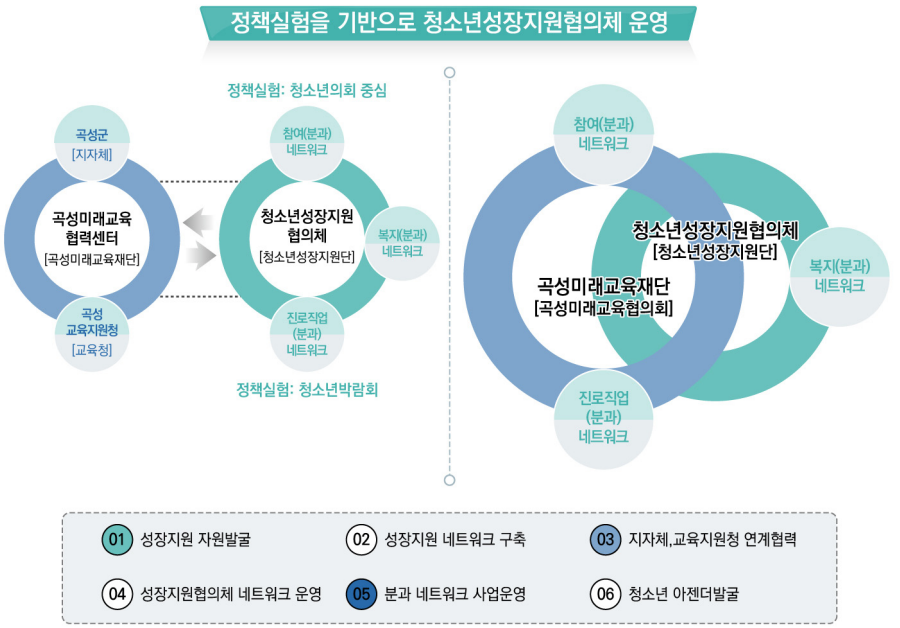


그림 Ⅳ-10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모형(2차년도)

2) 유성구

(1) 사업내용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과 관련된 이슈나 과제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연계 · 조정 · 협력하는 활동으로 자원의 공유를 넘어서 책임과 성과의 공유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임에 따라 관내 인적 · 물적 네트워크를 이슈별로 구분하여 실제적인 논의를 할 수 있고 실제 청소년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 실제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차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한 이슈별로 구분을 하고자 하였으며, 요구가 실천될 수 있도록 각 분과 네트워크별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이는 지역 청소년 성장을 위한 주요 이슈를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슈를 실천함에 있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참여 주체들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용 가능한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 체계 모형을 제시하며, 향후 청소년성장지원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들이 협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연계를 위해 교육지원청과의 서비스 연계와 협력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

①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

가. 사업추진 전략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장기 추진 전략을 [그림 Ⅳ-11]과 같이 계획하였다. 2019년도에는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2020년도에는 실질적인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며, 2021~2022년도에는 지역사회(지자체) 중심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확대되고 활성화되어 효과적인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림 Ⅳ-11 사업 추진 전략

이를 위해 2019년도 1차 시범 운영을 한 실무진과 올해 운영할 실무진과 1차 회의를 통해 합의된 모형을 만들고, 분과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Ⅰ(최인재 외, 2019)를 토대로 구분하였다. 분과는 청소년의 요구를 듣고, 적용하여 분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향후 청소년의 요구에 따라 분과네트워크는 변경·확대될 수 있다.

나. 사업추진방법

유성구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2차년도 시범사업의 경우 앞서 제시한 추진 전략에 따라 다음 [그림 Ⅳ-12]와 추진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청소년네트워크 및 분과 네트워크 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발굴된 지역 청소년 요구(needs)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서 분석 및 이슈화하여 유성구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아젠다(agenda)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분과 네트워크는 청소년 요구를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형성된 이슈 및 아젠다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며, 지원의 형태는 사례에 따라 정책적 ·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참여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환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과정과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통해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 정책 추진 체계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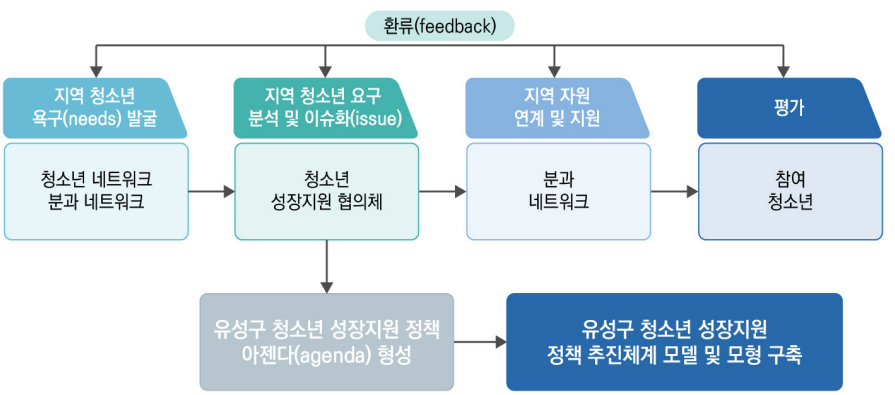


그림 Ⅳ-12 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

② 2020년도 시범사업 운영계획

여성가족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청소년 인구와 구성비의 감소는 국가경쟁력 약화와 청소년이 짊어져야 할 미래부담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미래 사회의 변화로 인해 창의·융합형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청소년의 역량을 제고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화 활동, 교육, 고용, 보호, 복지 등 종합적이고 범사회적 정책의 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통합적이고 상호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활동, 교육, 복지 등 청소년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본 사업의 2019년도 1차년도 시범사업(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내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네트워크에 본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운 바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행 기관 간의 협력 관계의 통합성의 중요성을 제안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를 다양한 지역 내 청소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한편,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수행 기관이 아닌 청소년 지원 사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운영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는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지구 사업이 도래된 이유, 즉 지방분권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 유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민간영역 등) 자원 간 연계 협력이 중시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네트워크 사업을 지향하는 바와 같다.

이에 본 시범 사업에서는 1차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모형을 개발하고, 그 모델을 실현시키며 이를 통해 향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성구청과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기본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분과 네트워크는 수행 기관에 의한 서비스 중심이 아닌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각의 분과 네트워크에 청소년 1인 이상의 참여는 필수적으로 둠으로써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요구가 네트워크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2020년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사업 추진경과

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사업 추진경과 및 성과

가) 협의체 구성현황

1차년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분야별로 운영위원과 네트워크를 구분하였다면 2차년도에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고, 그 결정에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2차년도의 운영위원회는 2020년도 시범사업에 대해 인지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보다 공적인 차원에서 본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권고하였다.

표 Ⅳ-4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2019				2020		
연번	분야	소속	직위	연번	소속	직위
1	지자체	유성구 교육과학과	과장	1	목원대학교	교수
2		유성구 마을자치과	과장	2	유성구 마을공동체 마을넷	대표
3		유성구의회	구의원	3	유성구 마을자치과	과장
4	청소년 대표	유성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4	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
5		유성구 청소년 동아리연합회	회원	5	학부모운영위원회	부위원장
6		청소년운영위원회 유별난아이들	회원	6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7	교육 분야	교육청 혁신정책과	장학사	7	지족고등학교	교장
8		목원대학교	교수	8	유성구청소년수련관	관장
9		대전진학지도협의회	대표	9	유성구 건강정책과	과장
10		반석고등학교	교장	10	유성구 교육과학과	과장
11		유성초등학교	교시	11	시교육청 혁신정책과	장학사
12		대전 진로진학상담 교사협의회	교사	12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13	학부모	학부모운영위원회 학마을협동조합	대표	13	유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14		대세맘·도담도담 맘까페	대표	14	노은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15		아버지활동가, 함지박	대표	15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모이다'	대표
16	청소년 기관·단체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 지원센터	관장/센터장	16	유성구의회	구의원
17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18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관장			
19		유성구유스호스텔	소장			
20	청소년 기관·단체	대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21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	원장			

2019				2020		
연번	분야	소속	직위	연번	소속	직위
22	지역 민간단체	유성구 마을공동체 마을넷	대표			
23		마을교육공동체'마중물'	대표			
24		노은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25		사회적기업 '페토'	대표			
26	보호복지 분야	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			
27		행복네트워크 아동청소년분과	과장			
28		유성구보건소	과장			
29		CYS-Net	팀장			
30		유성구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센터장			

또한 1차년도에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참여 기관 및 네트워크를 총 8개 분야(청소년/수련시설/교육시설, 지자체 및 관공서, 마중물, 대전진학지도협의회, 청소년안전망, 행복네트워크 아동청소년분과, 마을넷, 민간단체/기타)로 분류하였다. 2차년도에는 기존에 구성된 네트워크를 수정· 보완하였고, 이를 펼쳐두어 청소년의 요구가 반영된 분과 네트워크에서 필요에 따라 활용하였다.

각각의 네트워크는 최대한 세분화하되 중복 적용하여 분류하였고, 청소년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로 두었으며 특히 타구의 학교는 진로진학지도협의회 소속 회원으로 통합하여 진로(진학) 네트워크 1개로 포함시켰고, 유성구내 76개교는 필수로 두어 본 사업에 학교의 참여를 이끔과 동시에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이 네트워크 현황은 향후 분과 네트워크 구축 시 청소년들의 요구를 탐색할 때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Ⅳ-5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구성 현황

2019	2020
청소년/수련시설/교육시설 13개	진로(진학)12개
지자체 및 관공서 6개	학습 7개
마중물(혁신교육지구 연구모임)22명	보호 16개
대전진학지도협의최 24명	복지 14개
청소년안전망 43개	의료 3개
행복네트워크 아동청소년분과 21명	법률 2개
마을넷(유성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24명	정서/상담 9개
민간단체/기타 3개	자립/고용 4개
	돌봄 10개
	스포츠/건강 5개
	문화/예술 5개
	지역멘토 14개
	사회활동 25개
	학교 76개
156개/명	202개

나. 협의체 회의 일시 및 회의내용 등

유성구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는 기관장 중심의 운영위원회, 분과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실무진 네트워크 그리고 기타 네트워크 회의로 구분하였다.

가) 유성구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실무진 회의

본 사업의 추진 내용을 협의하고, 추진하기 위해 본 사업의 수행기관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총 24회를 진행하였고, 회의는 주간 1회, 그리고 사안에 따라 상시적으로 진행하였다.

표 Ⅳ-6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실무진 회의 현황

구분	일자	인원	주요안건 및 참석자
1	2020.04.14	4명	**사업 추진 방향 논의**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코디네이터
2	2020.04.16	6명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위원회 구성 등**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 관장, 유성구청소년수련관 활동 팀장,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코디네이터,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3	2020.04.22	4명	**사업 추진 내용 협의**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코디네이터
4	2020.04.28	4명	**사업 추진 내용 협의**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코디네이터
5	2020.05.11	5명	**청소년 연합회 계획**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 관장,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코디네이터,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6	2020.05.19	5명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재구성**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관장,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코디네이터,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7	2020.05.26	5명	**청소년 성장지원 업무협의**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 관장,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코디네이터,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8	2020.06.02	5명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재구성**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관장,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코디네이터,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9	2020.06.09	5명	**MOU협약(유성구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연합회 추진 계획**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 관장,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코디네이터,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10	2020.06.16	5명	**청소년연합회 추진 계획**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 관장,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코디네이터,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회의는 매주 1회 총 24회 실시되었으며, 청소년연합회, 포럼, 분과네트워크 등 관련 회의를 진행함. 이하 회의 현황 내용 생략			

나)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위원회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운영위원회는 2020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각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보다 공적인 차원에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민·관·학 각 주체가 지역 안에서 청소년 성상과 관련하여 협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표 Ⅳ-7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위원회 회의 현황

구분	일자	인원	주요안건
1	2020.07.29	12명	**2020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안내 및 추진 협조 사항 논의** - 참석자 : 유성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 마을넷 상임대표, 유성구청 마을자치과장, 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학마을학교주토피아 대표, 노은1동 주민자치위원장, 유성구마을교육공동체네트워크 모이다 대표, 유성구청소년수련 관장, 유성구청소년수련관 팀장,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코디네이터,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2	2020.11.19.	15명	**2020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결과 보고 및 향후 방향 논의** - 참석자 : 유성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 마을넷 상임대표, 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학마을학교주토피아 대표, 노은1동 주민자치위원장, 교육청 장학사 유성구마을교육공동체네트워크 모이다 대표, 유성구청소년수련관장, 유성구청소년수련관 팀장,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코디네이터,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외 실무자 3인

다)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구축 회의

기존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필요한 네트워크 발굴을 위해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였다.

표 Ⅳ-8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구축 회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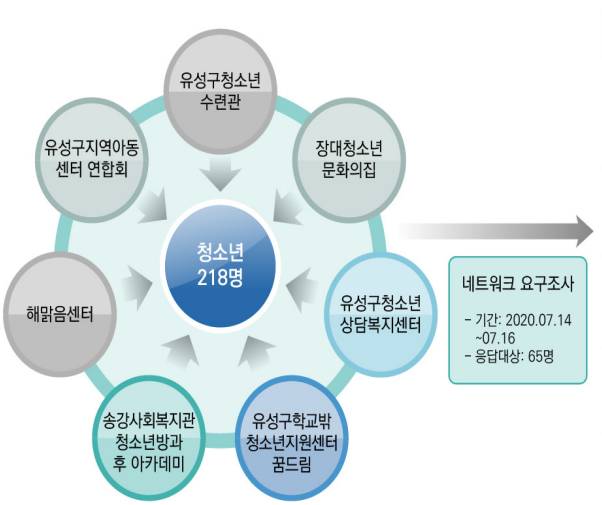
구분	일자	인원	주요안건 및 참석자
1	2020.04.22	4명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청소년*어르신 세대공감 업무협의)**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관 팀장, 팀원, 유성구노인복지관 과장, 유성구노인복지관
2	2020.04.23	5명	**청소확행을 위한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연계 활동**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관 교육협력팀장, 유성구청소년수련관 교육협력팀 대리, 함지박
3	2020.04.24	10명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청소년 나Be한마당 및 지역교육공동체(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협의**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팀장, 교육협력팀장,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과장,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실무자
4	2020.04.24	5명	**청소확행을 위한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연계 활동**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관 교육협력팀장, 유성구청소년수련관 교육협력팀, 함지박 관계자
5	2020.05.12	5명	**어린이청소년의회 협력지원단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연계 활동**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관 교육협력팀장, 학마을 주토피아, 자작나무 관계자
6	2020.05.14	7명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청소년단체 연계 협력**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 관장,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팀장,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과장, 대덕구청소년수련 관장, 실장, 팀장, 대덕구청 주무관
7	2020.05.15	5명	**청소년사업 관련 운영협의 및 업무협약**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 관장, 팀장, 대리, 코디네이터, 함지박마을공동체 대표, 운영위원, 관평중학교 교사
8	2020.05.21	13명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주)초원미래나눔)** - 참석자 :유성구청소년수련 관장, 사무국장, 팀장 및 팀원 등 관계자,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팀원, 초원미래나눔 대표. 초원미래나눔 관계자
9	2020.06.03	10명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관장, 팀장, 코디네이터, 유성초등학교 교사, 백운초등학교 교사, 마을교육공동체_마중물 관계자

구분	일자	인원	주요안건 및 참석자
10	2020.06.09	5명	○ **MOU협약** 유성구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참석자 : 유성구청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유성구청소년수련관장, 관계직원 10여명) ○ **사업운영 관련 회의 -** 참석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연구진, 유성구청소년수련관 관장, 사무국장, 팀장, 코디네이터,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팀장
11	2020.06.27	13명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유성구청소년수련관, 참교육전국학부모회, 여성정치네트워크, 충남대학교, 마을교육공동체, 유성구청 여성가족과)**
12	2020.07.08	15명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지원 간담회**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대전진학지도협의회 기관장 등 관계자
13	2020.07.08	13명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및 확대**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사단법인 대전문화유산'울림', 학마을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_마중물의 대표 기관장 및 관계자
14	2020.07.24	13명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 안내 및 토론** - 참석자 : 대덕구청소년수련관,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도솔청소년문화의집, 대전청소년위캔센터, 장대청소년문화의집,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흥청소년문화의집, 갈마청소년문화의집, 법동청소년문화의집, 도안청소년문화의집, 탄방청소년문화의집, 대전청소년활동진흥센터
15	2020.08.05	10명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관장, 팀장, 코디네이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백운초등학교 교사, 마을교육공동체_마중물 관계자
16	2020.08.12	8명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관장, 팀장, 코디네이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백운초등학교 교사, 마을교육공동체_마중물 관계자
17	2020.08.19	14명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관 팀장, 코디네이터, 유성구행복네트워크, 유성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별마루학교 팀장, 청소년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장대청소년문화의집, 마을공동체네트워크 대표, 관계자,
18	2020.08.27	4명	**청소년*어르신 세대공감 업무협의**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관 팀장), 유성구청소년수련관 팀원, 유성구노인복지관 과장), 유성구노인복지관
19	2020.10.07	6명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대**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코디네이터), 유성구청소년수련관 교육협력팀장, 마을교육공동체_마중물 관계자
20	2020.10.27	9명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대** **(유성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참석자 :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유성구꿈드림

다. 협의체 차원의 네트워크 사업성과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체계 구축에 근본이 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청소년일 것이다. 1차년도에는 본 사업을 알리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살펴보고, 분류하는데 주안점은 두었다면, 2020년에는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수행 기관이 아닌 청소년을 중심으로 두고, 실제로 청소년의 요구에 부합되게 맞추어 구동해 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실시한 것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연합회를 구성한 것이다. 다음 [그림 Ⅳ-13]과 같이 유성구에 있는 청소년 이용 시설(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송강사회복지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해맑음센터, 유성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과 연계하여 청소년 218명에게 온라인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범주명	내용
공간 마련 및 대여	스터디룸, 회의룸, 체육관, 휴식 및 체험 공간 등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시설) 마련 및 대여
교육 및 학습	3D, 학습, 영상촬영 등 교육 및 학습 기회 제공
정서 및 상담	학교폭력 및 귀가 안전, 소통 등 안전한 정서 적 지원 제공
진로 및 직업 체험	진로(진학) 프로그램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 제공
활동	동아리 및 멘토링, 청소년 주관 행사, 재능 기부 및 사회 활동 기회 제공

그림 Ⅳ-13 2020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요구조사 과정

총 65명의 청소년이 온라인 요구조사에 응답했고, 요구조사 진술에서 드러나는 핵심 의미를 찾아 추상적 해석을 통해 명명하였으며, 도출된 범주들을 중심으로 하위범주, 상위범주로 연결시켰다.

1차 요구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 28명과 함께 온라인으로 2020 분과 네트워크를 결정지었다. 202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에 조사한대로 소회의를 개최하여 네트워크를 보다 구체화시켰다.

표 Ⅳ-9 2020 분과 네트워크 요구 내용

네트워크	내용
청소년, 어디가지?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	1.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 - 특성화실(방송실, 과학실, 전문체육실 등) 마련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청소년 곤강 조성(카페, 북방 등) - 지금의 청소년시설 홍보 2. 청소년시설 홍보 및 설문지를 통한 의견 수렴
EBS(Education Boongua Shuttle) (교육 및 학습)	1. 공교육의 사교육 보완 및 특화된 교육 진행 - 공교육에서 사교육 및 선행학습(국, 영, 수 위주) 지원 - 코딩, 컴퓨터프로그래밍, 영상편집 전문 기술 지원 - 자기주도적 교육 방안 마련 2. 본 사업 홍보
고운누리 (정서 및 상담)	1.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서 지원에 대한 교육제도화 -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불안정 해소 및 정서지원 및 가족, 또래 등 상담프로그램 마련 - 진로교육과 같이 교육제도화된 상담교육제도 필요 2. 청소년 보호 - 귀가 지원, 청소년 1인 가구 자기 결정권 주장
낭만진로 (진로 및 직업체험)	1. 진로 관련 로드맵 제작 - 진로체험처,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등 지역자원 발굴 및 로드맵 제작 2. 진로 고민 사항을 반영한 진로프로그램 - 진로 관련 고민 사항, 궁금증 설문 조사 후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플레이 (청소년 활동)	1. 청소년 요구 파악 - 설문 조사를 통해 청소년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에 대한 요구 파악 및 의견 공유 2. 지역 연계를 통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체계화된 재능기부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유성구 지역과 연계한 특성화 체험 프로그램 제공



그림 Ⅳ-14 2020 청소년연합회 회의 장면

청소년연합회는 위 사진과 같이 줌(zoom)을 통한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또한 유성구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다양한 청소년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와 유성구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취합하였고 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6명과 지도자 2명의 오프라인 간담회를 통한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영역 8개 요구과제가 도출되었다.

표 Ⅳ-10 유성구 학교밖 청소년의 요구

영역	요구내용
학교밖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요구	1.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진학지도 및 지원 필요 - 대학입시에서 검정고시 출신을 받아주는 곳이 별로 없으며 관련 정보를 얻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음. - 지원방안 1) 대전진학지도협의회 연계 진로센터 사업을 통한 진학 지도 서비스 제공 2) 학교밖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입시 정보 제공 기회 마련 3) 학교밖 청소년 대상 대입상담, 진학상담 제공 4)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기록부 작성 관련 교육 등 지원 기회 마련
	2.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부당한 처우 개선 - 청소년증 활용을 통한 차별 개선 방안 마련 -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홍보 캠페인 및 공익 광고를 통한 인식변화 제안
	3. 청소년시설 사용 및 참여 - 개별적인 사용시 수련관 전화로 예약, 꿈드림 단체로 이용할 때는 별도로 전화 논의, 동아리실, 회의실 등 모든 장소 사용 가능
지역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요구	1. 시설 인지도 및 청소년들의 이용 접근성 제고 - 그동안 시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활용하지 못해왔음.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고 청소년이 많이 찾아오고 많은 활동이 펼쳐지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음.
	2. 댄스, 연극, 예체능 등 시설 대여 관련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농구장 등의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좋았음.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들이 더 운영됐으면 좋겠음
	3.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노래방 암막커튼 구입하여 활용도 제고 - 작은도서관, 로비 등 BGM을 깔아서 밝고 따뜻한 분위기 조성
	4. 스튜디오 조성시 콘덴서 마이크 구입 - 전자음악, 녹음 활동에 활용할 수 있음
	5. 동아리 활동지원 및 협력을 통한 꿈드림 동아리 활성화 - 활동비, 장소 등 시설 적극 활용

유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유성구 청소년 정책 제안에 앞서 유성구 관내 청소년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2건의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였다. 제안 내용은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 유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요구(정책 제안 내용)

연번	요구내용
1	○ 유성구 청소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사업 - 청소년들을 위한 열람실, 스터디룸, 휴게실, 미디어실 설치 - 청소년 전용도서 구입 및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2	○ 유성구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와 학교 간의 연계 확대 - 유성구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 연 1회이상 진로직업체험 기회 제공 - 학교로 찾아오는 꿈다해봄 진로상담 프로그램 운영
3	○ 학교 내 상담실 홍보 및 지역 상담시설 연계 활동 추진 - 상담에 대한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부착 -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연계하여 상시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4	○ 유성구유스호스텔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변경하여 운영 -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마을친화형 문화소통 공간 마련 - 놀이시설, 청소년카페, 체육공간, 영상실 등 설치
5	○ 유성구 동부지역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 전민평생학습센터 내부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 - 청소년을 위한 북카페, 춤연습실, 악기연습실, 영화관 조성
6	○ 저소득 가정 청소년 여행 바우처 제공 - 유성구 관내 청소년을 위한 관광코스를 개발 -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할인 혜택(바우처) 부여
7	○ 하굣길 사고방지를 위한 신호주기 조절 및 포스터 게시 - 학교 인근 신호주기 조절 및 횡단보도 지정 - 관련 내용에 대한 포스터 설치 및 교육 실시
8	○ 취약 지역 신호동 옐로우 안전 라인 설치 - 횡단보도 앞 CCTV설치 - 옐로우 라인 및 횡단보도 알림벨 설치
9	○ 유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 별도 조례제정 및 활성화 - 청소년참여위원회,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정참여단 등 참여기구별 정확한 역할과 기능을 구분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참여기구의 위상 강화 - 유성구 참여예산제 사업 연계 등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마련
10	○ 유성구 청소년 사업 진흥을 위한 지역 연계 청소년 활동 홍보 기자단 운영 - 청소년기자단 운영 및 연속 간행물 발간
11	○ 유성구 청소년 사업 진흥을 위한 지역 연계 청소년 활동 홍보 기자단 운영 - 청소년기자단 운영 및 연속간행물(소식지) 발간 - 연속간행물(소식지)를 관내 학교, 도서관 등에 배포
12	○ 청소년나Be한마당 에코페스티벌 -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명대회 운영 - 에코테마 체험부스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

유성구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유성구에 제안하였다. 유성구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정책 제안 내용 13건은 〈표 Ⅳ-12〉와 같다. 이상과 같이 관내 청소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우선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분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표 Ⅳ-12 유성구어린이청소년의회의 요구(정책 제안 내용)

연번	요구내용
1	○ 놀이방법 앱 만들기 - 학교 놀 시간 추가하기, 놀방법 앱 만들기
2	○ 학교 운동장 놀이활동가 배치 - 방과후, 주말에 전래놀이 운영
3	○ 깨끗한 유성구 궁동 거리 만들기 프로젝트 - 대형 분리수거함 및 저울 배치, 지역 관리자 선출 - 쓰레기 양에 따른 포인트 적립 제도
4	○ 쾌적한 도서 환경 조성을 위한 유성구 도서관내 책소독기 설치
5	○ 유성구 구암동 청소년보호, 문화시설 확충 - 청소년 여가 문화활동 등 여론조사 실시 - 청소년관련 문화 보호시설 설치
6	○ 대전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
7	○ 놀이터 안전 점검 사업 - 유성구 관내 아파트단지별 놀이터 수리 및 페인트칠
8	○ 온라인 도서관 설치 - 청소년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온라인 도서관
9	○ 무인 우산 대여기 설치 - 버스정류장, 도서관, 마을회관 등 우산대여 시스템 설치
10	○ 죽동 버스노선 증설 - 청소년들의 원할한 통학을 위해 버스 노선 증설 필요
11	○ 갑천 주변 해충 제거기 설치
12	○ 우리동네 제페토 할아버지 - 퇴직한 어르신들이 수리 기술을 배워 청소년들의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해주는 장난감병원 사업 운영
13	○ 학교 내 놀이(운동)기구 설치 사업 - 유성구 내 초·중·고등학교 놀이(운동)기구 설치

④ 분과 네트워크 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

가. 분과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청소년의 요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분과 네트워크는 [그림 Ⅳ-15]와 같이 총 5개의 분과로 구성되었다. 먼저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분과(“청소년 어디가지?”)에서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청소년 전용공간이 있어야 하며,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가 구비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현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해서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청소년들은 공교육에서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 및 학습 분과인 EBS(Education Boongua Shuttle) 분과를 통해 공교육뿐만 아니라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이용 시설에서 사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국, 영, 수 위주의 선행 학습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향후 청소년 스스로 학습을 하는 자기주도적 교육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청소년의 교육에 힘써야 함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교육, 예컨대 코딩, 컴퓨터프로그래밍, 영상편집 전문 기술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세 번째는 청소년의 정서뿐만 아니라 보호에 관련한 지원을 하는 정서 및 상담 분과인 “고운누리” 분과는 순우리말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다. 청소년이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을 안정화시키고, 정서 자원이 되는 가족과 또래 등 상담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진행될 때 진로교육과 같이 교육제도화된 상담교육 제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밤늦게 귀가하는 청소년을 위해 안전 귀가 지원을 요구하였고, 청소년 1인 가구가 늘고 있음에 따른 자기 결정권을 받아들여 주기를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네 번째 분과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관심이 큰 진로 및 직업 체험 분과인 “낭만진로” 분과는 지역 내 청소년의 요구가 있을 때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험처나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을 찾아볼 수 있는 로드맵 제작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고민 사항이나 궁금증들이 있는데 이를 반영한 진로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보급되기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활동 분과인 “플레이” 분과는 청소년들만으로 이루어진 동아리 활동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활동들을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재능기부 및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유성구 내 지역과 연계한 특성화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원했는데, 이를 위해 플레이 분과에서는 이와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요구를 파악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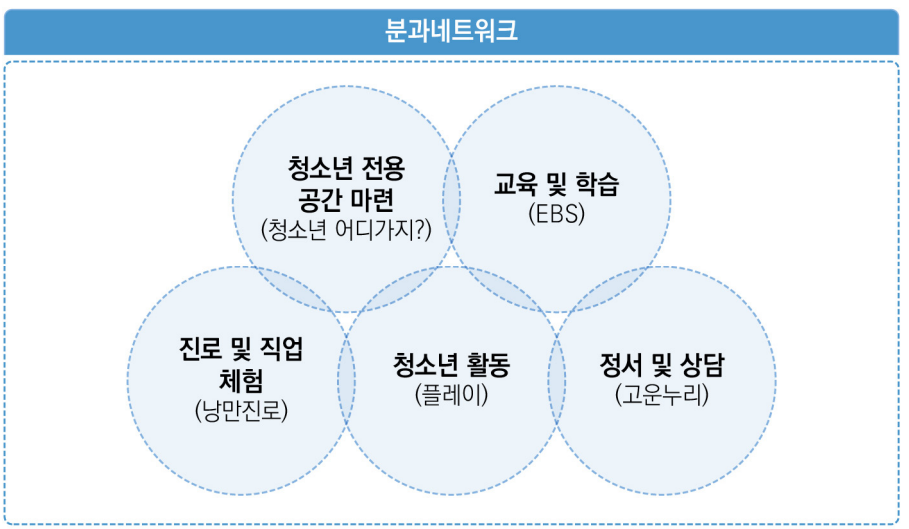


그림 Ⅳ-15 2020 분과 네트워크 구성현황

분과 네트워크는 분과별로 적게는 4명, 많게는 44명이 모여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네트워크 회의의 경우 고운누리 분과는 3회, EBS 분과와 플레이, 청소년, 어디가지 분과, 낭만진로 분과는 각 2회가 진행되었다. 각각의 분과 네트워크에는 청소년 1인이 필히 참석하여 청소년의 요구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간 협력을 요청하여 실제 청소년의 요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실무진이 네트워커 역할을 수행하여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왔고, 기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각각의 분과 네트워크 요구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참석 요청을 하였다. 분과 네트워크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그림 Ⅳ-16 분과 네트워크 회의 장면

나. 분과 네트워크 차원의 네트워크 사업성과

○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 분과 - 청소년, 어디가지?

청소년의 공간을 마련하고, 그들의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자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소년, 어디가지?" 분과에 참여하는 네트워크는 〈표 Ⅳ-13〉과 같다. 청소년 6명이 포함된 네트워크 외에도 회의 시 사안에 따라 네트워크 참여를 독려하였다.

표 Ⅳ-13 분과 네트워크-청소년, 어디가지? 네트워크 구성

네트워커 : 정OO 과장(유성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 김OO(중2), 김OO(고2), 이OO(중1), 이OO(중2), 이OO(중1), 이OO(학교밖)

구분	네트워크	구분	네트워크
1	유성구청소년수련관	7	소소한 연구소
2	장대청소년문화의집	8	희망마을 작은도서관
3	유성구유스호스텔	9	㈜초원미래나눔
4	함지박 마을공동체	10	유성구 홍보실
5	학마을협동조합	11	유성구 교육과학과
6	벌집	12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네트워크 간 회의를 거쳐 본 분과 네트워크에서 도출해 낸 성과는 [그림 Ⅳ-17]과 같다. 본 분과 네트워크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는 특성화실 마련 및 청소년 공간 조성, 현재 유성구에 있는 청소년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청소년시설 홍보 및 공간을 마련을 위해 청소년들의 요구 파악이었다.

주요 성과로는 유성구에서 추진중인 다중이용시설 1인 미디어실을 청소년시설에 우선 구축될 수 있도록 유성구 담당부서와 협의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을 통해 유성구청소년수련관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다. 또한 유성구

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청소년 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청소년들이 직접 해보는 것을 논의하였고,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여 청소년시설을 홍보하고, 홍보 내용을 유성구 홍보실과 연계하여 유성구민이 많이 볼 수 있는 월간지 등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다. 또한 청소년시설이 없는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분과 네트워크 회의는 총 2회로 개최되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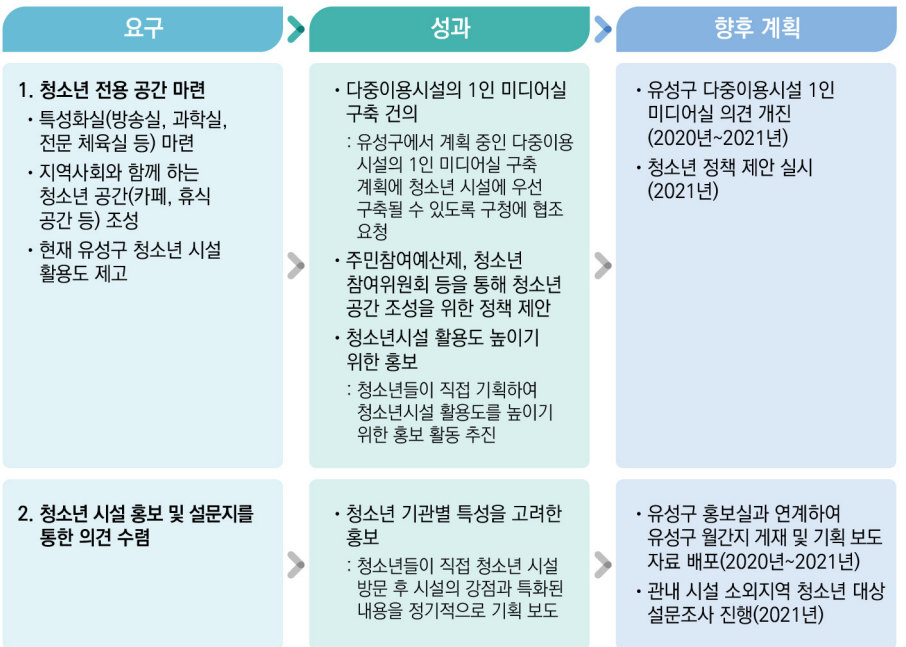


그림 Ⅳ-17 분과 네트워크 - 청소년, 어디가지? 성과

나) 교육 및 학습 분과 - EBS(Education Boongua Shuttle)

청소년의 교육과 학습에 대한 고민 지원을 현실화시켜보는 EBS(Education Boongua Shuttle) 분과에 참여하는 네트워크는 〈표 Ⅳ-14〉와 같다. 청소년 5명이 포함된 네트워크 외에도 회의 시 사안에 따라 네트워크 참여를 독려하였다.

표 Ⅳ-14 분과 네트워크 - EBS(Education Boongua Shuttle) 네트워크 구성

네트워커 : 윤OO 팀장(유성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 문OO(중2), 이OO(중2), 유OO(중3), 장OO(고3), 지OO(중3)

구분	네트워크	구분	네트워크
1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15	해맑음센터
2	대전청소년교육문화센터	16	방과후아카데미 별마루
3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4	대전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18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대전진학지도협의회	19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6	목원대학교	20	희망마을작은도서관
7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	함지박 마을공동체
8	유성구청소년수련관	22	공동부엌 더데이블
9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23	(사)드림업
10	장대청소년문화의집	24	유성구마을교육공동체 '마중물'
11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25	유성구마을교육공동체네트워크 '모이다'
12	한국학습코칭연구소	26	마음쉼터심심풀이
13	대전광역시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27	관내 학교
14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네트워크 간 회의를 거쳐 본 분과 네트워크에서 도출해 낸 성과는 [그림 Ⅳ-18]과 같다. 본 분과 네트워크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는 공교육뿐만 아니라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이용 시설에서 사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국, 영, 수 위주의 선행 학습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향후 청소년 스스로 학습을 하는 자기주도적 교육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청소년의 교육에 힘써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요즘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 예를 들면 코딩, 컴퓨터 프로그래밍, 영상편집 전문 기술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마을을 중심으로 교육수혜자인 청소년은 마을에 원하는 교육을 요구하고, 원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며, 교육제공자인 어른들은 교사로서의 사명감, 지도력을 가지고 마을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수혜자인 청소년이 요구하는 컨텐츠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장지원협의체와 같은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실제 마을에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에서는 공동체가 지속성을 가지고, 역량을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은 재정과 공간 등 운영 지원을 적극으로 해줘야 함을 공론화하였다. 분과 네트워크 회의는 총 2회로 개최되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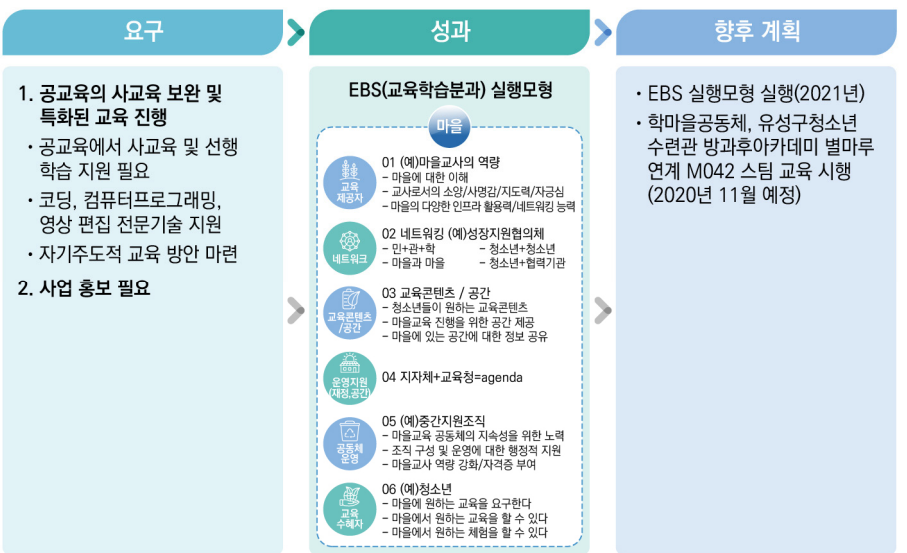


그림 Ⅳ-18 분과 네트워크 - EBS(Education Boongua Shuttle) 성과

다) 정서 및 상담 분과 - 고운누리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역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고운누리 분과에 참여하는 네트워크는 〈표 Ⅳ-15〉와 같다. 청소년 6명이 포함된 네트워크 외에도 회의 시 사안에 따라 네트워크 참여를 독려하였다.

표 Ⅳ-15 분과 네트워크 - 고운누리 네트워크 구성

네트워커 : 유OO 팀장(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 김OO(고2), 김OO(학교밖), 김OO(고3), 이OO(초5), 이OO(고2), 최OO(고3)

구분	네트워크	구분	네트워크
1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9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0	채움심리상담센터
3	유성구청소년수련관	31	한국회복적정의협회
4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32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대전단비연구소
5	장대청소년문화의집	33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6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34	민들레쉼터
7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	35	민족사관청소년회복지원시설
8	대전준법지원센터	36	애뜰
9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37	열매마을의집
10	여성긴급전화1388대전센터	38	이삭의집(남자)
11	유성경찰서	39	이삭의집(여사)
12	유성구자율방범연합회	40	인애자립생활관
13	대전광역시청소년쉼터	41	관내 지역아동센터
1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42	천양원
15	해맑음센터	43	햇살가득한집
16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4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
17	송강사회복지관	45	㈜홍재
18	여성인권지원상담소'느티나무'	46	카페로뎀
19	열린부뚜막협동조합	47	카페2Brix
20	유성구정신건강증진센터	48	가인어린이집
21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49	대세맘도담도담
22	방과후아카데미 별마루	50	바른디자인
23	유성구행복누리재단	51	아기둥지어린이집
24	나라정신건강의학과의원	52	아이와나무어린이집
25	유성구보건소	53	㈜포세듀
26	유성선병원	54	플라워윙스
27	법무부법사랑위원대전유성구지구협의회	55	도안마을신문
28	이인상법률사무소		

청소년의 요구는 학교 내에서 진로교육처럼 학과 시간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개별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상담 의무 시간이 배정될 필요가 있음을 말했다. 또한 늦은 귀가 길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 지원과 더불어 관내 위험 지역, 특히 학원가가 밀집한 노은역 주변 고장난 가로등을 정비하고, LED 경광등 설치 등 환경 정화 사업과 청소년 권리보호증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상담 요구가 있을 때 즉시 받을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내 3개 상담복지센터에 적극 홍보할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성경찰서와 연계하여 노은역 주변 CCTV 설치와 우범지역을 청소년들과 함께 순찰하면서 안전한 거리를 만들 예정이며, 청소년의 권리보호증진을 위해 먼저 노은동에 있는 ㈜초원미래나눔과 연계하여 노은역에서 개최되는 마을축제에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참여하여 인권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전인권센터 및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청소년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할 계획에 있다.

요구	성과	향후 계획
1. 상담교육제도 개선	• 상담지원서비스 조사 : 상담복지서비스 연계 상담 프로그램 조사 및 안내 : 학교와 연계하여 상담프로그램 지원	• 상담교육제도화 캠페인 추진 (2021년) • 위(Wee)센터와 연계 협조 (2021년)
2. 청소년 보호 • 안전귀가지원 • 청소년 자기결정권 확립	• 안전귀가지원 : 유성경찰서 연계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안내 및 홍보 : 유성경찰서 연계 노은동 위험지역 순찰 방안 마련 • 청소년 자기결정권 확립 : 청소년 권리 강화를 위한 인권 캠페인 개최 : 청소년권리구제 절차 마련	• 유성경찰서 연계 노은동 위험지역 CCTV설치 조사 및 순찰 (2020년 11월 중) • 노은동 마을기업 ㈜초원미래나눔 연계 노은역 인권캠페인 진행 (2020년 10월 31일 예정) • 대전인권센터 및 유성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연계 청소년권리 구제 절차 마련 (2020년 11월 중)

그림 Ⅳ-19 분과 네트워크 - 고운누리 성과

라) 진로 및 직업체험 분과 - 낭만진로

청소년에 대한 진로와 진학에 대한 지원을 협의하는 낭만진로 분과에 참여하는 네트워크는 다음 〈표 Ⅳ-16〉과 같다. 청소년 5명이 포함된 네트워크 외에도 회의 시 사안에 따라 네트워크 참여를 독려하였다.

표 Ⅳ-16 분과 네트워크 - 낭만진로 네트워크 구성

네트워커 : 장OO 팀장(유성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 김OO(중1), 박OO(고3), 백OO(중3), 오OO(중2), 최OO(고1)

구분	네트워크	구분	네트워크
1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9	신선마트
2	대전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30	방과후아카데미 별마루
3	대전진학지도협의회	31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목원대학교	32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5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3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6	유성구청소년수련관	34	㈜홍재
7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35	플라워윙스
8	장대청소년문화의집	36	함지박 마을공동체
9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37	유성구청 교육과학과

네트워크 간 회의를 거쳐 본 분과 네트워크에서 도출해 낸 성과는 [그림 Ⅳ-20]과 같다. 본 분과 네트워크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는 지역 내 청소년의 요구가 있을 때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험처나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을 찾아볼 수 있는 로드맵 제작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고민 사항이나 궁금증들이 있는데 이를 반영한 진로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보급되기를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진로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갈 진로 로드맵 제작하고자 하며, 진로 로드맵은 웹, 앱에서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반응형 홈페이지로 제작하고자 하며, 특히 유성구의 나래이음 혁신교육사업과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구축 사업과 연결하여 진로 로드맵을 제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고민 사항이나 궁금증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로 로드맵 구성 시 앞쪽에 폼메일 형식을 만드는 것을 강구하였으며, 진로 로드맵에 구성될 체험처와 강사진에 대해 지속적인 질(質)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으며 현재 꿈길 사이트가 교사만 검색하여 신청 가능한 것에 대해 교육청, 교육부와 논의가 되어 청소년들이 개별 검색하고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분과 네트워크 회의는 총 2회로 개최되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였다.

요구	성과	향후 계획
1. 진로 로드맵 제작	• 진로 로드맵 제작 : 웹, 앱에서 적용 가능한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파악 : 로드맵페이지(지도API)를 이용한 시스템 : 교육청 및 교육부와의 논의를 통한 '꿈길' 연계	• 서부교육지원청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사업과 연계 모색 (2021년) • 유성구청 나래이음 혁신교육 사업 '뭐하지도'에 진로 로드맵 결합 방향 모색 (2021년)
2. 청소년 진로 관련 사항 취합	• 진로 로드맵 구성 시 앞쪽에 폼메일 형식 마련 • 학교 연계 협조	• 향후 로드맵 구성 시 궁금증이나 요구를 적을 수 있는 폼메일 형식 마련

그림 Ⅳ-20 분과 네트워크 - 낭만진로 성과

⑤ 청소년 활동 분과 - 플레이

청소년의 활동 지원을 협의하는 플레이 분과에 참여하는 네트워크는 〈표 Ⅳ-17)과 같다. 청소년 6명이 포함된 네트워크 외에도 회의 시 사안에 따라 네트워크 참여를 독려하였다.

표 Ⅳ-17 분과 네트워크 - 플레이 네트워크 구성

네트워커 : 김OO 팀장(유성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 박OO(중2), 안OO(중2), 윤OO진(중3), 이OO(중3), 이OO(중1), 정OO(고1)

구분	네트워크	구분	네트워크
1	유성구청소년수련관	15	대전공동육아친구랑어린이집
2	장대청소년문화의집	16	플라워윙스
3	방과후아카데미 별마루	17	은샘공동체
4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18	품앗이마을협동조합
5	유성구유스호스텔	19	학마을협동조합
6	㈜휴먼넷 남선공원종합체육관	20	한국정신문화연구소
7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1	로컬푸드교육센터 품동조합
8	희망마을작은도서관	22	상상마을 사회적협동조합
9	함지박마을공동체	23	소소한연구소
10	공동부엌더테이블	24	숲이야기
11	(사)드림업	25	유성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12	유성구마을교육공동체 '마중물'	26	유성구평생학습원
13	유성구마을교육공동체네트워크 '모이다'	27	도안마을신문
14	마음쉼터심심풀이		

네트워크 간 회의를 거쳐 본 분과 네트워크에서 도출해 낸 성과는 [그림 Ⅳ-21]과 같다. 본 분과 네트워크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는 청소년들만으로 이루어진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활동들을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재능기부 및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유성구 내 지역과 연계한 특성화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원했는데, 이를 위해 플레이 분과에서는 이와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요구를 파악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먼저,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관내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참여 청소년들의 78.1%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50% 이상의 청소년이 학술활동을 동아리 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아리 활동 선택 이유로 진로 및 진학과 관련된 내용이 65.8%로 가장 높았으며, 희망 활동 장소로는 69.9%가 학교라고 응답하였다. 동아리 활동을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은 청소년이 60%, 지도자 또는 부모님이 주도한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1%로 나타났으나 불만족 또는 보통 역시 28.7%로 나타나 만족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을 볼 수 있었다. 향후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응답을 했지만 문화예술활동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술활동이 19.2%, 스포츠활동이 17.8%, 봉사활동이 11%, 자치활동이 9.6%, 청소년단체활동이 6.8%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유형에 대해서는 42.5%의 청소년이 교실청소, 칠판닦이, 멀티미디어기기 담당 등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1.5%의 청소년이 청소년 사회참여 봉사활동에, 26%의 청소년이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이유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함이 28.8%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감은 69.8%의 청소년이 대체로 만족함을 볼 수 있으나 동아리 활동과 같이 보통 이하 응답율이 30.1%로 나타나 이 역시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플레이 분과 네트워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지역 내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동아리지원사업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며,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으로 총 14,500천 원 이상을 편성하여 2021년부터 재능기부봉사단과 PBL봉사단, 청소년 어르신 세대공감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분과 네트워크 회의는 총 2회로 개최되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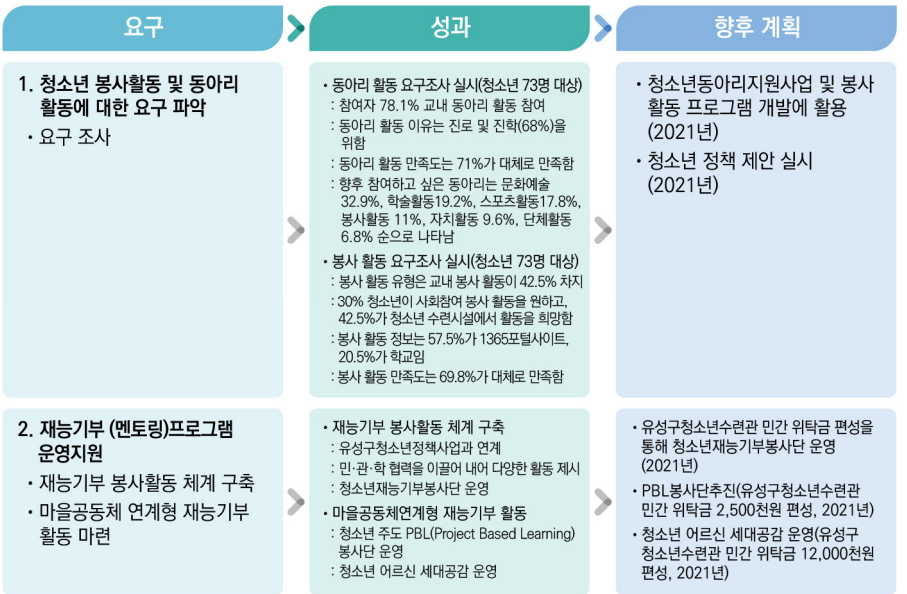


그림 Ⅳ-21 분과 네트워크 – 플레이 성과

(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관련 조례 제·개정 혹은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사례 및 성과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청소년의 성장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긴밀한 연계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지역사회 내 연계 협력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유성구청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의 업무협약체결을 하였다.




그림 Ⅳ-22 유성구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MOU 체결

또한, 1차년도에 이어 2020 제2회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포럼 “성장톡톡”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여 청소년-청소년시설(기관)-지자체-교육지원청-마을 간 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공고히 하였다. 본 포럼을 통해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주체자인 청소년-청소년시설(기관)-지자체-교육지원청-마을 간 네트워크 협력 연계 필요성을 생생하게 전달하였고, 포럼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에 전달이 되어 청소년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그 성과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Ⅳ-23 2020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포럼 “성장톡톡”

(4)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2차년도 모형(안)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는 기존의 다양한 청소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동반자로서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자체가 중심이 된 청소년성장지원 정책 추진 체계를 지향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요구를 알아보고, 이를 분과네트워크 구성에 반영시켰다. 또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청소년의 성장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청의 협업이 필요함을 모형에 나타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긴밀한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실현시키는 데 각각의 네트워크 전달이 어려울 수 있으니 운영위원회를 두어 중요 정책 사안 및 네트워크 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한다. 운영위원회는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 유관 기관의 장들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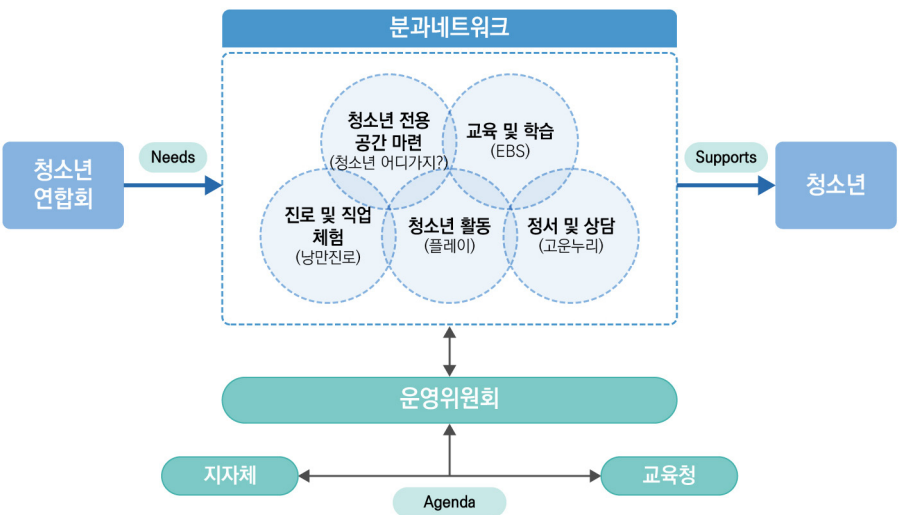


그림 Ⅳ-24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2차년도 모형(안)

3) 부천시

(1) 사업내용

①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자원 확장 및 성장지원 추진기반 확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자원 확장을 위해 기존 공공영역 중심에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시민사회 전 영역의 인적·물적 자원조사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원을 추가 발굴하여 확장 운영하였다. 한편,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 '100인의 부천에꿈'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는 부천시민 100인을 발굴하고, 이들 중 청소년들의 추천을 받아 20인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였다.

② 소통을 통한 의제발굴과 사회적 책임 강화

민간영역에서 공공영역과 협업하는 교육시민연대를 구성하여 부천형 혁신교육 모델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사업에 성인지 관점 적용 노력으로 경기도청소년재단협의회 등 지역 간 연대를 통해 전반적인 청소년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였다. 또한 청소년 노동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부천시비정규직지원센터, (사)청소년노동인권 '노랑'과 협업하여 추진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부천시 청소년 근로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한편, 부천시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교육의회, 학생회 등)의 공통 주제에 따른 기관, 지역별 연합 프로젝트 활동을 추진하였고, 작년에 이어 청소년성장지원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중심의 다양한 영역별 거버넌스를 위하여 네트워크 파티 2.0을 추진하였다. 여기에서는 부천시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의 활동에 대한 공유와 향후 부천시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③ 지자체 협력 사업 추진 및 성장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지자체 청소년전담공무원과 협업을 통한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고, 청소년 성장지원과 혁신교육의 협력, 상생을 위한 부천미래교육센터 출범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확장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동참하는 협력구조를 완성하고,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정례적인 운영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논의로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 제시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⑵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

- 부천시 청소년 주무부서인 아동청소년과는 물론, 평생학습과(부천시평생학습센터 포함), 부천시교육지원청(부천미래교육센터 포함)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재정비하여 연대협력을 추진함.
- 청소년이 직접 성장지원 체계의 한 축이 되도록 참여단을 구성하고, 청소년 인권과 참여 활동을 추진하여 청소년 주류화의 중심으로 구성함.
- 2019년에 구성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공공영역 구성원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2020년은 민간영역으로 확장하여 지역 중심의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를 공고히 함.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공동과제와 유스거버넌스 단위 과제를 분리하여 실행함으로써 지역의제 해결을 위한 실행력 향상에 노력함.
-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네트워크 활동과 청소년성장협의체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연간 활동 공유회(네트워크 파티 2.0)를 추진함.
- 적극적 홍보로 청소년성장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단순 사업으로 그치는 수준이 아닌 지역의 청소년 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함.

(3) 2020년도 시범사업 운영계획 및 추진체계

목적	청소년 주류화를 위한 성장지원 추진기반 확대와 성공경험 축적
실행 목표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 확산으로 거버넌스 확대 청소년 주도적 참여와 의제 추진으로 청소년주류화 실현

환경 분석	전년도 성과분석	국가 및 지자체 정책 방향	이해관계자 니즈
	• 시청, 교육청, 공공, 민간 영역이 함께 청소년주류화를 위한 논의구조 마련 • 청소년 참여단을 통해 청소년 주도의 실체화 마련 • 지역 특성과 이슈를 반영한 의제발굴로 사업의 구체화	• 국정과제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지역 지정운영) - 청소년 참여 확대 -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제고 - 청소년정책위상강화(사회적인식제고)	• 청소년 주류화,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재단 역할요구 •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요구 • 지역 청소년들이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의 장 조성 •청소년활동가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
시사점	• 지역사회가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동참하도록 사회적 책임의식 확대 필요 • 청소년참여단 운영과 네트워크 간 교류로 청소년 현안의제 발굴 필요		

핵심 과제	성장지원 추진기반 확대	소통을 통한 의제발굴과 사회적 책임 강화	성장지원을 위한 제도마련
실천 과제 (주요 시업)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자원 확장 - 민간자원 등 다양한 영역의 자원 발굴 - 청소년활동가, 청소년 중심의 네트워크 확대 • '100인의 부천에꿈' - 청소년 성장지원을 함께 고민하는 부천시민 100인 발굴	• 유스거버넌스 3개 운영 - 부천혁신교육 네트워크 - 성인지 교육 네트워크 - 청소년 노동 네트워크 • 청소년 참여단 운영 - 청소년 정책제안 등 연합 프로젝트 - 청소년 노동인권 등 근로권익 증진 프로젝트 • 네트워크 파티 2.0 - 네트워크, 청소년참여단 교류와 의제발굴 • 청소년 사회적 책임의식 확대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제도화 -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조례 제정 • 지자체 청소년전담공무원과 협업을 통한 청소년 시설 확충 • 청소년 성장지원과 혁신교육의 협력, 상생을 위한 (가칭) 부천미래교육지원센터 논의
성과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영역의 참여로 청소년지원체계 확대 • 시민 100인 발굴	• 유스 거버넌스 운영 등 사례 3개 이상 도출 • '100인의 부천에꿈'을 활용한 인식개선 영상 제작	•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조례 제정 • 오정지역 청소년 시설 확충

핵심성과(Best Practice)

핵심성과 1	사회적 가치 측면 핵심성과 2
• 청소년 성장지원체계 확대로 '청소년 부천에꿈' 실현 •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제도와 참여문화 조성	• 지역사회 청소년 주류사회 참여를 위한 정책개발과 확산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 영역별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상생의 사회적가치 실현 • 청소년 임파워먼트를 통한 청소년 주류화 사회적 가치 실현

(4) 2020년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사업 추진경과

①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현황

부천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민간단체, 교육청 및 지자체가 구성원들의 연계협력 형태로 구성되었다. 부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지역의 청소년 관련 이슈와 과제를 파악하고 도출하는 협의기구로서 지역 내 민·관·학 모든 주체가 수평적 협업구조로 운영되는 협력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공공영역 중심에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시민사회 전 영역의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조사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원을 추가 발굴하여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 Ⅳ-18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현황

구분	소속/직책	비고
공공	부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	변경
공공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	
민간	뜰안에작은나무도서관장	신규
공공	부천시지역아동연합회 대외협력부장	신규
공공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공공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공공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공공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민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신규
민간	물푸레공동체 대표	신규
민간	통합예술나눔터 대표	신규
민간	부천희망교육 학부모대표	신규
공공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장	
공공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민간	(사)청소년 노동인권 '노랑' 대표	신규
공공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 소장	변경
공공	부천시아동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공공	부천일시청소년쉼터 소장	

표 Ⅳ-19 부천시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현황

청소년/청년 조직	활동영역	상담영역	보호영역
• 부천시차세대위원회 • 청소년운영위원회(6개) • 청소년참여예산제 • 부천시학생회장단연합 • 대학생 활동가 조직 • 청년활동가 조직 • 청소년마을참여연구소	•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 산울림청소년수련관 • 부천시청소년수련관 • 소사청소년수련관 • 부천여성청소년센터 •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 부천시청소년카페 • 부천시자원봉사센터 • 부천씨앗길센터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 청소년성문화센터 • 한국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부천지구연합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사)경기글로벌센터 • 성폭력상담소 • 생명의전화부천센터 • 예슬아동상담센터 • 위두심리상담연구소 • 한국일면심리발달센터 • 한국카운슬링센터 • 한울심리상담센터 •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 • 부천YMCA청소년상담실 • 굿네이버스좋은마음센터	•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 •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 세상을품은아이들 • 물푸레나무청소년공동체 • 청개구리 식당 • (사)해솔(부천) • 살레시오여월동나눔의집 • 푸스펜의집 •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 청소년성폭력상담소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 한국인터넷PC방문화협회 • 소사경찰서모범운전자회
청소년관련협의기구			
• 시설장 네트워크 • 중간관리자 네트워크 • CYS-Net 운영위원회 • CYS-Net 실행위원회 • 학교지원단 • 1388청소년지원단 • 메이커스 기반 창업지원 네트워크			
복지영역	**다문화지원영역**	**법률지원영역**	**의료지원영역**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부천종합사회복지관 • 삼정종합사회복지관 • 상동종합사회복지관 • 심곡종합사회복지관 • 원종종합사회복지관 • 춘의종합사회복지관 • 고강종합사회복지관 • 부천시교육청Wee센터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 건강가정지원센터 • 홀트아동복지회 • 부천시사례관리팀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지원영역** • 장애인직업지원센터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 샘물자리 • 장애아동미래를준비하는 사람들(장미회) • 물댄동산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 장애인종합복지관	• 부천청소년법률지원센터 • 소사경찰서 • 오정경찰서 • 원미경찰서 • (사)한국아미추어무선연맹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 • 부천시내 지구대(11개) • 부천보호관찰소 • 부천김포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부천시원미보건소 • 두드림정신건강의학과 • 루카스병원청소년낮병원 • 미소조산경정신의학과의원 • 부천미르치과의원 • 부천시약사회 • 부천시자살예방센터 • 이박산부인과 •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 부천시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지원영역	**성인지성평등영역**	**교육영역**	**행정/공공기관**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지역일자리창출진흥원 •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부천지역자활센터(3개)	• 부천여성노동자회 • 부천청소년성문화센터 •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 부천YWCA • 부천성폭력상담소 • 청소년성폭력상담소 • 부천시여성회관 • 부천여성청소년센터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 부천시 여성정책팀 • 부천시 청소년육성팀	• 부천교육지원청 • 관내 초중고 학교(125개) • 부천시평생학습센터 • 굿뉴스사관학교(대안학교) • 부천외이제이검정고시학원 • 부천청운검정고시학원 • 부천시학원연합회 • 관내 도서관(29개) • 관내 박물관(9개)	• 부천시청 • 주민자치센터 • 부천문화재단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부천산업진흥재단 • 부천도시공사 • 부천시민미디어센터
돌봄영역			
• 방과후아카데미 • 초등학교돌봄교실 • 방과후학교 • 부천지역아동센터(64개) • 드림스타트			

나. 협의체 회의 일시 및 회의내용 등

• 1차 회의
- 일시: 2020. 4. 10.(금) 10:00~12:00
- 장소: 재단 정책기획실 회의실
- 인원: 13명
- 내용: 2019년도 성장지원협의체 회의 결과 공유, 2020년도 시범사업 내용 공유, 2020년도 성장지원협의체 구성원 확대 논의 등

• 2차 회의
- 일시: 2020. 11. 13.(금) 10:00~12:00
- 장소: 재단 정책기획실 회의실
- 인원: 18명
- 내용: 2020년도 시범사업 결과 공유, 2021년도 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논의 등

다. 협의체 차원의 네트워크 사업 1개 이상 및 성과

2020년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실무협의체를 공공청소년시설 중간관리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성장지원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거버넌스를 추진하여 상시적 논의 구조를 갖추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협의체 차원의 네트워크 사업으로 청소년 성장지원을 함께 고민하는 부천시민 100인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확대하는 계기 마련하였다.

② 분과 네트워크 사업 추진경과 및 성과

가. 분과네트워크 구성현황

부천시 청소년 성장지원 분과네트워크 명단은 다음 〈표 Ⅳ-20〉과 같다. 분과네트워크는 크게 실무협의체 유스거버넌스에 부천혁신교육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로 구분된다.

표 Ⅳ-20 부천시 청소년 성장지원 분과네트워크 명단

구분	분과네트워크	구성원	
		소속	
청소년성장지원 실무협의체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부장	부천시아동청소년과 차장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리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과장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대리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부장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차장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과장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차장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장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과장	부천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센임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부장	부천시 청소년전담관
유스 거버넌스	부천혁신교육네트워크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 대리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 차장	
		교육희망네트워크 위원	
		나는엄마도서관장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청소년심야식당 청개구리 활동가	
		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대표	
		청소년심야식당 청개구리 청년	
		물푸레나무공동체 대표	
		통합예술나눔터 대표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직원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 대리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노무사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직원	
		부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주임	
		부천시시민미디어센터 직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직원	
		(사)청소년노동인권 '노랑' 이사장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팀장	

나. 분과네트워크 회의 일시 및 회의내용 등

• 청소년성장지원실무협의체

- 기간: 2020. 5. 20.(수) ~ 11. 11.(수) 〈연 11회〉
- 장소: 부천시 공공청소년시설(11개 기관)
- 인원: 연 96명
- 내용: 네트워크 파티 2.0 기획단 운영, 부천시 청소년 생활실태조사 관련 이행점검 논의 등





그림 Ⅳ-25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실무협의체 회의 장면

• 유스거버넌스_부천혁신교육네트워크

- 기간: 2020. 3. 6.(금) ~ 11. 25.(수) 〈연 15회〉
- 장소: 통합예술나눔터 외
- 인원: 연 60명
- 내용: 혁신교육에 대한 학습모임, 부천지역 혁신교육 모니터링 활동, 마을 작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활동 등



그림 Ⅳ-26 부천혁신교육네트워크 활동 장면

• 유스거버넌스_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기간: 2020. 4. 29.(수) ~ 11. 18.(수) 〈연 15회〉
- 장소: 정책기획실 회의실 외
- 인원: 연 105명
- 내용: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추진 협력, 청소년 노동인권의 날 프로젝트 활동 운영 등



그림 Ⅳ-27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포스터 및 활동 장면

다. 분과 네트워크 차원의 네트워크 사업 3개 이상 및 성과

• 100인의 부천에꿈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활동한 시민 100인 발굴

▸ 기간: 2020. 6. 2.(화) ~ 16.(화) 〈15일간〉

▸ 대상: 부천지역 청소년, 청소년 활동가(성인) 100명

⇒ 청소년성장지원실무협의체 소속 10개 기관별 10명의 대상 추천(추천기준: 부천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활동한 자, 청소년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청소년분야 활동가 및 소속 청소년 등)

- 시민 100인 중 청소년이 추천한 20인 선정

▸ 기간: 2020. 6. 17.(수) ~ 20.(토) 〈4일간〉

▸ 대상: 사전 선정된 100인의 명단 중 청소년 추천 20인

⇒ 부천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소속 청소년(기관별 2명 별도 추천)이 2~3인 추천(추천기준: 100인의 활동이력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한 대표성을 가진 자, 최근 청소년들에게 이슈가 되는 활동 또는 의제화가 필요한 분야의 활동가 등)

- '100인의 부천에꿈' 홍보활동

▸ 기간: 2020. 9. 16.(수) ~ 11. 30.(월)

▸ 내용: 재단 유튜브 채널 20인 영상 게시, 재단 페이스북 80인 프로필 게시 후 지역사회에 시민 100인 소개, 홍보활동 등

- '100인의 부천에꿈' 운영 성과: 청소년 주류화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부천지역 청소년과 청소년활동가 등 시민 100인을 발굴하고,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또 다른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환류적 활동이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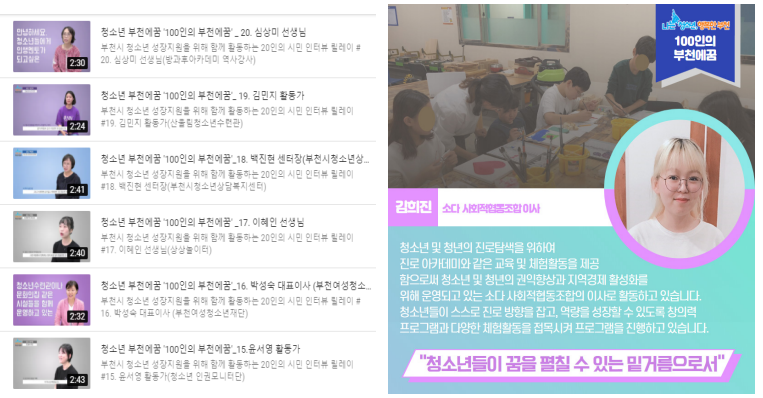


그림 Ⅳ-28 2020년도 '100인의 부천에꿈' 홍보활동

- 네트워크 파티 2.0
  - 일시: 2020. 9. 23.(수) 14:00~16:00 - 장소: 온라인(Zoom 시스템 활용)
  - 인원: 100명 - 내용: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강연, 동료로부터 배우는 소그룹 워크숍

표 Ⅳ-21 네트워크 파티 소그룹별 이야기 주제 및 운영자 소속

이야기주제	소속
위기청소년, 학교밖청소년, 거리청소년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별사탕
청소년활동가의 홍보 노하우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와락
청소년과 역곡마을평화센터 이야기	뜰안에작은나무도서관
청소년과 회복적 정의 이야기	언덕위광장 작은도서관
청소년과 성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해봄
꼽이네식당, 약대마을 이야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해봄
지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참여 및 성장이야기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와락
청개구리 이야기	물푸레나무공동체, 청개구리
청소년과 문화다양성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장애청소년 & 지역마을 작은학교만들기	통합예술나눔터
청소년 참여 및 성장이야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
청소년 참여 및 성장이야기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립, 거리청소년	스마일어게인 소년희망센터
청소년과 노동	청소년노동인권 노랑

- 성과: 지역의 청소년활동가들의 참여활동 관점에서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참여문화를 조성하고, 외부전문가가 아닌 지역 내 다양한 활동가들이 서로 동료이자 스승이 되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상호 소통과 교류의 장이 마련됨.



그림 Ⅳ-29 부천시 네트워크 파티 2.0

-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의 날 프로젝트 활동
  - 일시: 2020. 11. 15.(일) 15:00~17:00
  - 장소: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반딧불이 소극당
  - 내용: '보이지 않은 노동' 인터뷰 영상 시청, 청소년 노동인권 강연 등
  - 성과: 전태일 50주기를 맞이하여 청년들의 '보이지 않은 노동'에 대한 아카이브 형태의 영상을 제작하여 상영함으로써 노동하는 청년·청소년들의 근로권익증진 향상에 기여함.

• 부천시 작은 마을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활동

- 일시: 2020. 11. 20.(금) 10:00~14:00
- 장소: 부천지역 작은 마을학교(3개)
- 내용: 인문·예술·환경과 관련된 부천지역의 작은 마을학교 운영으로 학교 교육 외에 다양한 혁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성과: 2019년 지역사회 비형식교육포럼으로 시작하여 민간단체의 주도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적 실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마을에서 청소년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학교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혁신교육 체계를 마련함.

• 청소년 참여단(참여기구)_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공모 1건 및 청소년 참여단(노동)_ '보이지 않은 노동' 청소년·청년 노동자 4인 아카이브 영상 촬영 1건



그림 Ⅳ-30 청소년 참여단 활동

⑶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관련 조례 제·개정 혹은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사례 및 성과

①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성과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 증진을 위한 조례',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등 조례의 목적, 정의를 고려한 조례 명칭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의견과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 지역에 맞는 형태의 조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 반영 과정을 담아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간담회를 통해 조례 명칭을 제안하였다.

②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사례

○ 오정지역 아동·청소년시설 리모델링 추진

아동·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오정지역에 청소년·아동을 위한 문화·소통·돌봄·상담 공간을 조성하고자 청소년·아동시설 확충 추진하였다. 입주시설은 청소년카페(원종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오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Wee센터 등 4개 시설이다.

- 리모델링 개요
  - 위치: 소사로 780(원종동) 부천학생교육원
  - 사업기간: 2019. 10. ~ 2021. 2.
  - 규모: 832.3㎡(연면적), 지상 1~3층
  - 주요시설: 청소년카페(원종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오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Wee센터

표 Ⅳ-22 오정지역 아동 · 청소년시설 현황

구분	규모(㎡)	시설명
1층	282.5(85명)	청소년카페(댄스연습실, 멀티룸), 다합께돌봄센터
2층	291.8(88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정센터, Wee센터
3층	258(78명)	청소년카페(다락방, 코인노래방 등)

• (가칭) 청소년카페 원종점 TF 구성·운영(부천시 아동청소년과 주최)
- 팀구성: 5명
- 대상: 부천여성청소년재단(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천시청소년카페 도당점), 부천시
- 내용: 우수지자체 청소년카페(자유공간) 벤치마킹, 오정지역 청소년카페 주 이용자 욕구파악, 청소년카페 자체 공간배치(안) 수립, 카페명칭 논의 등
- 성과: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고 부천시만의 특색을 담은 청소년카페 마련

• 청소년카페 원종점 설치 추진
- 규모: 832.3㎡(연면적, 카페 1층 일부 및 3층)
- 종사자: 정원 2명(신규채용)
- 내용: 오정지역 청소년·아동의 쉼·놀이·문화 거점공간 제공(댄스연습실, 멀티룸, 다락방, 코인노래방, 포켓볼, 탁구장 등)
- 관련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추진경과
- 2019. 11. (부천시⇔부천교육지원청)공유재산 무상사용 업무협약(2020. 1. ~ 2024. 12.)
- 2019. 12. 청소년카페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실시
- 2020. 1. ~ 청소년카페 TF 구성·운영 및 청소년 의견수렴(설문조사)

- 2020. 4. 리모델링 설계용역 공정회의(부천시)
- 2020. 9. 무지개카페 설치·운영 재단 출연 동의안 의결(시의회)
- 2020. 9. ~ 2021. 6. 공사착공 및 준공(부천시) 및 개관 예정



그림 Ⅳ-31 오정지역 아동 · 청소년시설 전경

나. '부천시미래교육센터' 설치·운영 추진

• 지역사회 내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주민에게 신뢰 받는 공교육 혁신과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부천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논의구조 추진

• 추진경과

- 2020. 4. 부천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20. 5. 센터 운영에 대한 출연계획(안) 방침 결정(부천시)
- 2020. 7. 타 지자체 센터 운영사례 벤치마킹
- 2020. 7. ~ 센터 설치·운영 T/F 운영(부천시 평생교육과)
- 2020. 7. ~ 11. 센터 관련 시의회 보고(부천시 ⇨ 시의회)

• 부천 미래교육센터 설치 관련 TF 구성·운영(부천시 평생교육과 주최)

- 팀구성: 22명(다양한 지역교육 주체)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운영주체, 외부전문가, 유관기관, 부천교육지원청, 부천시
- 내용: 교육주체들과의 교육 협치를 통한 공통의 비전 및 목표설정, 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지역교육주체와의 협력 논의, 미래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청취와 방향 논의, 지역교육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교육주체별 역할 기능 정립, 학교 교육지원 관련 지역 자원 연결 및 협력방안,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부천씨앗길센터) 운영사항 관련,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센터 운영의 방향 제시,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공유, 기타 미래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부천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2차년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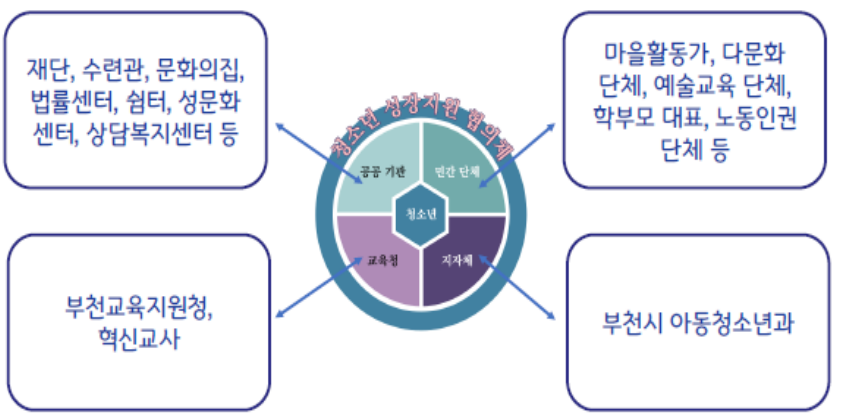


그림 Ⅳ-32 2020년도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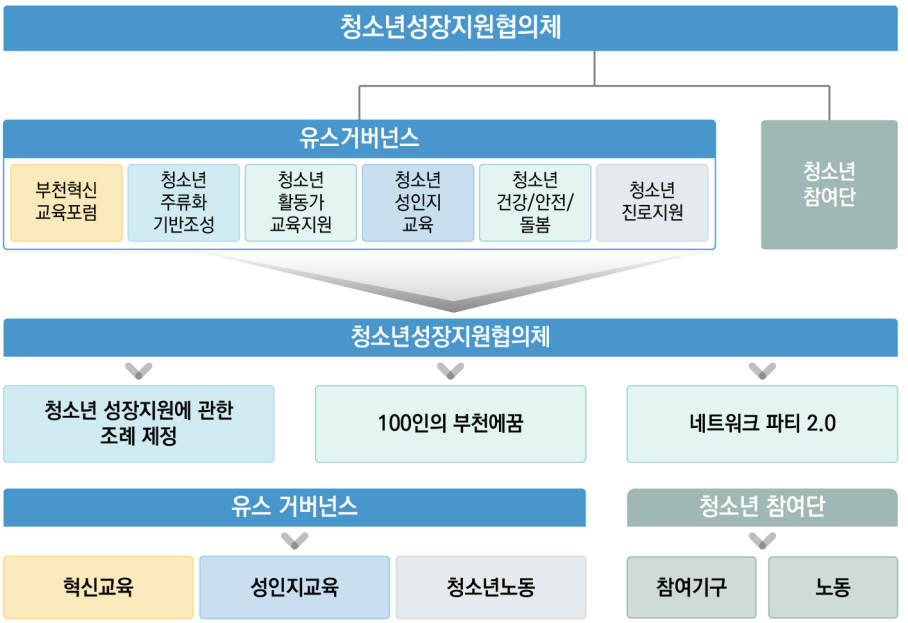


그림 Ⅳ-33 2020년도 부천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시범사업 운영 체계

부천시의 2020년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구성 방향은 기존이 공공영역 중심에서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민간 자원들을 협의체 신규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범사업 운영은 협의체를 중심으로 유스거버넌스와 청소년 참여단을 운영하였고, 사업 운영 내용으로는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00인 부천에꿈', 네트워크 파티 2.0을 추진하였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아동·청소년 전용공간을 마련하였고, 부천시미래교육센터 설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를 도출해냈다.

4. 사업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곡성

곡성은 노인 인구가 많아 지역 내 인프라가 노인 중심으로 되어있고 청소년의 인구 유출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위기의 해소를 위해 민·관·학이 협력하여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8년 하반기에 곡성군과 곡성교육지원청, 청소년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곡성미래교육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센터는 2020년 5월 곡성미래교육재단으로 확장되었다. 곡성미래교육협력센터에 곡성군, 교육지원청, 공공 청소년기관의 실무자들을 파견하여 2019년 부처 간 벽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와 2020년 곡성미래교육재단 설립을 통한 교육생태계 협력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곡성군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 II'는 성장지원의 중간조직(허브)기관인 곡성미래교육재단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협력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1차년도와 다른 2차년도 사업의 특징은 곡성미래교육재단과 사업이 연계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2차년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작년과 달리 전체가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축소된 공공거버넌스 영역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네트워크 사업이 비대면 또는 로컬텍트로 정의된 소규모의 네트워크로 변경·운영되는 과정에서 초기 사업계획과는 다르게 축소 운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과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축소되었으나 새롭게 분과를 조직해서 운영하였으며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계획했던 대면회의가 불가능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줄여 소규모로 만나고 비대면방식의 협력방식(언택트)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다.

둘째, 1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연계자원을 발굴하는 것은 유리하였지만, 행정과의 연계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 곡성군, 곡성교육청, 지역사회 등 영역 간 연계 ·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민 · 관 · 학 거버넌스인 곡성미래교육재단의 네트워크운영을 지원하고, 사업실행기관인 청소년기관의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정하여 정책실험을 진행하였다.

셋째, 소속부처 간 연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거버넌스 연계 측면에서 중간지원조직(곡성미래교육재단)을 통해 조율하는 시도는 연계사업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사업의 양이 늘어나면서 사업의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상호이해, 신뢰 등 협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

넷째, 석곡중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모델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상존한다. 기관과 개인이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로 협력하고 있는 측면과, 학교라는 틀이 가지는 한계에서 제한된 방식으로 실현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석곡중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청소년성장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력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법령과 해당 사업의 지침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령, 지침의 정비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비 이전에 협력을 막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연계 촉진을 위한 실무조직이 반드시 구성되어야만 부처의 벽허물기가 마을이라는 실행단위에서 실현 가능하다.

다섯째, 분과를 주관하는 네트워커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형태와 협력방식이 결정되었다. 이에 분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3차 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분과)네트워커의 협력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곡성군청소년성장협의체의 지역 전체 청소년성장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려다. 지난해 성장지원협의체 활동을 통한 교육미래재단이 출범하였고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재단의 실무조직도 행정과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의 청소년기관에서 파견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 운영 구조는 행정 중심이다. 특히 교육 중심과 행·재정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또한 교육의 중간지원 조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운영위원회도 지난해와 다르게 확대 운영되었으나 실제 모든 위원들이 지속적인 실무구조로서 참여 수준은 높지 않았다. 향후 재단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간의 업무 조율과 연계 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상호 운영 가치와 철학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청소년들의 협의체 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표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성장협의체의 위원 또는 공동위원장으로서 참여하게 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주체에 청소년참여는 필수다. 청소년참여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에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이며, 기성세대는 지지해 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그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며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며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다. 지역사회의 공공적 전달체계나 사업의 연계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환경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방안으로서 소규모, 언텍트 회의 구조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맞는 대변화의 과정으로 본 협의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차후 협의체 사업을 진행한다면 소규모의 네트워크 회의로 구조화된 사업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줌(Zoom), 스카이프(Skype) 등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를 통한 네트워크 진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온라인을 이용한 다양한 회의 및 소통 구조를 마련 적극적인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2) 유성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2차년도 사업운영과 협의체 운영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1차년도에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려는 시범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 집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차년도에는 유성구 지역사회의 특성을 활용한 네트워크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둘째,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간의 네트워크 개념이 아닌 청소년네트워크와 청소년지도자네트워크 간의 네트워크 개념 확장이다. 1차년도에는 협의체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다양한 지역 내 청소년 네트워크 관계자들의 이해에 주목하였다면 2차년도에는 실질적인 성장지원 수혜자인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이 연계되도록 1차년도에 제시한 청소년지도자네트워크와 청소년네트워크가 분과에서 만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였다.

셋째, 지역 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현안(문제, 제안 등)에 접근하여 이를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이다. 청소년 네트워크와 청소년지도자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현안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였다. 1차년도에 지역 청소년(중학생)이 제안한 '소외 지역 청소년 지역 축제 지원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되어 2천만 원이 유성구청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를 제안한 청소년을 자문과 기획단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2개 지역(관평동, 원신흥동)에 청소년지도자네트워크(유성구청소년수련관-관평중-함지박마을공동체, 장대청소년문화의집-학마을공동체-인근학교)를 통해 청소년축제기획단을 마을에서 구성하여 실시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가 되지 못하였지만 매우 긍정적이고 향후 기대되는 사업이다.

넷째, 이러한 실질적인 청소년 현안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분과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현안에 다가가서 해결하고 지원하는 노력은 향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실질적 효과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안전망(CYS-net)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지역 청소년안전망을 파트너로 삼아 실질적인 지역 청소년의 삶 속에서 운용될 수 있는 연계와 통합운영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유성구청소년수련관에서 중심에서 실시하였던 1차년도에서 접근할 수 없었던 다양한 시각으로 함께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중심에 청소년이 위치하도록 하였던 점이다. 올해는 청소년연합회 5개 분과네트워크 10개 영역 19개 요구과제, 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2개 영역 8개 요구과제, 청소년참여위원회 12개 요구과제, 유성구어린이청소년의회 13개 요구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지역 유성구 청소년들의 참여(문제의식, 제안 등)를 통하여 풀어가려는 청소년 중심적인 부분에서 의의가 있고, 청소년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들이 단순히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한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여섯째, 청소년과 청소년관계자 네트워크에서 실질적인 성장지원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일반 주민들의 네트워크 참여의 장을 확대해야 한다. 성인 네트워크인 청소년 관계자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성장지원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분과 네트워크 참여는 공공시설, 기관, 단체 소속 지도자 중심으로 치우쳐 운영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향후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주민들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체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성장지원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외연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성장지원을 위한 내실화 작업이 필요하다.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네트워크나 협의체는 어떤 상관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2차년도에서의 외연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추진체계 내실화를 위한 방안과 행정적 추진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지속적인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 조직과 사업을 지역 내에서 끊임없이 이어가려는 운동적인 동기부여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1,2차 년도를 거치면서 지자체 및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되고 있지만, 유성구청이나 의회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청소년 성장지원'이 목적이어야 한다. Network(Net + Work)는 '그물망'으로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 촘촘함(집합성)과 튼튼함(관계성) 그리고 유연함(자유성)을 가져야 한다.[34] 촘촘함(집합성)은 그물망의 간격이 좁을수록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의미한다. 튼튼함(관계성)은 그물망의 세기가 강할수록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네트워크 관계가 견고함을 의미한다. 유연함(자유성)은 네트워크의 입출입이 자유로울 때 상황에 따른 청소년 성장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는 이상 제시한 확장성과 견고함 그리고 지원성을 갖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이를 위해 향후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4) 양은일(2016). 2016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자료집.

3) 부천

부천의 시범사업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기반의 확대이다. 기존 공공영역 중심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을 민간영역으로 확장하여 구성함으로써 실행에서 통합적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2017년 푸른모임 이후 흩어져 있던 시설 중심의 정책들을 재단 중심으로 민·관·학을 아우르는 플랫폼 형태의 지역 중장기 정책을 마련)을 제시하고 제도적 근거(청소년의 주체적 참여로부터 제안하는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조례 등)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지역의 이슈와 과제를 파악하고 도출하는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상시적 논의 구조를 만들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집행기구로 청소년성장지원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100인의 부천에꿈'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을 함께 고민하는 부천시민 100인을 발굴하여 청소년 주류화 인식제고를 위한 청소년 영역의 이해관계자의 폭을 넓히는 성과를 얻었다. 한편, SNS를 통한 홍보 방식은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성인 중심의 네트워크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들어와 지역에 존재를 알리는 효과가 있었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다양한 영역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를 선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참여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성과를 이루어 냈다.

둘째, 소통을 통한 의제발굴과 사회적 책임 강화이다. 2019년 시범사업 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공동과제와 유스거버넌스 단위 과제를 분리하여 실행함으로써 지역의제 해결을 위한 실행력을 향상시켰다. 유스거버넌스는 6개의 영역(혁신교육, 청소년 주류화 기반 조성, 청소년활동가 교육지원, 청소년 성인지 교육, 청소년 건강 · 안전 · 돌봄, 청소년 진로지원) 중 3개 영역(혁신교육, 성인지 교육, 청소년 건강 · 안전 · 돌봄,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가동하였다.

한편, 민간(시민단체, 학부모 시민 등)이 주도하고 재단이 협업하는 부천형 혁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혁신교육네트워크는 2019년 지역사회 비형식교육 포럼으로 시작하여 민간단체의 주도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적 실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마을에서 청소년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학교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학교에 가더라도 불안한 환경을 소규모 학습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마을에서 진행되는 교육으로 충분한 학습의 효과를 이루는 부천형 혁신교육 체계를 마련하였다.

성인지교육네트워크는 부천시 청소년 보호·복지시설을 포함하여 경기도청소년재단협의회 등 청소년 사업에 성인지 관점 적용으로 지역 간 연대를 포함, 전반적인 청소년 사업의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에 개발한 청소년 성인지 관점 적용사업 매뉴얼을 재단 내 청소년기관은 의무적 사용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 성인지 관점, 성평등 프로그램(2019년 여성가족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우수상 수상_부천시청소년수련관 '성의식 격차는 이렇게 바꾼다.' 등)개발하여 운영한 사례를 도출하였다.

또한 청소년 근로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추진하는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지역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차원에서 도출될 수 있는 현안 과제(부천시청소년노동인권 조례 이행점검, 청소년노동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를 발굴하였다. 청소년 참여단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라 활동의 제약들이 많아 직접 운영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사업들을 지역 활동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간접 참여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청소년 참여단 중 참여기구의 경우, 부천시 청소년시설 명칭 변경의 현안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조사하여 변경에 대한 적극 참여와 의견 반영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온라인을 통해 추진하였다. 대면으로 추진할 수 없는 연합 프로젝트 활동을 부천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에서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네트워크 파티 2.0’은 당초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네트워크 활동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추진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및 프로젝트 활동의 일정 변경 등으로 청소년활동가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동가의 이야기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하였다. ‘삼인행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_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주제로 동료로부터 배움을 실천하고, 지역의 청소년활동가들의 참여활동 관점에서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참여문화를 조성하였다. 더불어, 코로나19 시대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한 청소년활동가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감정카드 사용, 간식키트 제공 등의 재미요소를 접목시킨 활동이 진행되었다.

셋째,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과 관련하여 먼저 ‘청소년 참여 증진을 위한 조례’,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등 조례의 목적, 정의를 고려한 조례 명칭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중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는 문제로 참여예산제 등 청소년 참여권 관련 조례의 조항 내용에 지자체 차원의 의무이행 조항 추가를 제안하였다. 청소년 성장지원 조례의 경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의견과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 지역에 맞는 형태의 조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 반영 과정을 형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천시와 부천시 청소년전담관을 주축으로 오정구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였다. 오정지역 청소년 카페 설치,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정센터 이전,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다함께 돌봄센터 및 Wee센터 관련하여 재단 내 실무자를 포함한 지자체, 교육청 등 TF팀 구성으로 청소년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되었다. 또한 ‘부천시미래교육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 지자체, 재단, 민간활동가, 학부모 등과 TF를 구성하여 설립 관련 기획 회의를 추진하였다. 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과 더불어 향후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면밀히 검토되어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과 논의를 통해 방향성을 마련하였다.

부천시의 경우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을 플랫폼으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청소년 기관 및 시설 간 네트워크 연계를 위해 부천시와 교육청까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끌었으며, 2020년 민간영역까지 협의체를 확장하여 운영하였다. 재단이 주축이 되는 구조가 아닌 지역 차원에서 청소년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의 구조로서 안착되어 가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회의와 지역 청소년 의제 발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성공 경험을 축적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부천시에 적합한 성장지원 관련 조례가 제(개)정 될 수 있도록 공동과제로 이행점검 하고자 한다.

또한 2020년 3개 영역(혁신교육네트워크, 성인지교육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유스거버넌스는 향후 지역에서 지속적인 운영과 실천이 되도록 지원하며, 그 외의 집중 가동될 수 있는 영역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소년 참여단의 경우 코로나19로 추진되지 못한 대면 활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가동할지 논의하고 청소년 참여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 참여단이 구성하여 성장지원에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천시 유스거버넌스 운영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단의 사업으로 성과가 도출되는 것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지역 청소년 현안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파티 2.0’은 청소년활동가들의 만남의 장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 활동에 대한 평가사항을 반영한 환류체계를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 청소년성장지원실무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부천시와 교육지원청이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사회 청소년 주류사회 참여를 위한 정책개발과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 시범사업 운영 지역 대상 네트워크 분석

1) 시범사업 운영지역의 기관 참여 네트워크 분석 방법

시범사업 운영지역으로 선정된 세 지역(전라남도 곡성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을 중심으로 지리정보체계(G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기반의 지리정보 분석과 협의체 참여 기관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GIS 지리분석기법은 공간상에 나타난 대상의 지리적 여건과 속성을 바탕으로 거리나 밀집정도, 근접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범사업 운영지역별 참여기관의 분포와, 협의체 참여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범사업 운영지역 및 분석방법과 기준은 전년도와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방법론을 채택하여 진행하였다.

지리정보 분석을 위해 지역별 환경 분석을 토대로 시범사업 운영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의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특히 기관의 위치, 분포, 밀집도 등을 파악하였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을 학교, 교육기관, 교육지원청, 청소년기관, 청소년참여기구, 지자체, 상담복지, 의료기관 등 15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별 참여현황과 양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의 참여기관 리스트를 통해 지역별 청소년 관련 기관의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관련 기관의 주소를 기반으로 지리적 분포와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주소에 따른 위도 경도 좌표정보를 GoogleMap API의 GeoCoding[35]을 사용하여 추출하고, AwesomeTable을 활용하여 지리적 분포를 확인하였다. 기관분류에 따른 기관의 위치는 R의 ggplot2[36]를 활용하여 지도에 시각화하였다.

---

35) Google Maps Geocoding API: developers.google.com/maps-platform/places
36) ggplot2: https://ggplot2.tidyverse.org/

이후, 참여기관의 현황을 바탕으로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협의체 기관의 특성에 따라 협력 유형과 연계를 살펴보았다. 시범사업 운영 지역 내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소속된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 과정에 대해 시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세 개 시범사업 운영 지역의 협의체 회의 참석 현황과 시범사업 운영 기간 동안의 기관과 단체 간의 교류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지역 단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와 활동으로 한정하였으며, 전년도의 연구를 기준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의 경우, 4개월 동안 총 6회의 회의에 대해 회의 참석여부에 따른 협의체 네트워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2020년 수집된 데이터의 경우, 자료의 대상기간이 10개월로 확대되었고 회의의 형태와 횟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의 단위를 월별로 변경하였다. 다음 〈표 Ⅳ-23〉은 시범운영사업기관 대상으로 협의체 소속 기관별 회의 참석 현황을 기록한 것의 일부로, 참석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참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월별 협의체의 시계열 네트워크 변화를 파악하였다.

표 Ⅳ-23 지역 내 청소년기관 및 시설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코딩 예시

참여회의명	회의주최기관	차시	회의날짜	참석자 기관	참석기관 영역
회의1	A	1차시	2020.07.15	B	교육지원청
				C	학교
회의2	A	2차시	2020.07.30	D	지자체
				E	청소년기관
회의3	B	3차시	2020.08.11	A	상담복지
				E	청소년기관

〈표 Ⅳ-23〉의 예시를 살펴보면 기관A에서 2020년 7월에 주최한 회의에 교육지원청B와 학교C가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2차 회의에서는 기관A와 지자체D, 청소년기관E가 참여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기별로 회의에

참여한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간적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전년도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월별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참여패턴과 상호작용의 형태를 시계열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분석 패키지인 igraph[37]를 사용해 협의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gephi[38]로 시각화하여 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또한, 시범운영사업지역에서 운영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연계협력 내용에 따라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협의체 간에 교환되는 자원의 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관정보공유, 물적자원 교류,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협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기관에 따라 협력을 받는 기관과 협력을 하는 기관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음 〈표 Ⅳ-24〉는 지역 내 청소년기관 및 시설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데이터 코딩의 예시이다. 특정 기관이 상대기관에 협력을 하였을 때는 'OUT', 협력을 받았을 때는 'IN'으로 표시하여 상호작용의 방향을 파악하였다. 〈표 Ⅳ-24〉의 예시를 살펴보면, 기관A는 외부기관인 B로부터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는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참여기관 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표 Ⅳ-24 지역 내 청소년기관 및 시설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코딩 예시

기관명	상호기관명	상호작용 유형	IN/OUT*	기간	상호작용내용
A	B	프로그램협력	IN	2020.9~12	찾아가는 성교육 지원
A	C	물적자원교류	OUT	2020.1~7	개인상담실 대여
D	E	인적자원교류	OUT	2020.3~7	학습상담자 양성교육 참여

* IN(내향): 협력을 받는 상호작용, OUT(외향): 협력을 주는 상호작용

37) igraph: https://igraph.org/
38) gephi: https://gephi.org/developers/

2) 지리정보 기반 시범사업 운영지역의 참여기관 분석

본 장에서는 시범사업이 운영된 세 지역(전라남도 곡성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의 참여기관 현황과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전년도에 수행한 해당 지역들에 대한 지리적 특성 분석과 행정구역에 대한 일반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참여기관과 시설의 현황과 지리적 분포, 그리고 전년도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은 총 40개로 경찰서, 교육, 교육지원청, 돌봄, 상담복지, 청소년기관, 학교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Ⅳ-25〉는 곡성군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현황을 나타낸다. 곡성군의 청소년 관련 기관 중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것은 학교로 나타났으며, 협의체 참여에 따라 구분했을 때는 상담복지 관련 기관 6곳과 교육관련 기관 4곳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9년 곡성군의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은 총 26개소로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40개소로 기관 및 시설 수가 증가하였다. 이 중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시설은 19개, 미참여는 21개로 나타났다.

표 Ⅳ-25 곡성군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참여현황

협의체 참여여부	경찰서	교육	교육지원청	돌봄	상담복지	청소년기관	학교	합계
참여	-	4	1	1	6	2	5	19
미참여	1	2	-	7	-	-	11	21
합계	1	6	1	8	6	2	16	40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에 수행된 지리정보체계 분석에 따라 곡성의 동북부(곡성읍), 서부(옥과면), 남부(죽곡면, 석곡면)를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과 시설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다음 [그림 Ⅳ-34]와 [그림 Ⅳ-35]는 곡성군 청소년기관 및 시설의 전체적인 분포와 세부지역을 나타낸다.

곡성군 내의 학교와 행정기관이 위치한 곡성읍을 중심으로 많은 청소년기관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그림 Ⅳ-34]에서 숫자로 표시된 지역은 한 주소에 두 개의 기관이 함께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곡성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센터'는 '곡성청소년문화의집'에 위치하고 있기에 같은 곳으로 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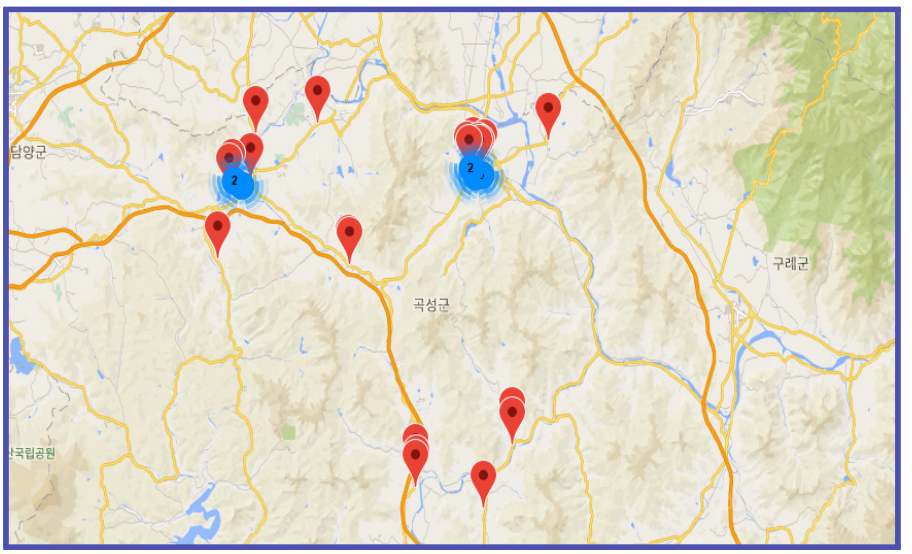


그림 Ⅳ-34 곡성군 협의체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전체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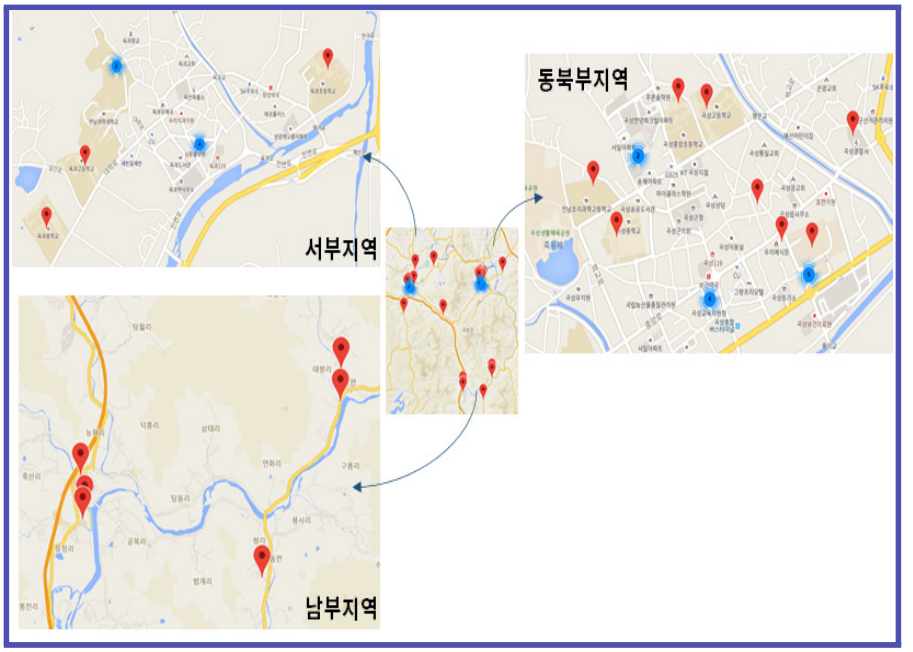


그림 Ⅳ-35 곡성군 협의체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세부지역

주요 지역별로 청소년기관 및 시설의 유형과 그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Ⅳ-36], [그림 Ⅳ-37] 및 [그림 Ⅳ-38]과 같다. 먼저 동북부 지역을 살펴보면, 주요기관이 곡성읍의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매우 밀접하게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교와 상담복지 관련 기관이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었다. 서부지역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학교와 상담복지 관련 기관, 돌봄 기관이 밀집해있었으며, 남부지역 또한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동부북부 지역과 서부지역에 대부분의 기관이 몰려있으며, 남부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청소년관련 기관의 밀집도가 떨어져 지역별 편차가 존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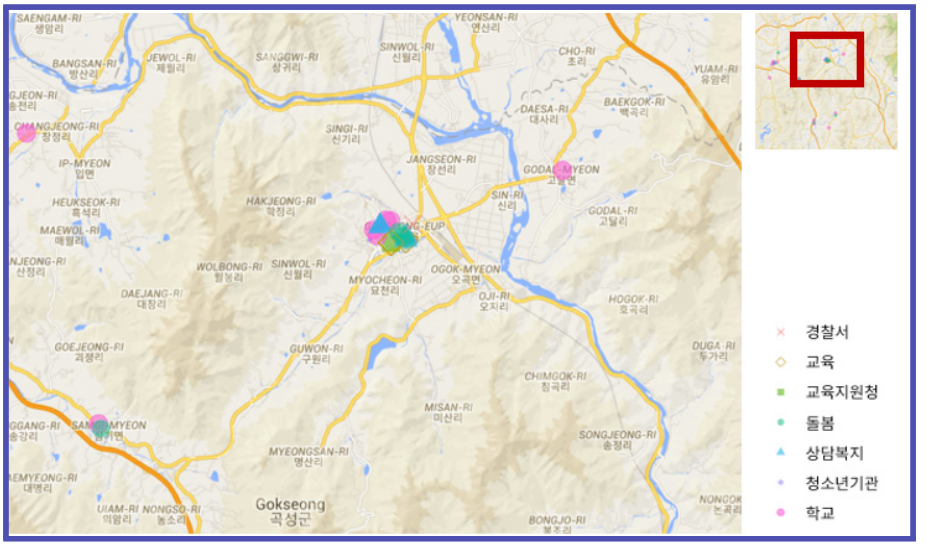


그림 Ⅳ-36 곡성군 협의체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동북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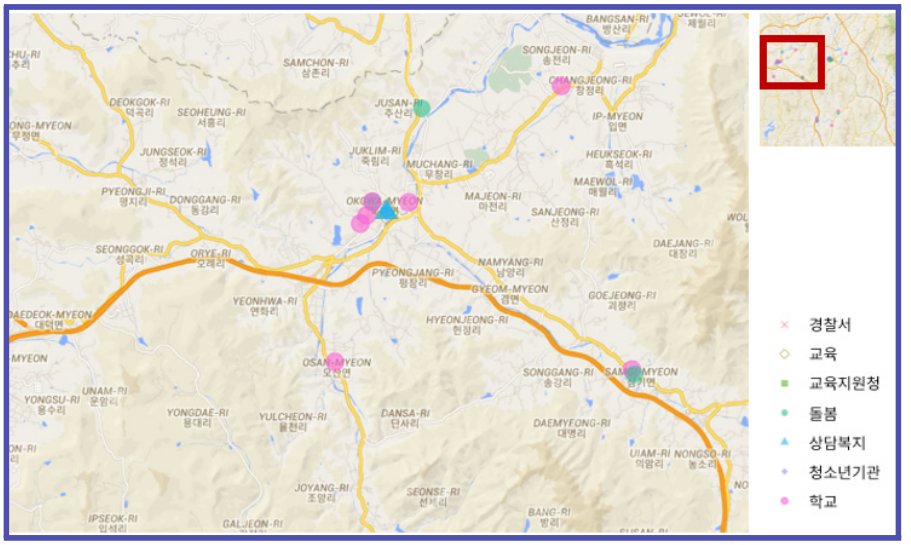


그림 Ⅳ-37 곡성군 협의체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서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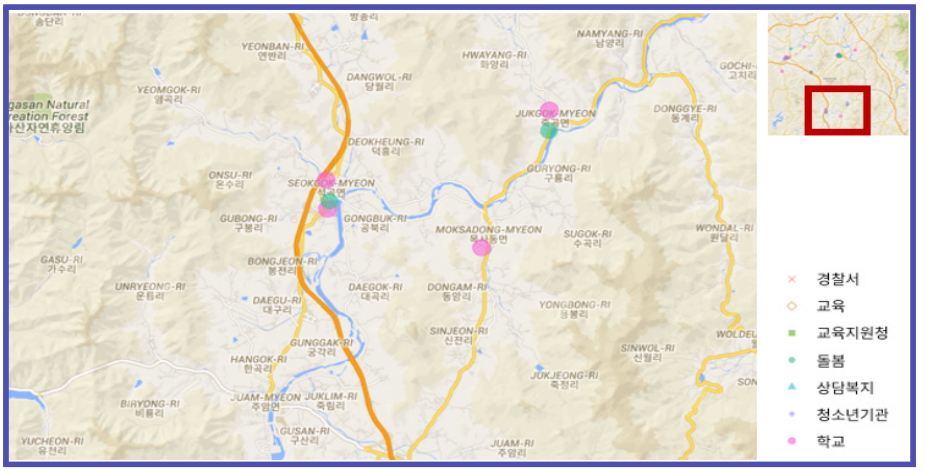


그림 Ⅳ-38 곡성군 협의체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남부지역

앞서 살펴본 지역별 편차는 전년도 분포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39]는 2019년도와 2020년도의 곡성군 청소년기관 및 시설의 분포이다. 좌측의 전년도 분포와 우측의 분포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의 위치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는 곡성군의 인구밀집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상황이 그대로 협의체 운영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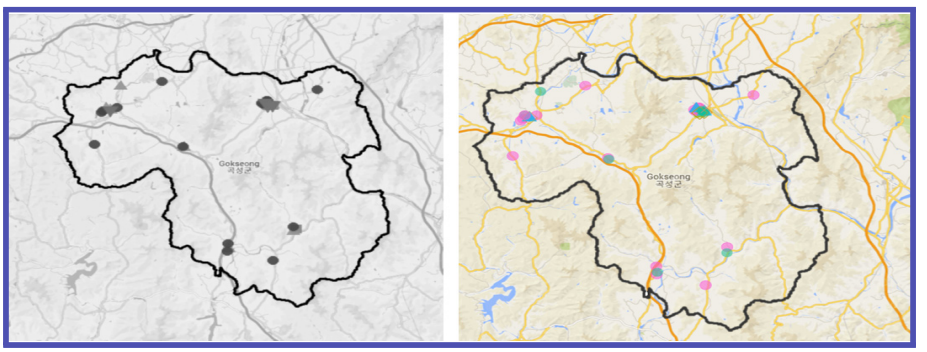


그림 Ⅳ-39 곡성군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좌:2019년, 우:2020년)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 유성구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시설은 총 110개소로 기관유형별 참여현황은 다음 〈표 Ⅳ-26〉과 같다. 전년도의 결과(111개)와 비교하였을 때, 청소년 관련 기관과 시설 수의 변하는 크지 않았다. 이들 기관이나 시설 중 도서관이나 의료기관 등이 새롭게 협의체에 참여하였다. 곡성군과 비교하였을 때,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의 특징이 반영되어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기관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사업체들(기타로 분류)의 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26 유성구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참여현황

협의체 참여여부	경찰서	교육	도서관	돌봄	상담 복지	의료 기관	지역 단체	청소년 기관	청소년 참여 기구	학교	기타	합계
참여	1	4	1	8	9	3	14	12	1	9	21	83
미참여	-	3	-	5	4	-	4	3	-	-	8	27
합계	1	7	1	13	13	3	18	15	1	9	29	110

[그림 Ⅳ-40]의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지리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유성구를 중심으로 하여 협력기관들이 대전광역시 전반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그림 Ⅳ-42]에서 유성구의 청소년관련 기관과 시설의 분포를 알 수 있는데, 유성구 지역을 여섯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지리정보체계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였으며, 관평동, 전민동, 장대동, 신성동, 원신흥동, 대정동 부근 영역에 기초하여 관내 지자체, 교육지원청, 유성구의회, 학교, 청소년기관 및 시설, 지역단체 등의 위치 분포를 확인하였다. 지리적으로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유성구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이 행정기관들과 근접한 위치의 신성동과 장대동 일대에 상당히 많은 수의 청소년 관련기관이 위치하고

있었다. 전년도의 결과와 유사하게, 유성구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생활권역이 공통되어 있는 서구의 청소년기관들 또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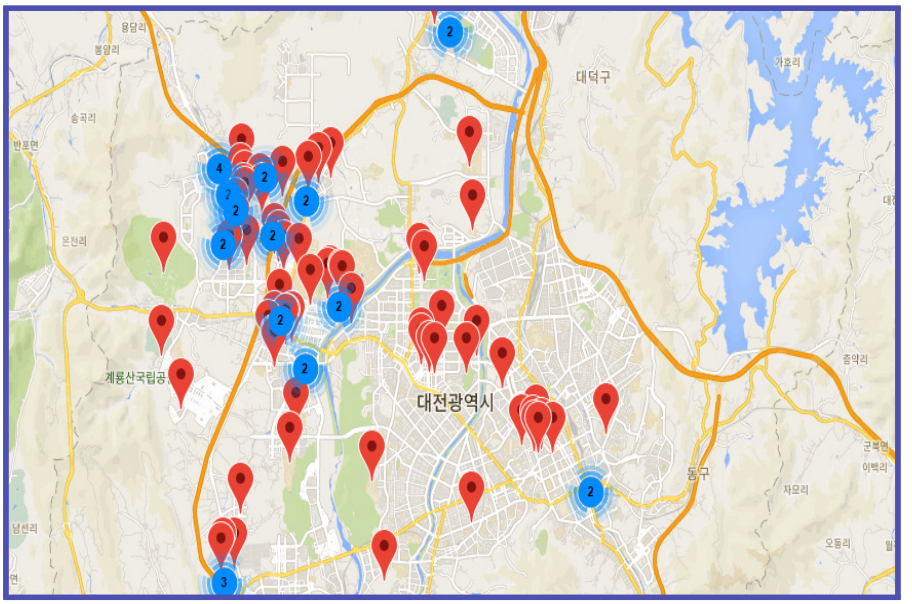


그림 Ⅳ-40 유성구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전체지역

전체적으로 유성구 북부에 해당하는 관평동 일대 [그림 Ⅳ-42]와 전민동 일대 [그림 Ⅳ-43]은 상대적으로 청소년관련 기관이 적게 나타났다. 관평동은 학교를 중심으로 상담복지기관과 지역단체가 가깝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전민동은 청소년기관과 관련 대학교에 위치한 지역기관만이 위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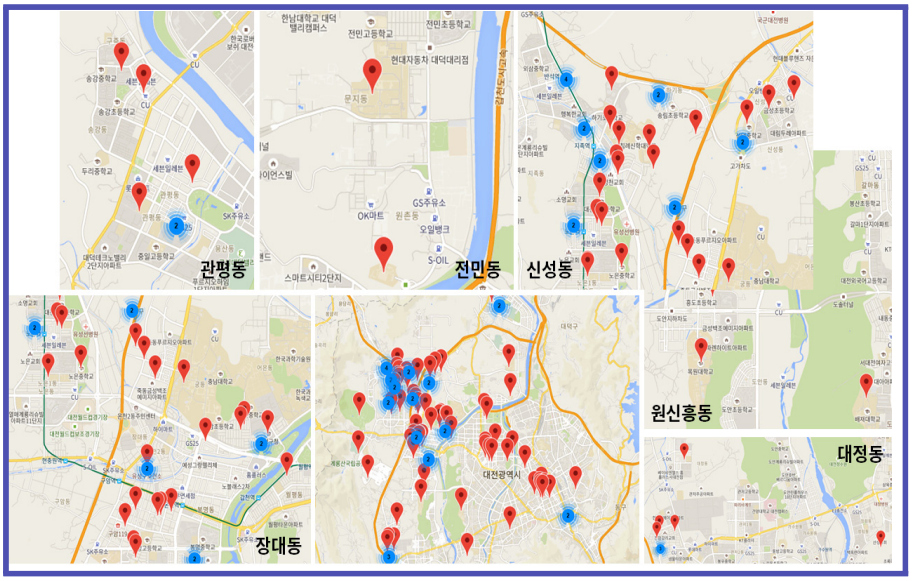


그림 Ⅳ-41 유성구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세부지역



그림 Ⅳ-42 유성구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관평동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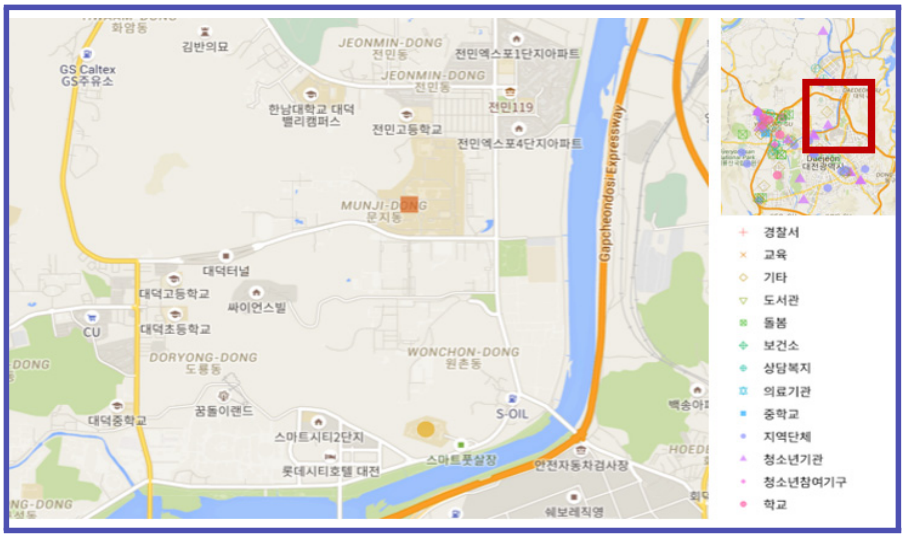


그림 Ⅳ-43 유성구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전민동 일대



그림 Ⅳ-44 유성구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장대동 일대



그림 Ⅳ-45 유성구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신성동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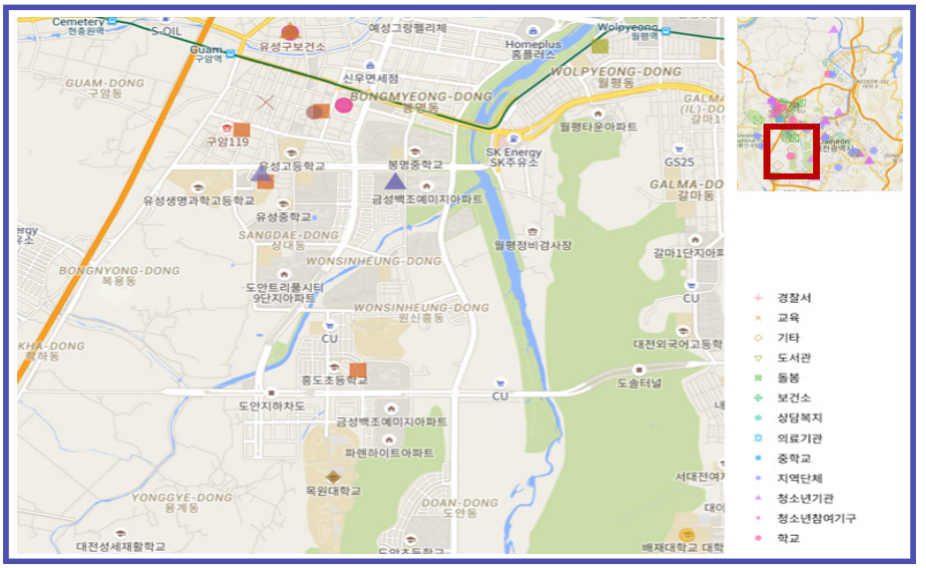


그림 Ⅳ-46 유성구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원신흥동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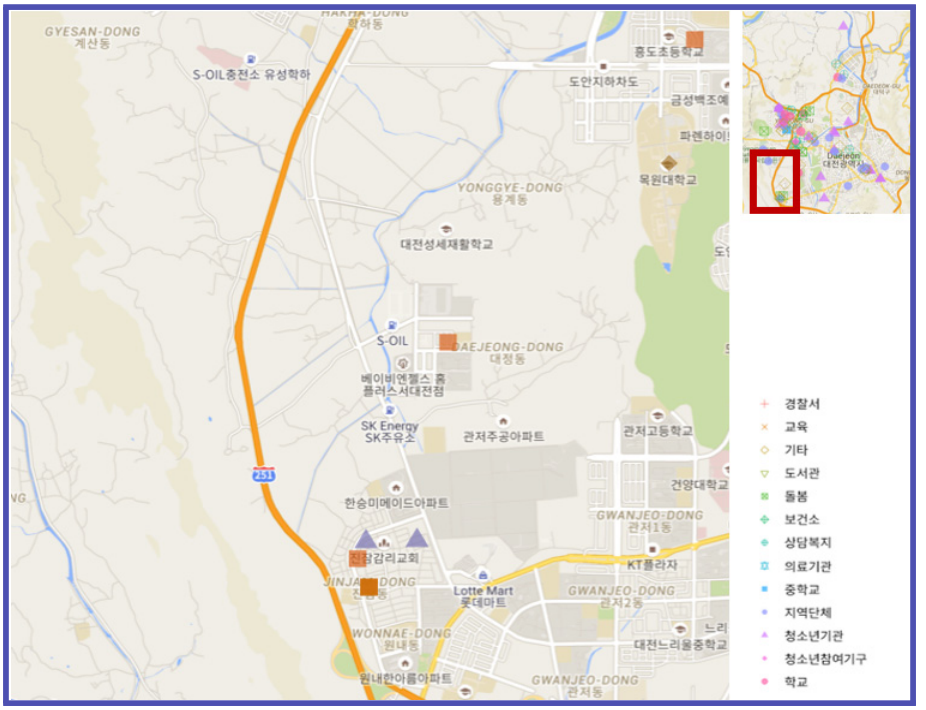


그림 Ⅳ-47 유성구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대정동 일대

반면, 유성구청과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장대동 일대 [그림 Ⅴ-44]와 신성동 일대 [그림 Ⅳ-45]의 경우, 관련 기관들이 비교적 밀집하게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근은 유성구의 중부권역으로 상당수의 학교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관련 기관과 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었다.

남서부에 위치한 원신흥동 일대 [그림 Ⅳ-46]과 대정동 일대 [그림 Ⅳ-47]은 위에 언급한 장대동 및 신성동 일대의 기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밀집도가 떨어졌으나, 돌봄 관련 기관들이 지역 내에 전반적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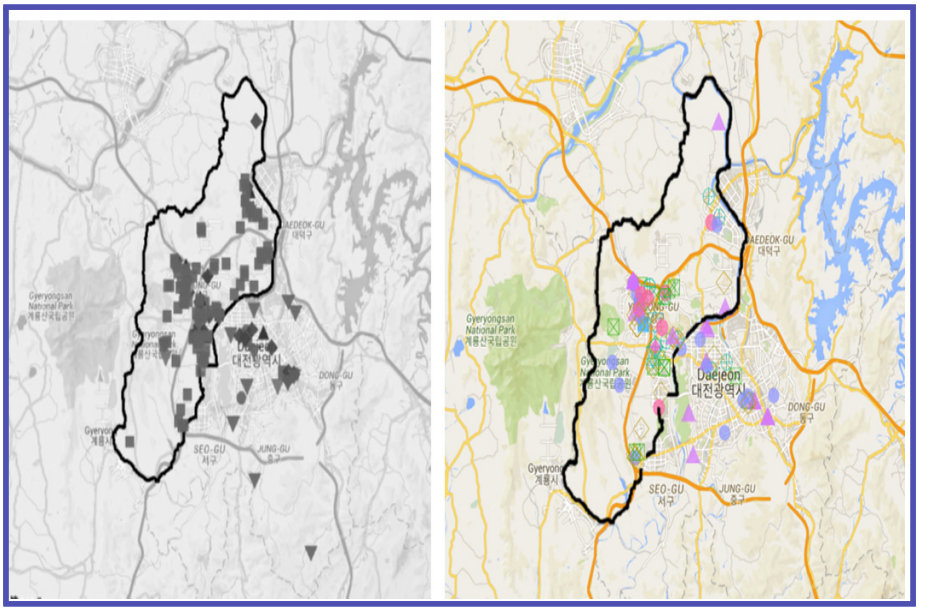


그림 Ⅳ-48 유성구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좌:2019년, 우:2020년)

유성구의 2019년 시설의 분포와 2020년의 분포를 비교해보았을 때(참고: [그림 Ⅳ-48]), 이전 연도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기관들이 유성구의 중앙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부근의 기관들을 중심으로 대전 전역의 청소년 관련기관과 교류하고 있었다.

(3)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기관 및 시설은 총 34개로 나타났으며 유형별 현황은 다음 〈표 Ⅳ-27〉과 같다. 청소년기관과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7 부천시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참여현황

협의체 참여여부	교육	도서관	돌봄	상담복지	지역단체	지자체	청소년기관	학교	기타	합계
참여	-	1	1	2	5	2	6	-	-	17
미참여	2	1	-	1	2	1	7	1	2	17
합계	2	2	1	3	7	3	13	1	2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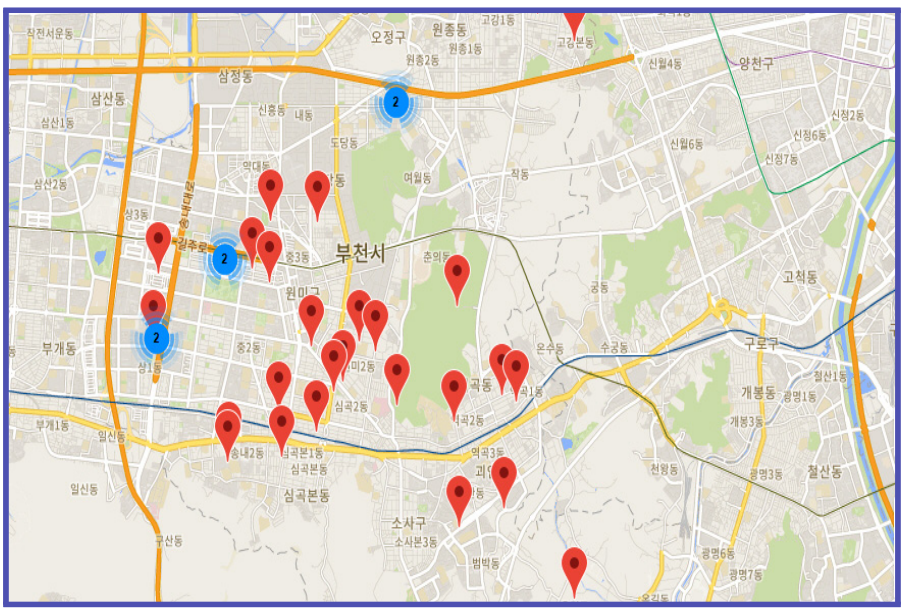


그림 Ⅳ-49 부천시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전체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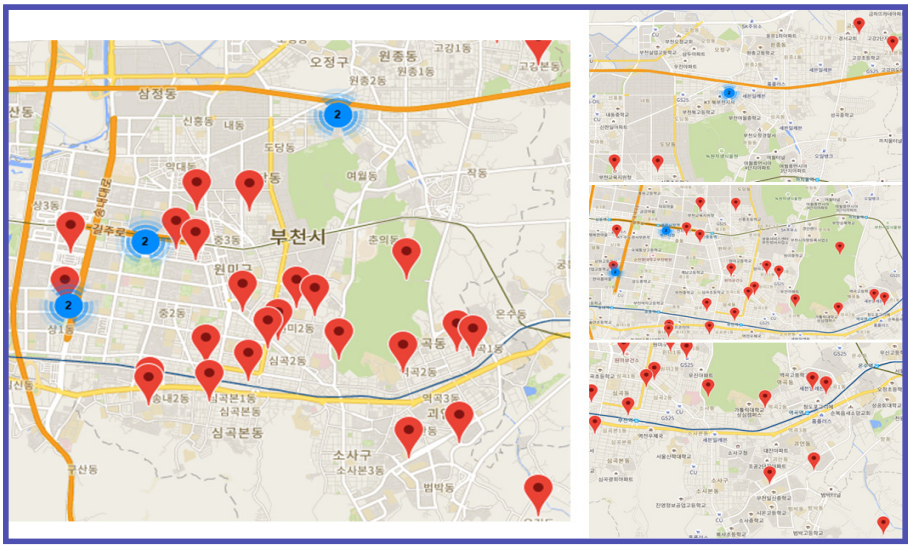


그림 Ⅳ-50 부천시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세부지역



그림 Ⅳ-51 부천시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오정구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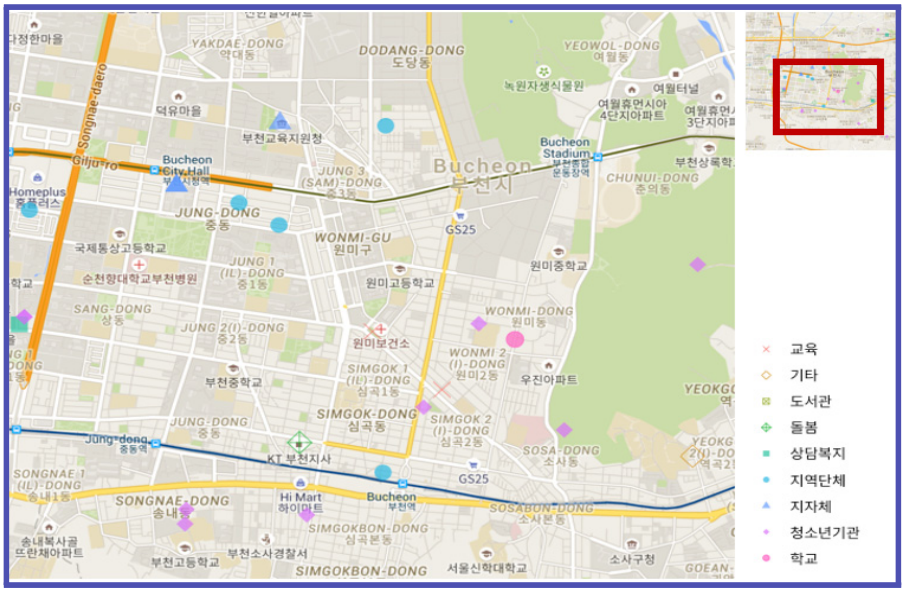


그림 Ⅳ-52 부천시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원미구 일대



그림 Ⅳ-53 부천시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 소사구 일대

부천시 전반에 걸친 청소년기관 및 시설의 분포를 살펴보면 부천시 전역에 걸쳐 관련 기관들이 분포하고 있다(참고: 그림 Ⅳ-49]). 세부 권역별로 오정구 일대 (참고: [그림 Ⅳ-51]), 원미구 일대 (참고: [그림 Ⅳ-52]), 소사구 일대 (참고: [그림 Ⅳ-53])로 나누어 살펴보면, 청소년관련 기관들이 한쪽 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형별로도 한 기관유형에 몰려있지 않고 학교와 지역단체, 청소년기관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특히, 원미구 일대에 부천시청과, 교육지원청,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청소년기관과 학교, 돌봄 기관 등이 고루 위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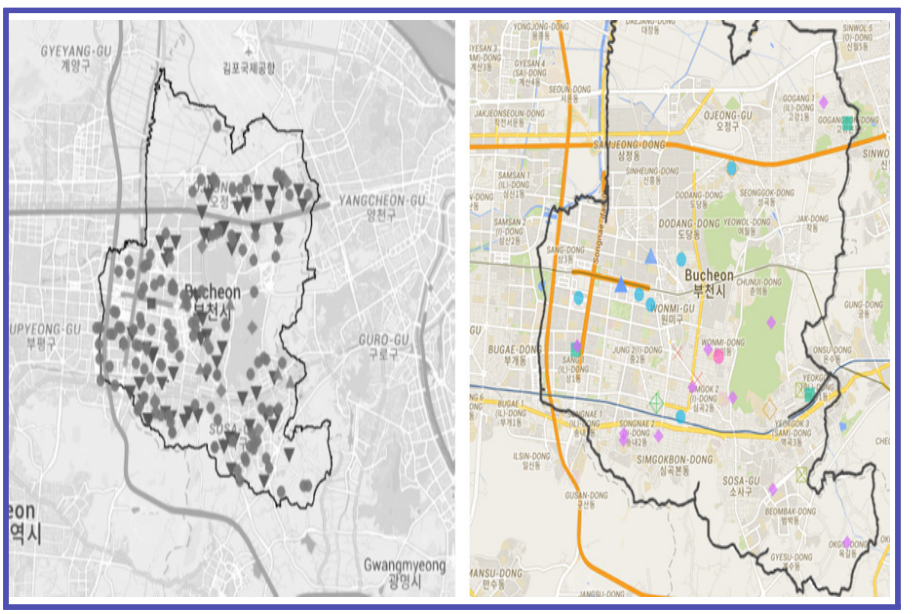


그림 Ⅳ-54 부천시 협의체 관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좌:2019년, 우:2020년)

전년도와 기관의 분포를 비교하였을 때에는 부천시의 청소년기관 분포가 적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전년도의 부천시 청소년기관 조사

에서 초·중·고등학교 123개소를 모두 포함하여 지리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협의체와 관련된 청소년기관의 분포만을 파악하였기에 전년도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학교 이외의 유형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3) 시범사업 운영 지역 대상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분석

본 장에서는 시범운영사업 기간 동안 세 지역에서 이루어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활동을 네트워크로 분석하였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여부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 기관 간의 교류 횟수를 파악하고 기관의 해당 영역을 바탕으로 관계성을 시각화하여 살펴보았다.

(1)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군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의 경우, [그림 Ⅳ-55]에 나타나 있듯이 교육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곡성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센터와 곡성진로체험지원센터와 청소년기관인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복지기관인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옥과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기관인 곡성청소년문화의집 등을 중심으로 회의 네트워크가 구축된 것을 알 수 있다.

전년도에는 옥과중학교, 석곡중학교, 곡성고등학교와 같은 학교를 중심으로 협의체 회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번연도에는 석곡중학교만이 협의체 회의에 참여하였고, 진로체험 관련 교육기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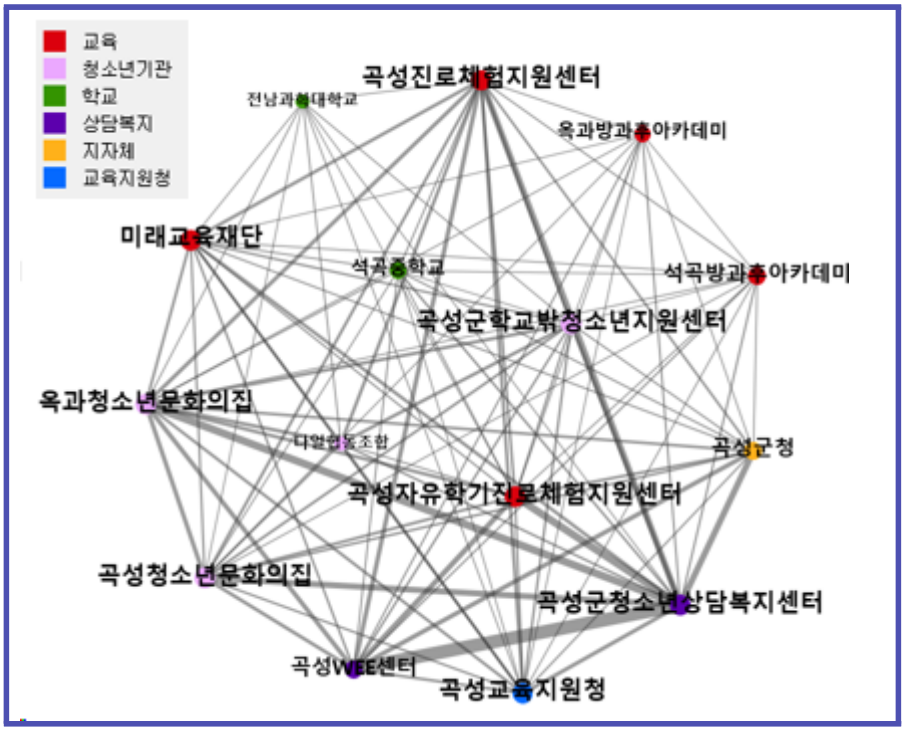


그림 Ⅳ-55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네트워크

표 Ⅳ-28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네트워크 밀집도(15개 기관 기준)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밀집도	0.029	0.143	0.200	0.267	0.629	0.267	0.429	0.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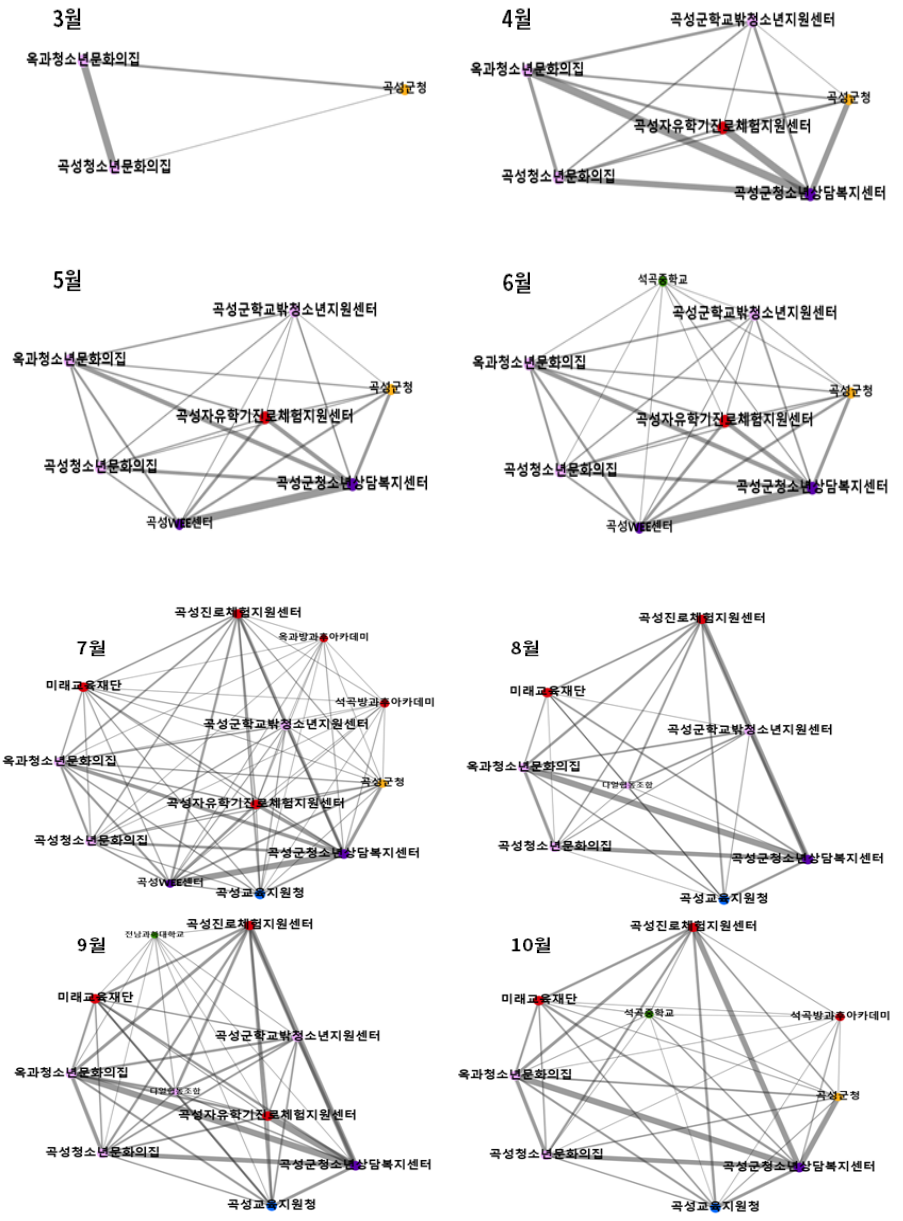


그림 Ⅳ-56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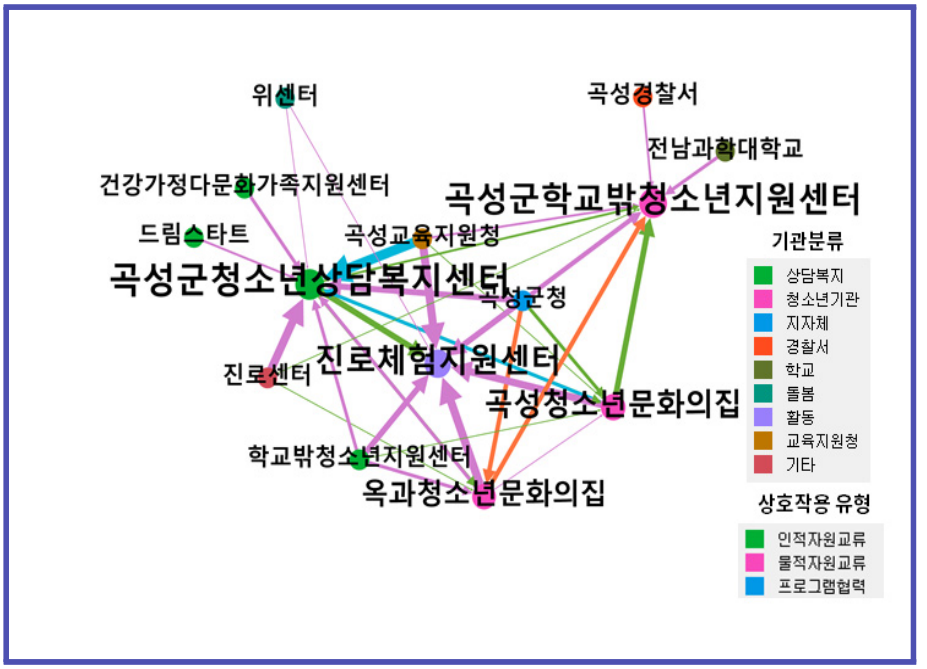


그림 Ⅳ-57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IN) 네트워크

다음은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기관 간의 상호작용을 시행한 횟수와 유형에 따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교류의 형태에 따라 기관정보 공유, 물적 자원교류, 인적 자원 교류, 프로그램 협력 등의 유형으로 상호작용을 분류하였으며, 협력을 받은 경우의 네트워크(IN)와 외부의 기관에 협력을 한 경우의 네트워크(OUT)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Ⅳ-57]은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협력을 받은 사항을 네트워크로 표현하였으며,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곡성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협력을 받고 있었다. 특히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경우, 주로 물적 자원을 다양한 외부 기관들로부터 협력 받고 있으며, 인적 자원 교류나 프로그램 협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부에 협력을 하였던 상호작용에 관한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참고: [그림 Ⅳ-58]), 곡성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곡성청소년문화의집, 옥과청소년문화의집이 외부의 기관에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로의 협력 유형을 살펴보면, 인적 자원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청소년기관에서 외부의 기관으로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 협력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적 자원 교류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관련 기관, 지자체로부터의 협력은 물적 자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청소년기관으로부터의 협력은 주로 인적 자원 교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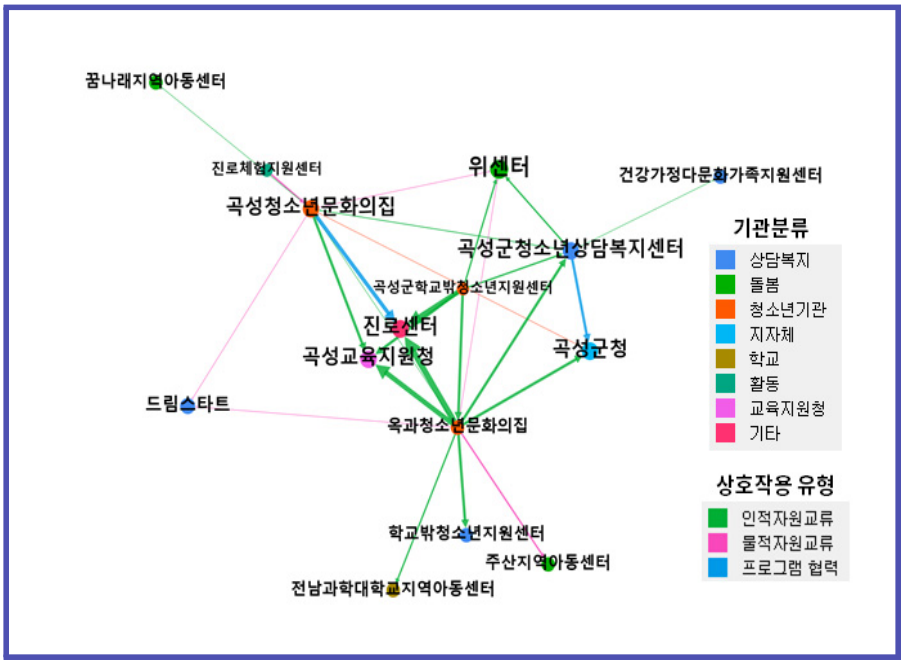


그림 Ⅳ-58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OUT) 네트워크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음 [그림 Ⅳ-59]는 유성구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회의 참여 네트워크를 나타낸다. 곡성군과 비교했을 때 매우 다양한 기관들이 협의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부에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등 청소년기관과 상담복지기관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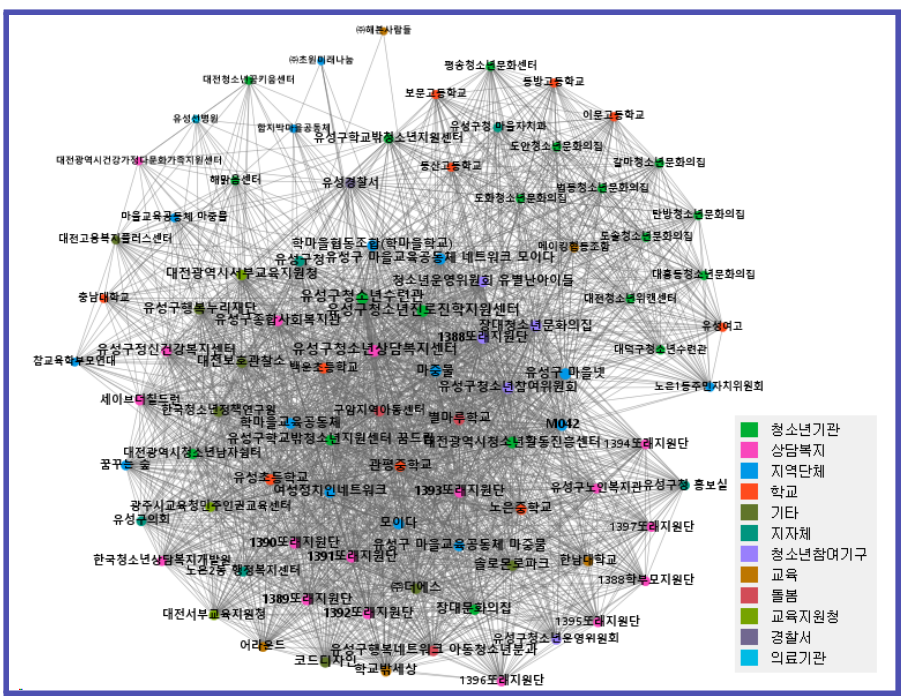


그림 Ⅳ-59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네트워크

[그림 Ⅳ-60-A, B]는 시기별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회의 참여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것이다. 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시기별로 네트워크의 변화를 살펴보면, 2월에는 유성구청과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회의가 이루어졌다.

3월에 회의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와 같은 교육지원청, 청소년기관과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상담복지기관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후, 7월, 8월 9월에는 참여기관들이 대폭 확대되어 각 시기별로 20개 이상의 기관들이 회의에 참여하여 교류를 이어나갔다. 네트워크 밀집도 역시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참고: 〈표 Ⅳ-29〉).

표 Ⅳ-29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참여 네트워크 밀집도(91개 기관 기준)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밀집도	0.001	0.022	0.007	0.004	0.071	0.136	0.208	0.257	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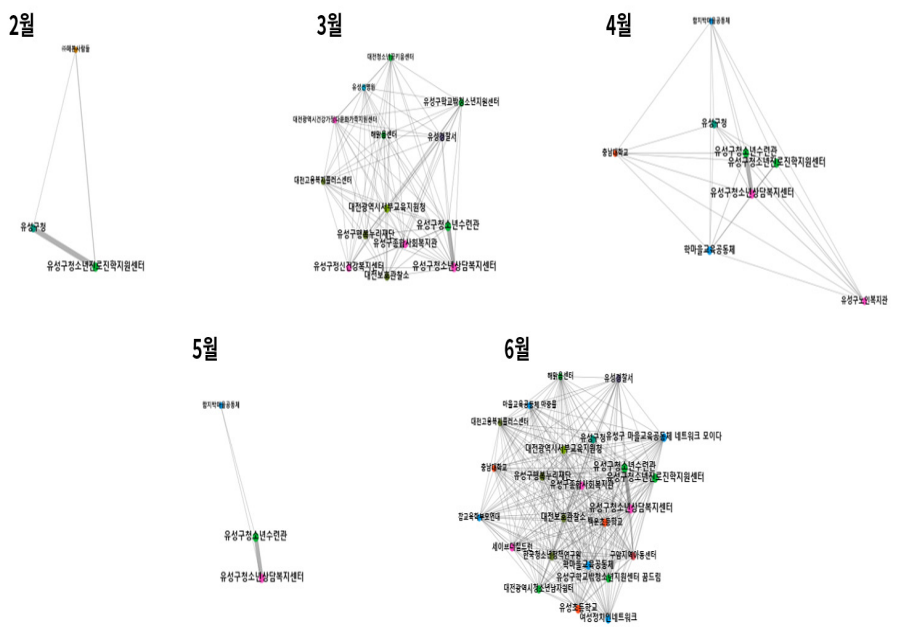


그림 Ⅳ-60-A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변화(2월~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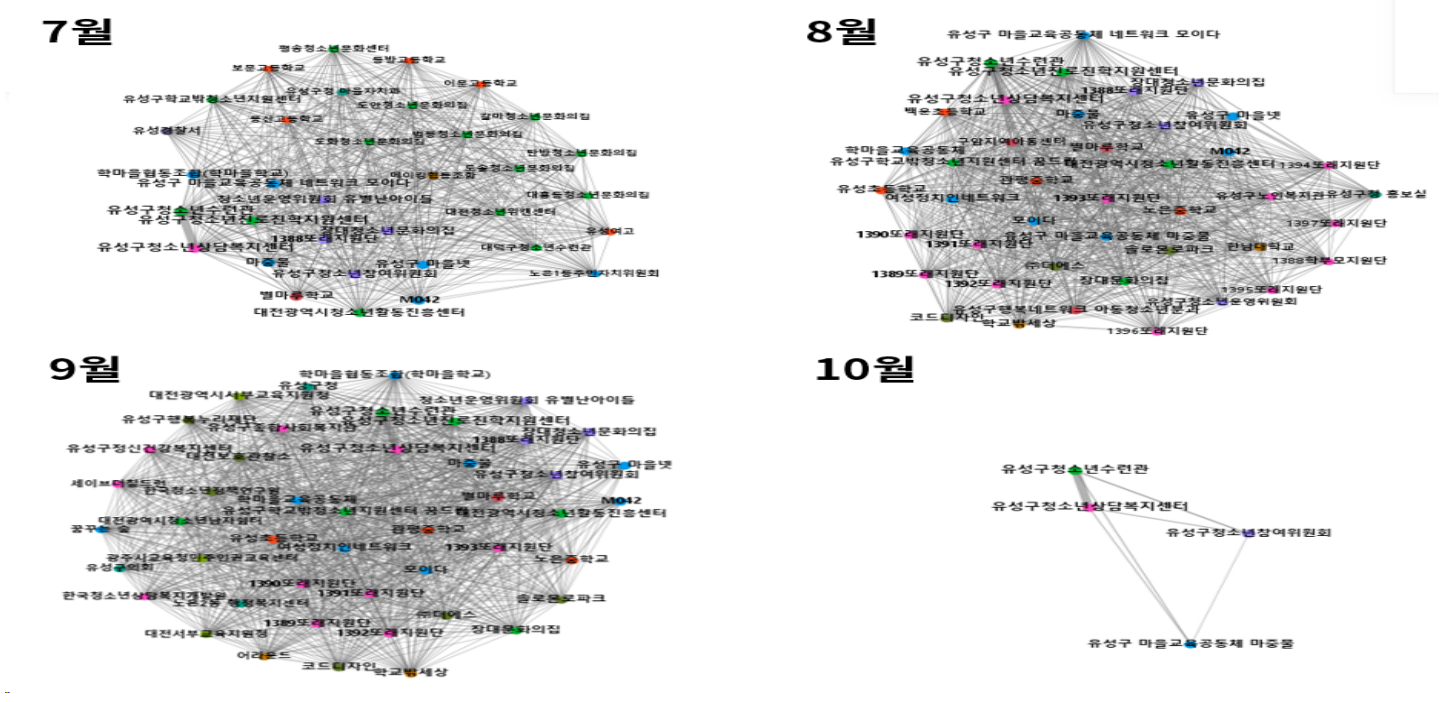


그림 Ⅳ-60-B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변화(7월~10월)

외부 기관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협력을 받은 관계를 나타낸 [그림 Ⅳ-61]을 살펴보면 유성구청소년수련관과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로 협력이 쏠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성구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주로 프로그램 협력의 형태로 협력을 받고 있었으며, 기관정보 공유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기관정보 공유가 압도적으로 많은 형태의 협력 유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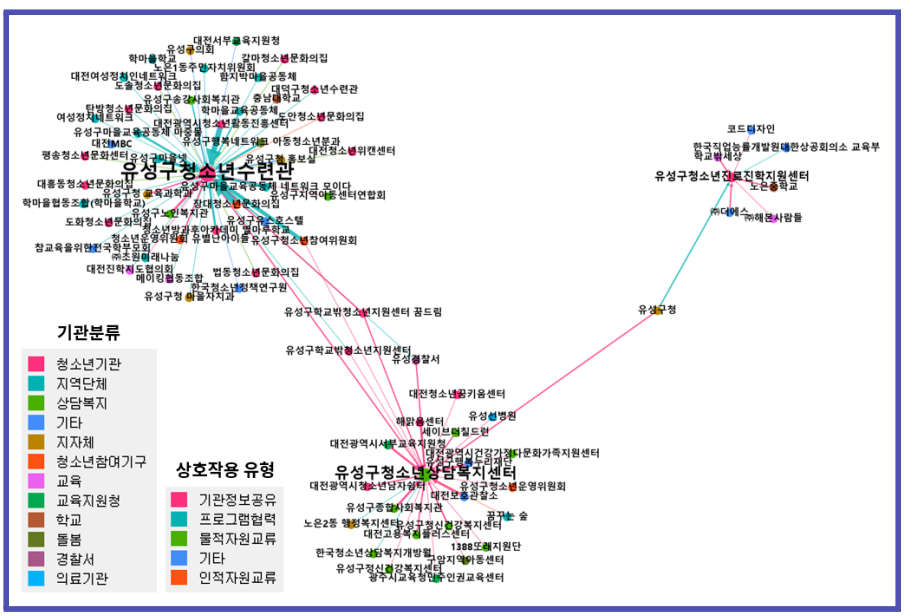


그림 Ⅳ-61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IN)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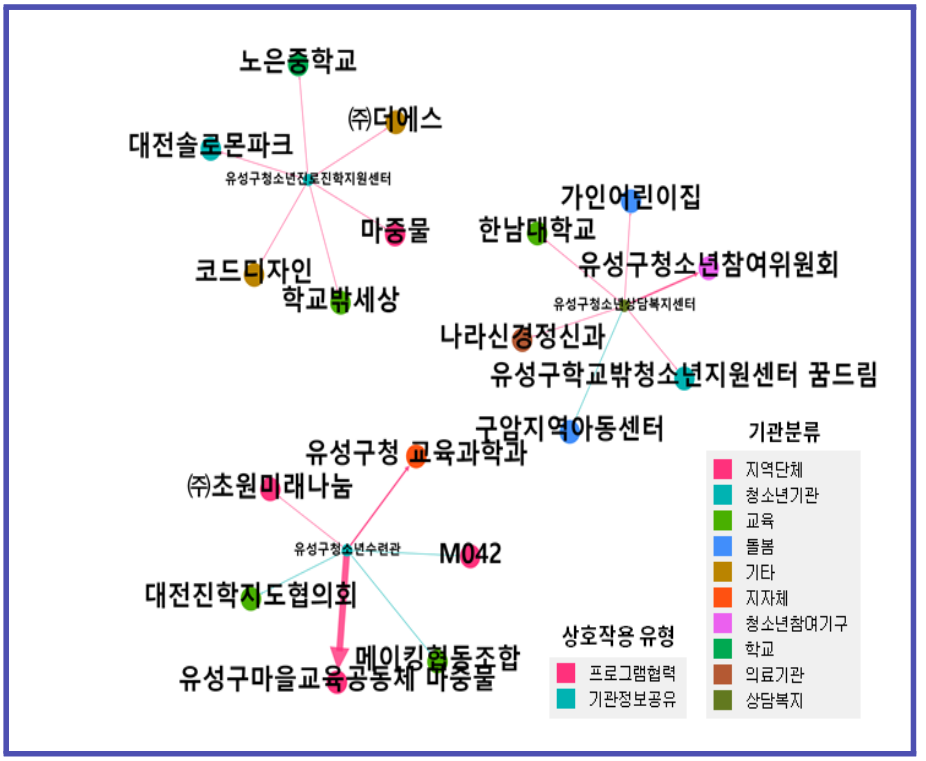


그림 Ⅳ-62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OUT) 네트워크

외부로 협력을 하는 경우에도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협력의 내용 또한 프로그램협력이 상당히 많았으며, 특히 유성구청소년수련관으로부터 유성구마을교육공동체 마중물로의 프로그램협력 상호작용이 상당히 여러 번 이루어진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유성구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학교, 청소년기관,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으로 프로그램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돌봄관련 기관, 대학교, 의료기관 등의 여러 형태의 기관과 협력이 이루어졌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유성구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프로그램협력을 통해 외부에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⑶ 경기도 부천시

다음 [그림 Ⅳ-63]은 부천시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네트워크로 청소년기관인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이 활발한 회의참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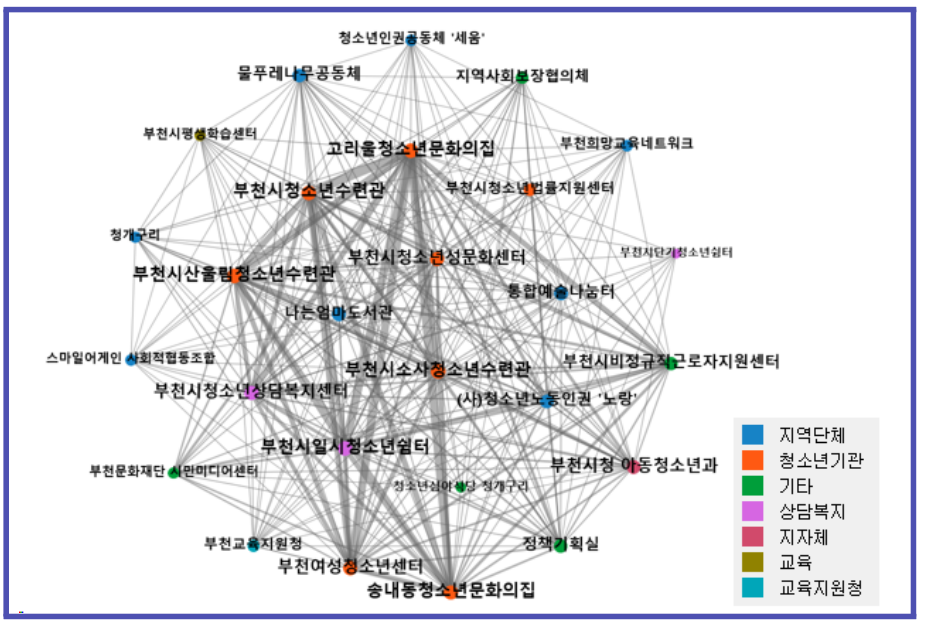


그림 Ⅳ-63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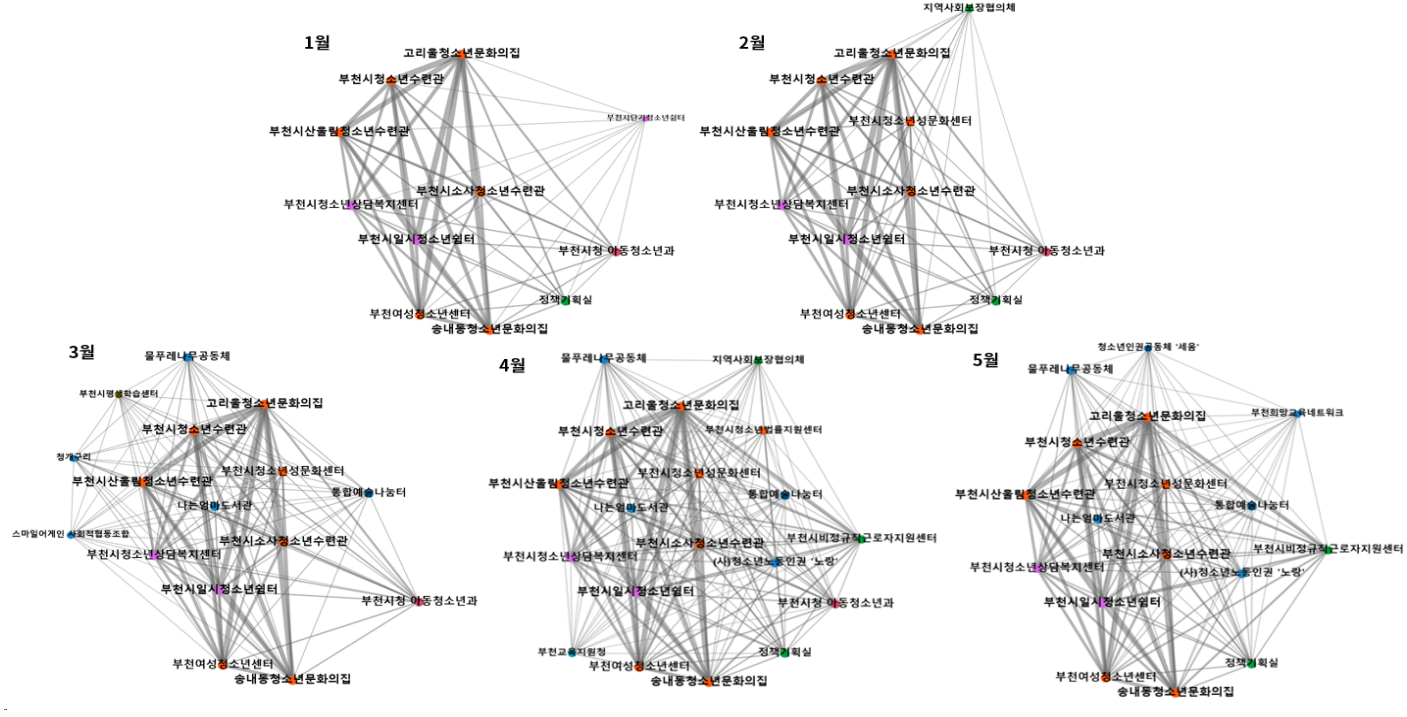


그림 Ⅳ-64-A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변화(1월~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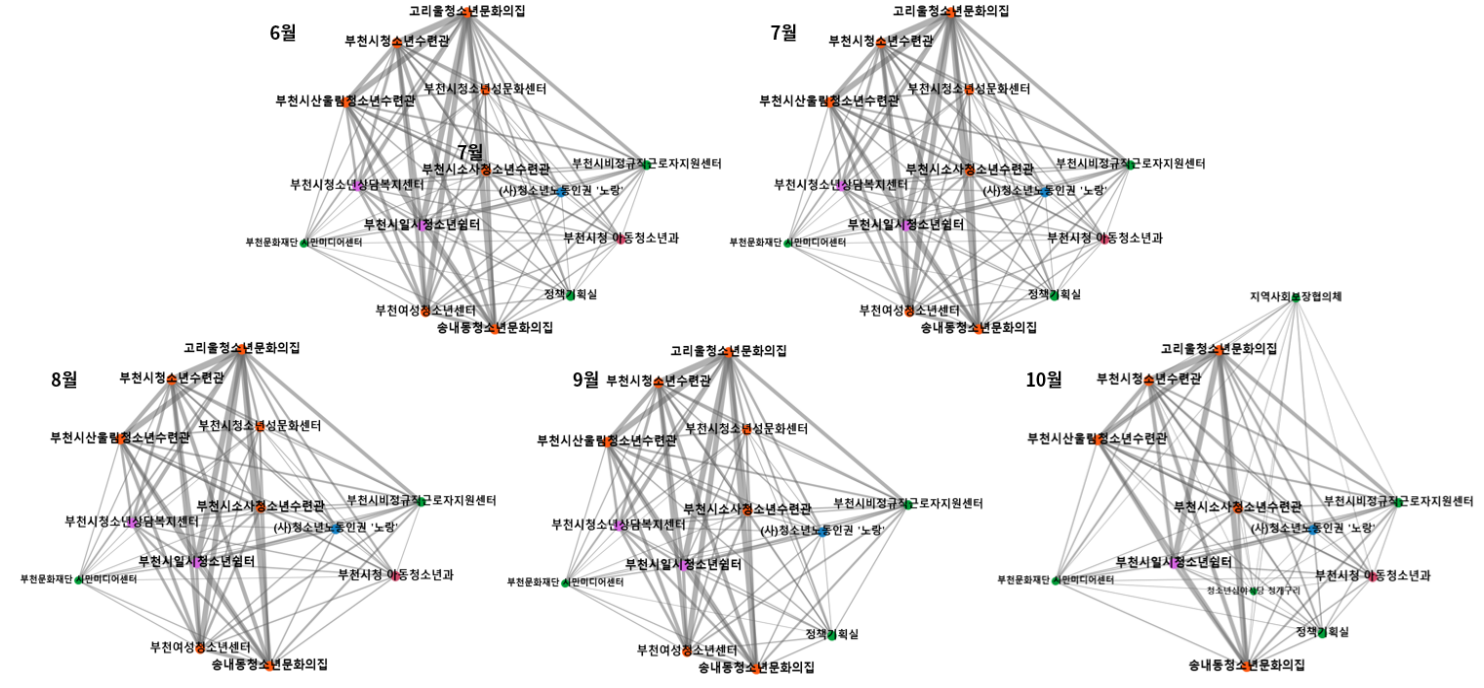


그림 Ⅳ-64-B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변화(6월~10월)

1월부터 10월까지의 회의참여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시기별 큰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었으며 대체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회의에 참여하는 횟수는 달랐지만, 전체적으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은 거의 모든 시기에 참여했으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와 같은 상담복지 기관의 참여 또한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의 밀집도(참고: 〈표 Ⅳ-8〉) 측면에서는, 1월, 2월을 제외하고 모두 0.2 이상의 네트워크 밀집도를 나타냈다. 모든 기관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1로 보았을 때, 회의참여를 통해 평균적으로 월별 75번 이상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Ⅳ-30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네트워크 밀집도(27개 기관 기준)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밀집도	0.157	0.188	0.342	0.487	0.387	0.259	0.259	0.222	0.222	0.222

[그림 Ⅳ-65]는 부천시의 상호작용유형에 따른 협의체 네트워크를 시각화 한 것으로, 중앙에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단정책기획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천여성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협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프로그램협력이 주된 협력내용으로 나타났으며,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물적 자원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외부로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경우 다음(참고: [그림 Ⅳ-66]),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로 나타났으며, 이 기관들은 다시 다양한 외부기관으로 협력을 하고

있었다. 협력내용은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협력으로 나타났으나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기관정보 공유와 물적 자원 교류의 협력 또한 이루어졌다. 특히, 이들 기관들이 외부로 협력을 하는 상호작용을 할 경우, 주로 지역사회의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협력이 이루어지거나 인적 자원을 파견하는 형태의 협력이 일어났다.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는 부천가정폭력상담소, 행복가정폭력상담소, 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 등과 같은 상담복지, 돌봄기관과의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천시의 협의체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시설들인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같은 청소년기관과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적극적인 회의참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 기관 간의 내향, 외향 상호작용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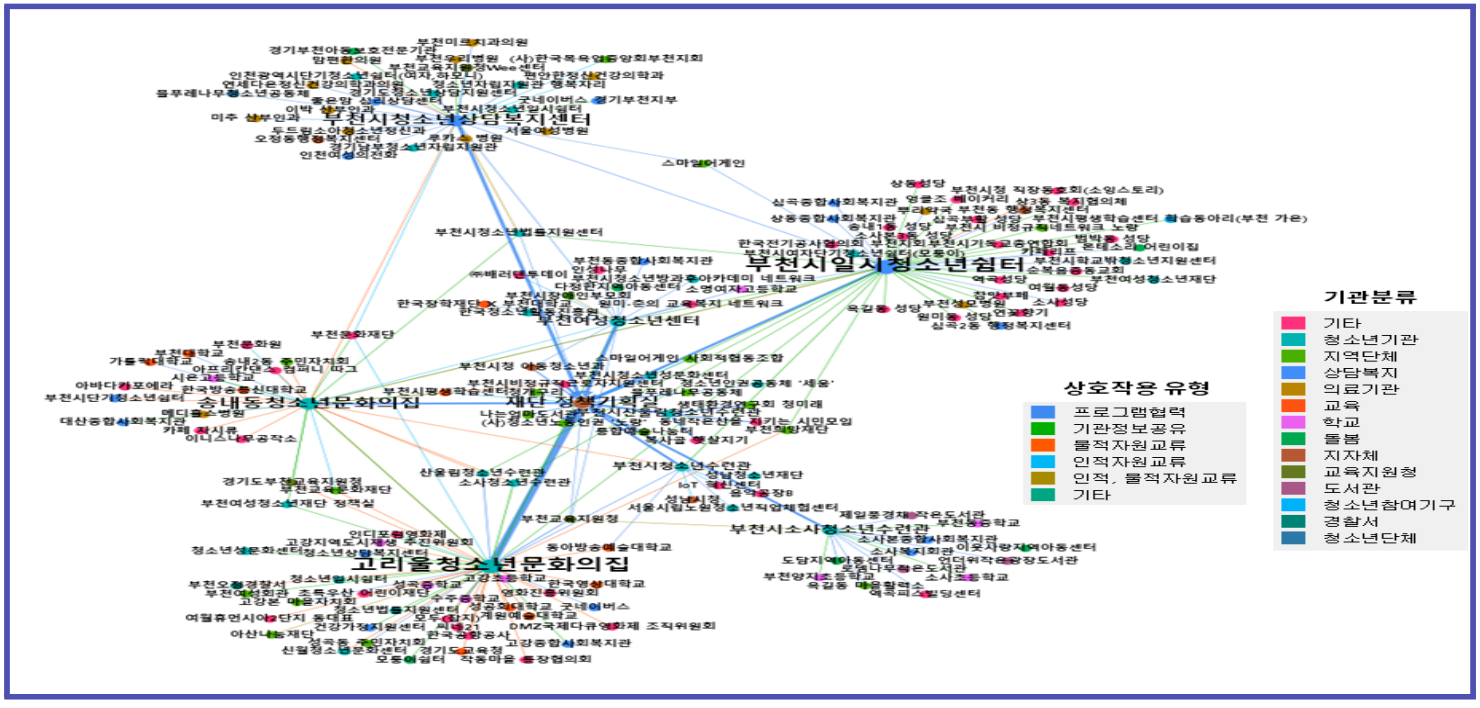


그림 Ⅳ-65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IN)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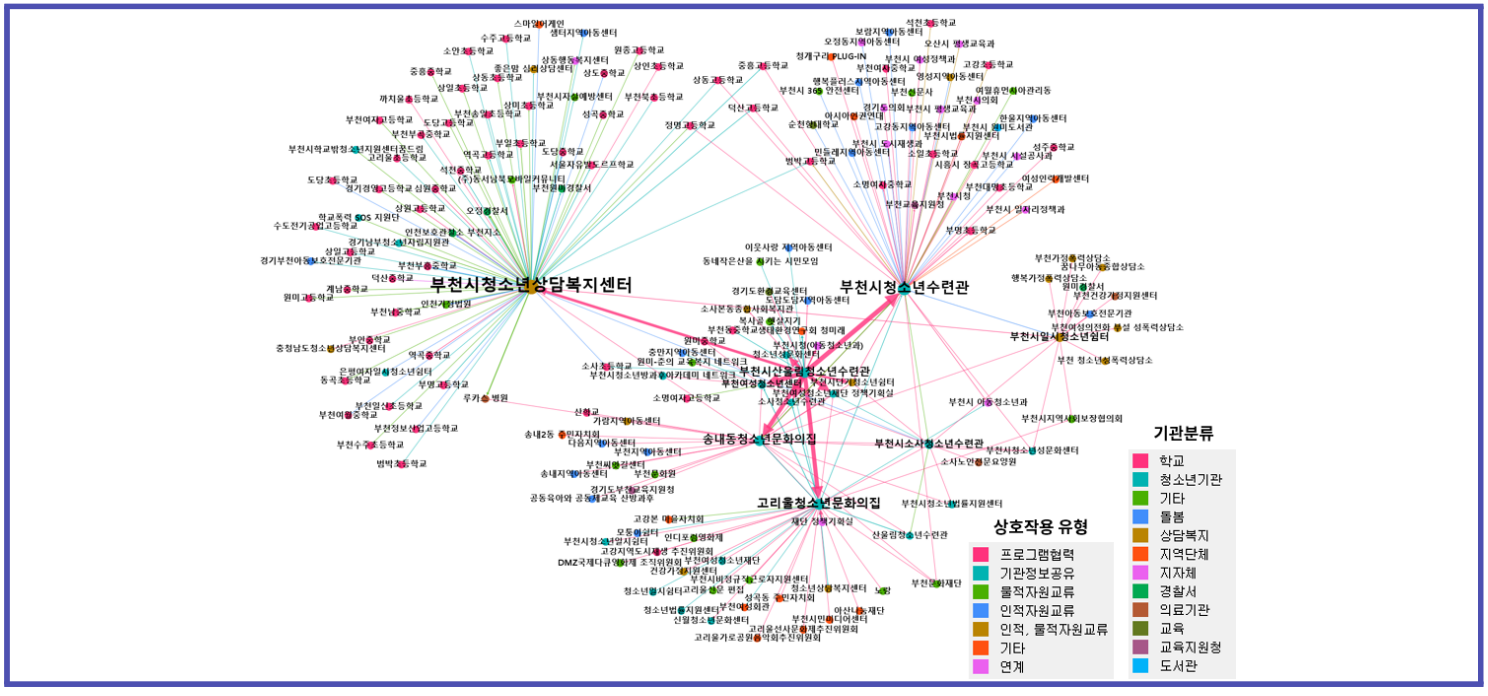


그림 Ⅳ-66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OUT) 네트워크

4) 소결

본 장에서는 시범사업 운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수행된 GIS 기반의 협의체 분포의 변화와 협의체 참여기관들의 회의 참여에 대하여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변화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지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운영지역의 청소년관련 기관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곡성군, 유성구, 부천시 세 지역 모두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대체적으로 참여기관의 지리적 분포변화는 없었으며, 전년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학교나 지자체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시범사업 협의체의 시기별 회의참여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세 지역의 유사한 특성이 드러났다. 운영 기간 동안 청소년관련 기관들의 회의 참여가 증가하였으며, 기관들 간의 교류 또한 활성화 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별로 협의체 참여기관과 주요 기관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곡성군에서는 기존의 청소년기관과 민간자원이 연계되어 민·관·학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곡성진로체험지원센터와 곡성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물적 자원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유성구의 경우에는 나머지 두 지역에 비해 참여기관이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그 중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와 같이 청소년관련 기관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와 상호 교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협력 내용으로는 유성구는 곡성군의 물적 자원 교류와는 다르게 기관의 정보 공유와 프로그램 협력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천시에서는 청소년기관들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어졌는데,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송내동청소년문화

의집과 같은 청소년기관과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와 같은 상담복지기관이 프로그램 협력을 위주로 교류를 하고 있었다. 전년도에 비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서 지자체의 비중은 크지 않았고, 몇몇 주도적인 기관을 중심으로만 협의체 네트워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확장되고 참여 기관들 사이에 집중도를 완화하여 고르고 균형적인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 청소년성장협의체의 지속적 운영과 확장을 위한 공동 아젠다를 설정하고 지역사회 민·관·학의 연계를 기반으로 청소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장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효과검증

1. 양적분석
2. 질적분석

V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효과검증[39)]

1. 양적분석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범사업 지역에 구성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 관련 네트워크 사업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의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성 분석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들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사업 효과성 분석은 사업 수행의 지속성 여부는 물론 향후 사업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통해 참여 주체들의 심리·사회적 변화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자 하며, 향후 사업 수행과 정책 수립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한다.

2) 조사대상 및 조사절차

조사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실험집단(협의체나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성인)과 사업의 효과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교

39) 이 장의 1절은 최인재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김민주 연구교수(이화여자대학교, 아동가족연구소)가 공동 집필하였고, 2절은 강경균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양적분석 조사는 2020년 04월 08일, 질적분석 조사는 2020년 10월 07일,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202004-HR-고유-002)통보를 받았음.

집단으로 조사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점은 활동 전과 활동 종료 시점에 사전·사후 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을 위해 사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사 진행과 관련한 승인을 받았다. 이후 각 지역의 조사 진행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전교육을 통해 조사방법 및 절차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공유하였으며, 설문지, 조사 참여 동의서 등 필요한 자료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응답 시간은 약 5분 내외로 소요되었으며, 조사 진행자가 조사의 목적과 응답 방법 등을 설명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조사도구 및 조사 내용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위해 사용한 조사 도구는 '청소년 활동역량 검사지(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에는 청소년 활동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도구이나 성인들의 역량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본 조사에 활용된 최종 설문지는 전문가들의 자문과 연구진 논의를 통해 최초 개발된 설문지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역량 영역을 선택하여 각 역량별 문항들 중 요인계수가 높은 문항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선택한 문항의 일부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 조사에서 사용한 역량은 총 5개 역량(문제해결, 자아, 성취동기, 리더십, 시민성 역량)이며 문항 수는 총 20문이다. 이 외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배경변인들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각 영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77~.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V-1 조사영역별 내용 및 세부항목[40)]

영 역	문항 내용	문항번호	신뢰도
배경변인	학교급, 성별, 생년월, 거주지역	-	-
삶의 만족도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문1	-
문제해결 역량	문제해결의 적극성, 원인 및 결과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 능력, 분쟁 발생 시 조정능력	문2(1, 2, 3, 4)	.84
자아 역량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도	문2(5, 6, 7, 8)	.89
성취동기 역량	자신의 성취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정확한 목표 지향성, 내재적 동기에 따른 적극적인 실행력	문2(9, 10, 11, 12)	.77
리더십 역량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성, 명료한 의사 결정 능력,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성 및 자신감	문2(13, 14, 15, 16)	.80
시민성 역량	구성원의 호혜적 협력, 원만한 대인관계 구성력, 지역사회 참여 자발성, 자신의 사회적 권리 표현	문2(17, 18, 19, 20)	.82

4) 실험 설계 및 분석 방법

본 조사에서는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를 적용하여 조사를 수행되었다. 시범사업 전, 모든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5개 역량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 참여집단은 시범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였고, 비교집단은 어떠한 처치도 받지 않았다.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참고: 〈표 V-2〉).

40) 설문지는 부록에 제시하였음.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집단에서 사업참여 전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집단별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업참여 여부에 따른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집단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V-2 연구 실험 설계

집 단	사전조사	사업참여	사후조사
참여집단	O_1	X_1	O_2
비교집단	O_3	-	O_4

5)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시범사업 효과 분석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전체 178명(참여집단 91명, 비교집단 87명)으로 분석 결과에 대해 사업 참여집단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곡성군 23명(25.3%), 유성구 35명(38.5%), 부천시 33명(36.3%)이었으며, 연령별로 청소년 53명(58.2%), 성인 38명(41.8%)이었다.

사업 참여 집단 기준으로 성별의 경우는 남자 35명(38.5%), 여자 56명(61.5%)이었다. 각 지역의 구체적인 연령별 및 성별 구성과 비교집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V-3〉과 같다.

표 Ⅴ-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참여 집단	곡성군 (*n*=23)	연령별	청소년	13	56.5
			성인	10	43.5
		성별	남자	8	34.8
			여자	15	65.2
	유성구 (*n*=35)	연령별	청소년	20	57.1
			성인	15	42.9
		성별	남자	10	28.6
			여자	25	71.4
	부천시 (*n*=33)	연령별	청소년	20	60.6
			성인	13	39.4
		성별	남자	17	51.5
			여자	16	48.5
참여집단 전체				91	100.0
비교 집단	곡성군 (*n*=20)	연령별	청소년	11	55.0
			성인	9	45.0
		성별	남자	10	50.0
			여자	10	50.0
	유성구 (*n*=34)	연령별	청소년	20	58.8
			성인	14	41.2
		성별	남자	12	35.3
			여자	22	64.7
	부천시 (*n*=33)	연령별	청소년	19	57.6
			성인	14	42.4
		성별	남자	11	33.3
			여자	22	66.7
비교집단 전체				87	100.0

(2) 삶의 만족도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을 포함한 전체 조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10점 척도)를 살펴보면, 참여집단을 연령별로 구분해볼 때 성인집단에서 사전검사(M = 7.26)보다 사후검사(M = 8.08)의 점수가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2.73, p < .05). 또한 성별에서는 여자의 사전검사 점수(M = 6.70)보다 사후검사의 점수(M = 7.6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아졌다(t = -3.48, p < .01). 즉, 지역의 구분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체 성인과 여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사업참여 이전보다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삶의 만족도의 사전-사후검사 결과는 아래 〈표 V-4〉에 제시하였다.

표 V-4 삶의 만족도 사전-사후검사 검증 결과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곡성군	참여집단	청소년		7.23	1.54	7.31	1.55	-.15
		성인		7.30	1.77	7.50	1.51	-.35
	비교집단	청소년		6.73	2.10	7.27	1.68	-1.40
		성인		7.67	1.32	8.11	.93	-.77
유성구	참여집단	청소년		7.25	1.89	7.80	1.54	-1.31
		성인		7.40	1.84	8.47	1.13	-2.36*
	비교집단	청소년		7.75	1.77	7.70	1.49	.13
		성인		6.57	1.65	7.79	1.72	-1.93
부천시	참여집단	청소년		7.10	2.75	7.60	2.23	-1.06
		성인		7.08	2.14	8.08	1.32	-1.80
	비교집단	청소년		7.42	2.01	7.79	1.13	-1.10
		성인		6.50	2.31	6.57	2.10	-.15
전체	참여집단	연령별	청소년	7.19	2.15	7.60	1.81	-1.57
			성인	7.26	1.88	8.08	1.32	-2.73*
		성별	남자	8.06	1.66	8.11	1.51	-.20
			여자	6.70	2.08	7.61	1.69	-3.48**
	비교집단	연령별	청소년	7.40	1.94	7.64	1.40	-1.09
			성인	6.81	1.88	7.41	1.82	-1.80
		성별	남자	7.00	1.92	7.64	1.43	-1.78
			여자	7.24	1.94	7.48	1.68	-1.14

** p < .05, ** p < .01*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성구의 참여집단 중 성인집단에서 삶의 만족도의 사전점수(M = 7.40)보다 사후점수(M = 8.47)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t = -2.36, p 〈 .05),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성구 성인의 삶의 만족도는 시범사업 참여 전에 비해 높았다. 이외 집단의 구분에서는 삶의 만족도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의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곡성군의 경우 참여집단 청소년의 사전점수의 평균은 7.23, 사후점수의 평균은 7.31로 높아졌고, 성인의 경우에도 7.30에서 7.50으로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높았다. 유성구에서는 앞서 사전-사후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언급한 성인집단과 더불어, 청소년집단에서도 사전점수(M = 7.25)에 비해 사후점수(M = 7.80)가 높았다. 부천시의 경우에도 청소년 집단의 사전점수(M = 7.10)보다 사후점수(M = 7.60)가, 성인집단의 사전점수(M = 7.08)보다 사후점수(M = 8.08)가 높았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후점수를 지역별로 비교해볼 때, 청소년과 성인 모두 유성구(청소년: M = 7.80, 성인: M = 8.47), 부천시(청소년: M = 7.60, 성인: M = 8.08), 곡성군(청소년: M = 7.31, 성인: M = 7.50)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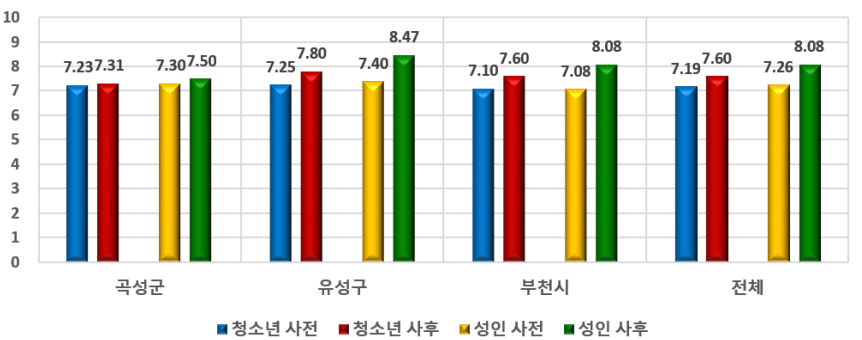


그림 V-1 지역별 참여집단의 삶의 만족도 사전-사후 점수

(3) 문제해결 역량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문제해결 역량(5점 척도, 이하 동일)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V-5〉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 전체의 결과를 참여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여자 집단에서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 = -2.29, p 〈 .05). 즉,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자의 경우, 문제해결 역량의 사전점수(M = 3.83)에 비해 사후점수(M = 4.00)가 높아졌다.

남자의 경우에는 사전-사후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사전검사(M = 4.16)보다 사후검사(M = 4.20)의 점수가 다소 높아졌다. 연령별로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에도 청소년집단(사전: M = 3.78 → 사후: M = 3.94)과 성인집단(사전: M = 4.20 → 사후: M = 4.28)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사후점수가 더 높았다.

표 V-5 문제해결 역량 사전-사후검사 검증 결과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곡성군	참여집단	청소년		3.75	.53	3.98	1.01	-1.13
		성인		4.10	.53	4.23	.34	-.83
	비교집단	청소년		3.61	.41	3.59	.32	.14
		성인		4.06	.56	3.94	.53	1.00
유성구	참여집단	청소년		3.71	.70	3.88	.44	-1.51
		성인		4.17	.59	4.40	.51	-1.65
	비교집단	청소년		3.81	.70	3.98	.65	-.95
		성인		3.82	.39	4.13	.68	-1.67
부천시	참여집단	청소년		3.88	.78	3.99	.71	-.86
		성인		4.33	.57	4.17	.59	1.98
	비교집단	청소년		3.68	.79	3.82	.99	-.59
		성인		4.02	.60	4.00	.47	.18
전체	참여집단	연령별	청소년	3.78	.68	3.94	.70	-2.01
			성인	4.20	.56	4.28	.50	-.95
		성별	남자	4.16	.61	4.20	.55	-.53
			여자	3.83	.67	4.00	.69	-2.29*
	비교집단	연령별	청소년	3.72	.68	3.83	.75	-.97
			성인	3.95	.51	4.03	.56	-.94
		성별	남자	3.80	.59	3.83	.82	-.16
			여자	3.83	.65	3.97	.58	-1.70

*p 〈 .05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부천시 성인집단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참여집단의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높아졌다.

각 지역의 연령별로 구분하면(참고: [그림 Ⅴ-2]), 곡성군 청소년집단의 사전점수(M = 3.75)보다 사후점수(M = 3.98)가, 성인집단의 사전점수(M = 4.10)보다 사후점수(M = 4.23)가 높았다. 유성구의 경우에도 참여집단 청소년의 평균은 3.71에서 3.88로 높아졌고, 성인집단에서도 4.17에서 4.40으로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높았다. 부천시에서는 참여집단 청소년은 사전점수(M = 3.88)에 비해 사후점수(M = 3.99)가 높았으나, 성인의 경우에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t = 1.98, p 〉 .05) 사전점수(M = 4.33)에 비해 사후점수(M = 4.17)가 오히려 낮아졌다.

문제해결 역량의 사후검사 점수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청소년집단은 부천시(M = 3.99)와 곡성군(M = 3.98)의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이어서 유성구(M = 3.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은 유성구(M = 4.40), 곡성군(M = 4.23), 부천시(M = 4.17)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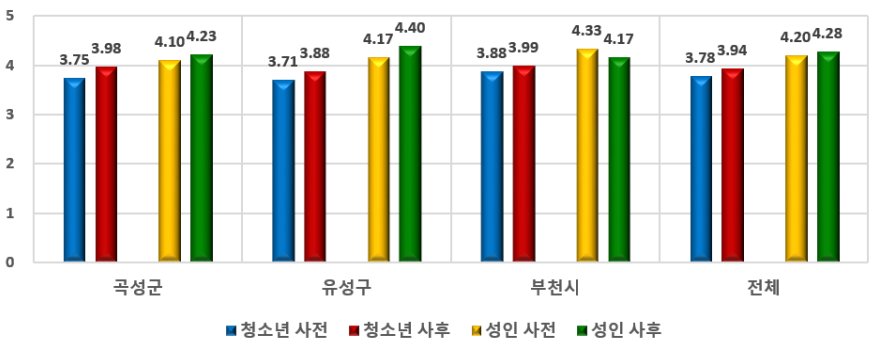


그림 Ⅴ-2 지역별 참여집단의 문제해결 역량 사전-사후 점수

(4) 자아 역량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 역량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V-6〉과 같다. 먼저 조사에 참여한 전체집단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사후점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전검사의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의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집단을 중심으로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청소년집단(사전: M = 3.83 → 사후: M = 4.00)과 성인집단(사전: M = 4.17 → 사후: M = 4.24) 모두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높았다. 성별로 구분했을 때에도 남자(사전: M = 4.04 → 사후: M = 4.16)와 여자(사전: M = 3.93 → 사후: M = 4.05) 모두 사후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 자아 역량 사전-사후검사 검증 결과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곡성군	참여집단	청소년		3.88	.79	4.02	.75	-1.46
		성인		4.18	.67	4.20	.52	-.18
	비교집단	청소년		3.70	.79	3.45	.72	1.80
		성인		3.83	.59	3.89	.40	-.30
유성구	참여집단	청소년		3.88	1.14	4.01	1.03	-1.35
		성인		4.30	.60	4.47	.66	-1.23
	비교집단	청소년		4.14	.76	4.16	.66	-.19
		성인		3.96	.68	4.02	.87	-.26
부천시	참여집단	청소년		3.76	.94	3.96	.82	-1.11
		성인		4.02	.67	4.00	.71	.15
	비교집단	청소년		3.99	.81	4.20	.61	-1.91
		성인		3.86	.71	3.82	.64	.43
전체	참여집단	연령별	청소년	3.83	.97	4.00	.88	-2.00
			성인	4.17	.63	4.24	.66	-.85
		성별	남자	4.04	.87	4.16	.87	-1.50
			여자	3.93	.86	4.05	.76	-1.55
	비교집단	연령별	청소년	3.99	.79	4.02	.71	-.46
			성인	3.89	.65	3.91	.68	-.22
		성별	남자	3.86	.82	3.91	.74	-.49
			여자	4.00	.67	4.01	.67	-.20

참여집단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구분하여 청소년 및 성인집단의 사전-사후점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집단의 경우 부천시 성인집단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사후점수가 사전점수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에 따라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참고: [그림 V-3]), 곡성군에서는 청소년의 사전점수(M = 3.88)보다 사후점수(M = 4.02)가 높았고, 성인 또한 사전점수(M = 4.18)보다 사후점수(M = 4.20)가 약간 높았다. 유성구에서도 참여집단 청소년의 평균은 3.88에서 4.01로 높아졌고, 성인집단에서도 평균이 4.30에서 4.47로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높았다. 부천시의 경우에는 참여집단 청소년은 사전점수(M = 3.76)에 비해 사후점수(M = 3.96)가 높았으나, 성인의 경우에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t = .15, p〉.05) 사전점수(M = 4.02)에 비해 사후점수(M = 4.00)가 다소 낮아졌다.

자아 역량의 사후검사 점수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청소년의 경우 곡성군(M = 4.02)과 유성구(M = 4.01)의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이어 부천시(M = 3.96)의 순이었다. 성인집단에서는 유성구(M = 4.47), 곡성군(M = 4.20), 부천시(M = 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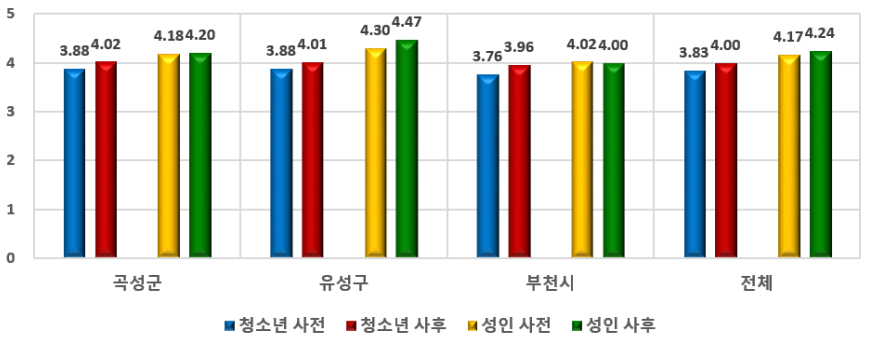


그림 V-3 지역별 참여집단의 자아 역량 사전-사후 점수

(5) 성취동기 역량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성취동기 역량에 대한 사전-사후점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V-7〉과 같다. 먼저 조사에 참여한 전체집단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별로 구분해볼 때 청소년집단에서 사전점수(M = 3.76)보다 사후점수(M = 4.01)의 점수가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3.33, p 〈 .01).

또한 성별의 경우 여자집단에서 사전검사 점수(M = 3.72)보다 사후검사의 점수(M = 3.97)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아졌다(t = -3.36, p 〈 .01). 즉,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체 청소년과 여자는 자신의 성취능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정도가 사업참여 이전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성취동기 역량 사전-사후검사 검증 결과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곡성군	참여집단	청소년		3.75	.48	4.17	.57	-2.71*
		성인		3.68	.72	3.65	.84	.10
	비교집단	청소년		3.43	.87	3.50	.71	-.52
		성인		3.72	.61	3.67	.57	.39
유성구	참여집단	청소년		3.54	.71	3.84	.68	-3.21**
		성인		4.18	.73	4.40	.58	-1.50
	비교집단	청소년		3.79	.75	3.65	.72	.73
		성인		3.73	.46	3.91	.84	-.75
부천시	참여집단	청소년		3.99	.83	4.08	.71	-.63
		성인		3.83	.48	3.77	.46	.36
	비교집단	청소년		3.88	.60	3.96	.67	-.83
		성인		3.64	.68	3.50	.67	1.96
전체	참여집단	연령별	청소년	3.76	.73	4.01	.67	-3.33**
			성인	3.93	.67	3.99	.70	-.59
		성별	남자	4.00	.68	4.05	.71	-.47
			여자	3.72	.70	3.97	.66	-3.36**
	비교집단	연령별	청소년	3.75	.73	3.74	.71	.11
			성인	3.70	.57	3.70	.72	.00
		성별	남자	3.69	.78	3.71	.72	-.17
			여자	3.75	.60	3.72	.71	.33

*p 〈 .05, **p 〈 .01

지역별로 구분하여 청소년 및 성인집단의 사전-사후점수를 비교한 결과를 참여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곡성군 청소년의 경우 성취동기 역량의 사전점수(M = 3.75)보다 사후점수(M = 4.17)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71, p<.05). 또한 유성구의 청소년에게서도 성취동기 역량의 사전(M = 3.54)-사후(M = 3.84)점수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 = -3.21, p<.01). 즉, 시범사업에 참여한 곡성군과 유성구 청소년의 성취동기 역량은 시범사업 참여 전에 비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이외 집단의 구분에서는 성취동기 역량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집단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의 점수가 높았다. 곡성군 및 부천시 성인집단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성취동기 역량의 사후검사 점수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청소년의 경우 곡성군(M = 4.17), 부천시(M = 4.08), 유성구(M = 3.84)의 순이었으며, 성인집단에서는 유성구(M = 4.40), 부천시(M = 3.77), 곡성군(M = 3.65)의 순으로 나타났다(참고: [그림 Ⅴ-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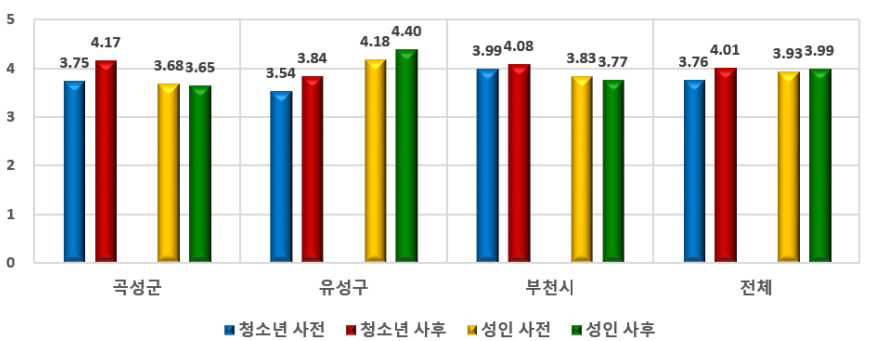


그림 Ⅴ-4 지역별 참여집단의 성취동기 역량 사전-사후 점수

⑹ 리더십 역량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리더십 역량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V-8〉과 같다. 먼저 조사에 참여한 전체집단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여자 집단에서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t = -2.45, p 〈. 05). 즉,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자의 경우, 리더십 역량의 사전점수 (M = 3.95)에 비해 사후점수(M = 4.13)가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남자의 경우에는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사전검사(M = 4.31)보다 사후검사(M = 4.19)의 점수가 오히려 낮아졌다. 연령별로 집단을 나누어보면, 청소년집단(사전: M = 4.04 → 사후: M = 4.14)과 성인집단 (사전: M = 4.15 → 사후: M = 4.18)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사후점수가 다소 높았다.

표 V-8 리더십 역량 사전-사후검사 검증 결과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곡성군	참여집단	청소년		4.07	.44	4.40	.39	-2.34*
		성인		4.00	.53	3.93	.73	.30
	비교집단	청소년		3.55	.75	3.50	.47	.24
		성인		3.83	.70	3.81	.39	.18
유성구	참여집단	청소년		3.95	.71	4.03	.57	-.53
		성인		4.27	.66	4.43	.49	-1.21
	비교집단	청소년		4.01	.63	3.98	.72	.33
		성인		3.93	.54	4.05	.77	-.46
부천시	참여집단	청소년		4.11	.81	4.09	.85	.21
		성인		4.13	.36	4.08	.39	.40
	비교집단	청소년		4.12	.60	4.08	.86	.31
		성인		4.04	.50	3.95	.46	1.16
전체	참여집단	연령별	청소년	4.04	.69	4.14	.66	-1.26
			성인	4.15	.53	4.18	.56	-.27
		성별	남자	4.31	.57	4.19	.57	1.18
			여자	3.95	.63	4.13	.65	-2.45*
	비교집단	연령별	청소년	3.95	.67	3.91	.75	.52
			성인	3.95	.56	3.95	.58	-.06
		성별	남자	3.77	.71	3.82	.83	-.32
			여자	4.06	.54	4.00	.57	1.03

** p 〈 .05*

참여집단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곡성군의 청소년집단에서 리더십 역량의 사전점수(M = 4.07)보다 사후점수(M = 4.4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t = -2.34, p 〈 .05), 시범사업에 참여한 곡성군 청소년의 리더십 역량이 시범사업 참여 전에 비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이외 집단의 구분에서 곡성군 성인집단(사전: M = 4.00 → 사후: M = 3.93)과 부천시 청소년(사전: M = 4.11 → 사후: M = 4.09) 및 성인집단(사전: M = 4.13 → 사후: M = 4.08)에서 리더십 역량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유성구 청소년(사전: M = 3.95 → 사후: M = 4.03) 및 성인집단(사전: M = 4.27 → 사후: M = 4.43)은 리더십 역량이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의 점수가 다소 높아지긴 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리더십 역량의 사후검사 점수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청소년의 경우 곡성군(M = 4.40), 부천시(M = 4.09), 유성구(M = 4.03)의 순이었으며, 성인집단에서는 유성구(M = 4.43), 부천시(M = 4.08), 곡성군(M = 3.93)의 순으로 나타났다(참고: [그림 Ⅴ-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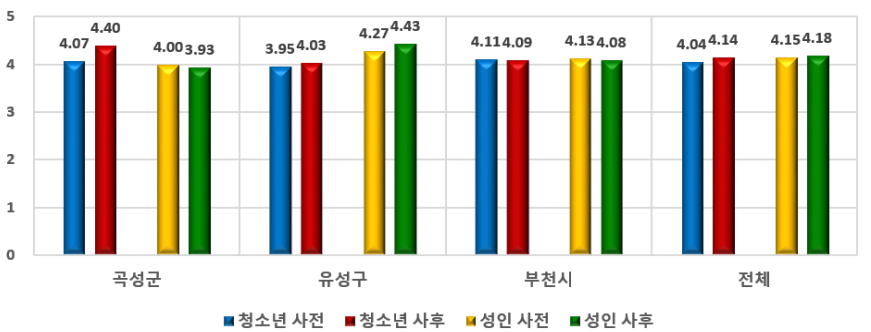


그림 Ⅴ-5 지역별 참여집단의 리더십 역량 사전-사후 점수

(7) 시민성 역량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시민성 역량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V-9〉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 전체의 결과를 참여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여자 집단에서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2.18, p 〈 .05). 즉,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자의 시민성 역량은 시범사업 전(M = 4.02)에 비해 사업참여 이후의 점수(M = 4.18)가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남자의 경우에는 사전점수(M = 4.33)보다 사후점수(M = 4.32)가 다소 낮아졌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별로 집단을 나누어보면, 청소년집단(사전: M = 4.12 → 사후: M = 4.24)과 성인집단(사전: M = 4.16 → 사후: M = 4.2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사후검사의 점수가 높았다.

표 V-9 시민성 역량 사전-사후검사 검증 결과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곡성군	참여집단	청소년		3.90	.63	4.35	.43	-2.64*
		성인		4.13	.69	4.10	.53	.17
	비교집단	청소년		3.66	.49	3.61	.70	.23
		성인		4.08	.75	4.03	.62	.39
유성구	참여집단	청소년		4.28	.60	4.25	.64	.17
		성인		4.18	.64	4.32	.67	-.85
	비교집단	청소년		3.98	.75	3.95	.64	.16
		성인		3.75	.60	3.96	.79	-.85
부천시	참여집단	청소년		4.11	.65	4.15	.69	-.26
		성인		4.15	.63	4.23	.67	-1.00
	비교집단	청소년		4.11	.52	4.14	.65	-.30
		성인		3.86	.45	3.84	.36	.17
전체	참여집단	연령별	청소년	4.12	.63	4.24	.61	-1.27
			성인	4.16	.63	4.23	.62	-.95
		성별	남자	4.33	.55	4.32	.60	.07
			여자	4.02	.64	4.18	.62	-2.18*
	비교집단	연령별	청소년	3.96	.63	3.95	.67	.06
			성인	3.87	.59	3.93	.60	-.57
		성별	남자	3.95	.71	3.89	.75	.36
			여자	3.90	.54	3.97	.57	-1.11

*p 〈 .05

참여집단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곡성군의 청소년집단에서 시민성 역량의 사전검사(M = 3.90)보다 사후검사(M = 4.35)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64, p 〈 .05). 즉, 시범사업에 참여한 곡성군 청소년의 시민성 역량이 시범사업 참여 전에 비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그 외 집단 중 곡성군 성인집단(사전: M = 4.13 → 사후: M = 4.10)과 유성구 청소년집단(사전: M = 4.28 → 사후: M = 4.25)에서 시민성 역량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밖에 유성구 성인집단(사전: M = 4.18 → 사후: M = 4.32)과 부천시 청소년(사전: M = 4.11 → 사후: M = 4.15) 및 성인집단(사전: M = 4.15 → 사후: M = 4.23)의 경우 시민성 역량이 사후검사 시 다소 높아지긴 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민성 역량을 사후검사 점수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청소년집단은 곡성군(M = 4.35), 유성구(M = 4.25), 부천시(M = 4.15)의 순이었으며, 성인집단의 경우에는 유성구(M = 4.32), 부천시(M = 4.23), 곡성군(M = 4.10)의 순으로 나타났다(참고: [그림 Ⅴ-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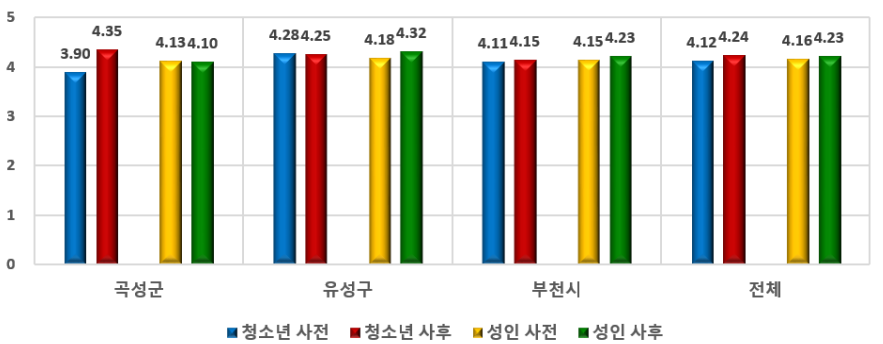


그림 Ⅴ-6 지역별 참여집단의 시민성 역량 사전-사후 점수

(8) 집단 간 사전-사후점수의 변화

집단과 조사시기에 따른 각 영역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곡성군 청소년의 자아 역량(F = 5.62, p 〈 .05)과 유성구 청소년의 성취동기 역량(F = 4.31, p 〈 .05)에서 시간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 변화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참고: 〈표 V-10〉). 즉, 곡성군 청소년의 자아 역량과 유성구 청소년의 성취동기 역량에서, 참여집단은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증가하는 변화를 보인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의 점수가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는 시범사업 전후로 곡성군 청소년의 자아 역량과 유성구 청소년의 성취동기 역량 영역에서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차이가 더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이 변화하는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V-7]에 제시하였다.

표 V-10 참여 및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점수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41)]

지역	영역	요인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곡성군 청소년	자아 역량	개체 내	시간(사전-사후)	.40	1	.40	.51
			상호작용(시간*집단)	.44	1	.44	5.62*
			오차	1.726	22	.08	-
		개체 간	집단	1.65	1	1.65	1.52
			오차	23.99	22	1.09	-
유성구 청소년	성취동기 역량	개체 내	시간(사전-사후)	.13	1	.13	.59
			상호작용(시간*집단)	.96	1	.96	4.31*
			오차	8.44	38	.22	-
		개체 간	집단	.02	1	.02	.02
			오차	30.46	38	.80	-

** p 〈 .05*

41) 조사대상자 전체와 더불어 각 지역마다 연령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모두 실시하였으며, 이 중 시간과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만을 표로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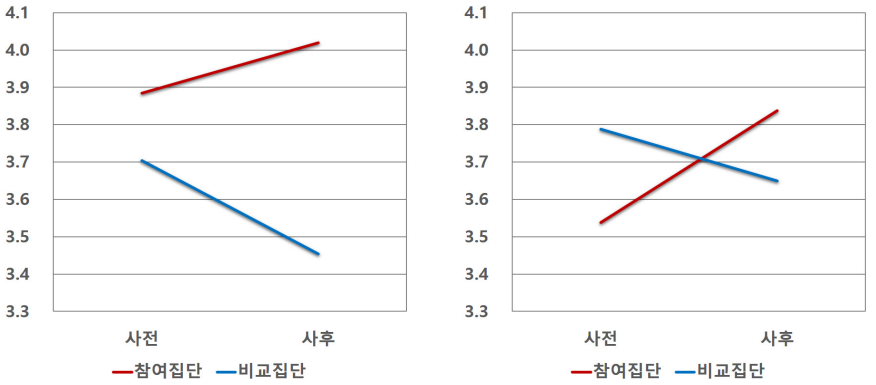


그림 V-7 시간에 따른 집단 간 변화

6) 소결 및 시사점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곡성군, 유성구, 부천시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 관련 네트워크 사업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 문제해결 역량, 자아 역량, 성취동기 역량, 리더십 역량, 시민성 역량 영역의 추이를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지역별로 구분해볼 때, 먼저 곡성군의 경우 시범사업 진행 전보다 후에 청소년의 성취동기 역량, 리더십 역량, 시민성 역량의 수준이 높아졌다. 즉, 곡성군의 시범사업 관련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이전에 비해 자신의 성취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직무에 대해 책임감과 의사결정능력 및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사회적 권리를 표현하는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문제해결 역량, 자아 역량은 미미하게 향상되긴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곡성군 성인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의 참여 전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삶의 만족도, 문제해결 역량, 자아 역량의 수준이 다소 높아졌고, 성취동기 역량, 리더십 역량, 시민성 역량의 수준은 다소 낮아졌으나 사전-사후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유성구의 경우 청소년의 성취동기 역량과 성인의 삶의 만족도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후 더 높아졌다. 즉, 유성구의 청소년은 시범사업 참여로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이 높아졌으며, 성인의 경우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청소년의 시민성 역량이 미미하게 낮아진 것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모든 영역에서 시범사업 이후의 점수가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의 시범사업 효과성을 살펴보면 사전-사후점수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문제해결 역량, 자아 역량, 성취동기 역량, 시민성 역량과 더불어, 성인의 삶의 만족도, 시민성 역량의 수준이 다소 높아지긴 하였으나 유의한 결과가 아니었고, 청소년의 리더십 역량, 성인의 문제해결 역량, 자아역량, 성취동기 역량, 리더십 역량은 사전보다 사후에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역시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체 집단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청소년의 성취동기 역량과 성인의 삶의 만족도의 수준이 사업 참여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은 본인의 성취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더불어 실행력을 가지는 경향이 더 높아졌고, 성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성별로는 여자의 삶의 만족도, 문제해결 역량, 성취동기 역량, 리더십 역량, 시민성 역량의 수준이 시범사업 후에 더 높아졌으나, 남자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어떠한 영역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즉, 시범사업을 통해 여성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고, 문제해결능력과 성취동기가 높아졌고, 리더십을 더 발휘하게 되었으며, 시민의식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집단을 중심으로 사전-사후점수를 비교한 것에 이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이 변화하는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곡성군 청소년의 자아 역량과 유성구 청소년의 성취동기 역량에서 집단과 시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집단의 점수는 증가한 반면 비교집단의 점수는 오히려 낮아진 것을 확인하여,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상의 효과성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전반적으로 비교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참여집단에서는 사전에 비해 사후검사의 점수가 조금씩 더 높아진 결과들을 확인하였다. 특히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를 통해 곡성군 청소년의 자아 역량과 유성구 청소년의 성취동기 역량에서는 시범사업의 실행 여부가 큰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영역이 일치되지는 않았으나 둘 다 공통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들로, 이는 시범사업이 성인보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화에 더 큰 효과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지역별로 참여집단을 청소년과 성인을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효과성이 입증된 대부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측면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나타내는 결과로,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 참여활동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한편, 성인은 청소년과 비교해볼 때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으나 다른 역량들의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업 참여 기간이 짧은데다 참여 활동 내용이 청소년들에 비해 성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후점수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및 관련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하는 경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 질적분석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조사는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을 2년 동안 실시하고 운영하였던 유성구, 부천시, 곡성군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관련 네트워크 사업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사업의 질적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질적 효과성 분석은 참여자들의 역량의 변화와 성장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향후 시범 사업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활용할 것이다.

2) 면담 참여자 및 조사절차

본 연구의 면담참여자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한 성인 9명과 청소년 9명, 총 18명이다. 시범사업 지역별로 살펴보면, 3개 지역의 각 기관 당 성인 3명, 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성인의 경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사업 활동에 참여한 마을활동가, 시범사업 운영진, 공무원, 청소년기관 관련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각 기관에서의 활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다.

한편, 심층면담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IRB 심의를 받았다. 이후 각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질적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면담 대상자를 추천을 받았으며 면담질문지, 면담 참여 동의서 등 질적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송부하였다. 질적 조사 실시 하루 전 회의장소, 면담참여자, 회의 시간 등 일정을 확인 한 후 진행하였다. 면담 당일에는 면담참여자들에게 다시 한 번 면담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이 끝난 후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3) 조사 도구

질적 조사 방법은 FGI를 실시하였다.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하여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FGI를 실행하기 위한 면담 질문지는 시범사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양적 조사지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면담 질문지는 연구진 및 전문가와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FGI를 실시하기 위하여 준비한 질문지 구성은 참여자의 역량 변화, 타 경험과의 차별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이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사례 및 변화를 통한 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 역량에 변화를 가져온 경험을 질문하였으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 관련된 네트워크 활동과 이전의 경험과의 차별성, 삶에 대한 만족도, 추후 바라는 점 등을 질문하였다.

표 V-11 FGI 질문지 구성

영 역	질문 내용
역량 변화	▸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이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 문제해결의 적극성, 분쟁 발생 시 조정능력 등 문제해결 역량 -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도 등 자아역량 - 성취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정확한 목표 지향성, 적극적인 실행력 등 성취동기 역량 -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성, 명료한 의사 결정 능력 및 자신감 등 리더십 역량 - 지역사회 구성원의 호혜적 협력, 원만한 대인관계 구성력, 지역사회 참여 자발성, 사회적 권리 표현 등 시민성 역량 ▸ 어떠한 경험이 자신의 역량에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타 경험과의 차별성	▸ 이번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이번 경험이 학교에서 활동 혹은 다른 경험과의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 이번 경험 중 가장 좋았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 이번 경험 중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만족도	▸ 이번 활동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이번 활동으로 인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변화되었습니까? ▸ 본 활동에 대하여 추후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조사에서는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면담 방식은 시범사업 지역인 곡성군과 유성구의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의 회의실에서 면대면 집단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부천시의 청소년 집단의 경우, 면대면의 참여가 어려워 온라인 화상 FGI를 실시하였다.

FGI를 위한 면담참여자의 집단은 3개 시범지역의 청소년과 성인집단 총 6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면담 일정은 2020년 10월 16일에서 10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50분에서 7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녹음기를 활용하여 녹취하였으며, 녹취한 내용은 분석을 위하여 전사(transcription)를 진행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기술(description)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시범사업의 질적 효과의 사례와 변화를 드러내기 위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고, 현장의 용어를 바탕으로 역량의 변화와 경험을 통한 성장의 사례를 어우러지게 제시하였다.

표 V-12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효과성 검증을 위한 FGI 면담 일정 및 내용

영역	면담참여자	소속	일정	장소 및 방법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A 집단(3명)	시범사업 운영 A 기관	20.10.17	기관 내 회의실
	B 집단(3명)	시범사업 운영 B 기관	20.10.17	
	C 집단(3명)	시범사업 운영 C 기관	20.10.24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참여한 성인	D 집단(3명)	시범사업 운영 A 기관	20.10.16	온라인 화상 집단면담
	E 집단(3명)	시범사업 운영 B 기관	20.10.17	기관 내 회의실
	F 집단(3명)	시범사업 운영 C 기관	20.10.24	

5) 분석 결과

(1)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통한 역량 변화

①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통한 청소년의 역량 변화

○ 문제해결역량에 대한 효과

청소년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생각하다보니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점차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들어져 실현할 수 있게 만들어 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아이디어 같은 걸 떠올릴 때 전에는 추상적이었다면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게 2년 안에 된 것 같아요."(A 집단)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더 좋은 의견을 찾다보니 생각의 폭도 넓어졌고, (중략) 생각하는 범위도 확대되고 다들 관점이 다르니 듣다보면 '이런 것도 있겠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B 집단)

또한 지역주민과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분쟁해결능력과 상황대처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협의체를 통해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얻어 앞으로의 행동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청소년은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행동하게 되었다.

"새로운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고, 상황 대처 능력이 조금 더 향상됐어요. (중략) 일을 하면서 과감하게 먼저 요구사항이 있으신지에 대해 여쭤볼 수 있게 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A 집단)

"저희는 공무원분들도 오시고 수련관 외에 다른 청소년시설 분들도 같이 했었는데, 더 현실적으로.. 저희는 청소년들끼리 했을 때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을까' 하고 원하는 것 위주로 말했다면 저희가 원하는 것에서 빠르게 실현될 수 있는 것, 늦어지는 것들을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자세하게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알려주셨어요."(B 집단)

○ 자아역량에 대한 효과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은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에게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참여자는 '극도로 자존감이 낮고', '굉장히 쓸모없는 사람'에서 '한다면 할 수 있는 자신', '무언가를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는 자신'으로 인식하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향상되었으며, 자신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활동에 참여 전까지는 자존감이 매우 낮았어요. 제 자신이 굉장히 쓸모없는 사람 같았는데 드림잡 활동을 하면서 자존감이 좀 더 높아지고 '내가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충분히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A 집단)

"예전에는 소심하고 자존감도 그리 높지 않았는데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그 아이디어가 행사에 들어갔을 때 효율이 크거나 아이들이 즐거워할 때 자존감이 점점 높아지죠."(C 집단)

○ 성취동기 역량에 대한 효과

청소년은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이전의 두려움을 느꼈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100명 앞에서도 제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청소년들 앞에서 발표를 못할 리 없지- 하는 생각이 들고 떨리는 게 줄었어요."(A 집단)

또한, 협의체의 관계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줘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을 개진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해냄으로써 성취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많은 체험과 행사를 주최하고 운영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 또한 자신이 계획하여 운영한 행사에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느낌을 가졌다.

"말을 하도록 이끌어주시니 아무래도 서로 못 본 사이여도 의견을 개진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잘 튀지 않는 성격이지만 할 때는 해야 해서 말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아이들과 함께 협력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말하면 말할수록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다른 가능성도 지향을 하니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B 집단)

"많은 체험과 행사를 열고 주최할 때 마다 생기는 성취감이 너무 좋아서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가 행사를 하고 나면 설문지에 좋았던 점이나 개선점을 적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낸 의견들이 적혀 있으면 그때도 기분이 좋고, 행사가 끝나고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직접 와서 재미있다고 할 때 마다 좋죠."(C 집단)

○ 리더십 역량에 대한 효과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은 서로 이끌고 협력해 나아간다. 참여자는 반장 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기획하고 이끌어 나가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행하는 등 리더십이 향상되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선생님을 통해 팀을 이끌어 가는 모습에 성숙하고 어른스럽다는 말을 듣는 등 자신의 활동에 대한 주변인의 신뢰를 얻고 구성원들의 믿음을 얻게 되었다. 아울러, 청소년들은 자신의 기획하고 운영되는 행사를 통해 만족감과 함께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제가 반장과 같은 역할을 맡으면서 리더십도 키우고 제가 사람 많은 것을 두려워하는데 기획 활동을 하고 진행하는 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많아요. (중략) 반장이니 선생님들께서 또래에 비해 성숙하고 어른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A 집단).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늘었다고 생각해요."(C 집단)

○ 시민성 역량에 대한 효과

청소년은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운영 위원들과 만나 자주 회의를 하면서 회의에 대한 압박감을 줄이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표현해야 하며, 이러한 표현과 참여를 통해 자신의 사회 참여에 대한 역량이 늘어나고, 사회가 바뀌고 변화한다는 것을 느꼈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신문기자와 같은 분들과 회의를 하다 보니 친구들과 회의하는 것 자체가 쉬워졌어요. 회의에 대한 압박감이 줄어들었어요. 활동을 하다 보니 느낀 점이 저 같은 청소년도 참여하면 될 수 있다. 그래서 참여가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참여만 하다가 활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인터뷰에도 참여하고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하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A 집단)

"우리 청소년이라 약할 줄 알고, 우리가 해 봤자 어른들이나 청소년들이 얼마나 즐거워할지 몰랐지만 할로윈 행사 같은 것을 하면서 '여기서 재미있는 행사를 하는구나' 하고, 부모님들도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고, 저희도 영향력이 약간이라도 있다는 게 느껴지죠."(C 집단)

②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통한 성인의 역량 변화

○ 문제해결역량에 대한 효과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해 청소년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예컨대, 문제라는 인식이 들면 1인 시위도 하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 문제를 해결한다.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지역의 청소년이라는 키워드로 만나고 있는 활동가들을...."(D 집단)
"'이것이 문제다'라고 문제를 인식하면서 머물면 굉장히 공허한 것이잖아요. 액션이 따라야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액션을 취해보자해서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내서 피켓도 제작을 하고 1인 시위도 했어요."(D 집단)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단순하고 일반적인 해결보다는 청소년을 이해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네트워크를 통해 찾았다.

"네트워크가 많이 되어 있는 어느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사례에 대해 경험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이 아이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까지 다 겪은 경우도 있고, 학교폭력만 겪은 아이도 있고..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겪은 아이는 사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겪은 선생님을 연결해주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중략) 대부분 약한 아이들이 사건 현장에서 벌어져 경찰서에 가면 남자 형사들이 막 대하고 이 친구는 지적 장애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런 것을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가서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에서 근로를 하는 공무원이 있지만 6시만 되면 퇴근하잖아요. 사건이라는 게 6시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활동가들에게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호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D 집단)

아울러,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통해 공공성을 전제로 협력하고 변모를 겪으며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였다.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나 잘 났어' 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그 부분이 이익을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공성을 전제해 놓고 협력하자, 했을 때 저희 네트워크가 받아들였어요. 물론 아프겠지만. 그리고 변모를 겪었어요."(D 집단)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위기나 가출에 대한 지식으로 이 청소년을 완전히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평소에 다양한 카테고리의 사회 문제에 대한 부담도 당연히 쌓이고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트워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강도가 올라가죠. 그런 분노 같은 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나.. 왜냐하면 이것에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D 집단)

○ 자아역량에 대한 효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참여한 성인들은 그동안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생각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친구가 생겨 든든해 하였다. 이렇든 성인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함께한 동료의 공감과 지지로부터 든든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 전에는 '내가 각개전투로 무언가를 해결 해야지'라는 강박이 있으셨는데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만나면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친구가 생겨 든든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공감했어요. 든든하고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다.. 굳이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주거든요. 힘들지 말자는 이야기를 서로 했던 것 같아요. 재미있고 든든해요."(D 집단)

아울러, 청소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며, 어른인 자신도 함께 성장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변화하게 되었음을 느꼈다

"이 아이는 인간이고 하나의 객체이고 스스로 아이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키워나가게 되는 계기들이 경험 속에서 계속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만 크는 게 아니라 저도 커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의 인간을 바라볼 때 그 인간에 대한 긍정성을 보게 되는 것으로 제 스스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F 집단)

○ 성취동기 역량에 대한 효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협의체 구성원은 용기가 생겨 퍼포먼스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아갔다. 특히 구성원들이 격려하고 공감해주는 '공감의 경험'도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

"저도 1인 시위는 처음 해봤고, 같이 네트워크 한 분들도 처음 하니 떨더라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떨린다, 무섭다 했지만 해보더니 용기가 생겼다고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공유했어요. OO역 앞에서 퍼포먼스도 했어요. N번방

퍼포먼스도 하면서, 시민들도 비용을 내며 참여했어요. 전단지 홍보물 제작 비용을 내가면서.. 아까 질문하신 것을 보면 사실 몰라서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다들 하더라는 경험을 우리에게 줬던 거죠. (중략) 스스로 칭찬해주고 공감의 경험만으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죠."(D 집단)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에 참여하여 함께 활동을 경험하면, 이를 통해 또 다시 참여하는 지속성과 실행력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가능하구나'라는 효능감이 높아져 앞으로의 실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의 이면에 숨겨진 정서적인 효능감이 더 높아졌고 제 스스로도 '가능하구나'라는 게 더 높아졌다고 생각해요."(E 집단)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측은지심 정도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다가 한 번이라도 네트워크를 통해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슈가 나오거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D 집단)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에 참여한 성인들은 부당하지 않은 사회,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라는 명확한 목표 지향성이 있어 좀 더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루어지고 실천이 되어 성취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다. 또한 자신이 청소년들과 함께한 실천에 대한 보람과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제가 약자가 되었을 때 잘 사는 사회가 되려면 제가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하지 않아야한다는 생각인데 그런 것을 해 나갈 때 이걸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을 때 좀 더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D 집단)

"성공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의 방향이 좋아서, 그리고 그것이 실천이 돼서 만족을 느꼈구요."(E 집단)

"아이들이 과정 안에서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보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굉장히 뿌듯해했고 스스로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무한 긍정으로 변화하는 큰 지점이 됐었어요."(F 집단)

○ 리더십 역량에 대한 효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모인 성인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가운데, 신뢰성이 높은 기관과 연계하게 되었다. 아울러, 작은 성공의 경험을 통해 성취의 쾌감과 함께 '할 수 있다', '해냈다'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감이 생겼다.

"다른 기관의 직원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 거기서 얼굴 트고, 청소년활동가들이 모여 있다 보니 우리가 만난 청소년들이 이곳에 연계할 때 사실 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냥 막 연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어느 선생님이 계시니, 그곳과 연계하면 되겠다 – 이런 변화들이 생겨요. (중략)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그 성공의 경험이 자꾸 재미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재미있고 의미 있고, 아 이거구나 하는 쾌감을 맛봐야 다음에도 또 하거든요.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장이 네트워크 사업 중에 저희도 작은 학교를 벗어나는 교육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는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같이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네', '우리 해냈다' 하는 경험들을 맛보게 해줬던 것이죠."(D 집단)

○ 시민성 역량에 대한 효과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의 참여자는 지역사회 청소년의 문제를 더불어 사는 사회의 문제로 여기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문제를 풀어나갔다. 특히 네트워크를 통해 관심사와 고민이 비슷한 사람이 만나 호혜적 협력을 이루어 네트워크를 더 확장할 수 있었다. 아울러 관심된 주제에 대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사람들을 구성하고 모을 수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이어져 발전하고 있다.

"이야기 하지만 왜 저 사람은 혼자 떠들지 이런 이야기였다면, 물론 지역이 귀 기울여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런 변화 과정 속에서 저것이 어디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지역의 문제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 무언가를 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이 구체화된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D 집단)

"이런 청소년 성장지원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멀리 떨어져있는 각 지역의 활동들이 교류도 되고 서로 이해도 할 수 있고 또는 반면교사도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F 집단)

"협의회라고 하는 자체가 실무적인 것과 함께 그 안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고민이나 철학이나 사연이나 개개인의 경험들이 함께 녹여지면서 서로 이야기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협의회 구조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작년에는 참여를 안했지만 성장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F 집단)

"'우리 같이 이런 것 해보면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거죠.(중략) 우리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거의 10년째 진행을 해 온 팀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툭 던지는 거죠. 후기 청소년들, 10년 동안 아이들이 많이 큰 거예요. 지속적으로 만나거든요."(D 집단)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참여자들은 함께 힘을 보태고 모으며, 주제를 공론화하고, 자신도 모르게 지역사회에 나가서 참여 하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

"청소년 활동가들끼리.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저도 모르게 관심이 가게 되고 같이 나가서 힘을 보태기도하고 정보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다보니 공론화가 그동안 안됐던 것도 더 멀리 펴져 나가서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구나.. 저 같은 경우는 관심도 없었는데 나가서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식의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D 집단)

(2)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과 타 사업과의 차별성

① 청소년이 경험한 타 사업과의 차별성

청소년은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에서와 달리 자신의 꿈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좀 더 현명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 활동을 하면 선생님께서 왜 이 꿈을 갖게 됐는지, 제 기분은 어떤지 물어봐 주시고 친구들을 만나서도 앞으로 꿈이 무엇인지, 왜 그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 묻게 되니 친구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중략) 청소년 기관의 선생님들께 고민을 말씀드리고 주변 분들께 조언을 구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문제든지 제 주변에 계신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결정을 내렸을 때 좀 더 현명하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선택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A 집단)

또한 청소년 활동을 통해 생활 속의 공간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어 생각의 폭도 넓어졌으며, 창의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틀에 갇혀 있지 않아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지역적으로 학교 안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OO 자체에서 활동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으니까, (중략) 그러다보면 이 활동을 통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넓어졌고 쓸 수 있는 활동도 생기고.."(B 집단)

"학교 밖에서 운영을 하면 창의적인 부스들이 많아서 그런 점이 좋았어요.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개입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 학교 밖 프로그램을 하고 기획하는 것들은 저희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더 재미있고 틀에 갇혀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C 집단)

②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성인이 경험한 타 사업과의 차별성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공간은 너와 나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던 공간이 함께 나누고 소통하면서 네트워킹 공간으로 바뀌고, 청소년들과 조금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확장된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단순히 장소의 공간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통한 마음의 공간까지 확대되었다. 아울러 지역 안에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지역의 행사가 계속 확장되고 아이디어도 점점 확대되었다.

"그런데 제가 OOOO라는 공간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될 때 저희 작업하는 친구들도 같이 가도 되나요? 하면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 있는 친구가 저희공간에 오기도 하고 어찌 보면 공간과 같이 나눠져 있었던 것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저희보다 청소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확장할 수 있는 곳들이 생긴다는 것도 있었고 OOO선생님 만나면 속이 시원하죠,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중략) 이런 새로운 장들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는 거죠, 아이디어들도 생겨나고.."(D 집단)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원은 타 사업처럼 기관의 협의체가 아닌 개인 활동가이자 시민이 '공동의 장'에 모여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결하여 뜨겁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이다. 다만, 이러한 '공동의 장'에 현장의 문제를 공유할 지자체의 공무원도 함께 참여하여 예산과 같은 현장의 문제를 지원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관·학이 함께 청소년의 활동과 행사를 만들어간다는 것에 여타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과의 차별성이 있다.

"시민이라고. 시민이라는 의식만 가지고 만나자고 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돈을 내면 돼요. 그런데 연구가 붙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진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의 장이 현장에 꼭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쪽으로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서만 일하고 있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괴리가 생기잖아요. 이 괴리를

줄여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3자가 현장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같은 온도를 느껴야 해요. 온도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시민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뜨겁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D 집단)

"민간과 기관의 차이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지라는 측면이에요. 민간은 재원을 계속 생산을 해야 해요. 임대료도 내야하고 인건비도 나가야하고. 그러면 자체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관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특수한 경우에 있는 거죠. 이것은 밑바탕에 대한 이야기고.." (E 집단)

"지역에서 좀 더 활발하게 민이나 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활발히 일어나야 할 측면인 것이고 성장 박람회를 준비하는 회의 구조가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F 집단)

또한,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하는 협의체가 구성되고 또 그 안에 청소년의 요구와 활동에 따라 또 다른 협의체가 생성된다. 이러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구슬을 끼워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며 이러한 역할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다. 예컨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기관이 할 수 없는 공동체와 공동체를 함께 엮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아, 이런 게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게 됐죠. (중략) 이 성장지원협의체는 구슬을 끼워주는 역할, 플랫폼적인 역할이 정말 필요하구나를 느끼게 해주고 또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E 집단)

"그런데 그것을 기관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공동체를 함께 엮는 작업이 그것을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E 집단).

(3)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① 청소년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통한 만족도

청소년이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성숙한 점도 있지만, 아쉬움 점도 있었다. 코로나로 인한 환경으로 활동이 지연되어 아쉬움이 있었으며, 전체 활동에 대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행사를 통해 서로 간의 결과에 대한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분과들끼리 힘을 합쳐 소통해야 하는데 분과 하나 하나에서 회의를 완벽하게 끝마치고 활동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중략) 회의하고 그런 것은 마음에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 계획은 다 짜놨는데 계속 연기만 돼서 제대로 활동을 못해 아쉬웠어요. (중략) 참여에서 중간 과정까지는 괜찮았는데 마무리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기도 했고 두루뭉술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B 집단)

"지금 사회적으로 안 될 것을 알지만 조금의 희망으로라도 계속 행사를 주최하는데 거니까.. 자신감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무언가 95프로까지 됐는데 5프로에서 끝나버리니 아쉽기는 하죠."(C 집단)

청소년기관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많은 체험을 하였고, 팀 활동과 회의, 행사 등의 활동에 흥미로워 하였으며, 자신의 기획한 활동이 잘 이루어져 활동에 대하여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다.

"문화의 집에서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재미있고 계속 하고 있어요...(중략) 이전에 비해 팀워크도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계속 회의도하고, 행사도 하다 보니 서로 재미있고. (중략) 하고나면 저는 정말 뿌듯하고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이 와서 저희가 분장한 것을 보고 놀래주고, 문제를 풀어서 탈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 많이 보람을 느껴요." (C 집단)

② 성인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통한 만족도

참여자는 자신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뜻있는 사람이 만나 청소년을 돕고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복' 받은 것이라며 삶에 대하여 만족함을 나타냈다. 아울러, 마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삶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다는 데에 만족과 가치를 느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른 곳은 못 갖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구요." (D 집단)

"그러면서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는 저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E 집단)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제가 더 베풀 수 있는 제가 활동을 함으로써 이게 누군가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발생했으니까 사업 덕분에.. 거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감을 느꼈고, 저의 가치는 더 빛나겠죠?" (E 집단)

그리고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활동도 많아지는 반면, 예산이 부족하여 변화된 활동들을 지원하는데 불편함을 느꼈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활동이 많아질수록 이에 따른 예산과 열정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팀이 있으면 여기서 뭘 하는지 보고 예산을 맞춰줘야 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열정으로만 해야 하는 게 아쉬워요. 네트워크가 잘 되어있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인 것이 예산은 한정적인데 네트워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 생기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D 집단).

6) 소결 및 시사점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지역별, 대상별로 성장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문제해결 역량, 자야 역량, 성취동기 역량, 리더십 역량, 시민성 역량 경험에 대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문제해결 역량, 자아 역량, 성취동기 역량, 리더십 역량, 시민성 역량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은 문제해결 역량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행동하게 되었으며,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실현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였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분쟁을 해결하면서 상황 대처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문제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얻어 이후 행동을 계획할 수 있었다. 또한 '자존감이 낮고', '굉장히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청소년이 '한다면 할 수 있는 자신', '무언가를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는 자신'으로 인식하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향상되었으며, 자신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바뀌는 등 자아역량이 높아졌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체험활동과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자신이 계획한 목표를 이루고 해냄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또래 및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운영하는 등 리더십이 향상되었으며, 자신의 활동에 대한 주변인의 신뢰를 얻고 구성원들의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기획하고 운영되는 행사를 통해 만족감과 함께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성 역량이 높아졌다. 이전에는 참여에 대한 압박감과 불편함이 있었지만,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표현과 참여를 통해 사회가 바뀌고 변화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둘째,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참여한 성인들의 역량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해 청소년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1인 시위도 하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 문제도 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해 찾았으며, 공공성을 전제로 협력하거나 문제를 조정 · 해결하는 등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성과 원인 및 결과에 대하여 논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였다.

한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참여한 성인들은 그 동안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생각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친구가 생겨 공감하며 든든하게 생각하였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개인보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함께한 동료의 공감과 지지로부터 든든함을 느끼게 되었다. 아울러, 청소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며, 어른인 자신도 함께 성장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변화하게 됨을 느꼈다. 또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참여한 성인들은 부당하지 않은 사회,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라는 명확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아갔다. 특히 구성원들이 격려하고 공감해주는 '공감의 경험'으로도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으며, 경험을 통해 효능감이 높아져 앞으로의 실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부당하지 않은 사회',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라는 명확한 목표 지향성이 있어 좀 더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협의체를 통해 실천한 행동들이 이루어져 성취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다. 아울러, 작은 성공의 경험을 통해 성취의 쾌감과 함께 '할 수 있다', '해냈다'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감이 생기는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협의체를 이끌어 나아갔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구성원들은 지역사회 청소년의 문제를 더불어 사는 사회의 문제로 여기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문제를 풀어나갔으며, 관심사와

고민이 비슷한 사람이 만나 호혜적 협력을 이루어 협의체의 네트워크를 더 확장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역사회 주제를 공론화 하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참여를 하는 힘이 생기게 되었으며, 관심된 주제에 대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사람들을 구성하고 모을 수 있는 등 지역사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성이 향상되었다.

셋째,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경험한 청소년과 성인은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경험하면서 이전의 사업과는 다른 경험을 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은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좀 더 현명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청소년 활동을 생활 속의 공간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어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기존의 틀에 갇혀 있는 활동보다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활동에 대하여 생각의 폭도 넓어졌으며, 더욱 창의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었다.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경험한 성인의 경우,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간을 서로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있었으며, 서로 간의 이야기를 통한 마음의 공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원은 타 사업처럼 기관의 협의체가 아닌 개인 활동가이자 시민이 '공동의 장'에 모여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이며 활동적으로 운영하였다. 반면에 '공동의 장'에 현장의 문제를 공유할 지자체의 공무원도 함께 참여하여 예산과 같은 현장의 문제를 지원하고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민 · 관 · 학이 함께 청소년의 활동과 행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하는 협의체는 청소년의 요구와 활동에 따라 또 다른 협의체가 생성되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구슬을 끼워주는 플랫폼을 통해 공동체와 공동체를 함께 엮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과 성인들은 사업에 대해 보람을 느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해 보지 못한 많은 체험을 하였고, 팀 활동과 회의, 행사 등의 활동에 흥미로워 하였으며, 자신의 기획한 활동이 잘 이루어져 활동에

대하여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다. 성인의 경우,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마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삶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청소년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다는데 대하여 만족감과 함께 가치롭게 느꼈다. 반면에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참여한 성인들은 점점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활동도 많아지는 반면 예산이 부족하여 변화된 활동들을 지원하는데 불편함을 느꼈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활동이 많아질수록 이에 따른 예산과 열정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청소년이 어우러져 서로 부딪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소극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또래 및 지역주민과 함께 모여 성장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운영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통해 문제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해결하면서 자신감이 향상되고 자존감이 높아졌다. 또한 행사나 대회를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리더십이 향상되고 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청소년이 참여하여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와 행사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와 함께 시민성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활동에 대해 청소년기관에서의 성장지원 활동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이 학교 안과 밖이 연결되도록, 지역사회 청소년기관과 교육청, 단위학교, 지자체가 함께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향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확대되고 활동도 많아짐에 따라, 협의체가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청소년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현장의 문제를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학이 함께 청소년의 활동과 행사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제6장 법·제도 개선 및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2. 전문가 서면조사 분석 결과
3. 전문가 면접조사 분석 결과

VI 법 · 제도 개선 및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42)]

1. 조사개요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의 1차년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토대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였고,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았다. 의견조사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개념적 논의부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 주체와 운영 방식 및 역할,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방안,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요건 및 성공요인 등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에 관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하였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에 있어 다양한 전략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차년도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법·제도의 필요성과 관련 사례 및 개선 사항과 자치법규의 구성요소 등을 도출하고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활성화 방안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2) 이 장은 최인재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강경균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음.

2) 조사방법 및 절차

전문가의견조사는 1차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총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는 반구조화 질문에 대해 전문가 자신의 의견을 응답지에 기술하는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2차는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실시하였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접은 온라인 형태로 진행하였다.

먼저 조사지는 문헌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용의 전체 틀과 세부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이후 구성된 조사지에 대해 연구진의 사전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다 완성된 형태의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 본원 IRB 심의과정을 거쳐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서면조사 방식으로 사전에 조사 참여여부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쳤으며, E-mail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진이 직접 실시하였으며, 1차 서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집단별 면접조사 시간은 약 2시간 내외로 소요되었다.

표 Ⅵ-1 조사방법 및 절차

구분	내용
참여자 표집과정	시범사업 운영지역 협의체 위원 중 사업 담당자의 추천 정책실무협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개별접촉 및 추천
집단별 참여자	A집단: 시범사업운영지역 협의체 위원 중 5명씩 표집 B집단: 공무원, C집단: 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 학계
의견조사 기간	2020년 7월 말 ~ 8월 말
의견조사 방식	1차: 서면의견조사, 2차: FGI
FGI시간	집단별 2시간 내외
면접조사 녹취 및 기록	참여자의 사전 동의 후, 녹취 및 전사
조사원	연구진

3) 조사 대상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관련 운영자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약 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참여자는 시범사업 운영자,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자 중 청소년 관련 전문가,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 공무원,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학계 전문가 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Ⅵ-2 조사참여자 구성

영역	면담참여자	소속	참여	
			서면조사	면접조사
시범사업 담당자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참여자	A1	OO수련관	●	●
	A2	OO대학교	●	●
	A3	OO상담복지센터	●	●
	A4	OO대표	●	●
	A5	OO재단	●	●
	A6	OO문화의집	●	
공무원	B1	OO구청	●	
	B2	OO군청	●	●
	B3	OO시청	●	●
학계 및 관련 전문가	C1	OO수련관	●	●
	C2	OO센터	●	●
	C3	OO교육청	●	
	C4	OO시청	●	●
	C5	OO대학교	●	●
	C6	OO대학교	●	●

4) 조사 내용

전문가 의견조사를 위한 질문지 구성은 다음 〈표 Ⅵ-3〉과 같다. 1차 서면조사에서는 다음 〈표 Ⅵ-3〉의 내용을 기준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문헌고찰, 사례조사 및 연구진회의를 통해 최종 구성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FGI에서는 1차 조사 응답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이고, 심화된 질문을 통해 1차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Ⅵ-3 조사 문항내용 및 상세질문

조사영역	세부구성		문항내용
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	공통	1-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1-2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 사례 및 개선 사항
		1-3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성 요소 및 내용
		1-4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및 절차
		1-5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자치법규 사례 및 개선 사항
		1-6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구성 요소 및 내용
		1-7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및 절차
		1-8	기타
2.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집단별	2-1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전반적 문제점과 개선 사항
		2-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방식, 역할,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공통	2-3	기존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나 관련 유사 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사항
		2-4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2-5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각 주체의 역할 및 개선 사항
		2-6	기타

질문지 구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질문지의 구성 영역을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본 사업의 근간이 되고, 향후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로 구분하였다.

먼저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 영역의 내용은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 및 개선 내용,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구성 요소 및 내용,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및 절차,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자치법규 사례 및 개선 내용,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제정을 위한 자치법규 구성 요소 및 내용,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영역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네트워크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방식, 역할,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나 관련 유사 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사항,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행정영역, 공공영역, 민간영역 등 각 주제의 역할 및 개선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1-1~1-8 및 2-3~2-6까지는 조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이 응답하도록 하였고, 2-1, 2-2 문항은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 지역 대상자들만 추가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서면조사 및 FGI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는 전사(transcription)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아울러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있어 문헌고찰,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 내용과 함께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전문가 서면조사 분석 결과

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

(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관련 법률은 기존에도 이미 몇몇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 법령의 조항들은 주로 선언적인 문구로 되어 있을 뿐 그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에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제·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관련 법령에 있어 성장지원을 위한 재·개정이 필요하다.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 사업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설치, 역할, 예산, 인력 등 운영 체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활동 전반에 걸쳐 성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장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모두가 소외됨 없이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받고 보호 및 복지 등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사업의 연계와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원활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의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 시·군·구 마다 지자체의 환경이 다르고 청소년의 활동상황 및 요구가 각각 다르기에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법적 내실화와 지자체 등 행정 영역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내용의 조례를 통합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Ⅵ-4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조사영역	문항내용	내 용
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	1-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청소년시설-지역사회 간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이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으로 의미 확장 필요 • 청소년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을 확장하여 포괄적, 통합적으로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로 개정 필요 • 지속적, 실질적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하여 협의체 설치 및 권한, 역할, 예산, 인력 등 운영체계 관련 법률 제·개정으로 제도적 안정성 확보 필요 • 기존 청소년 관련 법은 관련 기관의 기능, 역할, 규제 관련 조항으로, 규제 중심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항목에 대한 정비 필요 • 부처별로 고유목적에 따라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법률이 각기 규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이해 충돌이 일어나기도 함. 또한, 이는 협력 사업이 아닌 독립 사업을 진행하는 근본적 원인 • 행정적 칸막이로 지역 내 청소년들에 대한 진단·지원이 분절적으로 되고 있음 • 산발적으로 만들어진 유사한 내용의 조례 통합 개정 필요 • 지자체 등 행정영역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필요 • 단위학교-지역사회 연결을 위한 1차 지역 연결 창구 부재 • 지역 내 원도심-신도심, 권역별, 동(학군구/마을) 등 하위단위마다 청소년의 활동상황 및 요구 등이 다르므로 이에 맞춘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마련 필요 **▶ 포괄적, 통합적 성장지원** **▶ 제도적 안정성 확보 및 운영체계 안정화** **▶ 규제 중심 및 활동 위축 항목 정비** **▶ 부처별, 산발적 법규 통합 정비** **▶ 원활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화**

(2)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 사례 및 개선 사항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사례 및 개선사항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본법」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법률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청소년 성장지원과 유사한 "청소년 육성" 관련 「청소년기본법」의 내용은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사회 성장지원 전반을 다루는 관련 법령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장지원 전반을 다룰 수 있는 법·제정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조직의 설치 및 운영, 청소년 성장지원 계획수립,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관리 및 지원,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지원 등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활동 및 운영이 청소년활동시설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이 제시되어 있어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기관의 기능에 관련된 규제 중심의 법률을 검토하여 청소년시설-지역사회 간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이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으로 의미를 확장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청소년과 관련한 영역을 다루고 있으나, 아동과 노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돌봄 분과, 위기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보호 안전 분과 등으로 나뉘어 돌봄과 위기 등 특정 분야만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반적인 성장 전반을 지원하기에는 현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에 대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는 성장의 의미가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을 다루고 지원하는 조항에 대한 신설이 요구된다.

표 Ⅵ-5 청소년성장지원 관련 법률 사례 및 개선 사항

조사영역	문항내용	내 용
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	1-2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 사례 및 개선 사항	• 학교 내 청소년, 위기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에 대한 개정 필요 • 돌봄, 위기 등 특정 분야만을 지원하는 법률을 청소년 성장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범위 확대 필요 • 청소년기본법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계획수립,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육성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사회 성장지원 전반을 다루는 관련 법령으로는 한계가 있음. • 일반행정, 교육행정으로 이원화되어 지역사회 전반적, 종합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설정이 어려움. 따라서 지역의 전체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 성장지원 정책과제를 담은 조례제정 필요 • 청소년'육성' → 청소년'성장지원' 또는 청소년'성장':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는 법률적 단어로 청소년을 주체로 보는 법률 관점 전환 필요 • 청소년 성장 중심의 관점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예: 청소년활동 시설 유형을 청소년 성장 과정에서의 역할, 기능에 대한 관점으로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경우 인증제, 사전신고제, 수련시설에 대한 규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활동 진흥이 아닌 규제 중심으로 구성됨. •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등 자치법규 개정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의견 반영 필요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1항 및 같은 영 제25조와 관련,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변경 필요 **▶ 한정적 지원 대상, 분야 및 범위 확대(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 청소년 성장 전반 지원, 지역사회 전반 지원)** **▶ 청소년을 성장 주체로 관점 전환 필요** **▶ 활동 진흥이 아닌 규제 중심의 조항 개정 필요** **▶ 법률 간 중복, 차이, 불명확한 조항 개정 필요**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의견 반영 필요**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변경 필요**

(3)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성 요소 및 내용

정부 기관의 목적에 따라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법률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각 부처별 사업을 독립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사업 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을 확장하여 포괄적·통합적으로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부처 간 협력적 사업이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법률은 청소년을 주체로 하는 청소년성장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기본권과 권리 함양의 차원을 보장해야한다. 특히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에 대해 명시해야 하며,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해 청소년의 기본권과 권리 함양 차원에서의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청소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 규정, 지자체의 책무, 시민의 책무, 청소년 성장을 위한 우선적이고 적극적 조치, 연도별 시행계획, 정책분석평가, 통계, 정보제공, 참여확대와 촉진, 성장지원 기금 확보와 배분 등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등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추진체계와 운영이 명시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영역이 분리되어, 청소년의 지원이 분산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마을과 학교의 연결. 교육공론화 과정에서 정책 의결까지 이어가며 '실천적'으로 작동되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대한 구성과 운영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성장 전반에 관한 지원보장을 다루는 법률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등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며,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 실제 작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및 예산지원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표 Ⅵ-6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성 요소 및 내용

조사영역	문항내용	내 용
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	1-3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성 요소 및 내용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의 설치, 구성, 운영, 예산, 전담인력 배치 및 그 근거에 관한 사항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목적, 목표, 기본원칙과 청소년성장지원의 정의, 지원 대상 및 범위와 그 내용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보호체계 기반 등 인프라 구축 방안 • 청소년을 주체로 보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 성장지원을 위한 법률 조항 • 청소년성장지원 주체별(국가, 지자체, 시민 등)의 책임과 의무 • 실제 시행을 위한 법률적 장치 필요 • 청소년 성장지원의 연도별 시행계획, 정책분석평가, 통계, 정보제공, 청소년성장을 위한 우선적, 적극적 조치, 참여확대 및 촉진 등을 규정 • 청소년 관련 타 법률에 대한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 우선 적용 명기 • 일반자치-교육자치, 시청-교육지원청, 마을-학교를 연결하며, 교육공론화부터 정책의결까지 가능한 실천적 지역교육협의체에 관한 사항 • 지역학점제 등 교육과정으로 마을-학교를 잇는 행정지원체계 및 지역기반 실행기구에 관한 사항 • 기타 - 주민자치회 참여 시 공결(공가)로 인정하는 방안 - 지역사회 참여 보장 등 - 16세 이상 교육감 선거권 부여 - 지역사회 참여 활동 누적 관리 후 진로 활동에 기록 - 사회교과 등에 지역사회 활동 참여 필수 배정 - 18세 이상 정당가입 가능 조항 - 청소년 5인 이상 동아리 활동 시, 공공시설 이용권 보장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인력 및 재정 근거, 목적·목표·원칙·정의 설정, 지원 대상·범위·내용, 책임·의무, 청소년 기본권, 정책 시행계획**

(4)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및 절차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관련 법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와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과 자치법규 제 ·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법률 제·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무총리령 및 부령을 제·개정하는 경우는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 및 국무회의 심의가 생략되어, 법률안 입안 후 관계부처 회의,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총리 또는 장관의 서명 공포로 진행된다.

둘째,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추진 방안으로는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새롭게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개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며, '청소년기본법'에 시설 및 지역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청소년지도사와 같은 전담 인력배치 등에 대한 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법률 제·개정과 함께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 성장지원의 이해 및 공론화를 위하여 기본이념·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은 중앙정부, 광역, 그리고, 기초간의 역할분담과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조정 등 현재 관련기관 간 많은 부분이 조정이 필요하므로, 현장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관계자 및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통 의견 및 개선사항을 검토·발굴하여 의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성장지원 활동을 하는 현장전문가와 수혜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집단에서 공동으로 대안을 개발하여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관계자·실무자 논의와 협조를 통해 사회적 합의 및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표 Ⅵ-7 청소년성장지원에 관한 법률 제 · 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및 절차

조사영역	문항내용	내 용
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	1-4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및 절차	**[추진절차]** • 청소년성장관련 기본 연구추진 – 관련 법 제정 –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 • 관계자 의견수렴 등 – 사전심사 –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20일 이상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시의회 안건상정 – 조례공포(의회 의결 이송일부터 20일 이내) • 시군단위 설명회 – 연구모임/기획단 조직 – 기존 청소년 관련 법률 검토 – 시군단위 포럼 – 광역단위 포럼 – 국회토론회 개최 • 기존 유사 법률 검토 – 해외 사례 검토 –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공청회 • 추진방향 및 계획수립을 위한 현장 공개 의견 수렴 – 계획 수립 – 전문가 1차 자문 – 각 영역별 현장 의견수렴 취합 – 전문가 2차 자문 – 공청회 **▶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 법률 검토(연구추진, 전문가 자문 등 활용) – 토론회, 공청회 개최** **[추진방안, 고려사항]** • 청소년영역에 국한되어 제한적인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의 기본 이념 수립 및 내용 확장 노력 필요 •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목적, 비전 등) 수립 필요 • 기존 법률 및 체계와의 차별성, 보완성 확보 • 국회의원들과의 협조체계 구축 • 청소년 성장지원 관계자 및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통 의견 및 개선사항을 검토·발굴하여 현장 전문가와 수혜자 집단을 대변 • 지역특성, 여건에 맞는 조례 개정 필요 • 법률 제·개정 필요성 공유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사회적 합의 기반 조성 및 공론화 추진 • 법부처간 공동 발의(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간) • 청소년 성장지원 법률 제·개정시 가능하다면 여성가족부령이 아닌 국무총리령으로 추진 필요 **▶ 기본이념·목표 설정, 보완·차별성 확보, 국회의원 협조, 관계자·실무자 논의, 지역여건에 맞는 개정, 사회적 합의·공론화, 범부처 공동 발의**

(5)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자치법규 사례 및 개선 사항

지역사회의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자치 법규는 종합적이며, 포괄적인 자치 법규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자치법규는 주로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혁신교육, 돌봄, 복지 등 전반적인 청소년의 성장지원 보다는 특정 분야, 특정 영역만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모든 청소년에 대하여 기존의 청소년 관련 조례의 정비를 통해 전반적, 포괄적 성장지원을 보장하는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자치 법규의 경우, 그 내용에 있어 전체 사업을 지원하는 센터와 해당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인력, 예산, 시설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조례의 제정이 어려울 경우, 현재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 및 아동친화도시 조례 등 성장지원과 유사한 자치법규를 개정할 수 있다. 예컨대, 각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청소년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마을 내 청소년, 학부모 등을 포함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로 주로 혁신교육지구사업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래형 교육협력 자치지구(미래교육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교육지구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내용에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되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교육공동체 및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 조례, 그리고 미래교육지구와 같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조직하고, 관련 자치 법규를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혁신을 위한 사업과 함께 운영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표 Ⅵ-8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자치법규 사례 및 개선 사항

조사영역	문항내용	내 용
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	1-5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자치법규 사례 및 개선 사항	• 전체 사업을 지원하는 센터와 해당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인력, 예산, 시설 등)을 명시 • 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자치법규는 주로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혁신교육, 돌봄, 복지 등 전반적인 성장지원 보다는 특정 분야, 특정 영역만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함. 지역사회 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 포괄적 성장지원을 보장하는 법률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모법의 관점(청소년 성장지원)이 제시되어야 함. • 해당 법규에 강제조항이 없을 경우,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강제조항이 필요함. • 산발적으로 만들어진 기존 조례의 종합적 정비를 통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야 함. • 청소년 관련 지원이 재학생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의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청소년 대상 금전·비금전적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 추진 필요 • 각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청소년으로 확대 적용 필요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육성위원회 구성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위원 추천을 받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 모든 청소년들에 대한 포괄적 성장지원 보장, 강제조항 필요, 기존 조례의 종합적 정비 필요, 정책에 협의체 의견 반영 필요**

⑹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구성 요소 및 내용

청소년의 성장지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치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종합적이며 포괄적인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자치법규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다.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자치법규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는 첫째, 청소년 성장지원의 대상, 목적, 정의, 기본 원칙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기존 청소년사업은 재학생 위주로 운영되어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소외가 생겼다. 따라서 소외되는 청소년 없이 모든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이며 포괄적 범위의 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성장지원 조직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청소년 성장지원 기반으로 재구조화하여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근거, 역할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에 대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청소년, 마을, 학교, 지자체, 교육지원청, 의회 등 각 주체가 참여하는 열린 구조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내용으로는 학교-지역사회 연계 협력 및 학교의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민·관·학 연계 협력 및 지자체 내 부서 간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 주민의 참여 방법에 관한 사항 등 청소년의 요구 파악과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공론화 그리고 정책화하는 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한 회의, 제도 등의 운영 방식과 시설 설치 및 인력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의 범위 및 기능과 운영비의 지원과 같은 예산이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표 Ⅵ-9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구성 요소 및 내용

조사영역	문항내용	내 용
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	1-6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구성 요소 및 내용	• 청소년 성장지원 시설 및 인력, 예산 • 청소년 성장지원의 목적, 목표, 정의 설정 • 청소년 성장지원의 대상, 범위, 내용, 근거, 지원 방법 등 • 기존 청소년사업은 재학생 위주로 운영되어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소외가 생겼음. 따라서 소외되는 청소년 없이 모든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 포괄적 범위의 성장지원이 필요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근거 및 운영, 위원회 구성, 권한 부여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의 운영방식 - 정기회의: 계획수립 논의 및 결정, 시행결과보고 및 환류 등을 내용으로 최소 2회 이상 개최 - 청소년전담공무원제도: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 소지, 별도 공무원 제도로 운영 필요 • 상위 법률에 명시된 근거에 맞추어 자치법규 내용을 구성 •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인력 양성 • 학교-지역사회 연계 협력 및 학교의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 민·관·학 연계 협력 및 지자체 내 부서 간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 주민의 참여 방법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자치활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공식적 창구로 자리 잡기 위한 사항 • 청소년의 요구 파악과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공론화, 정책화 과정(청소년, 마을, 학교, 지자체, 교육지원청, 의회 등 주체가 참여하는 열린 구조)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청소년 성장지원 기반으로 재구조화 ▶ **인력, 재정지원, 성장지원 목적·목표·정의 설정, 지원 대상·범위·항목·근거, 지원체계·조직 구성 및 운영, 운영방식(정기회의, 청소년전담공무원제도 등), 시설, 지역사회·지자체 등과의 협력, 청소년 요구파악 및 사회적 합의 등**

(7)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및 절차

조례는 지방차지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3장에는 조례와 규칙에 대한 법률이 명시되어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차치 법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례(안)를 지방자치의 장, 지방의회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 제출하며, 안건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의결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후 의결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며, 지방자치법 2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조례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둘째,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성장지원 전 영역에 대한 포괄적 접근과 지역사회 내 공론화 과정 및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제·개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수요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 조례 제정을 위해서 행정의 적극성, 책임 있는 태도, 실천의지, 수혜자 대변 집단, 지방의회 의원 지지 등이 필요하므로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의견수렴과 제·개정안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시민성 향상과 나아가 지역사회 시민교육에 기여해야 하며, 다양한 민·관·학 주체를 포함한 긴밀한 연계 협력체계 구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구 의회 위원들과의 네트워크 등 협조가 중요하다.

표 Ⅵ-10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및 절차

조사영역	문항내용	내 용
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	1-7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및 절차	**[추진절차]** • 여론 수렴 – 토론회 개최 – 제·개정 'T/F 구성' – 제·개정안 마련 – 공청회 • 관계자 의견수렴 – 사전심사 –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시의회 안건상정 – 조례공포 • 지역·교육주체 연구회 조직 – 기본안 마련 – 소집단 포럼 – 국회 토론회 • 지역 내 정책실험 – 도출 문제 정리 – 정책안 도출 • 공개 의견수렴 – 계획수립 – 전문가 1차 자문 – 각 영역별 현장 의견수렴 – 전문가 2차 자문 – 공청회 • 청소년 기본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 관련 조례들의 중복성, 합리성 등 검토로 정리하는 중장기적 로드 병행 필요 **▶ 의견수렴 – 제·개정안 마련 – 검토(포럼, 전문가 자문 등 활용) – 토론회, 공청회 개최** **▶ [추진방안, 고려사항]** • 조례 제·개정을 위한 수요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실질적 조례입법 진행을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성, 책임 있는 태도, 실천의지, 수혜자 대변 집단, 지방의회 의원 지지 등이 필요 • 청소년 성장지원 전 영역에 대한 포괄적 접근과 지역사회 내 공론화 과정 및 사회적 동의 필요 •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 제·개정이 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시민성 향상, 지역사회 시민교육에 기여해야 하며, 개정 과정에 청소년 의견 개진 • 다양한 민·관·학 주체를 포함한 긴밀한 연계 협력체계 구축 필요 • 학교 내 교육복지와 학교 밖 청소년안전망 통합 플랫폼 조직 구성, 학교 내 지역연계 담당자 배치를 통한 지역 연계에 대한 조례 개정 필요 • 지역구 의회 위원들과의 네트워크 등 협조 요청 • 조례내용의 적법성, 형식완결성, 불합리적 규제 차단, 상위법 제·개정 등 자치법규 제·개정 사유 발생 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위임사항 반영 **▶ 행정기관의 적극적 참여,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청소년 사회참여 및 시민성 향상 기여, 민·관·학 연계 협력체계 구축 등**

⑻ 기타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의 필요성, 법률 사례 및 개선사항, 구성요소 외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법은 '노동인권', '복지', '참여' 등 한 분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성장지원은 각 정부부처 간, 기관 간의 합의와 협력이 요구되므로 법률의 실효성을 위해서 정부부처의 협력과 역할 재구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제현장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청소년 관련 분과와 CYS-Net 등이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성장협의체가 기존의 지역네트워크간의 차별성 및 관련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CYS-Net 등은 특정영역에 국한되어 운영되는 반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협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네트워크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자치법규 제·개정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치법규가 제정되고 법에 근거한 사업을 진행할 때 주체적이고 협력적인 사업으로 견인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 내에 지역 내 수요와 환경을 파악하고, 의회 및 지자체장의 역할과 책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자치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치법규가 지역사회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지원청, 청소년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표 Ⅵ-11 기타

조사영역	문항내용	내 용
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	1-8 기타	•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조정 논의 및 조례 제정시 이에 대한 명시 필요 • 지역 내 수요, 지원 환경(정치적 지원 환경-의회 및 지자체장 의지 등- 포함) 등 지역 환경에 대한 분석 선행 필요 •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은 청소년 성장 관련 전 영역을 다루어야 하므로 가급적 전 사회적 법률을 아울러야 함. 관련 분야의 정부부처와 법률적 연계·협력(예: 청소년노동인권-고용노동부 등)이 필수이며, 정부부처 역할도 함께 재구성되어야 함. • 민·관·학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민간 영역의 의견 반영을 위한 위원 위촉 방안 마련 • 지역사회 내 공론화 과정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함. • 지역구 의원, 국회의원과의 협조체계 구축 • 권한, 책임에 대한 논의를 조례 제·개정 시 포함. • 청소년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 제·개정 시, 현 시범사업 운영지역 뿐만 아닌 국내 전 지역과 각 분야(아동, 복지, 교육 등) 의견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지역 모든 청소년의 전반적, 보편적 성장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청소년 성장지원 담당 청소년전담공무원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명시 •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함. ▶ **지역 환경 분석, 모든 청소년의 전반적 성장지원으로 범위 확대, 공론화, 민·관·학 협력체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역할·책임·권한 논의, 다양한 주체의 의견 반영, 청소년전담공무원제도 등**

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1)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전반적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1과 2-2 항목은 시범사업 지역의 협의체 및 네트워크 사업 운영과정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관한 것이기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세 지역의 협의체 구성원과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협의체와 관련하여, 전담인력이 부족함을 제시하고 있다. 전담인력은 협의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인력은 물론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전담인력도 해당된다 할 수 있다.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한 예산 지원과 전담인력의 배치 및 전담인력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양성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본 사업에 관한 지역사회의 이해가 부족하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활용과 네트워킹을 위해 지역사회에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며,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체계 부족을 들 수 있다. 협의체 내 지자체 담당 부서 관련자 및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협의체에서 기획한 사업도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정기회의를 통해 협의체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공유와 상호 협조해야 할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의 경우 법률이나 조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사업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제도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표 Ⅵ-1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

조사영역	문항내용	내 용
2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및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2-1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전반적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문제점]** •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인력이 제한적이고, 성장지원협의체 전담 인력이 부족함. • 인력부족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모임 등을 시도하여 인적 자원 발굴 필요 • 지역사회 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 제고를 위하여 공론화 작업이 선행될 필요 • 지자체,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등 민·관·학 연계, 협력이 부족하며,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의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민·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과제를 추진하다보니 합의 과정이 비교적 더디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과제 우선순위 설정에 어려움을 겪음. • 단순히 사업 계획 단계에서 민·관·학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분기별 정기회의 등 논의 가능한 네트워크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소통과 공유 필요 •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하여 네트워크사업의 성공 경험을 통한 신뢰구축 및 자체 사업예산 책정 등이 필요 • 현재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시도 중이기에 협의체의 유연성이 다소 부족 • 정기회의 등을 통해 각각의 사업 공유 및 협조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 필요 •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연계 진행 중, 조례 제·개정 필요 ▶ **인력 부족, 민·관·학 협력 부족, 지속가능한 협력, 신뢰관계 구축, 예산 책정 문제, 공론화 필요, 유연성 부족**

(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방식, 역할,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현재 시범사업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의 운영방식, 역할,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에 관해 관련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곡성지역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교육 지원청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현재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포함한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사업을 재단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협의체와 재단 내 설치가 계획되고 있는 협의회(체) 간의 유사 중복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직 재단 내 사업과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나, 향후 재단 내 사업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이 확정된다면 본 사업도 재단에서 맡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한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이 현재 공공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시범사업 지역을 보면, 현재 공공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고, 민간의 참여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민간의 경우 예산, 인력 및 제반 여건이 공공기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참여가 저조한 이유이고, 본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지역사회 민간의 부족한 역량도 이유에 해당된다. 협의체에서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시도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수혜 당자사인 청소년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일부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분과 협의회부터 최종 사업 의결과정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표 Ⅵ-1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방식, 역할,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조사영역	문항내용	내 용
2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및 네트워크 사업	2-2 청소년성장 지원협의체 운영방식, 역할,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 지역사회 이해도 및 전문성이 더 높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미래교육재단은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함.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기관과 미래교육재단의 역할이 중복되므로, 중간조직으로 설립된 미래교육재단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사업을 맡아야 함. • 기존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청소년기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 확대 필요 • 청소년 성장은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교육기관의 비중이 큼. 청소년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 •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가 청소년 사업의 필요성 인식해야 함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서 지역사회의 청소년 이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하여 이를 현안과제로 논의,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 다양한 분야, 민간영역 등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구성을 확대하여 기존 청소년시설 중심 의제에서 보다 확대된 의제 발굴이 필요 •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관련 다양한 의제 발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 • 지침에 따라 형식적, 수동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는 효과를 보장하지 못함. ▶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필요, 재단 사업의 확립에 따른 기존 사업의 조정, 협의체 구성 및 참여(교육지원청, 민간 등) 확대, 지자체의 청소년 사업 필요성 제고,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대한 지속적 지원, 새로운 청소년 의제 발굴, 지역 내 청소년 이슈 공론화, 협의체의 실질적 참여**

(3)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나 관련 유사 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사항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이 지역사회에 안착되고 발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 사업과의 연계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이 사업 전체를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유사 사업은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도록 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정기적 회의 통한 교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형태나 실행네트워크가 구성될 필요성이 있다.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 간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기에 관련 네트워크와의 관계에서도 어느 한 네트워크가 상위 네트워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상호 협력하되,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기관인 청소년시설이 보다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 과정에서 실무자협의회 등을 통해 상호 교류하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에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 행정부처별 사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중간지원 조직)"의 설립과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현재 몇몇 지역에서는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도 지역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된 곳은 중간지원조직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협의체와 협력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

한편,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제도적 구속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중앙부처간 협력, 광역단위, 기초단위, 동 단위 등 보다 정교한 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표 Ⅵ-14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나 관련 유사 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사항

조사영역	문항내용	내 용
2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및 네트워크 사업	2-3 기존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나 관련 유사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사항	• 각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이 사업 전체를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유사사업 기관 및 협의체는 사업 협력 파트너 혹은 참여기관으로 명시해야 함.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지역 내 운영 중인 다양한 협의체의 상위 체계,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기능을 해야 하며, 이는 체계를 갖춘 공식적, 실질적 지원체계여야 함. • 민·관·학 상호이해를 위한 정기적 회의 및 교류 필요 • 기존 유사사업 및 조직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차별성 및 상호 보완성을 확보하여 네트워크 구성 • 전문분과협의체 혹은 워킹그룹과 같은 특정 단위로 그룹화 된 실행네트워크 필요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내 각 하위 협의체 대표 및 실무자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소년 성장 중심으로 모든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함. • 구체적, 실질적 네트워크를 위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법률적 강제력을 높여야 함. • 관련 유사사업의 통합지원센터 개설 및 공동결정권한 부여 필요 • 청소년 활동 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 사업 추진 시, 중간지원조직(예: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연석회의를 추진, 학교에 공문 발송을 하는 등 상호연계를 통하여 청소년 참여를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 • 갈수록 중앙부처의 정책 영향력은 현장성이 떨어져서 지역에 지원-개입하는 밀도가 줄어들고 있음. 지역마다 민·관·학 협력 밀도가 다르게 나타남. • 정책 유사사업의 총괄 카테고리는 중앙부처간 협력사항, 광역단위, 기초단위, 동(학군구/마을)단위 등으로 정교한 통합 교육협력 네트워크 범위 설정 필요 ▶ **정기적 교류, 그룹화, 상위 네트워크, 실효성, 통합지원조직 개설, 권한 부여, 차별성 확보, 공론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⑷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이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는 지자체나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예컨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와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한 서로 간의 이해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사업의 분절화 혹은 유사 중복 사업이라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각 부서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와 각 주체들의 정기적 만남을 통해 상호간 이해 폭을 넓히고, 시너지 효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업무 연속성 제한 및 역량 부족 문제와 협의체 운영 담당자의 소진 문제를 들 수 있다. 행정기관의 경우 청소년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이해와 해당 업무에 대한 역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청소년시설에서는 기존 직원들이 네트워크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하다 보니 업무가 가중되고, 필연적으로 소진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제시된 것과 같이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전담인력의 배치와 담당자에 대한 연수 강화를 통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업무의 지속성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3 문항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나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의 문제이다. 이는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교육(지원)청에도 해당되는 사안으로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 혹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 수요자들인 청소년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며, 경직된 네트워크보다는 유연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표 Ⅵ-15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조사영역	문항내용	내 용
2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및 네트워크 사업	2-4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 필요성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지자체,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 일반 행정, 교육행정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 장기적 지원으로 극복해야 함. • 민·관·학 간의 논의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과 관의 민에 대한 자율성 인정, 이해도 제고 필요 • 지역 내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수요-공급 파악 어렵고, 지역 특성(도시/농촌 등), 부서 특성에 따른 차이가 커 네트워크화가 어려움. 지역·부서 맞춤식 접근 방식이 필요 •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 중심으로 지역 맞춤 네트워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성장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 제고 및 유연한 구조, 체계 구성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사업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가 낮으므로 이를 높이기 위한 홍보 필요 •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사업 고도화 제한 사업 인력 역량 강화 필요 •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소진 및 업무 과중화 • 민간활동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공성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기존 연계 네트워크에 소속된 민간단체 외의 다양한 단체와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마련 필요 • 각 부처, 기관별 분절적 사업 추진으로 유사정책사업 및 지원이 난무함. 기존 사업, 조직 등과 차별성 확보 필요 •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특성, 참여 동기 등에 대한 이해 필요 • 공급자 중심의 네트워크를 수요자(청소년) 중심의 네트워크로 변화시켜야 함. ▶ **공론화, 인력,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지역·부서 맞춤 접근,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지원, 분절적 네트워크, 차별성 확보, 담당자 역량강화 및 전담인력 배치, 수요자(청소년) 중심 네트워크,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5)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각 주체의 역할 및 개선 사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 공공 및 민간 영역 등 각 주체의 역할과 개선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의견 결과를 보면, 먼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본 사업 관련 법, 제도 마련과 행정지원이 필요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홍보를 통한 청소년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노력을 제안하였다. 행정영역에 속하는 두 주체 간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역의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 지원 대상의 발굴, 사업 홍보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기관(시설) 등 공공영역의 역할에 대해서는 행정과 민간의 중간자적 역할자로서 네트워크 허브기능 수행, 자원 발굴, 연계, 조정 등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실질적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보았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일반 모든 청소년들에게 서비스 제공, 민간 영역과의 지속적 교류 및 참여 확대 방안 논의, 수요자 중심의 활동 및 인프라 재구조화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영역의 역할로 재능기부, 체험 공간 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 아이디어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나 청소년시설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메꾸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민간영역도 지역사회 공동체, 생태계 구축의 공공의 목적을 갖고 협업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민간영역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에 청소년 진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민간영역이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고교학점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표 Ⅵ-16 지역사회 각 주체의 역할 및 개선 사항(행정영역)

조사영역	문항내용	내 용
2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및 네트워크 사업	2-5 청소년성장 지원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각 주체의 역할 및 개선 사항	**①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등 행정영역** • 사업 홍보 및 지원 대상 청소년 발굴, 청소년 참여지원 • 지자체-교육지원청 간 상호 및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지자체는 법, 제도 등 제반 행정체계 지원, 교육지원청은 지역자원 통합 연계, 협의체의 주체, 민간의견 반영 필요 • 청소년전담공무원제도 실행 ▶ **홍보, 참여지원,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운영지원, 민간 참여 확대, 청소년 전담공무원제도 도입** **② 학교,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등 공공영역** • 중간지원조직으로 네트워크 허브기능 수행. 자원 발굴, 연계, 조정,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실질적 운영조직 •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서비스 제공, 민간 영역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 참여 방안 논의 • 기관이 주체적으로 사업의 기획·실행, 청소년 기관이 성장지원의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이끌고 조율 • 수요자(청소년) 중심의 청소년 활동과 인프라 재구조화 중간지원조직, 자원 발굴 및 연계, 주요 성장지원 자원 **③ 지역사회 단체, 전문가 등 민간영역** •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성장지원(재능기부, 공간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 등)을 통한 네트워크 내 협력자 • 학교, 청소년시설의 시간·공간 특성에 따른 제한 지원 및 보완 • 지역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청소년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공론화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 • 지역사회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원체계 마련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를 연계하여 청소년 진로교육 학습장으로 육성하고, 이를 고교학점제와 연결 • 관, 학의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해야 함. ▶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의 협력자, 실질적 지원, 협력, 전문성, 지역사회 인프라**

⑹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타사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본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성장의 개념이나 필요성, 사업의 목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차년도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으나, 지역사회의 특성과 인프라 등에 따라 사업의 세부 목표나 운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추진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의견은 꾸준하게 제시되고 있고, 청소년정책전담공무원에 대한 필요와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협의체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간 신뢰 구축도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협의체 구성간의 신뢰와 관계의 지속은 협의체 혹은 사업 참여를 통한 유무형의 성과가 도출되어야 해며, 성과의 공유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편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있어 참여 주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며, 경직된 형태의 협의체나 일률적 모형보다는 유연한 구조의 플랫폼 형태의 운영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 연구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치와 플랫폼 형태의 협의체 운영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더불어 유연한 형태의 분과 네트워크 운영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지역별 네트워크 준비 정도나 성숙 정도에 따른 적합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참여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본 사업의 지속적성과 발전적 운영이 담보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표 Ⅵ-17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타사항

조사영역	문항내용	내 용
2 청소년 성장지원협 의체 및 네트워크 사업	2-6 기타	• 청소년 성장의 필요성,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지속가능한 지역교육생태계 확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 확보 필요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소지한 별도의 청소년 성장 지원 관련 청소년전담공무원 제도 운영 필요 • 안정적 재원 확보로 네트워크 사업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야 네트워크 간 신뢰가 구축되고, 가시적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음.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지역별 추진 준비(성숙도)에 따라 적합한 지원책이 제공될 필요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을 청소년 분야가 주도하되, 분권적·유연한 구조를 가진 플랫폼 형태로 운영하여 연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존의 이원화, 분절된 청소년성장지원체계에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플랫폼으로 하여 민·관·학 협력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청소년을 사업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주체로 보는 인식 전환 필요 • 지속적 자원, 사례, 네트워크 발굴과 협력 주체 간의 정보 공유, 참여 활성화로 양질의 네트워크 구성 • 기존의 청소년시설들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주체, 전문가로서 인식전환 및 역량 강화 필요 ▶ **지역맞춤 지원, 기존 문제점의 근원적 파악, 청소년을 주체로 인식 전환, 제도적 장치 확보, 안정적 지원, 분절적·이분법적 구조개선, 플랫폼 구축, 사회적 합의, 청소년전담공무원제도**

3. 전문가 면접조사 분석 결과[43)]

전문가 면접조사의 대상은 서면조사와 동일한 시범사업 지역의 협의체 위원, 공무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조사에서는 서면조사에서 제시된 내용 중 중요 사항들에 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전문가들의 구체적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요 면접 내용은 크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되며, 이와 관련된 세부 질문을 추가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1) 청소년의 '성장' 관점에서의 법·제도의 검토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자원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법·제도적 근거 없이는 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크 활동에 제약이 많으며, 지역사회 기관들의 참여와 협력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개별 시설에서 관련 사업을 맡아 운영할 경우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의 관심이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OO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거였고, 그래도 지난번 우리 OOO와 MOU를 맺으면서 그나마 조금은 해소가 되었지만.. 따라서 그렇게 법제화 시키는 것, 저희가 사실은 조례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들은 이야기는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고,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썼구요."(현장전문가 A1)

43) 이 장의 앞부분 조사개요 부분에 면접조사 참여자와 면접조사 절차와 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개요를 기술하였음.

실제 저희가 운영은 잘 되었지만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은 아무래도 청소년시설 중심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꼈고... 저희가 다른 유관기관이나 OO구청 공무원 분들, 교육지원청 장학사 분들과 함께는 했지만 이것이 법적이거나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들도 아니어서 사실 구속력도 특별히 없었고...(중략). 그리고 그에 따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나 운영 지원들이 없으면 사실 기존 청소년 센터들이 과연 이런 협의체를 맡아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현장전문가 C2)

청소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기본법에 제시된 '육성'이라는 표현을 '성장 지원'의 관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을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정책과 관련 법·제도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청소년기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을 '성장' 혹은 '성장 지원'의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기본법이나 활동진흥법의 개정을 통해서 육성을 성장으로 바꿔서 전체적인 개념을 성장 중심으로 가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일단 궁금한 게..." (학계 C5)

"육성이라는 관점 자체를 청소년에게 오롯이 돌려주지 않는 방식. 청소년기본법 3조를 보게 되면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 근로 청소년 보호, 사회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을 교육하게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라고 명기하면서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고 육성이라는 것을 정의해버렸어요. 그러다보니 청소년 육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지 않는 단어...."(현장전문가 A3)

"저희가 청소년 육성을 정의하는 내용이 균형 있는 성장인데 그래서 지금 이 성장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된다고 봐요."(현장전문가 A1)

한편,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상위법에서 지자체의 의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즉 지역별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에 향후 지자체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관련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성장에 대한 부분이 청소년 정책의 지향점으로 명시가 되면, 물론 세부적인 개념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다양하게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명시를 해 놓고 협의체 관련 부분들은 조례 수준으로 내려서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만 상위법에서 마련해 놓으면, 각 지자체의 특성이 있으니 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에 위임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했구요."(학계 C5)

"성장지원이라는 것을 청소년 기본법에서 육성을 성장으로 바꾼다고 할 때 그 내용 안에서도 서로 상치가 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청소년 육성을 청소년 성장으로 바꿨을 때 이미 조직하고 있는 지방 육성 위원회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모두 성장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죠."(학계 C6)

[주요 내용 요약]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이는 지역사회 기관들의 협력과 참여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성장지원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필요함.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기존의 청소년 '육성'의 관점에서 '성장'의 관점으로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주체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성장'의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청소년 성장지원이 중앙과 지역사회에서 책무를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의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며, 성장의 관점에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검토되어야 함.

2)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개정의 방향 및 내용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시설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과 청소년 성장지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과 책무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 청소년시설의 기능 및 역할, 예산 등에 관한 근거 조항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된다면, 협의체 운영의 근거 마련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에서 수련시설이 성장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학계 C5)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성장협의체 자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역할적인 부분에서는 한계....지역사회 성장협의체를 통해서 운영하고 꾸리는 것들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은 방과후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수련관이 하고는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지역의 다양한 돌봄 관련 유관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관들이 성장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참여의 정도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인지 자체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청소년시설의 역할적인 부분이나 유관기관의 관련 역할적인 부분들이 법제상에 명확하게 명시나 정리가 되어야 해요."(현장전문가 C2)

"청소년기본법에 성장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무성을 명시 그리고 성장지원을 위해서 우리 수련시설들이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별도의 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센터를 수련 시설이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학계 C5)

한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되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청소년기관, 민간 등이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들 관계를 매개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담당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제도를 활용하여 청소년 분야 관련 전문성을 가진 전담 공무원이 본 사업을 담당하고 운영한다면, 사업 운영의 질적 제고는 물론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저는 이 체계가 결국 지자체 체계에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로 가려면 결국은 그것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법에 나와 있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제도를 활용해서 이 추진체계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현장전문가 A1)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심이 지역적으로 높기 때문에 필요하면 현재 있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반영시키는 것도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구의원님 중 한 분 정도 접촉을 해서 필요성이나 방향에 대해 공감대가 생기면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도 해봅니다."(학계 A2)

"청소년 업무에 비중을 두고 목표와 비전을 설정해 나가고 있는 중이구요. (중략).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팀장님을 청소년 전문가로 모셔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공무원 B2)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명시적 책무성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시설이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관해 청소년시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에 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활동진흥법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관내의 기능에 대한 역할들만 명시가 되어있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들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언급을 해서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법에는 아시겠지만 포괄적으로만 명시적인 책무성만 명시를 해 놓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추후에 만들어질 기본 계획에 성장지원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성장지원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어떻게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자연스럽게 담겨야 될 것이고."(학계 C5)

또한 법률에 지역사회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과 활동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 관해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즉 지역사회의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유연성 있고 현실감 있게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규모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행정 구조가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감안하지 않으면 사실 현장에 가서 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실제 행정 단위로 내려가면 전혀 안 맞는 것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동이 11개인데 다 할 수도 없고 그 중 한 개 동만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렵고 현장으로 가면 훨씬 더 복잡함이 있다고 하는 어려운 점이 어떤 식으로든 감안이 되어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참고로 조례나 법령에서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게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학계 A2)

"중앙에 있는 법률을 가지고는 지역의 상황 자체를 다 담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략)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지 않은 그런 조례는 그 어떤 것도 살아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은 조례이지 않을까.(중략) 지방에서는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성장에 대한 철학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식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현장전문가 A3)

그리고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조례가 실효성 있고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 추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구성되는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성장지원을 하기 위한 것도 사실 협력이 필요한데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책임을 조금 더 명료화 시킬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별 조례에요. 법에는 담을 수 없겠지만 그래서 열정으로 시작하지 않고 일반화를 위해서는 책임에 대한 구분들이 좀 세밀하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현장전문가 A3)

"우리가 각 행정의 단위마다 다른 규정으로 법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의체 안에 책임이나 권한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 교육 예산을 조정한다거나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도 이 협의체가 같이 지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현장전문가 A4)

또한 지역사회 현장의 다변화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 지역사회 관련 자원과의 협력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운영방식, 권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들이 담길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관련 자원 간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사항과 지자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미래교육센터는 다른 평생 교육팀에서 담당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현장 체계가 너무 다변화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수님 말씀처럼 똑같은 사이즈가 아닌데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면서 생기는 법률 자체를 적용하면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산발적으로 그 때 그 때 부처로 나눠져버리는 일이 돼서 지자체 안에서도 청소년들의 성장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 일이 아니면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성원들을 지자체의 육안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연결했

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법률 안에 보통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장만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구성원의 유관할 수 있는 부처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적인 쪽에서부터도 통일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현장 전문가 A3)

[주요 내용 요약]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의 육성보다는 '성장'의 개념이 강조가 된다면,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참여 및 협력과 책무를 위한 근거 조항을 제시하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주도적 운영과 자치법규 제정 시 법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음.

아울러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도를 활용하여 청소년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전담 공무원이 청소년의 성장지원 사업을 담당한다면 사업 운영의 질적 제고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이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기능과 역할 중 성장지원을 위한 중요 기능을 추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 조례의 경우, 지역사회의 특성과 여건, 지역사회 청소년의 '성장'에 관한 철학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권한, 운영 방식,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될 필요가 있음.

3) 지역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전반적인 사업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1차년도 시범사업지역 담당자 및 협의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점, 개선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별 단위 시설에서 본 사업을 끌어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운영은 개별 시설이 위탁 받아 수행할 수도 있으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OO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지자체와의 협력이었고....그래도 지난번 청소년정책연구원과 OO간의 MOU를 맺으면서 조금은 해소가 되었어요...아무래도 지자체에서는 조금 수동적일 수밖에 없으시거든요."(현장전문가 A1)

만약 지역에 따라 개별 기관(시설) 중심이 아닌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라면 청소년 재단이나 교육관련 재단에서 본 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시범사업 운영지역인 곡성의 경우 작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미래교육협력센터가 올해는 "미래교육재단"으로 확대 개편되는 과정에 있다. 현재 미래교육재단에서는 가칭 "청소년성장팀"을 재단 내 조직으로 설치해 청소년 정책 영역과의 연계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도 해당 팀에서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재단을 통해서 협력하는 사례가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관련된 사업으로 청소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교육 교육자치 협력지구인가요? 교육부 쪽에서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곳에서 지금 저희의 사업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신 줄로 알고 있어요."(현장전문가 A3)

한편, 부천의 경우는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운영 주체에 대해 논의 과정에 있다. 미래교육지원센터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의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성격을 띠는데, 부천 여성청소년재단에서의 운영 여부에 따라 센터의 사업 운영 방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 경우 재단 내에 “성남형 교육지원단”이 재단 내 조직으로 들어오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부천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청과 시청에서 미래교육지원센터라는 통합 시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올해 출범을 하게 되는데 누가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의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미래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task force 또는 운영 자문단을 꾸렸는데, 거기에는 교사들, 학부모들, 지역의 민간 위원들, 공무원들,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다 묶여서 아주 원론적인 것 보다는 좀 많이 전향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현장전문가 A5)

두 번째는 법 ·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나 협의체 운영을 위해 지자체나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뿐 아니라 사업 주관 기관에서도 필수적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법령이나 지방자치 법규인 조례 등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새로운 법 · 제도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으나 기존의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OO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많은 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교육이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심이 지역적으로 높기 때문에 필요하면 현재 있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반영시키는 것도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구의원님 중 한분 정도 접촉을 해서 필요성이나 방향에 대해 공감대가 생기면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도 해봅니다.” (현장전문가 A2)

조례가 통합이 됐어요.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조례라고 해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의원님들은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도와주려고 하세요...해당 부서에서 보다 많은 의지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현장전문가 A1)

셋째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포함해 청소년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전담 공무원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의 이동도 잦아 정책의 일관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많은 제약이 있다.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로 지자체에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로 가려면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이 있어야한다고 생각을 해요...작년, 올해 저희 해당 과장님, 마을 자치과 과장님 등 연관된 곳의 부서를 다 연결 시켰지만 실제적으로 참석한 적은 없어요. 저희 담장 팀장님이 대신해서 참석을 작년에 두 번 정도 하셨고."(현장전문가 A1)

사업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예컨대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지역의 참여도를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민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별 기관(시설) 사업에는 충실하지만 사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 협업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지역 인적 자원의 발굴과 이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 자치회 등 민간 네트워크의 활용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문가를 저희가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을 전문가로 양성해서 강사로 활동하게 하면서 지역의 교육이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지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민들이 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제가 교육 쪽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교육활동을 보여줌으로써 여러 지역 주민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공무원 B2)

4)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면접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협의체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의 인력에 의존하게 될 경우 해당 인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퇴직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법·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지역 내 시스템 구축과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저는 지금 사업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소수의 탁월성에 대해 의존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 지역에 네트워크 전문가가 있거나 지자체 장이나 교육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 분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들이 다른 사례를 보아도 그분들이 정년하신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이 지역사회운동으로 확산되는 게 중지되는 경험들을 많이 목격했잖습니까... 사실 성장지원협의체가 지향하고 있는 것도 소수의 탁월성에 기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수가 실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이 재조정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현장전문가 A3)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업의 운영에 있어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학 등 지역의 자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의 기획과 운영과정에 있어 민·관·학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역량을 인큐베이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O 같은 경우는 관 주도입니다 거의 관-관이 만나 있는 거죠. 교육청과 지자체가 만나서 교육경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형태에요. 여기서 민간이 보조자 역할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자, 파트너로 만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관·학 거버넌스가 계속해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을까 합니다."(현장전문가 A4)

청소년기관(시설),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 간의 연계 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혁신교육지구사업,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등이 확대되면서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인 교육지원센터나 재단을 만들어 가는 추세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분야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한데,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잡고 가기 보다는 사업 참여 주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OO의 경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겠다고...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은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했었고...기존에 있는 학교 밖으로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청소년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은 협력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행정전달 체계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각각의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들이 장학하는 관점과 청소년 쪽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이라는 중앙전달체계가 있지만 청소년계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역을 커버해 줄 수 있는 행정 전달 체계가 없어요. 그나마 센터 정도인데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고..."(학계, C5)

한편, 교육청이나 학교와의 연계 협력 과정에서 청소년시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 향후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여러 지역에 확산되어 갈 때, 청소년시설의 공간과 청소년지도사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시설들의 공간의 힘을 믿었으면 합니다.... 진로센터의 경우 전국에 230여개가 가까이 있는데 그 가운에 청소년시설 안에 설치된 것이 9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로센터를 확보하고 싶어도 공간이기 때문에 확장성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청소년시설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 안에 그런 센터들이 들어오게 되고 지역자원과 연계했던 부분이 있구요."(현장전문가 C1)

또 하나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년제와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고교학점제 실시와 관련하여 지역의 청소년기관(시설)과 학교와의 연계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이나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예컨대 학교가 개설하기 힘든 교육과정을 청소년시설에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시설에 있는 온라인 스튜디오나 미디어 시설 관련해서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저희가 거점 공간으로 공간 공유 시스템을 연동해서 가려고 해요. 이런 논의들도 지금 청소년시설 기관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제안을 하시고 학교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과 교육 과정의 활동들을 같이 연결해서 거기서 제작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개발하고 학교 교육 과정으로 다시 들어가는 공간 공유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구요....진로가 교육 과정으로 교과 통합이나 재구성으로 많이 연결돼서 학교 안팎 수업으로 연결되면 저는 수련관의 역할들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봐요."(공무원, C4)

[주요 내용 요약]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또한 사업 운영 주체와 관련하여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곳에서는 개별 시설보다는 재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최근 지자체 및 교육청 간의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협력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법 · 제도적 근거 마련과 청소년정책전담공무원제, 지역 자원의 발굴과 역량개발 등의 과제가 제시되었음.

또한 협의체 및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민 · 관 · 학 거버넌스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함. 그리고 청소년시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기존 네트워크와 협력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자유학년제 및 고교학점제 확산과 관련하여 청소년시설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Ⅶ 결론 및 정책제언[44)]

1. 결론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의 활용과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서비스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1차년도 연구에 이어 2차년도 연구에서 진행된 연구과정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검토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사업들 중 그간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예컨대, 청소년안전망,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다함께돌봄의 변화된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들 사업 간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현행 법령과 관련 조례를 탐색하였고, 기존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방안과 내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 사례로는 청소년기관(시설) 중심의 네트워크 사례인 동작구, 창원시(진해구) 사례, 지자체(재단) 중심의 네트워크 사업인 고양시와 완주군 사례와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네트워크 협력 사례인 세종시 및 의정부시 사례를 살펴보았다.

44) 이 장의 1절은 최인재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고, 2절은 최인재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강경균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음.

청소년기관(시설) 중심 사례인 서울시 동작구 사례(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사례(진해청소년수련관)는 모두 청소년수련관(센터)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곳이다. 특징은 두 시설 모두 수련관 인근에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라매청소년센터의 경우 보라매공원 경계 내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통합지원(one-stop)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진해청소년수련관도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진해지역자활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어린이집, 노인통합지원센터, 보건소 등이 같은 시설 내에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라매청소년센터의 경우 센터 주도로 청소년기관(시설) 간 네트워크 사업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학교, 공공기관, 마을공동체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상담 및 교육 분야 등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진해청소년수련관의 특징은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마을학교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와의 연계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수련관 사업으로 반영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진로·직업 체험학습 네트워크 참여 주체들을 참여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생태적 마을공동체를 도모했다는 것이 특징이자 성과이다.

다음으로 지자체나 재단 중심의 네트워크 사례로, 먼저 고양시의 사례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 역시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를 허브 기관으로 청소년 진로지원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 있다. 특히 유스프리존이라는 플랫폼이 지역 자원들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지자체 장의 관심과 의지가 반영되고 있으며, 재단 특성을 잘 살려 재단 산하 기관(시설) 간의 교류와 연계가 활성화 되고 있다.

한편 완주의 경우도 지자체 주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활성화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완주군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5년부터 이미 '농촌형 아동·청소년친화도시' 모델을 시작하게 되었고, 관 주도형 아동·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가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잘 확립되어 있다. 최근 들어 완주군은 그간 공적 전달체계 중심의 네트워크 사업 중심에서 지역사회 민간 자원의 발굴과 연계협력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예컨대 지역사회의 자생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등이 연계된 네트워킹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각 사업별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사업별, 섹터별 민·관·학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고, 실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 시사점은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었지만, 상술하였듯이 중요한 것은 민간의 자생력과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네트워크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유형의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네트워크 협력 사례인 세종시와 의정부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종시의 경우 시청과 교육청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마을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세종시의 경우 생활권마다 갖추어져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를 통해 마을방과후 사업을 활발하게 이끌어 가고 있다. 복컴이라는 지역 거점 공간을 이용하여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들 대상으로는 돌봄 프로그램 과정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방과후 마을교사, 마을학교, 사회적 기업, 학부모 등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경우 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간 매개 역할도 하고 있다는 특징과 장점이 있다.

의정부 역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 우수 사례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의정부 지역의 몽실학교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협력 사례를 대표하는 곳으로 몽실학교는 지역사회 협력 미래형 학생자치배움터이다. 특징은 청소년 주도의 프로젝트와 학교 연계 체험형 교육과정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정책마켓 등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삶의 주체로서 주도성을 배우게 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다. 또한 몽실학교 졸업 후 지역사회에 남아 길잡이교사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와는 달리 청소년시설과의 연계협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점이다. 공동의 목표와 비전, 가치를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의정부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청소년시설도 향후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다루어야 할 지점이다.

다음으로 외국 사례의 경우 프랑스, 영국, 덴마크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프랑스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기관들과 어떻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나타내는 사례이다. 학교가 교육의 일차적 공공기관으로 학업성공(1차 교육연계망)과 교육성공(2차 교육연계망)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기서 교육성공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교육주체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교사가 네트워커가 되고 지역사회개발 담당 공무원이 협조하는 구조이다. 또한 프랑스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특징은 정부 관련 부처 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른바 관-관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가 공유 가능한 협력지점을 확보하고 계획 수립단계부터 부처 간 연계협력을 이루어 가고 있다.

영국은 교육부에서 학교교육뿐 아니라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영국 사례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은 먼저 지역사회 내 여러 자원에 대한 이해와 사업을 파악하고, 네트워킹을 담당하고 전담하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협력은 물론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중장기적인 과학적 연구를 위한 민 · 관 · 학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덴마크도 프랑스나 영국과 유사하게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모든 활동을 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즉 지역사회의 방과후학교나 청소년학교의 교사도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교육받은 또 다른 교사이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이러한 교육기관을 학교교육의 연장선에서 인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활동의 중심과 비전은 청소년 개개인의 성장과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지자체에서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담당부서를 조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교육기관뿐 아니라 민간과의 교류를 통해 교육비전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이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2차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시범사업은 곡성군, 유성구 및 부천시 등 3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1차년도에는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의체 구성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체계 구축 등이 과업이었다. 2차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지역사회 이슈를 반영하여 협의체 내 분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협의체의 질적 성장은 물론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운영의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3개 지역 모두 과업을 완수하였고 지역별 성과가 도출되었다. 예컨대, 곡성군의 경우 1차년도 곡성미래교육센터가 올해 곡성미래교육재단으로 개편되면서, 곡성군에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환경 변화에 맞추어 청소년성장박람회를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방식으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다. 한편, 학교밖청소년 협동조합 운영과 학습메이트 활동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유성구의 경우 특히 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분과 네트워크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성구청과 유성구 의회 및 교육청과의 협력관계도 1차년도에 비해 긴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부천은 기존 공공영역 중심의 네트워크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시도를 하였고,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100인의 부천에꿈을 통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에 관한 인지도를 제고하였고, 1차년도에 이어 네트워크 파티 2.0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 간 소통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 밖에 부천형 혁신교육네트워크,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상의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분석과 협의체 참여 기관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협의체의 1차년도와 2차년도 변화 양상을 비교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몇몇 주도적인 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밀집되어 있어 지역사회 민·관·학 참여 기관들의 확장과 지역의 공동 아젠다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양적·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들과 비교집단을 선정하여, 사전-사후 설문지를 통한 사업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 참여집단이 사전에 비해 사후검사의 점수가 조금씩 더 높아진 결과들을 확인하였다. 특히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곡성군 청소년의 자아 역량과 유성구 청소년의 성취동기 역량에서 시범사업의 실행 여부가 큰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분석 결과에서도 본 시범사업 참여로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향상되었고, 리더십, 시민성, 성취동기 등 전반적인 역량이 향상되었다. 특히 청소년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성인들에게도 만족감이 증가하고 보람을 느끼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범사업 담당자, 협의체 위원, 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수렴은 먼저 서면조사를 통해 조사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고, 보다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FGI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2차년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과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해 다음 [그림 Ⅷ-2]와 같이 2차년도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먼저 [그림 Ⅷ-1]에 제시되어 있는 1차년도 추진체계 개념도의 핵심 요소들과 체계에 관해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 추진체계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축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협의체 구성 주체, 운영 주체 및 운영 방식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예컨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행정,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각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이어야 한다. 그리고 운영은 지자체 직영, 청소년 관련 재단, 청소년 유관기관(시설), 민간 등에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은 각 주체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파트너의 일원이 되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의 기획 및 결정, 사업 수행 및 성과 공유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에 서로 정보와 자원을 교환하고 상호 협력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Ⅷ-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1차년도 개념도)

다음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2차년도 개념도는 다음 [그림 Ⅶ-2]와 같다. 2차년도 추진체계 구축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추진 체계 구성 주체 간의 관계적 측면이고, 둘째는 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측면이다. 첫 번째 과업과 관련하여, 지자체, 교육(지원)청, 협의체 등 세 주체 간 협력관계를 1차년도에 비해 더욱 공고히 하였다(협력 관계를 나타내는 실선 강조). 또한 협의체 구성원 간 상호 이해와 사업에 대한 공유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더욱 두텁게 쌓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기관에서도 협력 주체 간 MOU 체결을 맺기도 하고, 여러 차례 만남의 장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실제로 시범사업 3개 지역 모두 협의체 구성원들의 사업 이해도와 신뢰도가 증진되었으며, 상호 협력 관계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과업과 관련하여, 협의체 내에 분과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분과네트워크는 지역의 이슈와 청소년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 또한 청소년들의 요구에 따라 분과네트워크 이름은 다양하게 명명할 수 있다. 다만 각 네트워크 간 소통이 원활해야 하며, 운영 기간도 단기, 중·장기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분과네트워크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분과 간 상호 연계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분과 간 경계가 느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분과네트워크의 경계선을 점선으로 표기하였다.

분과네트워크의 운영 방식은 전체 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성장지원이라는 핵심 가치와 각 분과네트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비전과 목표가 참여 구성원 간에 충분히 공유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또한 각 주체들이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를 토대로 자발적 참여와 협력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과네트워크 안에서도 각 참여 주체들이 사업의 기획과 운영 등 전 과정을 함께 협력하며, 성과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의체 구성은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로 나누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각 분과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실무자들로 구성된 협의회와 협의체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분과네트워크에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의 운영위원회와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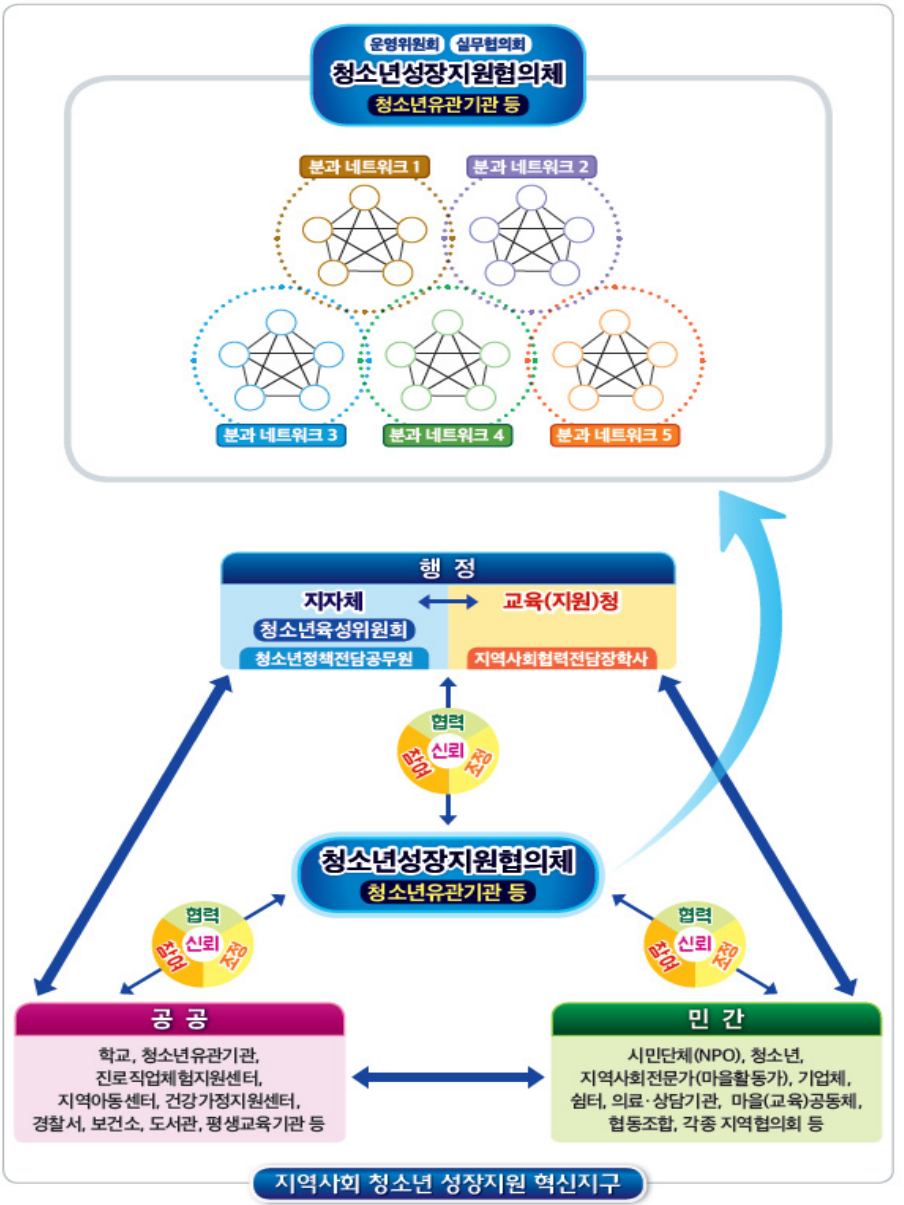


그림 Ⅷ-2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2차년도 개념도)

2. 정책제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연구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 발굴 과정과 절차를 거쳤다. 먼저 문헌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연구의 방향 설정, 시범사업 운영 및 정책 환경 변화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 사례에 대한 자료를 지역규모별, 운영 주체별로 구분하여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현장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년도 해외 사례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상반기까지 이상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필요한 정책과제의 기초 틀을 마련하였다.

하반기부터는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과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및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안들에 관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인 추진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은 사업 초기부터 실시하였으며, 네트워크 분석과 양적, 질적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아울러 정부부처, 지자체 공무원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 논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들을 제안하였다.

다음 [그림 Ⅷ-4]과 같이 이상의 연구 수행과정을 토대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 비전과 목표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 1차년도 내용을 유지하였고, 다음 [그림 Ⅷ-5]와 같이 2차년도 정책과제 4개와 세부추진과제 12개를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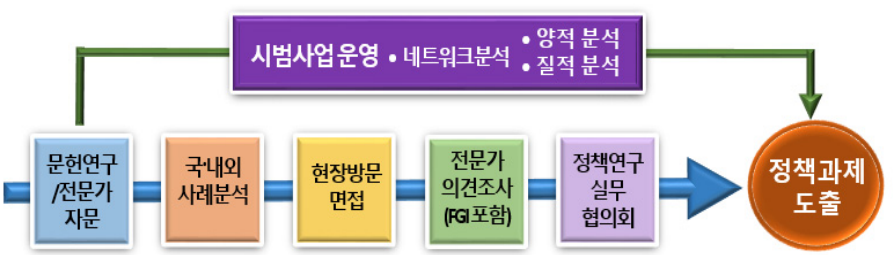


그림 Ⅷ-3 정책과제 발굴 과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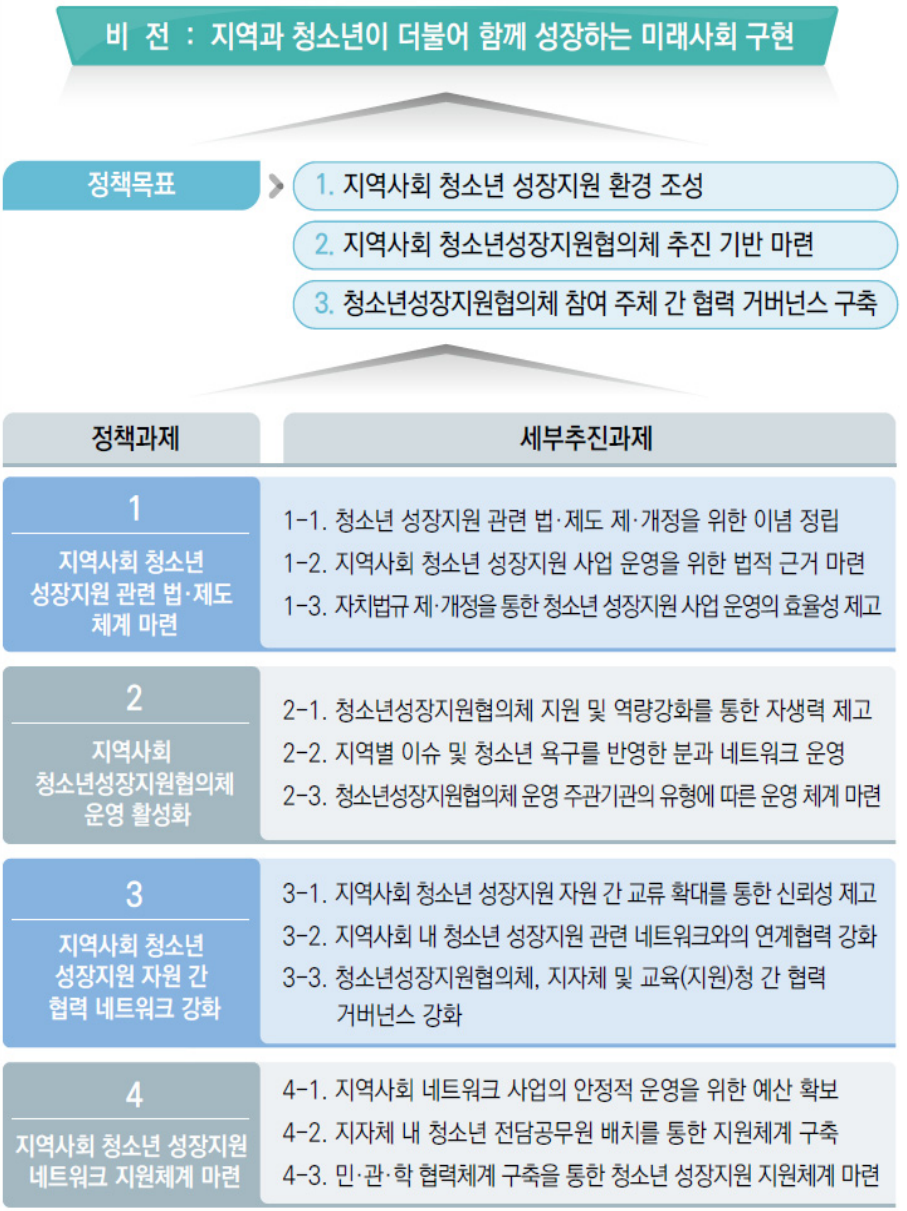


그림 Ⅶ-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체계 마련

▣ 제안배경 및 정책방향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전문가 의견조사나 자문회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면,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통한 제도적 안정성과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강조하였다.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법·제도적 근거 없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및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성장지원 법 ·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 · 제도 제 · 개정을 위한 이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과 의무를 관련 법령에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의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의 지방자치 단체의 관련 조례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체계 마련에 대한 정책과제의 제안배경 및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1-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을 위한 이념 정립', 1-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3.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3가지 세부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1-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을 위한 이념 정립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과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관점을 최근 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관점으로 새롭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2의를 보면, 청소년 '육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단어는 청소년의 주도성과 주체성이 잘 부각되지 않는 단어로 '청소년육성'보다는 '청소년 성장지원'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육성에 대한 개념을 보면 현 시대를 기반으로 미래의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육성의 의미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다소 수동적이고 지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청소년이 주체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 아울러 국가나 자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이러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단체'와 관련된, 청소년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단체'의 설립 목적을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전반적인 성장지원을 다루는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단체'에 관한 내용도 '청소년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 개정함으로써 청소년 성장과 관련된 전반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제시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소년의 주체성과 주도적 활동을 강조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의 관점보다는 청소년 '성장'의 관점에 근거하여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Ⅶ-1 청소년 '성장' 관점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현행 '육성' 관점의 「청소년기본법」[45]	'성장' 관점의 「청소년 기본법 」 개정(안)
제3조(정의)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정의)2. **"청소년 성장지원"** 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성장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소년성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성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 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 평가 2.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 **성장지원**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 **성장**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5) 청소년기본법 관련조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undefined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1-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 및 운영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 성장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본 요소로는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 등 기본사항 규정, 지자체 및 구성원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정책분석평가 및 통계, 참여 확대와 촉진, 청소년 성장지원 기금 확보와 배분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관련 법령에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6 청소년시설의 정의에 청소년활동, 보호, 복지 등에만 제공되는 시설이 아니라 이 외에 청소년시설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에서도 제공되는 시설이라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에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 관련하여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추진체계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시행령 등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활동 전반에 걸쳐 성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의 역할, 예산, 인력 등 운영체계와 관련한 내용을 마련하여 협의체 운영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등 행정영역은 물론 지역사회 공공, 민간 영역 등 다양한 자원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 제시된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 배치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전문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의 추진절차는 중앙정부, 광역, 기초지자체 간의 역할분담과 지역사회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조정 등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장의 청소년 성장지원 관계자 및 실무자의 의견 수렴과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관련 실무자 논의와 협조를 통해 사회적 합의 및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표 Ⅶ-2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예시)

현행 청소년 지원 관련 법령[46]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개정(안)
「청소년기본법」제3조(정의)6."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제3조(정의)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 청소년복지 · 청소년보호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에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제23조(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제23조(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성장지원**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46) 청소년기본법 관련조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1-3. 자치법규 제 · 개정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하여 1차년도에서는 지역사회 사회보장 측면과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사업 측면으로 구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 운영에 대한 조례(안)를 제시하였다. 2차년도에서는 지역사회 성장지원 사업을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체법규의 구성요소 및 내용 그리고 추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자치 법규를 제정할 경우, 청소년 성장지원의 대상, 목적, 정의, 기본 원칙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청소년 성장지원 및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용어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정책 사업, 재원 및 예산 확보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역할, 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 설치 및 인력, 사업의 범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조례는 지방지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 ·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규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 전 영역에 대한 포괄적 접근과 지역사회 내 공론화 과정 및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조례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는 지역사회의 수요파악이 선행되고 지역사회 구성원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의 지지가 필요하므로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민 · 관 · 학 주체를 포함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자치법규를 추진할 수 있다.

표 Ⅶ-3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조례의 구성 요소 및 내용(안)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조례의 구성 요소 및 내용(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목적
제2조(정의): 청소년 성장지원,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등의 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 범위):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련한 모든 법률에 우선적용 및 기준에 적합하게 수행
제4조(지자체장의 책무): 지역사회 관련기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 구축
제2장 청소년성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제5조(계획 수립): 기본방향, 추진목표, 추진체계 구축 운영, 주요 시책, 재원 조달 등
제6조(계획의 추진 등): 해당 기관 및 부서 간 협업, 의견 수렴 등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추진실적 평가 및 계획 반영
제3장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설치 및 운영
제8조(설치): 지역사회 지자체장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설치
제9조(역할): 청소년 성장지원의 기본방향 및 전략, 계획 수립시행, 환경조성, 추진방안 등
제10조(구성 및 운영): 청소년지원 협의체 위원장, 당연직 위원, 전담인력 등
제11조(사업범위): 청소년 활동, 보호 및 복지, 교육지원, 성장지원 등
제12조(임기): 위원 임기, 공무원 임기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협의체 대표, 업무 총괄 등

청소년 성장지원 조례의 제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최근 확대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 및 미래교육지구와 같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 및 아동친화도시 조례 등 청소년 성장지원과 유사한 자치법규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정책과제2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활성화

▣ 제안배경 및 정책방향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서로 연계하고, 자원 간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 매개 조직이 필요하다. 중간지원 조직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고, 자원 간 협력 환경이 조성된다면, 하드웨어를 갖춘 한 공간에서 지역의 행정, 공공, 민간 영역의 담당자가 배치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구조가 이상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관련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예산 지원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자체, 청소년 관련 재단 혹은 청소년 유관기관(시설)내에 중간지원조직 성격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에 1차년도 시범사업에서 지역 내, 민·관·학 자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협의체 참여 주체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시범사업 지역 내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였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현재 각 시범사업 지역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킹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협의체 구성들 간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방향설정을 함으로써 협의체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자리 매김하기 위해 협의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의체 운영 방식과 운영 주체에 따른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에 정책과제 2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활성화'에서는 2-1. '지역자원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 2-2. '지역별 이슈 및 청소년 욕구를 반영한 분과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2-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주체에 따른 운영 체계 마련'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2-1.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 구축과 운영에 관한 지자체의 지원과 관련 자원들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협의체와 지역의 자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협의체 구축과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를 위한 초기 단계에서는 관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만일, 민간 네트워크가 오래전부터 활성화 되어 있거나, 운영 담당자의 역량이 있을 경우는 관의 지원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덜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력이 있는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재단이 협의체 운영을 맡을 경우는 재단 내 기관들만으로도 필요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이 개별 기관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경우는 지역사회 내 관련 자원이나 기존 네트워크와의 협력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협의체의 지속성과 안정적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지자체에서도 협의체 구축과 운영에 대한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사업 확장과정에서 '청소년성장지원혁신지구' 공모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운영 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공동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 대응 투자 방식을 통한 운영방식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Ⅶ-4 OO년 청소년성장지원혁신지구 사업 공모 계획(예시)

OO년 청소년성장지원혁신지구 사업 공모 계획(예시)	
(사업명) OO년 청소년성장지원혁신지구 시범사업	
(운영기간) 계약체결일 ~ 12	
(참가방법) 기초지자체 및 시범사업 운영 기관 공동계획서 제출	
(예산지원) 정부예산 지원 금액의 지자체 100% 이상 대응투자	
(주요사업내용)	
ㅇ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자원맵 제작	ㅇ 지역사회 및 청소년 욕구조사
ㅇ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ㅇ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제작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협의체와 지역의 자생력을 높여 가는 일이다. 협의체 구축 초기 단계에서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협의체를 구축하고,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다음 2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협의체 참여 위원들 간의 주기적 만남과 협력을 통해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협의체 운영 구성원 간 협력 관계를 제고하는 일이다.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지역사회 내 활동에 관한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지역사회의 문화로 정착해 나가야 한다.

또한 협의체 담당자, 위원 및 관련 공무원,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교육을 통해 관련 지역사회 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의체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협의체 위원이나 담당 공무원,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도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연수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수 내용은 사업 초반에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이나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네트워킹 등에 관한 기초과정에 대해 수강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다음 〈표 Ⅶ-5〉와 같이 심화과정을 개발하고,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프로그램과 연수 과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표 Ⅶ-5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전문 인력 역량강화 연수(예시)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전문 인력 역량강화 연수(예시)
(사업 명)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전문 인력 역량강화 연수 **(모집인원)** 지역별 15명 내외 **(대 상)**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위원, 공무원, 장학사 및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관계자 등 **(주요연수내용)** ○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 지역별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분석 및 활용 방안지 ○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적용 ○ 지역별 네트워킹 사례 발표 및 집단별 토의 **(기대효과)**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전문 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활성화 도모

※ 주. 1차년도 자료(최인재 외, 2019)를 심화과정 내용으로 재구성함.

2-2. 지역별 이슈 및 청소년 욕구를 반영한 분과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분과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분과네트워크는 지역의 이슈와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운영해야 한다. 즉 하향식(top-down) 방식보다는 청소년들이 분과네트워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분과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올해 시범사업 3개 지역 모두 분과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의체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유성의 경우 지역 내 청소년연합회를 구성하여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5개의 분과네트워크(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교육 및 학습, 정서 및 상담, 진로 및 직업체험, 청소년활동)를 청소년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실무자가 각 분과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였고, 각 분과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과 청소년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분과네트워크 활동 결과 지자체 및 지역사회 여러 자원들이 지원을 약속했고, 많은 성과가 도출 되었다. 예컨대 유성구 담당부서의 지원으로 1인 미디어실을 청소년 시설에 우선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년시설에서 학습 지원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영상 편집 기술 등 청소년들의 관심 분야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연계하여 진로 로드맵을 제작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유성 청소년들의 분과네트워크 활동은 성취동기 역량이 사업 참여 후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곡성 지역의 경우 3개 영역(활동참여, 보호복지, 진로직업)으로 분과를 구성하여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의 활성화 사업, 석곡중학교 안에서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시도하였고, 학교밖청소년 협동조합을 만들어 자립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메이트(학습상담) 활동을 학교교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센터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부천 지역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부천혁신교육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혁신교육 모니터링과 작은 마을학교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청소년 성장지원 실무자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활동가 발굴과 홍보를 위한 100인의 부천에꿈,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자원 간 나눔과 소통의 장인 네트워크 파티 2.0을 개최하였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내에 사업의 전체 방향과 분과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는 운영위원회와 분과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실무협의회 등 중층 구조의 회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의체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내에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분과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분과네트워크 이름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명명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분과네트워크 간 협력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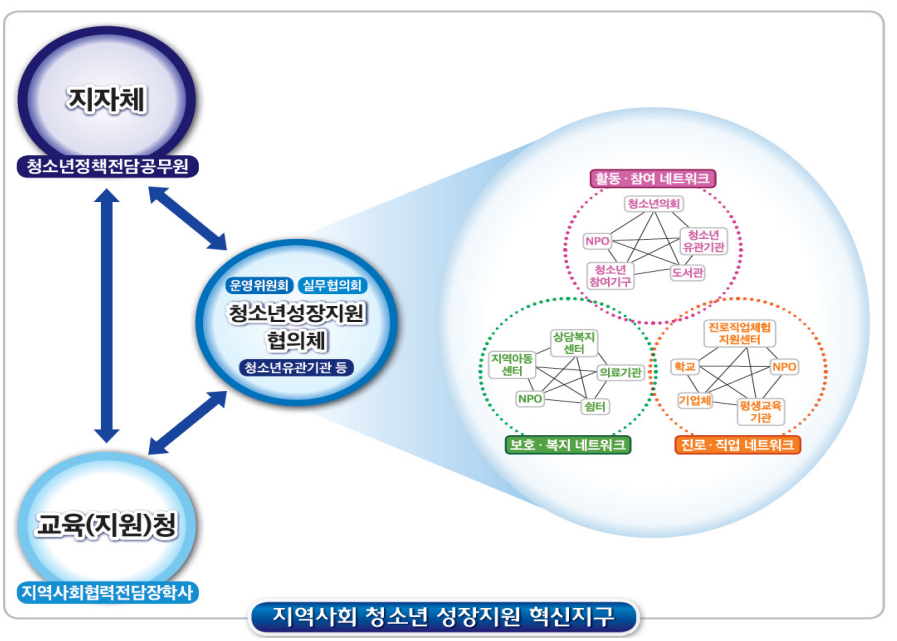


그림 Ⅶ-5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분과네트워크 체계도(안)

2-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주관기관의 유형에 따른 운영 체계 마련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주체가 운영을 맡을 수 있다. 예컨대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재단이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운영 기관이 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같은 개별 시설이나 민간 영역의 특정 기관이 운영을 맡을 수도 있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해 주는 중간지원조직[47]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가 협의체 주관기관이 될 수가 있다. 이들 기관들은 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 분류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같은 유형의 기관이라도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유형 분류 작업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국내 사례조사 분석 결과와 시범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지자체(재단), 청소년시설, 교육협력지원센터 등 중간지원 조직으로 크게 구분된다. 지자체 직영이나 재단의 경우 개별 시설에 비해 행정력과 예산권 등이 있어 지역 내 혹은 재단 내 자원을 네트워킹하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이 관 주도의 위계적 구조가 강조되기 보다는 특성이 풀뿌리 네트워크와 하향식 구조 간의 균형과 협력이 강조되기에 지자체나 재단에서 운영할 경우 협의체의 독립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 가치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별 시설의 경우 지자체와 재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내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지자체나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맺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부처 간 협력 관계와 상호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 이상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 운영 체계마련과 매뉴얼 제작을 위해 중·장기적 연구와 이에 관한 시범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47) 최근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심화 사업으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사업)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사업에서의 핵심과업 중 하나는 학교와 지역을 연계해 주는 중간지원조직('행복교육지원센터', '교육협력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이들 중간지원조직에서는 학교와 지역 간의 교육협력 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정책과제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본 연구의 시범사업 지역의 1차년도 과업으로 각 지역 내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발굴하는 과업을 진행하였다. 지역사회 자원은 관련 전문가나 지역사화 활동가 등 인적 자원일수도 있고, 공간, 예산, 프로그램 등과 같은 물적 자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개별 단위로 존재하는 자원도 있고, 이미 네트워크 형태로 활동하는 자원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자원도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원도 있다. 이처럼 지역 내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는 사업 단계별로 질적 수준이 변화하게 된다.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 맵을 작성하여 자원의 위치와 유형, 지역별 편중 정도, 청소년들의 접근도, 연계협력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후 관련 자원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협력 관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 수준에서도 성장해야 한다. 1차년도 시범사업 과업[48]은 상술했듯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2년차 과업[49]으로는 협력 네트워크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원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설정하였다.

이에 정책과제 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 자원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에서는 3-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신뢰성 제고', 3-2.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네트워크와의 연계협력 강화', 3-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지자체 및 교육청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

48) 시범사업지역에서는 자원 발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고, 연구진에서는 GIS,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함.
49) 시범사업지역에서는 분과네트워크 운영, 지자체,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진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양적, 질적 분석을 통해 효과성 검증과 질적 성장을 분석함.

3-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신뢰성 제고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간 신뢰성 제고를 위해 1차년도 시범사업에서는 기초 활동을 전개하였다. 예컨대 몇몇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초대하고 사업에 대한 소개와 상호 협력 사업을 논의하거나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노력을 했다. 그러나 한정적인 자원만으로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였고,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에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자원과 활동가들이 있다. 이들의 발굴과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자원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참여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교류하는 '협력 공동체', '신뢰 공동체'를 지역사회 내에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부천의 경우 작년에 이어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들이 네트워크 파티 2.0을 통해 소통과 교류의 장을 이어갔고, 부천지역 청소년과 활동가 100인을 발굴하고 이들을 소개하는 부천에꿈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역사회에 홍보함으로써 지역 자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처럼 지역사회 자원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출처: 부천에꿈-Facebook. https://m.facebook.com/search/top/?q=%EB%B6%80%EC%B2%9C%EC%97%90%EA%BF%88&ref=content_filter&tsid=0.7906082962992628&source=typeahead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그림 Ⅶ-6 '20년 부천시 네트워크 파티 2.0과 100인의 부천에꿈 홍보물

3-2.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네트워크와의 연계 협력 강화

지역사회 내에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의 사업에 기반 한 네트워크도 있고,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네트워크도 있다. 또한 지역단위, 동 단위나 마을단위에서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수많은 협의회, 연합회, 자치회 등의 네트워크가 있다. 또한 청소년분야에서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청소년시설에서 구성한 네트워크뿐 아니라,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구성한 네트워크, 청소년지도사 협의회 등도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기존의 네트워크보다 후발주자로 새롭게 구성되어 가고 있는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지역사회 자원들의 경우 협의체 참여에 대한 피로도도 있고, 또 다른 유사 네트워크라는 인식으로 시범사업 지역에서도 1차년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도 여전히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기존 네트워크의 상위개념이라기보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기존 네트워크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많은 네트워크 중에서도 특히 마을주민자치회, 마을(교육)공동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네트워크에서는 청소년 분과를 운영하기도 하고, 청소년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네트워크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사업은 각 네트워크의 분과 형태의 부분적인 청소년 사업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서는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진로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활성화와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림 Ⅷ-7]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내 이미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와의 협력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 내용은 인적 교류도 가능할 것이고, 각종 정보의 교류나 공간, 시설 등의 인프라 등의 물적 교류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행사나 축제 등을 함께 기획하고 협력해 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기존 네트워크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어느 한 네트워크만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치를 기반으로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성장과 궁극적으로는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이 연구에서 비전으로 설정한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사회 구현"과도 일맥상통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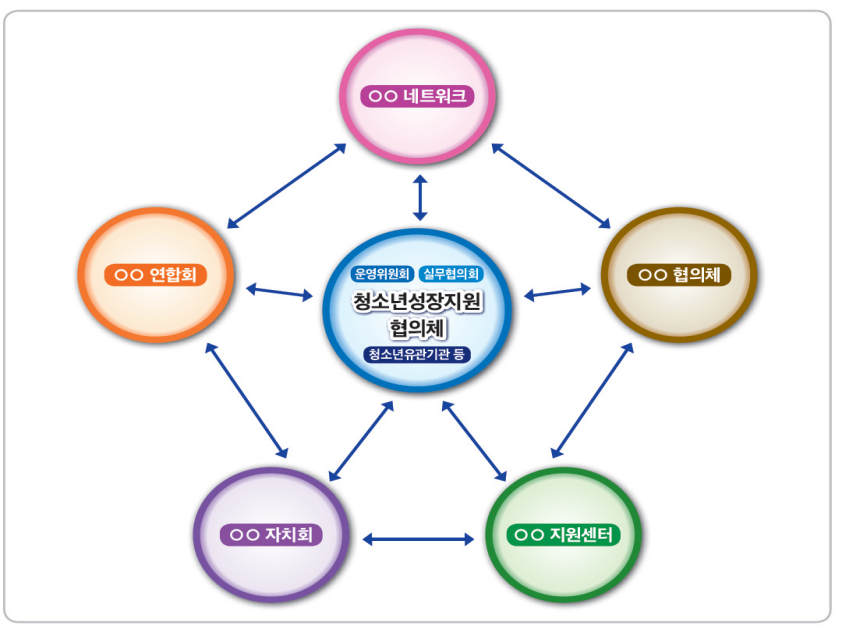


그림 Ⅷ-7 지역사회 내 관련 네트워크와의 협력관계

3-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기본 구성 요소는 행정, 공공 및 민간의 연합체이다. 앞선 3-2 세부추진과제는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네트워크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한편, 3-3의 세부추진과제는 행정영역과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1차년도 시범사업과 정책과제에서는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단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면, 2차년도는 협력관계를 강화 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시범사업 지역 중 유성 지역의 경우 개별 시설에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의 한계를 유성구청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의 MOU 체결을 통해 극복하고, 본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보다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부천지역도 연구원과 MOU를 체결하여 본 시범사업에 관해 적극 협력할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 '부천시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할 예정에 있다. 센터에서는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자원과 학교가 함께하는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곡성 지역은 1차년도에 '곡성군미래교육협력센터'를 설치해 지자체-교육지원청-청소년유관기관 직원들이 각각 센터로 파견되어 서로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올해 7월 '곡성군미래교육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12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재단 조직으로 '미래교육팀', '혁신교육팀'과 '성장지원팀'를 설치하였고, 성장지원팀에는 청소년시설 인력이 채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민·관·학 협력적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이처럼 해가 거듭될수록 지자체-교육지원청-청소년유관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가 강화되고 있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도 3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지원체계 마련

▣ 제안배경 및 정책방향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그간 지역사회 내 지자체, 교육(지원)청 그리고 청소년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환경이 향상되고 있지만,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지역사회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지역사회 내 관련 지원 시스템에 관한 필요가 지속되고 있다.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운영에 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및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전담공무원의 배치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내 관련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운영되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담당인력의 이동이 잦아 관련 사업 운영에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여건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정책과제로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지원체계 마련”으로 설정하였고, 4-1.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4-2. ‘지자체 내 청소년 전담공무원 배치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4-3.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지원체계 마련’ 등 3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4-1.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지원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이다. 청소년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활발해지려면, 다양한 종류와 수준에서의 네트워크가 구축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구성이 현재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예산, 인력 및 제반 여건이 공공기관에 미치지 못해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한 여건 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국내 사례 중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의 혁신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민과 관을 조율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또한 해외 영국의 사례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의 전략으로써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예산을 확보하고, 청소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투자를 유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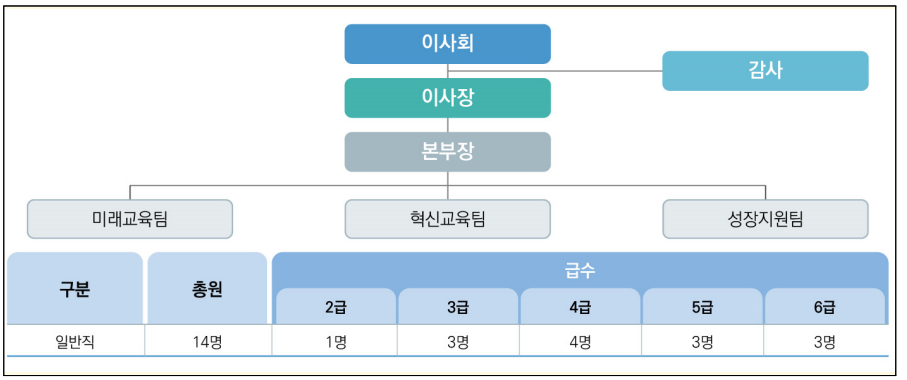
이와 같이 지역 내 기업과의 파트너십 및 공동재단의 설립을 통해 청소년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을 위한 네트워크의 지원이 청소년을 위한 혜택이라기보다 지자체와 투자 기업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협력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 나가거나, 지역사회 기업과의 파트너십 혹은 공동재단의 설립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2. 지자체 내 청소년 전담공무원 배치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청소년시설 및 기관, 단체, 기업, 청소년 관련 주체들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본 연구의 시범사업을 보면,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관계는 차츰 개선되고 있지만,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의 확대와 함께 청소년을 위한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점차 청소년의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전담공무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운영에 있어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업무 연속성의 제한 및 역량 부족과 청소년시설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는 현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청소년 전담공무원의 배치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에서 지역사회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프랑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내 중층적인 연계망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연계하는 실무 역량을 가진 청소년 정책 담당자의 역할은 네트워크의 성장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교 간 연계는 물론이고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 관계에서도 각 기관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조정자로서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필요하다.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전담인력의 역할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 내 네트워크를 진단·평가하고,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를 살피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연계기관 간 연계협력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분류하여 조정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나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



구분	총원	급수				
		2급	3급	4급	5급	6급
일반직	14명	1명	3명	4명	3명	3명

* 출처: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http://gokmg.or.kr/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하여 재구성.

그림 Ⅶ-8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조직도 및 일반직 정원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시범지역인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의 조직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청과 군청의 공무원과 청소년 전담공무원이 함께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덴마크 사례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돕는 구체적인 업무 수행이 지자체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혁신교육을 위한 정책이 교육청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내 청소년 전담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성장지원 전담인력 배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 활성화에서 제시한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담조직 및 전담공무원 확산에 근거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향후 지자체 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전문성을 갖춘 전담공무원이 배치된다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사업 기획과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3. 민 · 관 · 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성장 지원체계 마련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발전적 운영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 내 민 · 관 · 학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민 · 관 · 학 협력체계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예컨대 협의체와 유사한 또 다른 형태의 협의체가 될 수도 있고, 제도적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다. 혹은 지역사회 전반의 협력체계나 행정체계를 지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그룹 형태로 민 · 관 · 학 협력체계를 적용하여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내에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있다, 청소년 관련 지역 활동가나 기업체, 사업체 등 민간 전문가 혹은 민간단체도 있고, 학계 전문가들도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관련 전문가들도 많다. 물론 행정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관의 참여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구축되는 지역에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 · 관 · 학 그룹을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청소년 활동자원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지역 중심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청소년 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경우 시 · 군 · 구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기에 센터가 시범지역과 같은 동일한 형태의 협의체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시 · 군 · 구 단위에서 진행되는 협의체와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혹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은 물론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

표 Ⅶ-6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 관련 조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및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 ·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한편, 중앙차원에서 민 · 관 · 학 거버넌스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예컨대,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민간 전문가, 청소년 관련 학회와 관련 학과 등의 학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의 청소년 활동, 복지 · 상담 관련 지원기관 그리고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정부 기관 등의 전문가 그룹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본 사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면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원형태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단” 혹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중앙 지원단” 등의 중앙단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과 관련된 연구, 매뉴얼제작, 역량강화 연수 등의 사업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관련 법 · 제도적 지원, 행정적 지원 등의 지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확산되어 간다면, 협의체의 양적 · 질적 성장을 위한 컨설팅단이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법령 제·개정	추진시기 단기	추진시기 중장기	주관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체계 마련	1-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을 위한 이념 정립	●		●	지자체, 행안부 여가부
	1-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지자체, 행안부 여가부
	1-3.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	●		지자체, 행안부
2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협의체 운영 활성화	2-1.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		●		지자체, 협의체
	2-2. 지역별 이슈 및 청소년 욕구를 반영한 분과 네트워크 운영		●		지자체, 협의체
	2-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주관기관의 유형에 따른 운영 체계 마련			●	지자체, 협의체 여가부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3-1.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자원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신뢰성 제고		●		지자체, 교육청 협의체
	3-2.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네트워크와의 연계협력 강화			●	지자체, 교육청 협의체
	3-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			●	지자체, 교육청 협의체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지원체계 마련	4-1.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	●		지자체, 기재부 여가부
	4-2. 지자체 내 청소년 전담공무원 배치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	●		지자체, 행안부 여가부
	4-3.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지원체계 마련	●		●	지자체, 여가부 협의체

☑ 국정과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경영목표와의 관련성

1. 국정과제: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
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4-1-2.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지정 운영
   4-4-2.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지자체 청소년 전담조직 및 전담공무원 확산
   □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 □ 지자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4-3-1.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강화
   □ 청소년지도자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지역사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연구원 경영목표: Ⅰ-1-① 융합 및 중장기 연구추진 체제 강화
   Ⅰ-1-② 정책현안 신속 대응 연구체제 강화

그림 Ⅶ-9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정책 과제 추진 계획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민정, 안선영, 박동국 (2018). **혁신교육지구란 무엇인가?.** 서울: 맘에 드림.

경기도 (2018). **경기도기본통계.**

경기도교육청 (2017). **2017 몽실학교 정책마켓 포스터.**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2019). **의정부 몽실학교 리플렛.**

고양시, 고양시청소년재단 (2019). **2019 Goyang Youth Free Zone.** 발간등록 관리번호 GCYF-2019-01-001.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2019).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사업결과보고서.** 내부자료.

고양시청소년재단 (2019a). **2019 고양시청소년재단 운영백서.** 발간등록번호 GCYF-2019-01-002.

고양시청소년재단 (2019b).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사례.** 내부자료.

고양시청소년재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고양시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연구보고 19-R35).

교육부 (2017).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세종: 교육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2020). **2020년 혁신학교(지구) 지원 기본계획(안).** 내부자료.

김 민 (2015a). 유럽청소년복지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2**(1), 169-191.

김 민 (2015b). **프랑스 교육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성공요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49-68.
김 민 (2017).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국가를 꿈꾸며. **월간 교육정책포럼, 288.** 3-5.
김 민, 김현수 (2014). **충청남도 시군 교육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연구.**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김 민, 이영란 (2020).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이 한국교육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 **미래청소년학회지 17**(2), 115-140.
김병옥, 최은수 (2019).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에서 평생교육 부서장과 기관장의 공유리더십, 평생교육 실무자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적 의사소통, 조직효과성, 협력적 거버넌스 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문화연구, 25**(2), 247-272.
나 정, 박은실 (2002). 유아교육 투자우선지역 선정과 투자방안. **유아교육연구, 22**(2), 7-27.
류선정, 나승빈, 김봉선, 정수정, 김성현, 김은혜 외 (2017). **세계 최고의 교육법.** 서울: 이마.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청소년의 활동역량 지표진단지의 표준화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충남: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박선영 (2016). 2000년 이후 유럽연합과 한국의 청소년정책 비교 분석. **청소년학연구, 23**(4), 451-472.
박용주 (2016).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법제처 (2017). **법령 입안·심사 기준.** 세종: 법제처.
보건복지부 (2018). **2018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서울특별시,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2019). **청소년지원협력망 구축을 통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발전방안 연구.** 서울: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2020).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현황 및 2020년도 센터 사업 운영계획.** 미발간 내부자료.

시범사업 사업결과보고서 (202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Ⅱ 사업결과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2019).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성과보고회 사례발표.** 내부자료.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2019).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시범사업 연증 운영 계획서.** 내부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0). **다함께돌봄센터 공간가이드**.

양은일(2016). 2016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자료집.**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안전망의 새로운 변화 모색** (세미나자료집 19-S3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20). 2021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시업 시행기관 공모 공고(제2020-177호).

완주군 (2019). **2020-2023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완주군 (2020). **2020년 새로운 도약, 아동친화도시 2.0 아동 청소년, 군민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완주.** 발간등록번호 77-4720000-000059-10.

유란희 (2018).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 남양주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2), 147-172.

이부련 (2003). 교육지역화를 위한 프랑스의 교육정책과 교육실천. **프랑스학 연구, 26,** 21-41.

이석희, 김상지 (2008). 지역인적자원개발 통합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네트워크 구축 관점에서.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99-417.

이영란 (2008). **국외 교육복지정책 및 관련 법적 기반: 프랑스. 교육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75-119.

이영란 (2010). 프랑스 시테(cite)지역 교육불평등 사례연구. **한국교육사회학연구,**

20(1), 151-178.

이영란 (2011). 프랑스 컬리지 3학년 시민교과목 연구. 주요 재향점과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1**(2), 149-172.

이영란 (2013).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모색: 2010년 우선교육 개혁정책 Eclair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연구, 23**(3), 169-199.

이영란 (2016a). 프랑스 우선교육네트워크 데스노스 REP+ 질적사례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8**(3), 25-50.

이영란 (2016b). 프랑스 교육복지안전망 연구: 2015년 우선교육정책재설립 시행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5**(1), 93-128.

이영란 (2016c). 학교와 지역사회 간 교육복지연계망 연구: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3**(4), 1-22.

이영란 (2018). 프랑스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현황: 교육정책과 지역사회 개발정책의 구조화된 네트워킹. **2018 마을교육공동체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 145-166.

이영란, 김 민 (2017). 프랑스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실태연구: 파리 18구 아미로-쎙프롱 지역의 교육정책과 지역사회 개발정책의 구조화된 네트워킹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8**(1), 183-212.

이주헌, 박치성 (2010). 지역사회서비스 전달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4**(3), 1-35.

이태수 (2004). **교육복지 구현 종합방안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이현정, 김명호, 조동익 (2018). **고양시 산업현황 분석**(현안연구보고서 2018-004). 경기: 고양시정연구원.

이혜영, 류방란, 윤종혁, 천세영 (200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지원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혜영, 박재윤, 황준성, 류방란, 장명림, 이봉주 (2006). **교육복지에 관한 법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정재우 (2020). 포용국가 실현의 첫걸음, 청소년안전망, 새로운 시작과 지역사회의 책무. **경사연리포트, 17.**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진 (2019). **마을교육공동체운동: 세계적 동향과 전망.** 서울: 살림터.

조발그니 (2005). 프랑스 'ZEP'이 한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 보완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육사회학연구, 15**(3), 239-262.

조윤정 (2018).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연구: 몽실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9**(4), 199-227.

조윤정, 이병곤, 김경미, 목정연 (2016).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사례 연구: 시흥과 의정부를 중심으로.**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진해청소년수련관 (2018). **창원시 진해 마을학교 리플렛**.

진해청소년수련관 (2019). **마을에서 행복한 삶을 잇다.** 미간행자료.

최인재, 이윤주, 송민경, 조윤정 (2019).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 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만길 (2000). **21세기 교육복지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승준 (2003). **교육복지투자우선지구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67-382.

희망제작소 (2014).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 경기: 시흥시청.

〈외국문헌〉

Blois-Brooke, C., & Busby, S. (2017). *DreamArts Impact Study. Full report.* http://www.dreamarts.org.uk/wp-content/uploads/All-Together-Now-Full-Report.pdf에서 2020년 8월 15일 인출.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5). *Youth Mattes: next step.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eleuze, G. (1999). **의미의 논리** (이정우 역). 파주: 한길사. (원서 출판 1981)

Dubreuil, B. (2001). *Pedagogies en milieux populaires.* Paris: L'Harttmann.

Glasman, D. (1992). *L'ecole réinventée? Le partenariat dans les zones d'éducation prioritaires.* Paris: L'Harmattan.

Glasman, D. (2001). *L'accompagnement scolaire. Sociologie d'une marge de l'ecole.* Paris: Puf.

Healthy London Partnership (2019a). *Fire Safe & Well : project summary, leaning and out comes.* https://www.healthylondon.org/wp-content/uploads/2019/12/200214_-HLP-Fire-Safe-and-Well-final-report.pdf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Healthy London Partnership (2019b). *HLP: 2015-2020 Highlights and reflections.* https://www.healthylondon.org/wp-content/uploads/2020/06/HLP-2015-2020-Highlight-Report.pdf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Meuret D. (2000). La politique de discrimination positive en France et a l'etranger. A. van Zanten(ed.), *L'ecole, l'etat de savoirs.* Paris: La Decouvert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7). *Young people's well-being: 2017.*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Partnership for Young London (2015). *A vision for Young Londoners to 2025: Invest in young Londoners, young Londoners will in turn invest in London.* London Founders, London Youth & Partnership For Young London.

Provan, K. G., & Kenis, P. (2007). *M*odes of network governance: Structure, management, and effectivenes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2), 229-252.

〈관련 법령〉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곡성군미래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2223,20181227)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전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5305,20190705)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청소년기본법 관련조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undefined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청소년기본법 관련조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천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3401,20190327)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제도.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7010000)에서 2020년 7월 13일 인출.

지방자치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12738,20140603)에서 2020년 7월 13일 인출.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파주시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1532,20191004)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청소년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청소년활동진흥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프랑스 정부 공람과 법령〉

프랑스 고용-사회연대·주거부 (1990). La Circulaire n°90-082 du 9/04/1990. BOEN n°16 du 19/04/1990. 〈Groupe de travail départemental. Dossier RASED〉. 프랑스 고용-사회연대·주거부.

프랑스 교육부 (2003). La Loi n° 2003-400 du 30 avril 2003. Relative aux assistants d'éducation. 프랑스 교육부.

프랑스 노동·사회관계·가족·사회연대부 (2006). Inspection generale de l'éducation nationale: 교육성공을 위한 맞춤 지원프로그램(Programmes personalisés de réussite éducative). 프랑스 노동, 사회관계, 가족, 사회연대부.

프랑스의회 (1989). 초등교육 재설립 프로그램과 방향설정법(La loi d'orientation sur l'éducation: loi n°89-486), 프랑스 의회.

〈사이트〉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http://gokmg.or.kr/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하여 재구성.

꿈길(교육부)소개. http://www.ggoomgil.go.kr/front/intro/intro02.do?rootMenuId=05&menuId=0502에서 2020년 8월 14일 인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2020). 교육지원청소개 〉 교육기관현황 〉 현황. http://www.goeujb.kr/nuri/etc/sub_page.php?pidx=1341562054192.

다함께돌봄 홈페이지. https://dadol.or.kr/biz/biz_system에서 2020년 10월 30일 인출.

바비나니의 네이버 개인블로그. https://m.blog.naver.com/ahlam727/220466645226Wikipedia. Fichier: Paris 18e arrondissement - Quartiers.svg 에서 2020년 8월 07일 인출.

법제처 홈페이지. 입법과정안내. https://www.moleg.go.kr/menu.es?mid=

a10105020000에서 2020년 7월 14일 인출.
부천에꿈-Facebook. https://m.facebook.com/search/top/?q=%EB%B6%80%EC%B2%9C%EC%97%90%EA%BF%88&ref=content_filter&tsid=0.7906082962992628&source=typeahead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세종통계 (2020). 인구. https://www.sejong.go.kr/prog/popule/stat/sub01_0201/list.do에서 2020년 8월 14일 인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마을교육프로그램이란?. https://www.sejong.go.kr/happyedu/damoa/contents/happy/content/content.motion?mnucd=SJMENU0100009에서 2020년 8월 14일 인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비전과 목표. https://www.sejong.go.kr/happyedu/damoa/contents/happy/content/content.motion?mnucd=SJMENU0100045에서 2020년 8월 7일 인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리플릿. https://www.sejong.go.kr/happyedu/damoa/contents/happy/nanum/01/nanum.01.001.motion에서 2020년 11월 25일 인출.
오르후스 지방자치정부 홈페이지. 어린이-청소년분과 안내 페이지. https://www.aarhus.dk/om-kommunen/boern-og-unge/에서 2020년 6월 20일 인출.
오르후스 지방자치정부 홈페이지. https://www.aarhus.dk/om-kommunen/boern-og-unge/arbejde-i-boern-og-unge/paedagogisk-assistentelev/에서 2020년 7월 15일 인출.
오르후스 지방자치정부 홈페이지. 어린이-청소년과 페이지. https://www.aarhus.dk/media/37182/organisationsdiagram-2020.jpg에서 2020년 6월 20일 인출.
오르후스 지방자치정부 홈페이지. https://www.aarhus.dk/media/4157/boerne-og-ungepolitikken.pdf p.7에서 2020년 7월 25일 인출.
오르후스 청소년학교 홈페이지. https://ungiaarhus.aarhus.dk/에서 2020년

7월 10일 인출.
완주 행정지도. http://www.wanju.go.kr/index.wanju?menuCd=DOM_00000010500400500 0에서 2020년 8월 14일 인출.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http://wjedu.or.kr/sub02/sub02_01.php에서 2020년 8월 14일 인출.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http://www.wanjucoop.com/?act=main에서 2020년 8월 14일 인출.
의정부시청 (2020). 정보공개-현황 및 통계-인구현황-인구 및 세대 (전일 기준). https://www.ui4u.go.kr/portal/saeol/jumin/juminStatistic.do?mId=0108040100에서 2020년 8월 8일 인출.
창원시 통계정보시스템(2020). https://www.changwon.go.kr/stat/statRPopulation/list.do?CATEGORY=2020&mId=0202000000
청소년학교법.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17/438에서 2020년 6월 21일 인출.
청소년학교협회 홈페이지. https://ungdomsskoleforeningen.dk/에서 2020년 6월 21일 인출.
청소년학교협회회보. https://vafo.dk/artikel/zezilie-har-ikke-kun-f%C3%A5et-et-job-hun-har-ogs%C3%A5-f%C3%A5et-selvtillid?fbclid=IwAR0-sgkiBScv6G0QsBFy3B5cHlVdFd0wWPV7RMGybisHs_lpbSTxtBtWZzU에서 2020년 6월 21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2019). 201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초중등교육통계편-.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9&menuSeq=3894&publSeq=43&menuCd=81452&itemCode=02&menuId=1_3_1&language=undefined
행정안전부 (2019).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27.101.213.4/index.jsp
Carte: Habitant-Revenue moyens(n.d.). http://www.kelquartier.com/aq

uitaine_gironde_commune_bordeaux_33300-c33063/revenu_moyen.html에서 2020년 8월 2일 인출.

Coop crew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coopcrew.dk/

European Union (2009). *An EU Strategy for Youth – Investing and Empowering.* A renewed open method of coordination to address you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 Brussel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09:0200:FIN:EN:PDF에서 2020년 5월 19일 인출.

European Union (2018). *The European Union Youth Strategy 2019-2027.*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https://minedu.fi/documents/1410845/4274093/VANUPO+EN+2017+final.pdf/7d135bb5-7824-422c-b51f-c9d9fa4f6877/VANUPO+EN+2017+final.pdf.pdf에서 2020년 5월 19일 인출.

Healthy London Partnership 홈페이지. https://www.healthylondon.org/about/our-values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통계청 (2020).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에서 2020년 8월 8일 인출.

L'Atelier parisien d'urbanisme(Apur) (2020). *18ème arrondissement quartier Amiraux Simplon.* https://www.apur.org/cdrom/CD_CUCS_2010/pdf/menu1_cucs/Quartiers/Amiraux%20Simplon/Projet%20de%20territoire.pdf에서 2020년 8월 2일 인출.

L'Atelier parisien d'urbanisme(Apur). https://www.apur.org/cdrom/CD_CUCS_2010/secteur_menu1_4_s07.htm에서 2020년 8월 7일 인출.

Londonfunders 홈페이지. https://londonfunders.org.uk/join/how-join에서 2020년 7월 30일 인출. https://londonfunders.org.uk/what-we-do에서

2020년 7월 30일 인출. https://londonfunders.org.uk/what-we-do/london-funders-e-bulletins/project-groups에서 2020년 7월 30일 인출.

Partnership for young London 홈페이지. https://d401c0eb-3fcb-4f8d-8ede-04ef556b9378.filesusr.com/ugd/3532bf_ae2d661260b54f66b4621e23f469b516.pdf에서 2020년 7월 20일 인출. https://www.partnershipforyounglondon.org.uk/about에서 2020년 7월 20일 인출. https://www.partnershipforyounglondon.org.uk/joinus에서 2020년 7월 30일 인출.

The Guadian (2017. 3. 7.). Youth work is vital for local communities but how do we fund it?. https://www.theguardian.com/social-care-network/2017/mar/07/youth-work-is-vital-for-local-communities-but-how-do-we-fund-it에서 2020년 7월 29일 인출.

The NSPCC (n.d.). https://learning.nspcc.org.uk/child-protection-system/children-the-law#article-top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Wikipedia. Fichier:Paris 18e arrondissement - Quartiers.svg. https://fr.m.wikipedia.org/wiki/Fichier:Paris_18e_arrondissement_-_Quartiers.svg에서 2020년 8월 7일 인출.

Yamin Glenn (2011). Sciences et Techniques Médico-Sociales, 27 janvier 2011, Salle Saint-Bruno. https://www.slideserve.com/yamin/sciences-et-techniques-m-dico-sociales-27-janvier-2011-salle-saint-bruno에서 2020년 8월 7일 인출.

Young Westminster foundation 홈페이지. https://www.youngwestminster.com/ http://www.ywfoundation.com/members/members-hub/에서 2020년 8월 15일 인출. http://www.ywfoundation.com/covid-19-update/에서 2020년 8월 15일 인출.

〈보도자료〉

뉴시스 (2011. 12. 22.). 창원시, 청소년 정책도시로 급부상. https://news.joins.com/article/6962572에서 2020년 7월 10일 인출.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2017. 10. 26.). 세종시, 초등학생 아동권리교육. https://www.sejong.go.kr/bbs/R0079/view.do?nttId=67022에서 2020년 8월 5일 인출.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2018. 04. 09.). 세종시, "아동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https://www.sejong.go.kr/bbs/R0079/view.do?nttId=72111에서 2020년 8월 5일 인출.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2019. 01. 14.).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 우리가 만든다". https://www.sejong.go.kr/bbs/R0079/view.do?nttId=80802&mno=sub02_0401&cmsNoStr=&pageIndex=57에서 2020년 8월 5일 인출.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2019. 06. 05.).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이달 말까지 제안 공모. https://www.sejong.go.kr/bbs/R0079/view.do?nttId=85847에서 2020년 8월 5일 인출.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2020. 06. 10.). '청소년이 사업 제안'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https://www.sejong.go.kr/bbs/R0079/view.do?nttId=B000000023063Wp5uU5p에서 2020년 8월 5일 인출.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2020. 06. 14.). '아동청소년 의회 출범' 아동친화도시 만든다. https://www.sejong.go.kr/bbs/R0079/view.do?nttId=B000000023274Gr3kE2h에서 2020년 8월 5일 인출.

의정부시 보도자료 (2019. 04. 10.). 미래의 주인공 차세대위원회 출범. https://www.ui4u.go.kr/portal/bbs/view.do?mId=0301020000&bIdx=184325&ptIdx=1627에서 2020년 8월 8일 인출.

의정부시 보도자료 (2019. 12. 18.). 의정부시 청소년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

https://www.ui4u.go.kr/portal/bbs/view.do?mId=0301020000&bIdx=191938&ptIdx=1627에서 2020년 8월 8일 인출.

의정부시청소년재단 보도자료 (2020. 01. 03.).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의 주인 청소년운영위원회 16번째 날갯짓. https://www.uiyouth.or.kr/center/main/main.ui에서 2020년 8월 8일 인출.

창원시 보도자료 (2019. 05. 02.). 창원시,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아동친화도시 창원' 추진. https://www.changwon.go.kr/portal/bbs/view.do?bIdx=567762&ptIdx=108&mId=0201020000에서 2020년 7월 10일 인출.

창원시 보도자료 (2019. 11. 03.). 진해청소년수련관 여성가족부 장관상 2개 수상. https://www.changwon.go.kr/portal/bbs/view.do?bIdx=585927&ptIdx=108&mId=0201020000에서 2020년 7월 10일 인출.

창원시 보도자료 (2020. 05. 27.).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촉식 개최. https://www.changwon.go.kr/portal/bbs/view.do?bIdx=635661&ptIdx=108&mId=0201020000에서 2020년 7월 10일 인출.

BBS 뉴스 (2019. 11. 18.). 창원진해청소년참여위원회 '꽃비', 정책제안대회 경남지사상 수상.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0969에서 2020년 7월 10일 인출.

부 록

부록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효과성 조사

응답자 ID [ ] – [ ][ ][ ]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지역사회 내 각종 인적·물적 자원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범사업 참여의 효과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응답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결과는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배경

학교급(해당자만)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성별	1. 남자 2. 여자
생년월	[ ][ ]년 [ ][ ]월 (예: 98년 3월 출생 시 [9][8]년 [0][3]월)
거주지역	( )시, 군, 구

국무총리산하국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사 관련 문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인재 선임연구위원 || ☎ 044-415-2102

문 1.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 2.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어떤 일이든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비슷한 경험들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새로운 것을 찾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공동협력과제에서 구성원들을 도와가며 일을 마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한테도 내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은 끝까지 책임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해야 시민의식이 향상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우리의 노력으로 사회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ABSTRACT

A study on a system to implement policies to support the growth of youth by utilizing local community networks I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system to implement polices to support the growth of youth by networking the resources of local communities so that the various resources and policy services of local communities can be efficiently put together and support the healthy growth of youth. The main elem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In particular, the projects implemented by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the growth of youth, which were reviewed in the first year of this study, were looked at with a focus on what has changed thus far. Meanwhile, the current laws and ordinances were reviewed with the goal of setting a legal foundation and system to implement policies in support of youth's growth in local communities,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laws and systems.

Next, exampl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mong community-based networks to support the growth of youth at home and abroad. Examples were first collected in consultation with experts, classified by the size of the local community and the operator, and those recommended as best practices were shortlisted in each category.

Domestic examples include the projects implemented by Dongjak District and Changwon (Jinhae District), which are networks centered on youth institutions or facilities, the projects by Goyang and Wanju County, which are network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or foundations), and finally, the projects by Sejong and Uijeongbu, which are network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offices of education. Overseas cases were collected from France, UK, and Denmark and implications were drawn.

In this study, a pilot project was carried out for the second consecutive year as part of the efforts to explore a system to support the growth of youth in local communities. The pilot project was implemented in three areas: Gokseong County, Yuseong District, and Bucheon.

In the first year, the main task of the project was to discover the resources available within a local community, organize a council, and establish a system to connect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office of education. In the second year, a subcouncil network was created by reflecting the needs of youth and the issues of the local community, and a project for collaboration was implemented. In addition,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council was pursued, and collabo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office of education was strengthened.

Under the pilot project, those tasks were completed with outcomes drawn up in each of the three areas despite many constraints caused by COVID-19. A network analysis looked at what has changed on the council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year,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were conducted on the effectiveness of participation

in the pilot project.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not only youths but also adul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ject have seen impacts.

Meanwhile, opinions were collected from officials in charge of the pilot project, along with councilors, government officials, academia, and field experts on matters related to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and systems to support the growth of youth and ways to revitalize the council and community networking projects. As for the experts, the overall opinions were obtained through a written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matters that required more in-depth discussions.

The abovementioned research activities and results suggest four policy tasks: 1.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to support the growth of youth in local communities, 2. revitalize the operation of the councils to support the growth of youth in local communities, 3. strengthen cooperative networking among resources to support the growth of youth in local communities, 4. prepare a system to support networks that support the growth of youth in local communities, and 12 detailed action plans.

Keywords: local community network, support the growth of youth, cooperative governance, council to support the growth of youth.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20-R0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

20-R02 청소년·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유민상·최정원·이수정·장혜림

20-R03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오해섭·문호영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최용환·성유리·박윤수·김보경

20-R05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방안 연구 Ⅱ : 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이종원·남화성·정지희

20-R0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20-R06-1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연구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20-R06-2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20-R07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 김경준·김정숙·윤철경

20-R08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송태민

20-R08-1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1_청소년 비만에 대한 비정형 빅데이터 연구 / 송태민

20-R08-2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2_청소년 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정형 빅데이터 연구 / 홍성효

20-R09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승경·임세희·최은영

20-R1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이민희·김진호

20-R10-1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심화분석보고서 / 박환보·주경필

20-R10-2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Ⅱ / 최인재·강경균·송민경·조윤정·김가희

20-R12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20-R12-1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황영식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20-R13-1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1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20-R13-2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2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Ⅲ :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장근영·이동훈·윤철경 (자체번호 20-R1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Ⅲ :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 오은진·장희영 (자체번호 20-R14-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Ⅲ : 청년 이직자 – 총괄보고서 / 김기헌·신동훈·변금선·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Ⅲ : 청년 이직자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헌·신동훈·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Ⅱ : 위기청소년 / 백혜정·임희진·송미경·김양희 (자체번호 20-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Ⅱ : 위기청소년-국내·외 주요 법령 및 건강정책 분석 / 류정희·이상정·박선영·전민경 (자체번호 20-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Ⅱ : 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백혜정·임희진 (자체번호 20-R16-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Ⅰ : 초등학생 / 배상률·이창호·이정림 (자체번호 20-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Ⅰ : 초등학생 – 해외사례 조사 / 정현선·심우민·윤지원·김광희·최원석 (자체번호 20-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Ⅰ : 초등학생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0-R17-2)

연구개발적립금

20-R24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황여정·이정민
20-R24-1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황여정·이정민·김수혜
20-R25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 모상현
20-R26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 김현철

수 시 과 제

20-R18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 이정민·이종원
20-R19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배정희·김기헌
20-R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 황진구·김지연
20-R21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지원 방안 연구 / 이창호
20-R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편 방안 연구 / 김경준·이종원·박정배
20-R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 김희진·백혜정

수 탁 과 제

20-R27 청소년 비즈쿨 활성화를 위한 고교교육 정책 연계방안 연구 / 강경균·안재영·황은희
20-R28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김기헌·유민상·변금선·배정희
20-R29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 김영한
20-R29-1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요약본) / 김영한
20-R30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양미석
20-R3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5종)
20-R31-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1~2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20-R31-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3~4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20-R31-3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5~6학년용)/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20-R31-4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중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20-R31-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고등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20-R32 2019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양미석
20-R33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적용방안: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 성윤숙·양미석
20-R34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20-R34-1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초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20-R34-2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중학교) / 성윤숙·이윤소
20-R34-3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고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20-R35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성윤숙·이윤소

20-R36 어울림 자유학기 프로그램(5종)
20-R36-1 어울림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놀러와! 어울림 세상)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선보라·이혜옥·이윤소
20-R36-2 자유학기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 성윤숙·배은정·이윤소
20-R36-3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사회) / 성윤숙·선보라·이윤소
20-R36-4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도덕) / 성윤숙·이혜옥·이윤소
20-R36-5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국어)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이윤소
20-R37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 성윤숙
20-R3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개선 용역 / 김형주·김혁진·김정주
20-R3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기헌·유민상·변금선·배정희
20-R40 학교 안·밖 청소년정책 협력체계 구성 및 연계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남화성
20-R41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유진
20-R41-1 꿈과 친구사이 :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매뉴얼 / 이유진
20-R42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 연구 / 최창욱·문호영
20-R4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사례관리사 및 자립업무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 김지연·백혜정·이상정
20-R44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20-R45 청소년 교육.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방안 / 김영지·황세영·손진희·박명선·박종원·조기영
20-R46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연구 / 최창욱·좌동훈
20-R47 농업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농촌 청소년 실태조사 / 오해섭·최홍일
20-R48 성남시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연구 / 황진구·남화성
20-R49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연구 / 황진구·좌동훈
20-R50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최창욱
20-R51 지역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 최용환·곽창규·이성규
20-R52 수원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용환·김보경
20-R53 20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20-R54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연구 / 최인재·송원일·박지원
20-R55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 최인재·송원일·배수인
20-R56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의 성장관리 및 성과측정 방안 연구 / 이정민·성유리·김혜원
20-R57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20-R57-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20-R57-2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20-R5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직업계고 혁신 지원 방안 연구 – 특성화고 혁신지원 운영모형 개발 / 강경균·김영만·김용성
20-R5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 김희진·임희진·정윤미
20-R6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 개발 / 연보라·최정원·김성은
20-R61 학업중단 현황 및 지원 방안 / 김성은·박하나·김현수
20-R62 환경 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연구 / 장근영·김기헌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20-S01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30)
20-S0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성과보고회(1.31)
20-S03 2020년 제2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밖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1.22)
20-S04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1.31)
20-S05 제25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강원국 교수의 매력적인 글쓰기 특강(4.23)
20-S06 제26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김병완 작가의 퀀텀 독서법 및 책쓰기 특강 (4.21)
20-S07 2020년 제29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안(6.19)
20-S08 2020년 제30회 청소년정책포럼 :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7.17)
20-S09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실무 역량 강화 연수(초등, 중등, 고등)(7.28)
20-S10 2020년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7.28)
20-S11 제3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묻다 〈별점 인생〉(8.5)
20-S12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1)
20-S13 제3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Z세대의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스타마켓을 중심으로(8.26)
20-S14 2020년 제32회 청소년정책포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의 방향(8.18)
20-S15 청소년 이슈 관련 네트워크 분석(8.25)
20-S16 2020년 제33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안밖 청소년 협력체계 구성 연계 방안(9.23)
20-S17 제3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10.6)
20-S18 2020년 대안학교 관리자 협의회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10.5)
20-S19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10.5)
20-S20 2020년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10.21)
20-S21 2020 유로필로조피 서울 대회(11.12~13)
20-S22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11.13)
20-S23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11.18)

20-S24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 사이버폭력 정책 동향 및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방향 모색)(12.18)
20-S25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11.28)
20-S26 제9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11.20)
20-S27 제36차 청소년정책포럼: 우리나라 한국아동·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12.1)
20-S28 제37차 청소년정책포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체계의 과제와 방향(12.8)
20-S29 제1차 10대청소년목소리포럼: 코로나로 세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이상을 쏘다 -동고동락, 각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12.5)
20-S30 제38차 청소년정책포럼: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12.17)
20-S31 제39차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12.22)
20-S32 진로위기학생 유형별 진로교육 실천과제 성과보고회 자료집(11.27)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9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9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9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99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9호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예정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1호 :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발전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2호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3호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방안 모색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4호 :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5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계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6호 : 「청년기본법」제정 전·후 정책형성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7호 :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8호 : 청년종합실태조사(안)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9호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NYPI Bluenote 통계 49호 :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50호 :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51호 :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관련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5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연구보고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인 쇄 2020년 12월 28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82-7 93330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연구보고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2827 93330
ISBN 979-11-5654-282-7 93330